





# 中央語文學會

## <第32次 全國 學術大會>

- ◇ 기 획 주 제 : 다문화사회와 한국어교육
- ◇ 일 시 : 2014년 5월 17일 (토) 13:30-18:00
- ◇ 장 소 : 남서울대학교 화정관 5513, 5514, 5515  
(개회식, 폐회식)강의실
- ◇ 주 최 : 중앙어문학회, 남서울대 교양과정부
- ◇ 후 원 : 남서울대학교

中央語文學會

(<http://www.cakoll.or.kr>)



## <第32次 中央語文學會 全國 學術大會>

- ◇ 기 획 주 제 : 다문화 시대의 한국문화
- ◇ 일 시 : 2014년 5월 17일 (토) 13:30-18:00
- ◇ 장 소 : 남서울대학교 화정관 5513, 5514, 5515  
(개회식, 폐회식)강의실

### ◇ 전체 식순

#### ◇ 전체 일정 / 사회 : 이명현(중앙대)

- (1) 회원등록 (13:30~13:50)
- (2) 개회사 (13:50~14:00) / 회장 : 안기수(남서울대)
- (3) 기조발제 (14:00~14:30)
- (4) 분과별 발표 (14:30~17:40)
- (5) 종합토론 (17:40~18:00)
- (6) 폐회식 및 저녁 만찬 (18:00~)



## < 第32次 中央語文學會 全國 學術大會 >

### <한국어교육학/국어학 분과 발표: 다문화사회와 한국어교육>

사회: 박선옥(한성대) / 장소: 화정관 5515강의실

시 간	발 표 주 제		발 표 자	토 론 자
14:00~14:30	기조발제	한국어교육의 제 문제에 대한 고찰	라혜민(선문대)	
14:30~15:00	공문서 작성법 교육 자료 개발을 위한 행정기관 공문서 진단 및 평가		최윤(강원대)	조재형(전남대)
15:00~15:30	총체적 언어 접근에 기반한 아동 대상 한국어 문식성 교육 방안 - 다문화 가정 아동을 중심으로		최은지 (원광디지털대 학교)	황희선(중앙대)
15:30~16:10	(중간휴식)			
16:10~16:40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활용한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 동료 피드백 활동을 중심으로 -		김현주(중앙대)	노정은(경희대)
16:40~17:10	한국어 쓰기에서 교사의 구두 피드백과 문자 피드백에 대한 고급 학습자의 인식 및 반응 양상 연구		임형옥(고려대) 이인혜(한성대)	형재연(한양대)
17:10~17:40	프레지(prezi)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박현주(중앙대)	조형일(경인교대)
17:40~18:00	(종합토론) 좌장: 장영희(남서울대)			

- 발표 15분 토론 15분입니다.
- 발표순서와 제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第32次 中央語文學會 全國 學術大會 >

## <고전문학 분과 발표>

사회: 강우규(남서울대), 김성문(중앙대) / 장소: 화정관 5513 강의실

시 간	발 표 주 제	발 표 자	토 론 자
14:00~14:30	(기조발제)		
14:30~15:00	<여우설화(狐說話)>에 나타난 여우신성관념의 내셔널러티(nationality)와 <신라신화(新羅神話)>의 여우신(狐神) 배제 원리	권도경(세명대)	이명현(중앙대)
15:00~15:30	女鬼의 變移樣相 考察 - 說話와 都市怪談의 比較를 通하여 -	진수현(성결대)	김성문(중앙대)
15:30~16:10	(중간휴식)		
16:10~16:40	가람 時調論에 대한 小考	강관진(중앙대)	박영준(경민대)
16:40~17:10	古典 敘事文學에 나타난 술 研究	유권석(남서울대)	김정민(경희대)
17:10~17:40	<醉遊浮碧亭記>와 <南炎浮洲志>의 比較 考察	유상숙(중앙대)	강우규(남서울대)
17:40~18:00	(종합토론) 좌장: 이찬욱(중앙대)		

- ★ 발표 15분 토론 15분입니다.
- ★ 발표순서와 제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第32次 中央語文學會 全國 學術大會 >

## <현대문학 분과 발표>

사회: 류찬열(중앙대) / 장소: 화정관 5514 강의실

시 간	발 표 주 제	발 표 자	토 론 자
14:00~14:30	(기조발제)		
14:30~15:00	패러디를 통한 추리소설의 영역 확대 - 김재희와 윤해환의 작품을 중심으로	오혜진(남서울대)	손종업(선문대)
15:00~15:30	손창섭의 신문연재 소설에 나타난 남녀관계와 결혼 서사 - <세월이 가면>과 <결혼의 의미>를 중심으로-	강유진(중앙대)	조은정(성균관대)
15:30~16:10	(중간휴식)		
16:10~16:40	서울, 가난과 상경의 서사 - 박완서와 조선작을 중심으로 -	용석원(건국대)	오창은(중앙대)
16:40~17:10	최인호 소설의 경계적 인물 연구	김지혜(가천대)	전상기(성균관대)
17:10~17:40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저학년을 위한 자기소개서 쓰기' 수업 방안 고찰	한승우(중앙대)	김낙현(경희대)
17:40~18:00	(종합토론) 좌장: 허만욱(남서울대)		

- ◆ 발표 15분 토론 15분입니다.
- ◆ 발표순서와 제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목 차

## 〈기초발제〉

한국어 교육의 제 문제에 대한 고찰 .....	라혜민 /	3
---------------------------	-------	---

## 〈국어학〉

공문서 작성법 교육 자료 개발을 위한 행정기관 공문서 진단 및 평가 .....	최 윤 /	17
총체적 언어 접근에 기반한 아동 대상 한국어 문식성 교육 방안 -다문화 가정 아동을 중심으로- .....	최은지 /	41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활용한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 동료 피드백 활동을 중심으로 - .....	김현주 /	57
한국어 쓰기에서 교사의 구두 피드백과 문자 피드백에 대한 고급 학습자의 인식 및 반응 양상 연구 .....	임형옥 · 이인혜 /	71
프레지(prezi)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	박현주 /	89

## 〈고전문학〉

<여우설화(狐說話)>에 나타난 여우신성관념의 내셔널리티 (nationality)와 <신라신화(新羅神話)>의 여우신(狐神) 배제 원리 .....	권도경 /	99
女鬼의 變移樣相 考察 - 說話와 都市怪談의 比較를 通하여 - .....	진수현 /	121
가람 時調論에 대한 小考 .....	강관진 /	135
古典 敘事文學에 나타난 술 研究 .....	유권석 /	151
<醉遊浮碧亭記>와 <南炎浮洲志>의 比較 考察 .....	유상숙 /	165

## 〈현대문학〉

패러디를 통한 추리소설의 영역 확대 - 김재희와 윤해환의 작품을 중심으로 - .....	오혜진 /	169
손창섭의 신문연재 소설에 나타난 남녀관계와 결혼서사 - <세월이 가면>과 <결혼의 의미>를 중심으로 - .....	강유진 /	181
서울, 가난과 상경의 서사 - 박완서와 조선작을 중심으로 - .....	용석원 /	195
최인호 소설의 경계적 인물 연구 .....	김지혜 /	207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저학년을 위한 자기소개서 쓰기' 수업 방안 고찰 .....	한승우 /	219



第32次 中央語文學會 全國 學術大會

## 기조발제

한국어 교육의 제 문제에 대한 고찰  
라혜민(선문대학교)



# 한국어 교육의 제 문제에 대한 고찰

라혜민(선문대학교)



## 한국어 교육의 제 문제에 대한 고찰

2014. 05. 17

선문대학교  
라혜민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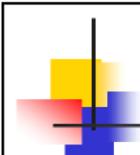
1. 한국어 교육의 시대 구분
2. 한국어교육기관의 현황과 문제
3. 한국어교사의 현황과 문제
4. 한국어학습자의 현황과 문제
5. 한국어교재의 현황과 문제
6. 한국어시험의 현황과 문제
7. 발전방향 및 제언



## 1. 한국어 교육의 시대 구분

- 1단계(초창기: 1959년-1975):한국어학당 창립
- 2단계(변화기: 1976-1988): 경제성장, 학습자 증가
- 3단계(발전기: 1989-2000): 올림픽 성공 영향, 대  
학교육기관의 증가와 확대
- 4단계(도약기: 2001-현재): 학습자 증가, 한국어  
능력시험(1997),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2002)  
시행정착

➔ 백봉자(2001) 경제성장, 기관설립, 교재개발과  
관련하여 시대 구분함



## 1. 한국어 교육의 시대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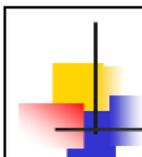
- 1단계(태동기: 1897-70년대 말): 러시아  
동방학 연구소 설립(1897)
- 2단계(도약기: 80년대-90년대 중반): 국력  
신장, 대학기관 설립 증가
- 3단계(안정적 성장기:90년대 중반-현재):  
기관 지역별 교육과 교재의 다변화

➔ 조항록(2003) 교재개발과 기관설립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함



## 2.1 한국어교육기관의 문제

- 과도한 학생 유치 경쟁으로 각 대학 간 불신이 증폭됨
- 등록금 등에 대한 과다한 인하로 대학운영이 심각한 상태임
- 한류 붐에 따라 교과과정, 교육여건, 교사 수급 등의 구체적인 준비 없이 우후죽순처럼 한국어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수준 있는 대학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 3. 한국어교사의 현황과 문제

- 1990년대까지는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사양성과정에 의해 한국어교사를 배출
- 1997년부터 대학원에 한국어교육전공과정이 개설되어 현재 17개 대학원이 운영중임
- 학부과정은 현재 6개 대학에 개설됨
- 학부 45학점, 대학원 18학점, 학점 은행제 45학점, 교사양성과정 120시간 수료 후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응시



### 3.1 한국어교사의 급증

-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2006년부터~ ):  
1급, 2급, 3급으로 구분  
이 중에 소수의 외국인 교사도 있음  
→ 각 급에서 약 5년 후에는 1급씩 상승됨
- (2006년 868명, 2007년 639명, 2008년 842명, 2009년 1,037명, 2010년 2,200명, 2013년에는 3천 명 이상이 됨)
- 2014년 1월 국립국어원 발표에 따르면 13,000여 명이 됨 (양적 증가에 대한 대응체계 미비함)
- 현재는 1급 자격증 소지 교원도 있음



### 3.2 한국어교사의 급증에 따른 문제점

- 2009년 후반부터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한국어교육 기관 수의 감소 추세 (140여 개에서 120개 이하로)
- 한국어교사는 급증하고 있음
- 일자리 부족과 비정규직법 적용으로 인한 1인당 강의 시수 제한 및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됨 [1인당 최대 강의 시수가 14 시수로 제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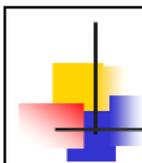


## 4. 한국어학습자의 현황과 문제

- 1950년대 24명
- 2005년 22,526명
- 2006년 32,557명
- 2007년 49, 270명
- 2008년 71,531명
- 2011년 88,468명(유학생 수 최대 기록함)
- 2012년 84,711명
- 2013년 81,847명 정도로 추산됨

➔ 따라서 2011년부터 유학생 감소 추세임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보 기준)



## \* 다문화가정 자녀란?

- 국적은 한국인
- 모국어는 한국어
- 어머니는 외국에서 온 이주자이므로,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해야 함
- 각 지역의 다문화센터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 일반기관)



### \* 중도입국자란?

- 한국남성과의 결혼으로 한국에 온 여성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 입양[초청비자]의 형태로 한국사회에 옴
- 제도권 교육에서 이탈됨
- 한국사회 적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음



###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 입양형식을 통한 갑작스러운 한국 입국
- 한국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함
- 본국에서의 가족 해체 경험
- 교육의 공백 상태도 있었음

➤ 단순히 한국어능력 부분만 검토 되어서는 안 되고,

➤ 성장 과정 및 가정 구성이 평범하지 않고 매우 복잡했다는 점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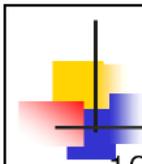
➤ 특별 교육과 상담 지도 실시 요구됨



## 중도입국 다문화 가정 자녀 수

- 2011 국회 다문화가정 정책연구포럼 조사  
→ 3,500명 이상
- 2010 법무부 파악 중도입국 청소년 5,726명
- 2010 행정안전부 조사 6,971명

→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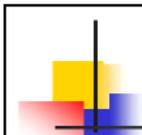
## 5. 한국어교재의 현황과 문제

- 1990년대까지 소수에 불과했던 한국어 교재가  
2010년 현재는 수백 권으로 늘어남
- 교재의 종류를 보면 대학기관에서 개발한 교재가 주  
류를 이루며 통합교재, 4영역별 특수교재로 구분이  
됨
- 교재개발이 너무 서지교재 위주로 개발되고 있음



## 5. 한국어교재의 현황과 문제

- 현재 정부연구비 지원교재는 크게 교육과학기술부 지원교재와 국립국어원 지원교재로 나눌 수 있음
- 국립국어원에서는 2008년 몽골어, 중국어, 태국어, 타갈로그어로 교재를 출판함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미개발된 제2언어권인 아랍어, 스페인어, 네팔어, 몽골어 판 교재를 지원, 개발했는데 다른 나라의 언어교육교재에 비해 한국어 학습을 위한 매체교육 교재가 전무한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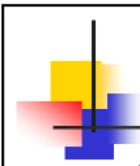
## 6. 한국어시험의 현황과 문제

- 한국어교육의 역사가 1959년부터라고 볼 때 현재까지 51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국가차원의 외국인 특례입학시험에 대한 제도가 불명확한 상태임. KLPT와 TOPIK 을 실시 중
  - (현행 토픽 3급으로 대학 입학)
- 영어권의 토플, SAT
- 일본의 EJU
- 중국의 HSK 등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제도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6. 한국어시험의 현황과 문제

- 현행 토픽 3급의 대학 입학 자격 기준은 대학 수학 능력이 안 되는 학습자를 대학에 입학시키는 현상으로 인해 대학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되기도 함
-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실력 검증에도 큰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대학의 자율권을 부여한 입학 기준을 마련토록 할 필요도 있음(과의 특성을 고려한)
- 한국학생 감소로 인한 대학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 수 확보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



## 7. 발전방향 및 제언

### 7.1 국가차원의 전반적인 한국어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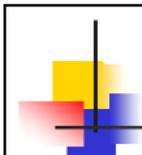
- 외국인유학생 관리인증 역량제 실시로 부실 대학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 우수 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강화
- 한국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심어주어 국가와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이 필요함



## 7. 발전방향 및 제언

### 7.2 국가차원의 한국어교사 지원정책

- 각 대학에서의 전임 임용으로 정규직 보장 확대  
→ 책임 있는 교육이 되도록 지원해야 함
- 세종학당 파견 강화  
[2007년에는 6개국의 17개 → 2013년에는 120개]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KOICA 한국어 교육사업 등을 더 확대해야 함



## 7. 발전방향 및 제언

### 7.3 향후 학습자 모집을 위한 제언

- G 20 사업의 활성화로 국가차원에서 국제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해야 함
- 친 한국 유학생 동문회를 인터넷 상에 만들어 외국 유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음
- 유학생 유치에 위한 국제교류사업을 강화
- 유학생의 생활 편의를 위한 특별상담 관리 실시
- 한국어를 수단으로 하는 국제교류사업을 강화



## 7. 발전방향 및 제언

- 국제장학프로그램[GKS]를 개선하여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 **현재학부 3개 대학, 대학원 11개 대학이 교육 중**
- 우수 자비 유학생 지원 사업 강화[월 50만원 지원]
-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이탈 방지를 위한 공동 관리 시스템 개발
- 유학생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최소 아르바이트 시간 조정 및 분야 확대
- 한국유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반한파가 아닌 친한파를 육성해야 함



## 7. 발전방향 및 제언

### 7.4 향후 교재개발을 위한 제언

-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나 정부부서의 교재개발은 현 지교재 개발에서 벗어나 시청각 교재, 인터넷을 활용한 교재, CD-ROM 교재, mp3 활용 음성자료의 개발 지원으로 이어져서 교재의 다양화, IT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정규교육 학습자인 학문목적 학습자와 비정규교육 학습자[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독습자]를 위한 다양한 교재, 실질적이고 학습에 효율적인 교재가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 7. 발전방향 및 제언

### 7.5 한국어시험의 법제화, 체계화

- 정부가 TOPIK 3급으로 외국인 특례입학규정을 만들어 공식화함으로써 모든 대학이 일괄적인 제도하에서 입학시험을 치르도록 함
- 대학 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고, 나아가 전체적으로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봄
- 대학입학 후 강의이해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현상이 두드러짐, 이에 후속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음



## 7. 발전방향 및 제언

- 우수 외국인 인재를 유치 육성한 후 국가 인재로 등용
- 외국 교육 기관과의 복수 학위제 개설, 강화
- 유학생 유치국가의 다변화 필요
- 외국 교육기관 및 인적자원과의 NETWORK 구축도 필요
- 국제화 의지를 현실화해서 진정한 글로벌화를 실현

第32次 中央語文學會 全國 學術大會

## 국어학

공문서 작성법 교육 자료 개발을 위한 행정기관 공문서 진단 및  
평가

최 윤(강원대)

총체적 언어 접근에 기반한 아동 대상 한국어 문식성 교육 방안 -  
다문화 가정 아동을 중심으로

최은지(원광디지털대학교)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활용한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 동료 피드백 활동을 중심으로 -

김현주(중앙대)

한국어 쓰기에서 교사의 구두 피드백과 문자 피드백에 대한 고급  
학습자의 인식 및 반응 양상 연구

임형욱(고려대) · 이인혜(한성대)

프레지(prezi)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박현주(중앙대)



# 공문서 작성법 교육 자료 개발을 위한 행정기관 공문서 진단 및 평가\*

최 윤(강원대학교)

## 1. 서론

2005년 1월 27일 법률 7368호로 ‘국어 기본법’이 제정된 후,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언어 사용 능력 신장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일반인과 공공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어문 규정에 맞는 문장을 쓰게 하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sup>1)</sup> 공문서의 오류를 바로 잡고 행정 용어를 순화하는 작업 등이 그 일례이다.<sup>2)</sup>

특히 국립국어원에서는 2009년에 국립국어원 내에 ‘공공언어지원단’을 신설하고 이 부서를 중심으로 공공언어<sup>3)</sup>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해마다 공공언어 사업을 확장하여 진행하는 것은 공공언어(공공기관의 언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라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매우 큼을 의미하는 것이다. 황용주 (2011)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언어 개선 정책은 각 지역의 국어책임관,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지원단, 각 지방 국어문화원, 민간단체<sup>4)</sup>의 활동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만든 정책명이나 문서 등을 보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관행적으로 써 오던 어려운 한자어, 좀 더

\* 이 연구는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이 2013년 수행한 ‘2013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및 진단 자동화 도구 개발 사업’을 바탕으로 한 것임.

1) 국립국어원 및 각 지역 국어문화원에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단체 및 특수 단체에서 강의를 요청하면 주제에 맞게(언어폭력, 언어순화, 맞춤법, 글쓰기 등) 강사를 파견한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문서 바로쓰기’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도 역시 해당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좌를 구성한 후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한다. 또한,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국어문화학교’에 ‘공문서 바로쓰기’ 온라인 교육 과정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2) 양영희 외(2011: 479)

3) ‘공공언어’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조태린 2010: 383)’ 또는 ‘공공의 장에서 해당 업무자가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생산한 구어와 문어(민현식 외 2010: 3)’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조태린(2010: 383-384)에서는 이 가운데 가장 공적인 유형에 속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언어라고 하였다.

4) 황용주(2011)에서는 민간단체 활동으로 한글학회의 한글사랑지원단 활동과 민간에서 진행한 우리말 가꿈이 사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이유로 사용하는 외래나 외국어, 어문 규범을 지키지 않은 표현 등 부적절한 언어 사용 실태를 보았을 때 공공언어는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2010년부터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을 위한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공언어 중에서도 특히 공문서 작성 실태를 평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우수 행정기관을 포상하고 각 행정기관에 개선 사항을 전달한다.

이 연구는 2013년에 실시한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사업(2013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및 진단 자동화 도구 개발 사업)을 통해 마련된 공문서 작성 평가 자료를 정리하여 공문서 작성 실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교재 개발 연구를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공문서 작성법 교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 2. 선행 연구

공공언어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로는 서정목(1991), 장소원 외(2000), 김문호(2001), 박경현(2002, 2007), 정희원(2003), 조태린(2006) 등이 있는데 주로 어문 규범, 어휘 사용, 문법 및 문장의 오류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하였고 제민경(2010)에서는 텍스트 차원을 추가하여 민원 서식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동안 막연하게만 지적해 왔던 공공언어 사용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기본 자료가 되었던 문서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아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하기에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오랜 기간 일관된 평가 기준으로 진행된 연구가 아니었기에 각각의 논의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 연구의 바탕이 되었던 사업은 민현식 외(2010)을 시작으로 민현식 외(2011)을 거쳐 구본관 외(2012)까지 계속되었다. 이 연구 사업들을 비교하여 연구 사업의 발전 방향을 알아보도록 한다.

민현식 외(2010)에서는 공공언어의 장르를 [표 1]과 같이 법률문, 보도 자료, 공고문, 기사문, 식사문, 안내문의 6개로 분류하고 이를 진단하기 위한 진단 항목을 [표 2]와 같이 체계화하였다.

[표 1] 공공언어의 장르

공공언어의 장르	하위 유형
법률문	입법예고, 고시, 조례, 약관 등
보도 자료	일반 보도 자료, 해명 보도 자료 등
공고문	공모 공고, 인사 공고 등
기사문	
식사문	인사말, 축사, 신년사, 기념사 등
안내문	기관 안내, 업무 안내 등

[표 2] 민현식 외(2010)의 공공언어 진단 항목

영역	요소	항목
1. 정확성 (범용 기준)	1.1. 표기의 정확성	1.1.1.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1.2.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1.1.3.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1.2. 표현의 정확성	1.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1.2.2.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1.2.3.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2. 소통성 (가중치 기준)	2.1. 공공성	2.1.1.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2.1.2.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2.1.3.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2.2. 정보성	2.2.1.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2.2.2.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2.2.3.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2.3. 용이성	2.3.1.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2.3.2.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2.3.3.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또한, 이러한 진단 항목을 실제 진단 과정에 적용하기 위해 진단 지표(PDDI, Public Document Diagnosis Index)로 체계화하였는데, 이는 정확성 400점 만점, 소통성 600점 만점의 총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정확성의 6개 진단 항목은 아래와 같은데, A에서 E까지의 5개 등급으로 항목별 진단을 실시한 후 이를 4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또한, 소통성의 9개 기준은 정확성에 비해 다소 복잡한 지표 환산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민현식 외(2010)에서 공공언어의 장르별로 소통성을 진단할 때, 각각의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확성과 달리 소통성의 진단 기준은 모든 공공언어 범주에 동일한 배점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확성과 마찬가지로 9개의 진단 기준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계산되며, A에서 E까지의 5개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이 점수에 공공언어의 범주별로 상이한 가중치를 반영한 뒤, 그 합을 일정한 수식에 따라 6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표 3] 민현식 외(2010)의 정확성 영역 배점 방식

요소	항목	배점	수식
1.1. 표기의 정확성	1.1.1.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00	등급별 점수 부여
	1.1.2.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100	
	1.1.3.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100	
1.2. 표현의 정확성	1.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100	
	1.2.2.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100	
	1.2.3.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100	
각 정확성 영역 합계		600	$C = \text{SUM}(G_{1.1.1} : G_{1.1.6})$
PDDI Correctness Criteria		400	$\{(C \times 0.666) + 0.4\}$

[표 4] 민현식 외(2010)의 소통성 영역 배점 방식

요소	항목	배점	수식	가중치
2.1. 공공성	2.1.1.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100	등급별 점수부여	$= G'$ $\times \text{가중치 변동값}$
	2.1.2. 고압적 · 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100		
	2.1.3.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100		
2.2. 정보성	2.2.1.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100		
	2.2.2.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100		
	2.2.3.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100		
2.3. 용이성	2.3.1.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100		
	2.3.2.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100		
	2.3.3.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100		
각 소통성 영역 합계		변동값	$C = \text{SUM}(G'_{2.1.1} : G'_{2.1.6})$	
PDDI Intelligibility Criteria		600	$C' = \{\text{SUM}(G'_{2.1.1} : G'_{2.1.6}) \times \alpha\} + \beta$	

[표 4]에서 보도 자료의 가중치는 설문 조사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부여한 가중치(P)와 전문가들이 부여한 가중치(E)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다.

[표 5] 소통성 영역의 가중치 수식

세부 항목 내용	가중치 수식 $I = \{G_{\text{세부항목}} \times (P_{\text{가중치}} + E_{\text{가중치}})\}$	배점 (I보도 자료)
2.1.1.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I1 = \{G_{2.1.1} \times (2.34 + 4.00)\}$	634
2.1.2. 고압적 · 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I2 = \{G_{2.1.2} \times (2.69 + 4.29)\}$	698
2.1.3.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I3 = \{G_{2.1.3} \times (2.46 + 4.43)\}$	689
2.2.1.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I4 = \{G_{2.2.1} \times (2.58 + 4.57)\}$	715
2.2.2.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I5 = \{G_{2.2.2} \times (2.62 + 3.86)\}$	648
2.2.3.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I6 = \{G_{2.2.3} \times (2.69 + 4.29)\}$	698
2.3.1.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I7 = \{G_{2.3.2} \times (2.83 + 3.86)\}$	669
2.3.2.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I8 = \{G_{2.3.2} \times (3.02 + 3.14)\}$	616
2.3.3.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I9 = \{G_{2.3.3} \times (3.12 + 4.43)\}$	755
	만점	6,122
I 합계	$\{6,122(I\text{보도 자료}) \times 0.098(\alpha)\} - 0.044(\beta)$	600

이렇게 개발한 진단 도구(진단 항목)<sup>5)</sup>을 실제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보도 자료 평가에 적용한 연구가 민현식 외(2011)인데, 이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기관 40곳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16곳의 보도 자료 4건씩을 선정하여 진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현식 외(2011)에서는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였다.

5) 2013년 연구 이전의 연구에서는 '진단 도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진단 자동화 도구' 개발에 따라 용어의 혼동이 우려되므로 [표 2] 전체는 '진단 기준', [표 2]의 각 항목은 '진단 항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칭한다.

[표 6] 2011년 중앙행정기관의 진단 결과

등급	점수	해당 기관
1등급 (7곳)	총점 960점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재청,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통계청
2등급 (28곳)	총점 940점 이상 960점 미만	행정안전부, 통일부, 법무부, 기상청, 특허청,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수산물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토해양부,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조달청, 방위사업청, 보건복지가족부, 소방방재청, 국가보훈처, 해양경찰청, 국방부
3등급 (5곳)	총점 940점 미만	관세청, 산림청, 병무청, 외교통상부, 경찰청

[표 7] 2011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진단 결과

등급	점수	해당 기관
1등급 (3곳)	총점 940점 이상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2등급 (9곳)	총점 930점 이상 940점 미만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3등급 (4곳)	총점 930점 미만	전라남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뒤 이어 구분관 외(2012)에서는 민현식 외(2011)와 같은 방식을 따르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사항을 적용하여 ‘행정기관 공공언어의 진단’을 실시하였다. 주요 수정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중앙행정기관에 ‘국무총리실’을 추가하여, 중앙행정기관 41곳, 광역 지방자치단체 16곳의 총 57곳의 행정기관의 보도 자료를 진단한다.
- ② 2011년 진단에서는 기관별로 4건씩의 보도 자료를 선정하여 진단하였는데, 진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 진단에서는 기관별로 10건씩의 보도 자료를 진단한다. 이를 전반기 7건, 후반기 3건으로 나누어 진단한다.
- ③ 2011년 진단에서는 민현식 외(2010)에서 개발한 15개 진단 항목, 가중치 적용 방식, 배점 방식 등을 사용하였는데, 2012년 진단에서는 진단 대상이 크게 늘어남을 고려하여 진단 항목을 7개로 축소하고 가중치도 적용하지 않는다.
- ④ 2011년 진단에서는 세부 진단 항목별로, 등급 간 점수를 5점씩 차등하여 부여하였는데, 2012년 진단에서는 10점씩 차등하여 부여한다.

구분관 외(2012)에서는 2차에 걸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이 진단 결과를 등급화하였다.

[표 8] 2012년 중앙행정기관의 진단 결과

등급	점수 (700점 만점)	해당 기관(순위순)
1등급 (3곳)	총점 650점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2등급 (31곳)	총점 600점 이상 650점 미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기상청, 법제처, 병무청,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검찰청,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교육과학기술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중소기업청, 국방부, 통일부,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
3등급 (7곳)	총점 600점 미만	국세청, 국무총리실, 조달청,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표 9] 2012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진단 결과

등급	점수 (700점 만점)	해당 기관(순위순)
1등급 (2곳)	총점 635점 이상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2등급 (8곳)	총점 615점 이상 635점 미만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3등급 (6곳)	총점 615점 미만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민현식 외(2010)에서는 그동안 연구자들의 연구 방향에 따라 달랐던 진단 기준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진단 기준을 마련하였고, 여기에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 일반인과 전문가 설문을 통해 진단 항목별 가중치까지 적용하였다. 하지만 마련된 진단 기준과 가중치를 모두 활용하여 진단하면 진단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실제로 진단 기준과 가중치를 모두 반영한 민현식 외(2011)에서는 기관당 4건(총 224건)의 문서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행정기관의 문서 작성 실태를 평가하여 기관의 순위를 정하기에는 진단 대상 문서의 양이 적었다. 또한 이 사업은 1명의 연구자가 아닌 다수의 연구진이 진행하게 되는데, 소통성 부분의 평가에서는 평가에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본관 외(2012)에서는 정확성 부분은 모든 항목을 진단하였지만 소통성 부분의 평가는 ‘2.3.2.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항목만 진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진단의 효율성, 평가의 객관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3장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 3. 연구 방법(세부 진단 방법 및 절차)

#### 3.1. 진단 대상 기관 및 진단 대상 문서 수집

구본관 외(2012)에서 진단 대상 문서의 수를 이전 연구보다 많이 늘렸지만 평가를 받는 기관에서는 보다 많은 문서를 점검하여 진단의 객관성을 높여주기를 희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수렴하여 각 기관 별로 20건의 문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2013년에 새로 개편된 행정기관을 바탕으로 아래 [표 10]과 같이 진단 대상 기관을 확정하였다. 아래와 같이 중앙행정기관 42곳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서 생산한 보도 자료 20건씩을 선정하여, 총 1,180건의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했다.

[표 10] 진단 대상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42곳  (실, 부, 처, 청, 위원회)	부 (17)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정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처 (3)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 (17)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위원회 (5)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본 연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는 1차 연구가 종료된 후 기관별로 순위 및 개선사항을 통보하여 2차 진단 시 개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각 회차의 진단에서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의 생산 시기도 통일했다. 먼저 1차 진단에서는 각 기관마다 6월 문서 4건, 7월 문서 4건, 8월 문서 2건, 총 10건을 선정하여 진단을 완료하고, 2차 진단에서는 10월 생산 문서 5건, 11월 문서 5건, 총 10건을 선정하여 진단했다.

다음으로, 59곳의 행정기관별로 10건씩의 보도 자료를 선정하는데, 진단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보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 ① 1차 진단의 대상이 되는 보도 자료의 생산 시기는 2013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이때, 문서 생산 시기의 분포도와 중간 보고 시기 조율을 위하여 6월 문서 4건, 7월 문서 4건, 8월 문서 2건으로 나누어 수집한다.
- ② 2차 진단의 대상이 되는 보도 자료의 생산 시기는 2013년 10월 9일 이후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정한다. 이때, 문서 생산 시기의 분포도와 중간 보고 시기 조율을 위하여 10월 문서 5건, 11월 문서 5건으로 나누어 수집한다. 단, 10월 생산 문서가 5건이 되지 않을 때는 11월 문서로 충당하여 진단하며 11월 생산 문서가 5건이 되

지 않을 경우에는 10월 문서로 총당하여 진단한다. 또한 해당 기간에 생산된 보도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기관의 경우에는 10월 9일 이전으로 생산 시기의 범위를 확장한다.

- ③ 해당 행정기관이 직접 생산한 보도 자료만을 선정한다. 다시 말해, 상위 기관에서 생산한 보도 자료를 게시한 한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기관에 따라서는 하위 부서별로 보도 자료를 게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선정 대상에 포함한다.
- ④ 보도 자료의 분량은 첨부 파일을 제외한 본 내용이 A4 1매 이상 3매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단, 게시된 보도 자료가 적을 경우에는 3매 이상의 보도 자료도 허용한다.
- ⑤ 첨부 파일로 제시된 보도 자료는 한글 파일(.hwp) 형태로 수집하여 인터넷 문서(.html)로 변환한 후 진단한다. 게시판에 직접 올린 보도 자료는 복사하여 한글 파일(.hwp)로 저장한 후, 인터넷 문서(.html)로 변환하여 진단한다.
- ⑥ 보도 자료의 내용은 대국민 정보 공개 및 안내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때, 지나친 기관 홍보나 기관 해명(입장 표명)의 목적을 지닌 보도 자료는 제외한다.
- ⑦ 다른 조건이 비슷할 경우, 조회 수가 높은 보도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보도 자료 선정의 우선순위는 내용이나 형식이 유사할 경우, '분량', '조회 수', '시기(최근)'의 순에 따른다.
- ⑧ 해당 행정기관의 누리집에 대국민용으로 공개된 것들만을 수집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수집한 590개의 보도 자료를 중앙행정기관 42곳과 광역지방단체 17곳의 순서로 목록화하되,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였다.

- ① 중앙행정기관 42곳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순으로 제시하되, 생산 시기가 빠른 보도 자료를 먼저 제시한다.
- ② 각 보도 자료에 제시된 연번은 해당 보도 자료 고유의 번호로 이후에 진단 결과를 제시하는 데 활용한다.
- ③ 1차 진단 시 각 기관의 6월 생산문서는 001~004, 7월 생산문서는 005~008, 8월 생산문서는 009~010으로 목록화한다. 단, 해당 월의 보도 자료가 부족한 기관의 경우는 빠진 문서의 번호를 비워둔다.
- ④ 2차 진단 시 각 기관의 10월 생산문서는 001~005, 11월 생산문서는 006~010으로 목록화한다. 단, 10월 생산 문서가 5건이 되지 않을 때는 11월 문서로 총당하여 진단하며 11월 생산 문서가 5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0월 문서로 총당하여 진단한다. 또한 해당 기간에 생산된 보도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10월 9일 이전 생산 문서로 진단하며 뒷번호로 번호를 부여한다.
- ⑤ 개별 보도 자료의 분량이 달라서 생기는 진단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절 수를 함께 제시하고, 실제 진단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 배점한다.

이렇게 수집한 문서 목록을 일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2차 진단 대상 문서 목록(부분 제시)

생산 기관	보도 자료 제목	연번	생산 일자	음절 수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제5차 GCF 이사회에서 GCF 사무국 출범 일정을 발표.	1	2013.10.10.	1,422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확대.	2	2013.10.11.	1,473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3	2013.10.18.	712
		한국-말레이시아 양자 통화스왑 체결.	4	2013.10.20.	512
		제8차 아세안 등 고위공무원 대상 금융정책 연수 실시.	5	2013.10.28.	1,110
		예산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공고.	6	2013.11.1.	1,765
		현오석 부총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와 면담.	7	2013.11.11.	790
		문화시설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8	2013.11.11.	635
		고려시대 편년사료 종합 서비스 신규로 제공.	9	2013.11.14.	1,032
		현오석 부총리, 버거 미하이 헝가리 경제부 장관 면담.	10	2013.11.25.	1,356
	미래창조과학부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긴급통신용번호지정.	11	2013.10.10.	949
		전파연구원 말레이시아 문교육 수행.	12	2013.10.15.	1,524
		우크라이나 국가주파수센터와 MOU 체결.	13	2013.10.17.	780
		900MHz대역 하향조정 추진.	14	2013.10.23.	936
		몽골에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준공	15	2013.10.25.	745
		최문기 장관 창조경제 외교를 위해 유럽 방문.	16	2013.11.04.	1,467
		과천과학관-단국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	17	2013.11.08.	1,015
		인터넷 서비스 해킹 취약점 평가해 공개한다.	18	2013.11.12.	1,461
		국립광주과학관 개관식 개최.	19	2013.11.14.	1,332
		창직프로그램시상.	20	2013.11.21.	1,494
		.			
		.			
		.			
		590			

3.2. 보도 자료 진단 도구 및 세부 진단 규정

[표 12] 본 연구의 진단 도구

1. 정확성	1.1. 표기의 정확성	1.1.1.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1.2.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1.1.3.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1.2. 표현의 정확성	1.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1.2.2.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1.2.3.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2. 소통성	2.3. 용이성	2.3.2.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본 연구에서는 구본관 외(2012)의 진단 도구(항목)를 따랐다. 이유는 진단 보도 자료의 수가 총 1,180건으로 민혁식 외(2011)의 15개 항목을 모두 사용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소통성 영역에 해당하는 진단 항목들은 위 [표 12]의 2.3.2.을 제외하고는 객관적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연구원의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

하였다.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배제하고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항목에 초점을 두어 객관성을 높임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객관성 확보는 물론 진단의 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 2.3.2.의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는 순화어를 진단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각 항목의 배점을 100점으로 두고 총 700점 만점으로 개별 보도 자료에 점수를 부여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진단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본 틀은 구분관 외(2012)를 따랐다.

① 1.1.1.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이 항목은 문서에 맞춤법이 맞지 않는 표기를 한 경우가 해당된다. 맞춤법뿐만 아니라 표준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도 1.1.1. 항목에서 진단하였다. 또한 문장 부호의 오류도 이 항목에서 진단하였다.

- 오자 및 오키도 이 항목에서 진단한다.
- 문장부호의 잘못된 사용도 진단한다.  
예) ‘공공언어 진단’ → ‘공공언어 진단’
- 낱자 표기 뒤에 온점이 잘못 찍힌 경우 진단한다.  
예) 2013. 8. 24 → 2013. 8. 24.
- 낱자 표기 시 일관성을 지키지 않은 것도 진단한다.  
예) 2013. 8. 24일 → 2013. 8. 24. 혹은 2013년 8월 24일
- 연도 줄임을 위한 기호(·)의 잘못된 사용도 진단한다.  
예) ‘13. 8. 24. → ‘13. 8. 24.
- 가운뎃점 사용이 지나친 경우 진단한다.  
예) 협·단체 → 협회·단체
- 표제어로 올라와 있는 단어를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표기한 경우 진단한다.  
예) 국내·외 → 국내외
- 제목에서 수사적으로 사용된 문장부호는 지적하지 않는다.
- 표제어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른다.
- 하나의 보도 자료 안에서 같은 사항이 여러 번 진단되는 경우는 ‘중복’으로 표시하고 1회만 진단한다.

② 1.1.2.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이 항목은 단어나 문장의 띄어쓰기를 잘못된 경우 진단하는 항목이다. 한글 맞춤법 중 제5장 띄어쓰기에 따르며 표제어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한다.

- 명사 나열의 띄어쓰기의 경우 진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명사 합성이 과도하여 의미 파악이 어려울 경우 진단한다.  
예) 여수고정익항공대장 → 여수 고정익 항공 대장
- 의존명사를 띄어 쓰지 않은 경우 지적한다. 단, 하나의 보도 자료에서 동일한 의존명사 에 대해 띄어쓰기가 잘못된 경우 이를 ‘중복’으로 표시하고 1회만 진단한다.  
예) 기여한바 → 기여한 바
- 낱자 표기의 띄어쓰기는 지적한다.  
예) 2013.8.24. → 2013. 8. 24.  
8월24일 → 8월 24일
- 한 칸을 띄어야 할 곳에서 두 칸 이상을 띄는 경우 지적한다.

③ 1.1.3.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를 지켰는가?

이 항목은 국어 4대 규범 중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진단 기준으로 설정한 항목이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에서 들어와 국어 어휘로 정착한 말을 표기하는 규범이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 어휘를 로마자로 표기하기 위한 규범으로 상호 간의 공통적인 특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래어 표기법에 관해서는 외래어, 외국어 어휘 표현이 정확한지, 인명이나 지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점검하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해서는 2002년에 수정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표기되었는지를 점검한다.

④ 1.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이 항목은 공공언어에 쓰인 어휘가 의미에 부합하게 선택되었는가를 진단하기 위한 항목이다. 즉, 사용된 어휘의 의미가 필자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적절한 것인가, 맥락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된 것인가를 진단하는 것이다. 이 항목은 ①에서 다룬 ‘한글 맞춤법’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철자가 유사하여 생긴 오류 중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잘못된 철자 표기에 대해서는 표기의 정확성에 관한 문제로 다룬다. 그러나 철자가 유사하여 생긴 오류 중 표준국어대사전에 모두 등재된 ‘헛갈리는’ 단어 사이에서 일어난 단어 선택의 문제는 이 항목의 어휘 선택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나가다/나아가다’, ‘치하/위로’, ‘계재/계시’, ‘반증/방증’, ‘증대/증진’와 같은 예가 있다. 또한 의미는 통하지만 맥락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선택한 경우도 이 항목에서 진단한다. 예를 들어, ‘이슈를 발굴해 → 이슈를 찾아내’가 있다.

⑤ 1.2.2.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이 항목은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문장 성분들 간의 관계가 정확하고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항목이다. 문장 성분의 호응, 성분의 중복, 과도한 생략의 문제를 중심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진단하였다.

- 필요한 성분 생략                      • 주어 생략                                      • 목적어 생략
- 필요한 내용 생략                      • 불필요한 성분 삽입
- 부자연스러운 문장 접속              • 과도한 문장 접속
- 접속 오류(대등 접속에서 앞뒤 성분이 다른 경우)
- 문장 접속 오류(연결어미로 이어진 선행절과 후행절의 접속이 잘못된 경우도 이 항목에서 진단)
- 부적절한 연결 어미 사용              •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오류
- 주술 호응 오류                          • 문장 호응 오류                              • 어순 오류
- 동일 표현 반복                          • 동일한 조사의 반복 사용
- 부적절한 조사 사용, 잘못된 조사 사용
- 필요한 조사 생략                      • 과도한 조사 생략                              • 서술어 어간 생략
- 서술어 생략                              • 필요한 서술어 생략

- ‘서술어 생략’의 경우, 하나의 보도 자료 안에 여러 번 반복될 때에는 1회로 계산한다.  
예) 마련하기로 합의 → 합의함 / 적극 참여 중 → 참여 중임
- 오류 내용 기술 시, ‘서술어 어간 생략’과 ‘서술어 생략’을 구분한다.  
예) 논의할 계획 → 논의할 계획임 : 서술어 어간 생략  
    ~로 문의 → ~로 문의하기 바람 : 서술어 생략
- 간결성이 중요한 보도문의 특성상을 고려하여, 문장이 주어 없이 명사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서술어 생략’으로 다루지 않는다.
- 명사화 구성이나 명사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보도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 명사 나열의 경우를 제외하고 절의 접속에서 선행절이 접속 어미로 끝나는 경우에 한해, 후행절의 서술어 문제를 서술어 생략이나 서술어 어간 생략으로 다룬다.  
예) 등록청구서에 기명날인 외에 서명에 의한 본인확인 방식을 추가하여 채권자의 등록업무절차를 간소화 → 등록청구서에 기명날인 외에 서명에 의한 본인확인 방식을 추가하여 채권자의 등록

업무절차를 간소화함

- 제목과 부제는 예외로 한다.
- ‘-하다’가 붙어 용언으로 쓰이는 어휘가 ‘-하다’ 없이 사용되는 경우는 문법상 오류이지만, 이는 보도 자료의 특성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반점을 사용해야 한다.  
예) 이와 관련, 민원수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  
그중 J물산 대표 이 모씨를 ‘12.09.25.구속, 나머지 업체에 대하여서도 ~
- 보도 자료의 특성상 문장이 길더라도, 글머리를 달리 구분하여 제시한 경우는 과도한 문장 접속으로 다루지 않았다.
- 부적절한 조사 사용과 잘못된 조사 사용은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적절성과 정확성의 차원에서 판단한다.  
예) 이번 봉사활동을 통하여 수형자들에게는 ~ 출소 후 사회적응력을 향상하는 기회가 되고 ~ → 이번 봉사활동을 통하여 수형자들에게는 ~ 출소 후 사회적응력을 향상하는 기회가 되고 ~ : 부적절한 조사 사용  
미취업자과정은 온라인 수강생(연간300명)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생의 선수학습으로써, 재직자과정은 온라인 수강생(연간300명)과 오프라인 이수생의 보수교육으로써 운영된다. → 미취업자과정은 온라인 수강생(연간300명)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생의 선수 학습으로써, 재직자과정은 온라인 수강생(연간300명)과 오프라인 이수생의 보수교육으로써 운영된다. : 잘못된 조사 사용

⑥ 1.2.3.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이 항목에서는 우리말답지 않은 문장 표현을 진단한다. 지나친 피동·사동 표현이나 번역 투 표현, 과도한 관형화 구성이나 명사화 구성 등을 진단한다. 이 역시 구분관 외 (2012)의 진단 기준과 다르지 않다.

- 과도한 명사화 구성
- 과도한 관형화 구성
- 불필요한 피동·사동 표현
- 번역 투 표현
- 어색한 수 표현
- 어색한 한자 표현
- 동어 반복 표현
- 기타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

⑦ 2.3.2.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이 항목에서는 공공언어를 접하는 사람들이 쉽고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항목이다.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에 맞더라도 독자로 하여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면 진단하였고 순화어의 대상이 되는 용어도 이 항목에서 진단하였다.

이 항목에서의 점검 대상은 ‘어조’까지도 포함되나 문서 내에서 ‘어조’의 오류<sup>6)</sup>가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진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번 진단에서는 ‘용어’까지만 진단하였다.

6) 어조의 오류 진단은 어조의 일관성에 관한 진단으로서, ‘하십시오체’를 썼다면 일관되게 ‘하십시오체’를 쓰고 높임말을 썼다면 일관되게 높임말을 썼는가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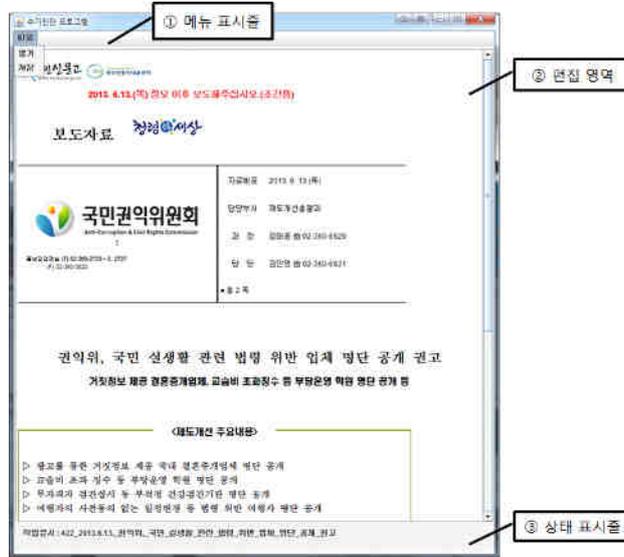
- 한자나 영어가 한글에 대한 병기가 아닌 원어로 쓰여 있는 경우 진단한다. 단, 이를 한글로 표기했을 때 의미가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라면 진단하지 않는다.
- 예) 서울시 → 서울시  
 長官 → 장관(長官)  
 FM → 주파수 변조 (진단하지 않음)
- 원어가 약자인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원어를 풀어 써준다.
- 예) FTA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 순화어인 경우 국립국어원 순화어 자료집에 의거 ‘순화한 용어만 쓸 것’에 해당 하는 사항만 진단한다.
- 예) 글로벌 → 세계화, 국제화 (순화한 용어만 쓸 것. 진단함.)  
 매뉴얼 → 설명서, 안내서, 지침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만 쓸 것, 진단하지 않음.)  
 스포츠 → 운동 (순화 대상 용어와 순화한 용어를 모두 쓸 수 있음. 진단하지 않음.)
- 과도한 줄임말로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 진단하였다.
- 예) 한수원 → 한국 수력 원자력  
 해경청 → 해양경찰청
- 바르게 썼다 하더라도 단어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 예) UX/UI이해 → 용어 설명 필요

### 3.3. 진단 자동화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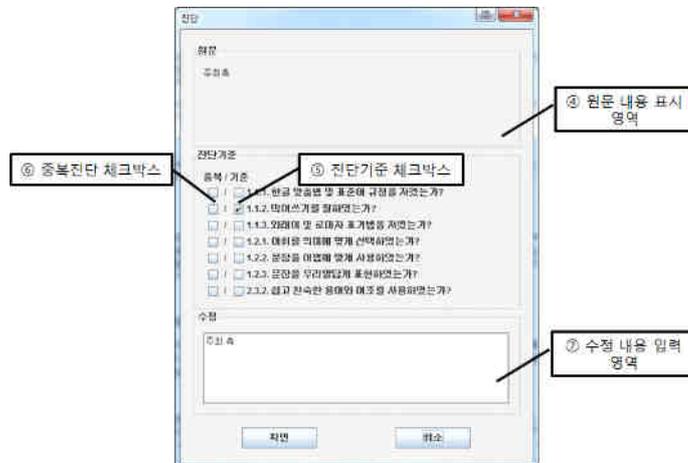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진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단 자동화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진단 자동화 도구는 크게 ‘문서 진단 도구’와 ‘자동 진단 도구’, ‘문서 변환 및 결과 출력 도구’로 나뉜다. 각 자동화 도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논의에서 제외하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 3.3.1. 문서 진단 도구

문서 진단 도구의 화면은 보기 화면과 진단 입력 화면으로 나뉜다. 보기 화면은 진단 대상 문서를 열어 보여주고, 이를 실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화면이다. 진단 내용을 등록할 때는 보기 화면의 편집 영역에서 대상이 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바로 수정하는 것이 아닌, 진단 입력 화면으로 넘어가게 구성되어 있다. 진단 입력 화면에서는 진단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하는 과정을 갖는다. 진단을 등록하면 보기 화면에 진단 내용이 반영된다.



[그림 13] 진단 도구의 보기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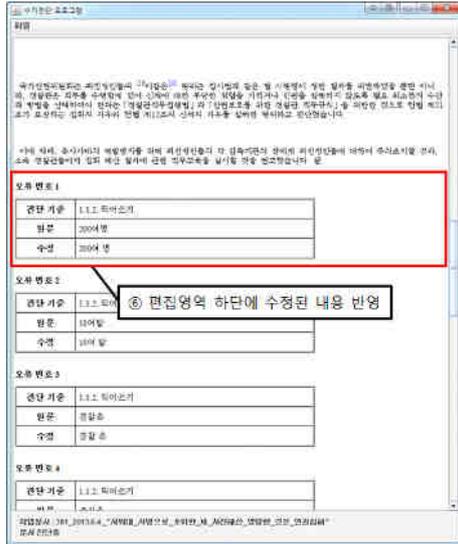


[그림 14] 진단 도구의 진단 입력 화면

[그림 1]과 [그림 2]에 보이는 보기 화면과 진단 입력 화면의 각 부분 설명은 아래와 같다.

- ① 메뉴 표시줄: 진단 문서를 열거나 진단 내용을 저장
- ② 편집 영역: 진단 문서를 보여주고 사용자가 실제 진단을 실행하는 영역
- ③ 상태 표시줄: 현재 작업문서의 파일명과 작업 상태를 표시
- ④ 원문 내용 표시 영역: 진단 대상이 되는 원문을 나타내는 영역 (수정 불가. 단, 그림 파일을 진단 등록하는 경우에는 원문 내용 표시 영역 수정 가능)
- ⑤ 진단 기준 선택 상자: 진단 기준을 표시
- ⑥ 중복 진단 선택 상자: 한 문서 내에서 동일한 진단이 있었는지 중복 여부를 표시
- ⑦ 수정 내용 입력 영역: 진단 대상을 올바르게 수정하여 입력하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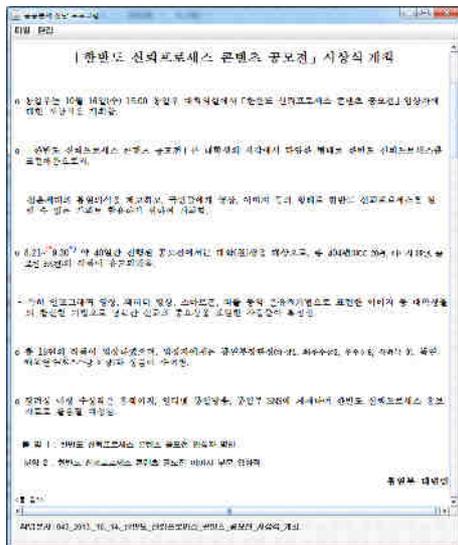
오류 항목과 중복 유무를 선택하고 수정 내용 입력 부분에 수정 내용을 입력하면 아래 [그림 3]과 같이 문서의 하단부에 수정 내용이 입력된다.



[그림 15] 진단 수정 사항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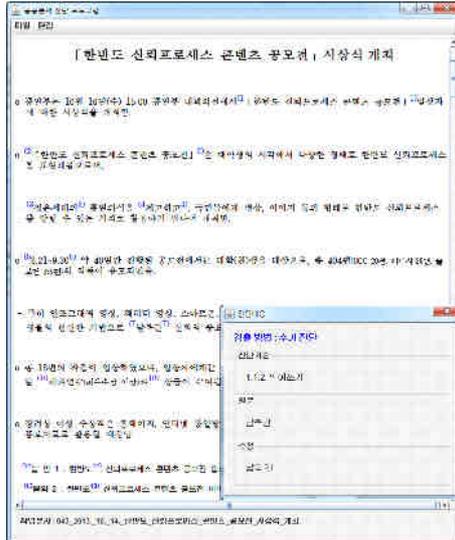
### 3.3.2. 자동 진단 도구

한글 프로그램을 보면 맞춤법 등의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 빨간 줄을 그어 오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비슷한 기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번 진단 자동화 도구에는 ‘자동 진단 도구’가 추가되었다. 자동 진단 도구는 컴퓨터 언어 처리 중 자연언어 처리에 대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오류로 보이는 것들을 [그림 4]와 같이 표시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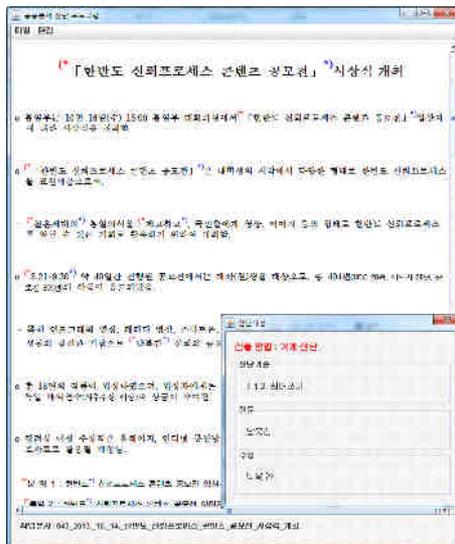
[그림 16] 학습 전 자동 진단 도구(기계 진단) 적용 예시

[그림 4]를 보면 진단 초기에는 자동으로 진단되는 항목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동 진단 도구는 수기 진단을 완료하면 수기 진단한 내용을 자동으로 학습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진단이 계속되면 자동 오류 진단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림 17] 수기 진단

[그림 5]는 사용자가 수기로 진단한 내용이며 이러한 수기 진단이 반영되면 다음 [그림 6]과 같이 학습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계 진단(자동 진단)을 수행한다.



[그림 18] 학습 후  
자동 진단 도구(기계 진단) 적용  
예시

3.3.3. 문서 변환 및 결과 출력 도구

진단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면 원하는 결과를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어 진단 자료를 분석하기에 용이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보도 자료별 진단결과’, ‘보도 자료별 순위’, ‘진단 항목별 진단 결과’ 등을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었다.<sup>7)</sup>

4. 진단 결과

이번 장에서는 진단 결과를 제시하고 결과에 따라 공문서 작성법 교육 자료의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4.1. 진단 항목별 오류

각 진단 항목별 진단 결과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항목별로 1,000음절당 오류 개수를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를 보면 1차 진단과 2차 진단 후 진단 결과를 통해 정확성 부분에 관한 오류를 수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여 문서 총점 및 기관 총점을 산출하였다.

①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000음절당 오류 개수	1차 진단	2차 진단	등급 구분	점수 환산
0	135개	187개	A	100
0 <X ≤ 1	100개	109개	B	90
1 <X ≤ 2	179개	158개	C	80
2 <X ≤ 3	87개	74개	D	70
3 <X	86개	62개	E	60

②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1,000음절당 오류 개수	1차 진단	2차 진단	등급 구분	점수 환산
0	79개	54개	A	100
0 <X ≤ 1	55개	33개	B	90
1 <X ≤ 2	132개	122개	C	80
2 <X ≤ 3	119개	116개	D	70
3 <X	202개	265개	E	60

③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1,000음절당 오류 개수	1차 진단	2차 진단	등급 구분	점수 환산
0	554개	553 개	A	100
0 <X ≤ 4	33개	37 개	B	90

7) 이 결과물들은 연구 사업의 특성상(제시할 자료의 양이 많고, 결과를 제시할 경우 전체 행정기관의 순위가 드러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않는다.

④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1,000음절당 오류 개수	1차 진단	2차 진단	등급 구분	점수 환산
0	477개	513 개	A	100
$0 < X \leq 1$	55개	39 개	B	90
$1 < X$	55개	38 개	C	80

⑤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1,000음절당 오류 개수	1차 진단	2차 진단	등급 구분	점수 환산
0	167개	195 개	A	100
$0 < X \leq 1$	106개	116 개	B	90
$1 < X \leq 2$	150개	154 개	C	80
$2 < X$	164개	125 개	D	70

⑥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1,000음절당 오류 개수	1차 진단	2차 진단	등급 구분	점수 환산
0	384개	377 개	A	100
$0 < X \leq 2$	148개	151 개	B	90
$2 < X \leq 4$	55개	62 개	C	80

⑦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1,000음절당 오류 개수	1차 진단	2차 진단	등급 구분	점수 환산
0	281개	253 개	A	100
$0 < X \leq 2$	209개	226 개	B	90
$2 < X \leq 4$	97개	111 개	C	80

위 진단 항목별 진단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1차 진단 대상 문서보다 2차 진단 대상 문서의 오류가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차 진단 이후 1차 진단의 결과와 총평, 개선 사항 등을 각 기관별로 전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의 문서를 진단하여 그 것을 각 기관에 공지함으로써 기관 스스로 바른 공문서 작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공문서 바로쓰기 교육 현장에 나가 보면 문서 생산자들은 공문서 작성 실태 개선 의지가 높다. 따라서 효과적인 교육 교재를 만들어 배포하고 교육한다면 공문서 작성은 물론 정책명이나 표지판, 간판 등 공공언어 전반에 대한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4.2. 진단 항목별 오류 비교

각 진단 항목별 진단 결과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항목별 1,000음절당 오류 개수를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1차 진단 결과에 비해 2차 진단 결과에서 1,000음절당 오류 수가 거의 비슷하거나 줄어든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어휘 의미’, ‘맞춤법 및 표준어’, ‘외래어 로마자’ 항목에서 두드러지게 줄었다.

[표 16] 항목별 1,000음절당 오류 수의 변화

비고	1차 진단			2차 진단			증감 (㉠-㉡)
	총 음절 수 (10개 보도 자료)	총 오류 수	1,000 음절당 오류 수(㉠)	총 음절 수 (10개 보도 자료)	총 오류 수	1,000 음절당 오류 수(㉡)	
맞춤법 표준어	711,797	1,037	1.4568	678,282	755	1.0836	-0.3732
띄어쓰기	711,797	1,688	2.3715	678,282	1,977	2.9147	0.5432
외래어 로마자	711,797	46	0.0646	678,282	43	0.0634	-0.0012
어휘 의미	711,797	161	2.2619	678,282	95	0.1401	-2.1218
문장 어법	711,797	963	1.3529	678,282	791	1.1662	-0.1867
우리말답게	711,797	411	0.5774	678,282	402	0.5927	0.0153
용어와 어조	711,797	618	0.8682	678,282	684	1.0084	0.1402

공문서 작성법 교재에 반영하기 위해 오류의 정도를 파악하여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 [표 14]과 같다.

[표 17] 진단 항목별 오류 총계

진단항목	1차	2차	총계	비율	순위
①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037	755	1,792	18.52%	2
②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1,688	1,977	3,665	37.87%	1
③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46	43	89	0.92%	7
④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161	95	256	2.65%	6
⑤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963	791	1,754	18.12%	3
⑥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411	402	813	8.40%	5
⑦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618	684	1,302	13.45%	4
총계	4,924	4,747	9,671	100%	

이를 보도 자료의 분량을 고려하여 환산하면 [표 15]과 같다.

[표 18] 보도 자료의 분량에 따른 오류 개수

진단 항목	전체 오류	기관당 오류 (59곳)	1건당 오류 (1,177건)	1,000음절당 오류 (1,390,079음절)
①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792	30.372개	1.522개	1.289개
②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3,665	61.949개	3.114개	2.637개
③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89	1.508개	0.076개	0.064개
④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256	4.339개	0.218개	0.184개
⑤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1,754	29.729개	1.490개	1.262개
⑥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813	13.780개	0.691개	0.585개
⑦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1302	22.068개	1.106개	0.937개
총계	9,671	163.745개	8.217개	6.958개

59곳의 기관별로는 한 기관당 평균 163.745개의 오류를 범했으며, 1,177건<sup>8)</sup>의 보도 자료별로는 하나의 보도 자료당 평균 8.217개의 오류를 범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도 자료 한 건당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오류가 1.522개, ‘띄어쓰기’ 오류가 3.114개,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 오류가 0.076개, ‘어휘 의미 관련’ 오류가 0.218개, ‘문장 어법 관련’ 오류가 1.490개, ‘우리말다운 문장 관련’ 오류가 0.691개,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 관련’ 오류가 1.106개 지적되었다.

### 4.3. 진단 결과에 따른 교재 개발 방향

정확성 평가 항목만을 보면 다른 항목에 비해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의 오류가 다른 항목의 오류보다 많이 지적되어 앞으로 이 항목들에 대한 보완 및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오류가 심한 상위 4개의 항목들에 대한 세부 결과와 이에 따른 교재 개발 방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 4.3.1. 띄어쓰기

띄어쓰기의 경우 다른 오류에 비해 그 오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위 [표 13, 14, 15]에 제시된 오류의 개수는 중복 오류를 제외한 것들이다. 즉, 실제 오류 개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띄어쓰기 오류의 개선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낱짜 띄어쓰기이며<sup>9)</sup> 그 다음으로 단위 명사 띄어쓰기<sup>10)</sup>, 문장부호 띄어쓰기<sup>11)</sup>, 조사, 의존명사, 접사 띄어쓰기<sup>12)</sup>, 인용문 뒤 띄어쓰기<sup>13)</sup>, 합성명사 띄어쓰기<sup>14)</sup>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교육자료 개발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확실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상당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4.3.2.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맞춤법의 경우 역시 낱짜 표기의 오류<sup>15)</sup>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문장부호의 잘못된 사용<sup>16)</sup>도 많이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오류 역시 띄어쓰기와 마찬가지로 짧은 교육을 통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최초 계획은 1,180건이었으나 진단 대상 기관에서 20건의 문서 생산이 안 된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3건이 줄었음.

9) 2014.5.17. → 2014. 5. 17.

10) 2억원 → 2억 원 / 300여명 → 300여 명

11) 일시 : 2014년 5월 17일 → 일시: 2014년 5월 17일

12) 우리 기관 뿐이다. → 우리 기관뿐이다. / 계획했을뿐만 아니라 →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 십 여명 → 십여 명

13) “~하겠다.” 라고 말했다. → “~하겠다.”라고 말했다. / “~하겠다.”하고 대답했다. → “~하겠다.” 하고 대답했다.

14) 여수고정익항공대장 → 여수 고정익 항공 대장

15) 2014. 05. 17. → 2014. 5. 17. / 2014. 5. 17 → 2014. 5. 17 / 5. 17일 → 5월 17일(또는 5. 17.)

16) ‘14년 → ’14년 / ~를 실시함 → ~를 실시함. / “대표 사업” → ‘대표 사업’(큰 따옴표는 인용문에만 사용한다.)

### 4.3.3. 어법에 맞는 문장

공문서의 특성상 간결한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과도한 생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서술어 어간 생략<sup>17)</sup>이나 서술어 생략<sup>18)</sup>이 많이 지적된다. 이와는 반대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 주술 호응 오류<sup>19)</sup>나 조사 사용 오류<sup>20)</sup> 등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어법에 맞는 문장을 교육하는 것은 띄어쓰기나 맞춤법 교육보다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관례처럼 사용해 오던 생략에 관련된 특정 오류를 바로잡고 간결하고 쉬운 문장을 교육한다면 이 부분의 오류는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

### 4.3.4.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

공문서 작성 시에 문서의 간결성을 위해 한자어를 많이 사용한다. 순화 대상인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sup>21)</sup>, 의미 파악이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sup>22)</sup>, 쉬운 한자어라고 생각하여 한자만을 쓰는 경우<sup>23)</sup> 등이 많이 지적되었다. 또한 설명 없이 영어 원어나 축약어를 사용하는 경우<sup>24)</sup>가 많이 발견되었으며, 새로운 정책명을 개발할 때 과도한 영어 사용이 지적되었다.<sup>25)</sup> 용어와 어조의 문제도 자주 틀리는 몇 가지 사례를 교육하면 쉽게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명의 경우에도 오류로 지적할 수는 없었으나 교육 자료에 포함시킨다면 개선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 5. 결론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연구사업인 만큼 해마다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사업을,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16]과 같다.

‘공문서 바로 쓰기’ 교육은 2000년에 처음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계속되어 오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육 자료나 강의 교재는 간행되지 않았다. 공문서 바로쓰기 교육 교재는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자료들에 제한되는데, 그 내용이 일반적인 맞춤법과 띄어쓰기 교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바로 쓰기의 내용은 충분하지만 중요도에 따라서, 혹은 오류 정도에 따라서 순위별로 제시되어 있는 자료가 아니

17) ~로 문의. → ~로 문의하기 바람.

18) ~를 실시. → ~를 실시함.

19)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명예환경 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운영함으로써 →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명예환경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감시단을 운영함으로써 / 행정 활동에 임할 때, 국세 공무원은 견제와 균형자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 → 행정 활동에 임할 때, 국세 공무원은 견제자와 균형자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

20) 대책 회의를 통해 해당 기관에는 철저한 대책 마련을, 피해자들에게는 적절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 주기로 협의하였다. → 대책 회의를 통해 해당 기관에는 철저한 대책 마련을, 피해자들에게는 적절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 주기로 협의하였다.

21) 금년 → 올해 / 금번 → 이번 / 경쟁력을 제고함. → 경쟁력을 높임. / 원칙에 입각하여 ~ → 원칙에 따라 ~

22) 우수 및 오·폐수 관리 시설 → 빗물 및 오·폐수 관리 시설

23) 前 → 전 / 後 → 후

24) 태스크포스 → 전담조직(또는 특별팀) / FTA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

25) 정책명의 경우 오류로 지적할 수는 없었다.

다. 따라서 현재의 교재들은 실제 공문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자료, 공문서 바로 쓰기 교육 현장의 강사들이 원하는 교재가 아닐 수밖에 없다. 앞으로 공문서 바로쓰기 교육, 공공언어 개선 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표 16] 연도별 사업 내용

구 분	연구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진단 대상 기관	.	56곳	57곳	59곳
기관별 대상 자료	.	각 4건	각 10건	각 20건
총 진단 대상 자료	.	224건	570건	1,177건
진단 도구(항목)	.	15개 항목	7개 항목	7개 항목
비 고	진단 기준 마련	2010년에 마련된 모든 진단항목 평가, 가중치 반영	진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단항목 축소, 가중치 미반영	진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단 자동화도구 개발

이 연구 사업은 행정기관의 공문서 작성 실태를 평가함으로써 행정기관 스스로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하지만 축적된 연구 자료는 평가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 자료를 만들기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교육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고, 자주 발견되는 오류를 목록화하여 실제 공문서 작성법 교육 현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한 교재를 만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평가 방법을 소개했다. 연구의 결과 중에서는 오류 항목별 오류 정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앞으로 교육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이후 연구에서는 축적된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효과적인 교육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 자료를 실제 강의에 도입하여 교육 효과를 확인하고 자료를 보완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남옥·박재현(2011), 「공공언어의 수준 평가를 위한 진단 지수 개발 연구」, 『인문연구 62』, 123-156.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구본관(2012), 『2012년 행정 기관 공공언어 진단 I.Ⅱ』,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9),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 쓰기』, 국립국어원.
- 김문호(2001), 『법조문의 문장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김한샘(2011), 「방송언어의 공공성 진단 기준」, 『반교어문연구 30』, 37-59. 반교어문학회.
- 민현식 외(2009), 『공공 기관 서식.문서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민현식 외(2010), 『공공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 민현식 외(2011), 『2011년 행정 기관 공공언어 진단 I.Ⅱ』, 국립국어원.
- 박경현(2002), 「공공 게시물의 언어」 이석주 외. 『대중 매체와 언어』 101-144. 역락.

- 박경현(2007), 「국어 생활과 문법 교육」 이석주 외. 『언어학과 문법 교육』, 335-375. 역락.
- 박재현·이관희·김승현(2011). 「공공언어에 대한 요건별·장르별 만족도」, 『사회언어학 19(2)』, 177-207. 한국사회언어학회.
- 서정목(1991), 「공공 기관의 안내 방송 문안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 서은아(2011), 「방송 언어의 공공성 기준에 대한 연구」, 『겨레어문학 47』, 37-59. 겨레어문학회.
- 양영하(2011), 「신문 언어의 공공성 척도와 사례 분석」, 『한말연구 28』 115-140. 한말연구학회.
- 양영희 외(2011), 「'공문서 바로 쓰기' 교육의 개선 방안」, 『한국언어문학 76』, 479-505. 한국언어문학회.
- 오현아(2010), 「공공 기관 서식·문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및 이용 실태 연구」, 『선청어문 39.38』, 133-17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이관희(2010), 「공공 기관 서식 문서의 개선을 위한 국어 정책 시행 방향 -국어 책임관 제도의 보완과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 방안 -」 『선청어문 37.38』, 209-25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장소원 외(2000), 『이런 말 실수, 저런 글 실수』, 문화관광부.
- 정희원(2003),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IV』, 국립국어원.
- 제민경(2010), 「공공 기관 민원 서식의 유형별 오류 분석」, 『선청어문 37.38』 179-20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조태린(2006), 『공공기관 누리집의 언어 사용 실태』, 국립국어원.
- 조태린(2010),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식」, 『한말연구 27』, 379-404. 한말연구학회.
- 황용주(2011), 「한국의 언어 관리 정책 - 공공언어 개선 정책을 중심으로 -」, 『국어국문학 50』, 23-45. 국어국문학회.



# 총체적 언어 접근에 기반한 아동 대상 한국어 문식성 교육 방안

-다문화 가정 아동을 중심으로-  
최은지(원광디지털대학교)

## 1. 서론

본고는 아동<sup>1)</sup>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문식성 교육의 접근 방법으로서 총체적 언어 접근 방법(whole language approach)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기반한 아동 대상 한국어 문식성 교육의 원리와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교재 개발, 교사 연수 등이 이루어지면서 아동의 연령적 특성에 맞는 언어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근 들어 비록 활발하지는 않으나 아동 대상의 한국어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논의(김성혜; 2005; 김영주, 2008; 김정숙, 2010; 김지혜, 2011; 안미영; 2012)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김정숙(2010)<sup>2)</sup>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교육 방안들은 대체로 전래동화를 활용한 교육 방안, 동요를 활용한 교육 방안, 교육 연극을 활용한 교육 방안과 같이 교수 기법 차원의 논의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 대상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논의는 아동 학습자의 인지적인 특성, 언어적 특성, 언어 습득 과정, 더 나아가 언어의 본질에 대한 관점을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은 채로, 미시적이고 표면적인 기법 차원의 논의에 맴돌고 있는 듯하다<sup>3)</sup>.

1) 본고에서 다루는 아동 대상의 한국어 교육은 국내의 중도입국 자녀 또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 등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나 국외의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자녀 등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모두 포괄한다. 비록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나에 따라서 그 교육 내용과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접근 방법의 층위에서는 '아동'이라는 연령적 공통점을 더욱 중점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김정숙(2010)은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아동 학습자 간, 또는 교사와 아동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어휘 및 문법 교육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3) 이러한 현상은 재외동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현장에서도 나타난다. 최은지 외(2013:377)에서는 재외동포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흥미로운 한국어 수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언어 습득이나 학습에 관한 고민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문식성 교육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서 문식성 교육에서의 유의미한 맥락을 강조하는 총체적 언어 접근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총체적 언어 접근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모국어 읽기, 쓰기 교육에 대한 각성에서 시작된 현장 중심의 운동(이성은, 1999:386, 양경희, 2001:289)이었으며, 현재는 아동 대상의 모국어 문식성 교육뿐만 아니라 유아와 아동 대상의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언어 교육(Rigg, 1991; Redmond, 1994; Adair-Hauck, 1996; Schwarzer, 2001), 더 나아가 유아, 아동 대상의 교육 전반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접근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총체적인 언어 접근 방법에서는 분석할 수 없는 총체적인 존재로서 언어를 바라보며, 이러한 언어를 교수-학습할 때에도 역시 언어를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쪼개거나 분석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목적과 기능을 살려 유의미한 맥락에서 교육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의미를 구현하도록 하는 흥미로운 언어 활동을 주장하는 총체적 언어 접근 방법은 특히나 조작적이고 분석적인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아동 학습자에게 적절한 언어 교육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듯 총체적 언어 접근은 언어의 본질이나 언어 습득 과정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하여 언어 교육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총체적 언어 접근이 제2언어로서 또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아동 학습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 주로 모국어의 문식성 교육 또는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제2언어로서 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아동 학습자들에게 맞게 다시 한번 검토하고, 현실과 상황에 맞는 교육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 2. 총체적 언어 접근의 관점 : 언어, 언어 학습, 교수 학습

총체적 언어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언어 교실은 '큰책(big book)을 이용한 공동 읽기', '듣거나 읽은 것을 재구성하여 말하거나 쓰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읽기 자료 만들기', '대화일지(dialogue journal)', '포트폴리오(portfolio) 쓰기' 등의 활동을 전형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민덕기, 1997, 59~64; Richard & Rogers, 2001, 168), 이러한 활동들만으로 총체적 언어 접근의 본질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총체적 언어 접근이 특정한 교수법(method)이나 교수 기법(technique)이 아니라(Rigg, 1991:523), 언어 교육에 접근하기 위하여 기반이 되는 언어와 언어 습득에 관한 가정이나 관점(이재승, 1996:187; 유구종·박수화, 2005: 364) 즉, 접근 방법(approach)<sup>4)</sup>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총체적 언어 접근은 언어와 언어 학습, 더 나아가 교수-학습에 관한 특정한 관점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교수-학습 단계나 활동들로는 총체적 언어

4) 접근 방법은 "언어와 언어 학습에 대한 가정과 신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Richards & Rodgers, 2001: 29)" 층위의 논의로서, 구체적인 수업의 절차나 단계를 담은 교수법, 그리고 미시적인 수준의 교수 기법은 바로 이 접근 방법이라는 기반 위에서 구성될 수 있다.

접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총체적 언어 접근 방법은 그것이 ‘언어 교육’이라는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비로소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총체적 언어 접근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크게 언어에 대한 관점, 언어 학습에 대한 관점, 교수-학습에 대한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이재승, 1996; 임춘금, 2006, 361).

## 2.1. 언어에 대한 관점

우선, 총체적 언어 접근은 총체적 존재로서의 언어를 존중한다. 여기에서 ‘총체적’이라는 말은 ‘분석적’이라는 말의 반대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언어를 그 하위의 구성단위로 분석하고 쪼개 놓은 것은 더 이상 언어가 될 수 없다”(Rigg, 1991: 522)는 입장을 가지는 것이다. 언어는 그를 통해 전달되는 의미(meaning)와 그 형식, 그리고 맥락(context)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총체적인 존재이다. 만일 이 중 하나가 빠지거나 분리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언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총체적 언어 접근은 이렇듯 언어를 총체적 존재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언어를 그 하위의 구성단위로 분석하여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언어 교육이 아니라고 보았다. 문자라는 상징 체계를 의미를 떼어놓은 상태로 가르친다든가, 상황과는 관계없이 문법 요소만을 배열한다든가 하는 것은 총체적 존재로서의 언어의 본질을 외면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갸’, ‘뿔’와 같이 의미를 가지지 않는 문자 상징은 언어라고 보기 어려우며, 화용론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같은 말이라도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2.2. 언어 학습에 대한 관점

또한, 총체적 언어 접근에서는 언어의 학습은 자연스럽고 유의미한 상황에서 목적을 가지고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가진다. 총체적 언어 접근의 주창자인 Holdaway는 어린이가 부모나 가까운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배우듯이, 글을 배우는 과정도 글을 통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경험하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자연스러운 문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장면으로 부모가 잠자리에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상황을 꼽았다. 부모는 아이에게 인위적으로 글자를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글자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해석해 주고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 과정이 문식성 학습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언어 학습은 이렇듯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언어 학습을 ‘습득적 학습(acquisition learning)’이라고 부른다(이경우, 1999; 24).

이러한 관점에서 탈상황적, 형식적, 분절적, 기계적인 언어 학습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언어 학습은 상황적이어야 하며, 유목적적이고, 유의미해야 하고, 통합적<sup>5)</sup>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의미를 배제하는 기계적이고 분석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었던 기존의 언어 교육에 대해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sup>6)</sup>. Goodman(1986:3)은 “언어를 잘 가르치기

5) 여기서 통합적이라는 말은 언어 그 자체가 뚜렷하게 교육의 목표로서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언어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배우는가가 함께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 Holdaway(1979)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언어 학습이 교실 밖에서 아동들이 언어를 수월하게 배워 나가는 방식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Adair-Hauck, 1996; 253에서 재인용)

위한 노력이 오히려 언어 학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자연스러운 언어를 추상적인 조각들로 잘게 쪼개면 어린 학생들이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은 의미의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의 본질적인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기존의 언어 교육을 비판하였다. 총체적 언어 접근에서는 언어를 교육할 때 그것을 추상적인 조각들로 만들어 버리기보다는, 언어의 본질적인 목적과 기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까지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상태 그대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Goodman, 1986: 18). 따라서 총체적 언어 접근에서는 발음, 철자, 단어, 문장과 같이 언어를 분석해서 제시하기보다는, 이야기를 읽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자연스러운 상황과 맥락 속에서 유의미한 목적을 가지고 언어 활동을 수행하면서 비로소 언어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관점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의 하위 기능을 구분하지 않는 기능 통합적인 수업이나, 언어 학습이 교과 내용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이루어지는 교과 통합적인 수업<sup>7)</sup>, 동화와 이야기, 광고문 등의 실제적인 자료와 놀이, 게임과 같은 실제적인 활동 속에서 진행되는 언어 교육으로 이어진다. 언어는 언어 자체를 배우기보다는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 2.3. 교수-학습에 대한 관점

총체적 언어 접근은 지식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즉 교수-학습은 교사 또는 교과서에 있는 절대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인 협의의 과정이라는 것이다(Rigg, 1991:523). 이는 기본적으로 아동 학습자들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학습자는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이다(Weaver 1990: 이재승, 1996:185에서 재인용). 학습자는 자신이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다양하게 시도해 봄으로써 검증하고, 깨달은 사실을 새롭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즉 교수-학습은 비어 있는 학생의 능력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채워주는 과정이 아니라, 학생으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도록 촉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는 언어 학습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어이든, 문어이든 아동이 모국어를 배워 나가는 과정은 끊임없는 시행착오의 연속이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은 스스로 언어를 발달시켜 나간다.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는 데에 있어서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언어를 작은 요소들로 잘게 쪼개어 가르쳐 주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언어를 사용하면서 검증하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틀릴 위험이 있더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언어 사용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배움의 과정이 개인의 고립적인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호

7) 이성은(1998:387)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UCLA에서 실시하는 KETWIP(Korean English Two Way Immersion Program)의 예를 보여주면서, 수학, 과학, 사회, 체육, 음악, 미술, 컴퓨터와 같은 교과 영역과 언어를 통합하거나 문화와 언어를 통합하는 총체적 언어 접근의 교육과정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경숙(2002: 349)에서는 총체적 언어교육에서 ‘총체적’이라는 의미가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관찰하여 서로 대화하고 변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 교통신단에 관하여 알아보고 논의하는 것”과 같이 언어 교육을 다른 교과들과 통합하여 가르치는 것을 함축한다고 하였다.

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총체적 언어 교육을 지향하는 교실에서는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언어교육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더욱 극대화된다. 학습에 있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관점은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 가지고 있는 언어 학습에 대한 관점과도 밀접하게 연계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 자연스럽게 유의미한 상황 속에서의 언어 사용을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연스럽고 유의미한 상황’이 바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총체적 언어 접근 방법의 관점은 비록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난 현장 중심의 개혁적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당대에 큰 영향력을 가졌던 교육 철학과 이론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Edelsky et al, 1991:7).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동의 생활과 경험에 통합되게 함으로써 경험의 확장과 성장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하였던 John Dewey의 경험 중심 교육 철학, 아동의 지식 구성 과정을 이론화함으로써 학습에 있어서 아동의 능동성을 강조한 Piaget 구성주의 이론, 학습의 과정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한 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의, 읽기나 듣기와 같은 이해 처리 과정에서 철자 또는 어휘와 같은 작은 단위보다는 텍스트나 독자의 배경 지식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Goodman, Smith 등의 하향식 정보처리 이론의 성과들, 문어의 발달은 마치 구어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발생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Ferreiro & Teberosky 등의 발생적 문식성,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의 언어를 강조함으로써 언어를 사용하면서 언어를 학습한다는 관점을 제시한 Halliday의 언어학, 언어의 전체적인 윤곽을 바라보게 하였던 화용론의 성과들이 바탕이 되어 총체적 언어 접근법의 관점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제2언어 교수학습과 관련된 논의에서 그다지 낯설기만 한 관점은 아니다. 총체적 언어 접근 방법에 영향을 준 여러 이론들은 대안적인 외국어 교육을 고민한 다른 접근 방법이나 교수법에도 역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총체적 언어 접근은 언어를 의미를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라고 바라보는 의사소통 중심의 접근법(CLT,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과 여러 측면에서 일맥상통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Richard & Rogers, 2001: 164). 실제적이고 문제 해결적인 언어 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사소통 중심의 접근법은 어린 아동 학습자들에게도 역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 교실 밖에서는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교실 밖 의사소통을 위한 실용성을 강조하는 의사소통 중심의 접근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아동은 문어 의사소통을 위한 내용적 지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중심의 접근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제자리를 맴도는 언어 활동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sup>8)</sup>. “외국어 학습하는 과정이 세상을 알아나가는 일과 구별되기 어려운”(최은지, 2012:

8) 필자는 중국 출신 KSL 아동 두 명과 함께 ‘방학 때 여행하고 싶은 곳’과 관련된 글을 써보는 과제를 시도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국내외의 지리, 여행 명소나, 각 지역의 유명한 장소, 음식, 물건 등에 정보가 매우 부족하여 쓸 내용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과제 수행이 거의 불가능했다. 또한 ‘장래 희망’과 관련된 글을 써보는 과제 역시 직업의 종류에 대한 교육, 자신의 소질이나 흥미 등을 바탕으로 하는 진로 교육과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제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처럼 아동 학습자들은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과 내용, 문학 등과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433) 아동 학습자들에 대한 문식성 교육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와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 지식과 사고의 확장, 문학 작품의 감상 또는 생산과 함께 통합된 자연스러운 한국어 활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총체적 언어 접근이 더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3. 총체적 언어 접근 방법에 기반한 아동 대상 한국어 문식성 교육의 원리

이 장에서는 총체적 언어 접근 방법에 기반한 아동 대상 한국어 문식성 교육의 모습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총체적 언어 접근의 교육 원리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총체적 언어 접근 방법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교육의 원리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아동 대상의 한국어 문식성 교육에 적용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논점들을 검토할 것이다.

#### 3.1. 총체적 언어 접근 방법의 문식성 교육 원리

앞서 밝혔듯, 총체적 언어 접근 방법은 아동 대상의 모국어 문식성 교육을 중심으로 촉발된 관점이었다. 총체적 언어 접근 방법의 관점은 언어의 형식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지는 부호 중심의 접근 방법(code-emphasis approach)과 대조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부호 중심의 접근 방법은 문식성 교육에서 문자라는 상징적인 부호와 소리가 가지는 관계에 주목한다. 아동이 문자를 소리와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의 문자 학습은 문자와 소리의 관계에 대한 강조, 기초 독본에 기반 학습, 발음 중심의 연습지 활동 등으로 특징지어진다(Vaish, 2014: 319). 총체적 언어 접근 방법의 주창자들은 부호 중심의 접근 방법은 아동들로 하여금 언어 학습을 지루하고 힘든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아동들은 문자 활동에 흥미를 잃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들은 아동들이 구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였듯이, 문식성 역시 자연스러운 학습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문식성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Goodman (1986:4)은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상황과 언어 학습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총체적 언어 접근에서는 언어 학습에 있어서 ‘의미의 강조’, 언어 사용에 있어서 ‘형식, 의미, 맥락의 통합’,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자율성과 책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Watson(1989:136~138)은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책무, 오류의 수용, 의미의 강조, 언어 기능의 통합, 내용 영역의 통합, 촉진적인 교실 환경의 조성, 학부모의 참여 유도, 대안적 평가의 도입’을 그 원리로 제시하였다. Watson은 총체적인 언어 접근 방법이 단지 교실 내에서의 활동 방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실 환경이나 학부모의 참여, 평가 방식에 이르는 일관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언어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상황	언어 학습을 어렵게 하는 상황
실제적이고 자연스러울 때	인위적일 때
총체적일 때	단편적인 조각으로 쪼개어질 때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흥미로울 때	지루하고 흥미롭지 않을 때
관련성이 있을 때	학습자와 관련성이 없을 때
학습자와 관련이 있을 때	누구에게도 관련되지 않았을 때
실제 사건의 일부일 때	맥락이 없을 때
사회적으로 유용할 때	사회적인 가치가 없을 때
학습자에게 목적을 부여할 때	타당한 목적이 없을 때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선택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부과되었을 때
학습자가 접근하기 쉬울 때	학습자가 접근하기 어려울 때
학습자에게 권한이 있을 때	학습자에게 권한이 없을 때

(Goodman, 1986: 4)

영어 교육 등의 외국어 교육에서도 총체적 언어 접근 방법을 적용하려는 논의가 있었다. Lems(1995)는 ESL이나 EFL 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총체적 언어 접근의 중요한 원리로서 ‘1)언어 기술은 서로 통합되어야 한다, 2) 언어는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3) 학생들은 문식적인 사건에 몰입되어야 한다, 4) 학생들은 실제적인 문자 환경에 노출되어야 한다. 5) 학생들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배운다, 6) 교사는 각 학생의 독특한 배경, 경험, 학습 성향을 존중해야 한다, 7) 학습은 협동적인 활동이다, 8)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에 있어 책임감을 가진다, 9) 평가는 실제적이고 적절해야 한다’라는 아홉 가지를 제시하였다. Schwarzer(2001: 53~55) 역시 Lems(1995)를 바탕으로 ‘실제성(authenticity)’, ‘탐구와 협의가 바탕이 되는 교육과정(inquiry and negotiation-based curriculum)’, ‘전체적인 관점(holistic perspective)’, ‘발달적 관점(developmental perspective)’, ‘대안적 평가(alternative assessment)’, ‘사회적 관점(social perspective)’, ‘다문화적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 ‘비판적 교직원(critical pedagogy)’을 총체적 언어 접근의 원리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논의는 다양한 배경의 학습자들로 구성된 제2언어/외국어 교실의 역동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학생들을 서로 협동적인 활동을 이룸으로써 다문화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점은 제2언어/외국어 교실의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모국어 교육이나 제2언어/외국어 교육에서 논의된 총체적 언어 접근에 관한 앞선 논의들을 종합하여 총체적 언어 접근의 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의미’와 ‘맥락’의 강조**

언어 학습의 ‘유의미성’을 강조하는 것은 기존의 교육이 ‘의미’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비판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글자를 보고 소리내어 읽는 활동, 또는 선생님이 불러주는 소리를 문자로 받아 적는 활동들은 문자 활동의 진정한 목적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따라서 문식성 교육에서는 ‘의미’를 배제한 연습보다는 어떠한 ‘의미’를 주고받는 목적성 있는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sup>9)</sup>.

9) 이러한 주장은 아동의 문자 습득 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Goodman(1993)은 1학년 아동

이러한 점에서 총체적 언어 교실에서는 의미가 배제된 고립된 연습은 지양되며,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활동들이 선호된다. 의미를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맥락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물함에 붙어 있는 주인의 이름을 읽는 맥락, 찾아가야 하는 가게의 이름을 읽는 맥락, 친구에게 초대 편지를 쓰는 맥락,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는 맥락,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맥락, 동물의 생태에 대해서 배우는 맥락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총체적 언어 교실에서는 베껴 쓰기, 바뀐 쓰기 등의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연습보다는 책, 잡지, 목록, 간판, 상표, 포스터, 전화번호 목록 등의 실제적인(authentic) 자료를 이용한, 실제적인 목적을 가진 활동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수업에서 교육은 ‘부분에서 전체로’보다는 ‘전체에서 부분으로’의 방향성을 띠게 된다. 학생들은 연습을 통해 숙달시킨 ‘부분적인 지식’을 통해 ‘전체적인 의미’에 이르는 것이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미’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다.

## 2) 통합적인 언어 활동

총체적 언어 접근에서는 언어의 형식과 의미, 맥락이 모두 포함된 총체적인 언어 활동을 추구한다. 그리고 다양한 맥락에서 실현되는 자연스러운 언어 활동은 여러 측면에서 통합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연스러운 언어 활동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라는 언어 기능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언어 활동은 타인과 교류하거나, 흥미로운 문학적·신체적·예술적 행위를 즐기거나,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을 탐구하는 과정과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

총체적 언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은 구체적으로는 과제 간의 통합, 언어 기능간의 통합, 교과 내용과의 통합, 매체와 언어의 통합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양경희, 2001:300). 과제 간의 통합은 하나의 흐름을 가진 여러 가지 과제들이 서로 연계되어 하나의 큰 과제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야기책의 그림을 바탕으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보게 한 후, 그 이야기를 써서 새로운 이야기책을 만들고, 원래 이야기책에 담겨 있는 이야기의 내용이 어땠는지 비교하며 읽어보게 하는 등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도 다양한 활동들이 연계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언어 기능간의 통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라는 네 가지 기능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앞선 예에서도 주된 기능은 이야기책을 읽고, 이야기를 쓰는 활동이지만 그것이 구어적인 기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sup>10)</sup>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총체적 언어 교실에서는 네 가지의 언어 기능들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수업이 구성된다. 교과 내용과의 통합은 수학, 과학, 사회, 미술, 음악, 체육 등의 다른 과목과의 통합을 이야기한다. 아동들에게

들이 즐겨보는 동화책에서 특정한 단어를 습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맥락을 배제한 단어 목록에서는 그 단어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초기 문식성 습득 과정을 살펴보았던 최은지(2014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아동들은 특정한 글자를 단어의 의미와 결합시켜서 습득했지만, 그 글자가 다른 단어에 포함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들이 의미 또는 맥락과 함께 통합적으로 문자를 습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구어 활동은 문식력 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다. 발생적 문식성 단계의 학생들이 보이는 구어적 능력은 추후 읽기 성취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에 의해서 밝혀졌다(Vaish, 2014:14). 적어도 문식성의 초기 시기까지는 학생들의 문어 능력이 이미 어느 정도 발달한 구어적 능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총체적 언어 교실에서 언어 기능 통합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또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있어 언어 학습은 새로운 세상에 대해 탐구하거나 문학적·신체적·예술적 행위의 즐거움을 느끼는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과 내용을 다루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언어 활동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모든 활동들에서는 책이나 그림, 음악, 영상 자료 등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언어 학습은 해당 매체를 조작하고, 즐기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과 통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3) 학습자의 권한과 책무 강조

총체적 언어 교실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미를 펼칠 수 있게끔 권한을 준다. 이는 교사가 중심이 되고 학생들은 수동적인 역할만을 하던 전통적인 교실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고, 추측하고, 이해하고, 내용을 만들고, 표현해 보게 하는 활동들이 주를 이룬다. 총체적 언어 교실에서 흔히 사용되는 SSR(Sustained Silent Reading)은 이러한 학습자의 권한과 책무가 극대화된 형태의 활동이다. 학습자가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조용히 그 책을 읽는 활동인 SSR과 같은 활동은 교사의 강력한 개입이 없이도 원활하고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학습자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보여준다.<sup>11)</sup>

이러한 교실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이끌어내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같은 교사가 같은 활동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학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실의 모습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가 가지는 ‘자율성’은 교실 활동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전제되는 원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의 결과가 되기도 한다. 즉, 학생들은 자신의 권한을 펼칠 수 있는 수업에 더욱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engaged) 되는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 언어 교실의 모습은 학생들에게서 권한을 빼앗음으로써 언어 학습을 지루한 것으로만 느끼게 했던 기존의 언어 교육과는 상반되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 4) 협력적 교실 활동

총체적 언어 교실에서는 협력적인 활동을 유도한다. Vaish(2014)는 합창 낭송(choral recitation)만이 유일한 상호작용 활동이었던 부호 중심의 언어 교실과 달리, 총체적 언어 교실은 ‘합창 낭송’, ‘강의’, ‘전체 답변 유도’, ‘강의 및 전체 답변 유도’, ‘대화’, ‘침묵’, ‘큰소리로 읽기’, ‘역할극’과 같은 다양한 상호작용 활동들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렇듯 총체적 언어 교실은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의 협력적인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난다.

이러한 협력적인 언어 활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가치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협력적인 언어 활동은 실제의 언어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언어 사용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다. 비교적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드러나지 않는 문어 활동에서도 대화 일지(Dialogue Journal), 편지 쓰기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글을 통한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11) Krashen(2002:2)는 SSR을 통한 읽기 활동이 어휘, 문법, 철자, 쓰기 능력 발달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54편의 연구 중 51편의 연구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 SSR 읽기를 수행한 학생들이 읽기 이해 시험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그러한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이 길수록 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력 활동은 지식의 사회적 구성 과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읽은 내용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공유하고, 자신이 쓴 글을 공유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은 지식과 사고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다. 이때 각각의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배경은 협력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나 다문화적인 공간인 외국어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공유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5) 오류의 발달적 가치 수용

언어 발달이든, 신체 발달이든 간에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오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실패할 수 있다는 부담을 무릅쓰지(risk-taking) 않고서는 발달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에 대해 부정확한 발음, 독창적인 어휘, 문법적인 오류에도 성인들이 너그러운 반응을 보임으로써 아이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처럼, 총체적 언어 교육에서는 문식성을 교육할 때에도 아동의 오류에 대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Goodman, 1986:16). 초기 읽기 단계에서 보이는 소리 내어 읽기 오류(oral reading error)<sup>12)</sup>나 쓰기 발달 과정에서 보이는 글적거리기(scribbling), 반대로 쓴 글자(reversed letters), 창의적 쓰기(invented spelling)의 양상은 모두 학습자의 발달을 보여주는 가치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오류를 통해서 배우고, 실패를 보다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Schwazer, 2001: 54)

### 6) 수준 높은 문해 환경의 조성

총체적 언어 교실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서 교실 환경의 변화와 가정에서의 일관된 교육을 전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총체적 언어 접근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자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짝이나 모둠을 이루어 상호작용하기에 용이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학급 문고나 도서관 시설<sup>13)</sup>을 통해서 다양한 문식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Rigg, 1991: 524).

또한 총체적인 언어 접근 방법은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믿는다. 특히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가정에서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학부모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교실을 벗어난 상황에서도 학부모의 협조를 통해 다양한 언어적 경험을 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2) Suen(1999)는 읽기를 배우는 초기 시기의 아동들은 자신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자신의 방식으로 읽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소리내어 읽기 오류는 아동들의 발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13) Krashen(2002:3)은 도서에 대한 접근성이 아동의 읽기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도서관의 영향력은 이미 다양한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Keith et al.(2000)은 학교의 도서관이 보다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고, 접근성이 좋을수록 읽기 점수가 높다는 결과를 내놓았고, Krashen(1995)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도서관 수준이 높을수록 4학년 학생들의 읽기 성취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Krashen, 2003:3에서 재인용)

### 7) 대안적인 평가(alternative assessment)

교육의 큰 틀에서 보았을 때 학습과 평가는 서로 동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총체적인 평가에는 그에 걸맞은 ‘총체적인 평가’가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녹음’, ‘관찰 일지’, ‘포트폴리오’, ‘자기 평가’ 등의 대안적인 평가 방식은 학습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평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3.2. 아동 대상 한국어 문식성 교육에서의 총체적 언어 접근 적용의 논점

위와 같이 총체적인 존재로서의 언어의 본질을 교육에 최대한 반영하는 총체적 언어 접근 방법은 분석적이고 연역적인 방식으로 언어를 학습하지 않는 아동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문식성 교육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총체적 언어 접근 방법에서 추출할 수 있는 ‘의미에의 중시’, ‘통합적인 언어 활동’, ‘학습자의 권리와 책무 강조’ 등의 핵심 원리들은 단지 지루하고 반복적인 연습 중심의 문식성 교육에서 벗어나, 지식과 사고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는 흥미롭고 다양한 언어 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학생들을 수동적인 대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게 한다는 점은 총체적 언어 접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총체적 언어 접근이 모국어의 문식성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또다른 숙제를 남긴다. 총체적 언어 접근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가 과연 제2언어 또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아동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는 짚어보아야 할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어느 정도 발달된 구어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모국어 학습자들과는 달리, 한국어 학습자들은 구어 능력과 문식성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논점들을 살펴보면서 총체적 언어 접근의 적용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할 것이다.

#### 1) 명시적 교수의 필요성

아동 대상의 한국어 문식성 교육에서 총체적 언어 접근 방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 가장 논쟁적인 쟁점은 명시적 교수(explicit instruction)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실제적인 맥락에서의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을 통해 언어 습득을 유도하는 총체적 언어 접근 방법에서는 교사의 명시적인 설명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석적인 능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이 명시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낯선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일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사실 명시적 교수의 필요성과 관련된 논쟁은 비단 외국어/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문식성 교육에서만 제기된 문제는 아니다. 이는 이미 모국어 교육에서의 총체적 언어 접근의 효용성에 대한 논쟁에서도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총체적 언어 접근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총체적 언어 교실에서 명시적인 설명을 배제하는 것이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 하락을 가져 왔으며, 특히나 이는 풍부하지 못한 문해 환경에서 자란 저소득층 아동이나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이숙희, 박혜경, 2008:108). 명시적 설명의 배제는 주되게는 문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문자와 발음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 즉 파닉스(phonics)의 배제에 대한 논쟁으로 구체화되었다. 총체적 언어 교육에 대한 비판자들은 총체적 언어 교실에서 파닉스를 배제함으로써

써 초기 문식성 단계의 발달이 지체된다고 비판한 것이다 (Chapman et al. 2001)<sup>14)</sup>.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대해 총체적 언어 접근의 옹호자들은 총체적 언어 교실에서 ‘명시적인 설명을 배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총체적 언어 접근 방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박한다(Curt & Patricia, 2004, 391; Routman, 1997, 72; Krashen, 2002:1). 총체적 언어 교실에서도 필요할 경우 얼마든지 명시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만 명시적인 설명의 방식이 전통적인 교실에서의 일방적이고 연역적인 방식과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한글을 처음 배우는 아동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노력을 무시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유아 시기부터 다양한 문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왔던 모국어 화자와 달리, 외국어/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아동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문식적인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험이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들에게 문자와 소리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스스로 그 관계를 익혀 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학습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sup>15)</sup>.

아동 대상의 한국어 교실에서는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언어의 분석적 부분에 대한 명시적 교수가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 총체적 언어 교실에서도 문자와 소리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교수, 학생들이 자주 보이는 오류에 대한 명시적인 교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명시적 교수의 포함 여부가 아니다. 총체적 언어 교실을 이끄는 언어 교사가 더 중요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은 명시적 교수의 방식이다. 총체적 접근의 한국어 교실에서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되 어떻게 하면 의미나 맥락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발견하고 검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 2) 교육 내용의 위계화의 필요성

총체적 언어 접근은 아동 대상 한국어 문식성 교육에 적용할 때 논점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지점은 교육 내용의 위계화에 대한 것이다. 임춘금(2006:361)에 따르면 총체적 언어 접근에서는 언어는 “출생 직후부터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며, 가르치지 않아도 문해 환경 속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된다”고 본다. 또한 Goodman(1986: 41)에서도 “총체적 언어 접근에서는 하위 기술을 위계화할 필요도, 보편적 습득 순서를 정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통합적인 언어 활동과 실제적인 문해 환경에의 노출을 통한 자연스러운 문식성 교육을 추구하는 총체적 언어 접근에서는 교육 내용과 자료의 위계화를 거부한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언어 교육이 발음, 단어, 문장, 문단의 순서로 위계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대한 반발로 이해된다. 위계화는 언어의 분절과 함께 나타났으며, 교육 내용의 위계화는 곧 언어를 분절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 위

14) 문자 학습에서의 발음 중심 교수법과 의미 중심 교수법의 대립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발음 중심 교수법과 의미 중심 교수법을 절충하는 절충식 교수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결론이 나기도 한다.

15) Perez(1994), Reyes(1991)에서는 총체적 접근의 제2언어 교실에서 명시적 교수를 배제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문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됨으로써 귀납적으로 문어의 관습을 배우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Kucer, 1999:234에서 재인용)

계획을 거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어에의 노출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가공되지 않은 실제적인 자료를 접하고<sup>16)</sup>, 그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면서 문식성을 길러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모국어의 발달 과정이 외국어나 제2언어로서의 언어 교육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밝혔듯, 한국어 문어에 대한 노출의 경험이 전무한 아동들에게 계획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언어 노출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러한 입장은 오히려 ‘교육’이라는 행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외국어교육에서 교육 내용의 선정과 배열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겨져 왔다. 언어라는 거대한 낯선 덩어리를 습득하기 쉬운 측면부터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작업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실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주어지는 자료도 역시 보다 더 주의 깊게 선정 또는 개발되어야 한다(Adair-Hauck, 1996:255). 학습자들에게 주어지는 자료들은 형식, 의미, 맥락이 통합된 총체성을 유지하되, 학습자의 수준에 고려해 선정되어야 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 4. KSL 아동 대상의 문식성 교육의 실제

#### 5. 결론

본고는 아동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문식성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총체적 교육 접근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총체적 접근 방법의 전모를 살펴보기 위해서 총체적 접근 방법이 언어, 언어학습, 교수-학습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을 알아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총체적 언어 교실의 원리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모국어 문식성 교육을 위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던 총체적 언어 접근 방법을 외국어/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총체적 언어 접근 방법에서 ‘명시적 교수’나 ‘교육내용의 위계화’와 관련된 내용을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아동 대상 문식성 교육에 대한 적용을 고민해 보았다.

#### 참고문헌

- 김성혜(2005),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재외동포 아동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 김영주(2008), “전래동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다문화 및 재외동포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새국어교육 80호, 한국국어교육학회, 97-124쪽.
- 김정숙(2010),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용한 재외동포 아동 한국어 교육 방안”, 이중언어학 42호, 이중언어학회, 25-46쪽.

16) Goodman(1986:36)에서는 총체적 언어 접근 방법과 거리가 먼 양상 중 하나로서, “문장 구조나 어휘를 통제함으로써 자료를 단순화하는 일”을 제시하고 있다.

- 김지혜(2011), “동요를 활용한 활동 중심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재외동포 아동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 민덕기(1997), 총체적 언어교육의 원칙과 교실활동, *Primary English Education* 3, 56-69.
- 안미영(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교육 방안: 전통놀이를 활용한 교육연극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47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23-145쪽.
- 양경희(2001), 총체적 언어 교육의 재개념화 시론, *독서연구* 제6호, 287-305쪽.
- 유구종·박수화(2005), 총체적언어 쓰기활동과 멀티미디어 매체가 유아의 언어표현력 및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0-3, 361-383쪽.
- 이경우(1999), 총체적 언어: 문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창지사.
- 이성은(1998),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총체적 언어 접근법, *이중언어학* 15호, 이중언어학회, 385-409쪽.
- 이숙희·박혜경(2008), 한글특성에 기초한 유아읽기 프로그램 개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3, 101-129쪽.
- 이차숙(2004), 유아 언어교육의 이론적 탐구, 서울:학지사.
- 이재승(1996), 총체적 언어 교육의 의의와 과제, *청람어문학*, 172-207쪽.
- 임춘금(2006), 총체적 언어접근에서의 문해 발달에 대한 유치원교사와 예비교사의 신념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1-3, 357-384쪽.
- 제경숙(2002), 유아언어교육의 총체적 접근, *인문논총* 제15집, 347-365쪽.
- 최은지(2012), 해외에서의 아동 대상 한국어교육의 쟁점과 과제, *한국어교육* 23-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421-444쪽.
- 최은지(2014),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아동 학습자의 초기 문식성 발달, *한국어교육* 25-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최은지·류선숙·이경(2013), “아동 대상 한글학교 한국어 교사의 교수 방법과 교사 효능감”, *한국어교육* 제24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65-390쪽.
- Adair-Hauck, B.(1996), Practical whole language strategies for secondary and university-level FL students, *Foreign Language Annals*, 29(2), 253-270.
- Chapman, J.W., Tunmer, W.E., Prochnow, J.E.(2001), Does success in the reading recovery program depend on developing proficiency in phonological-processing skills?: A longitudinal study in a whole language instructional context, *Scientific Studies of Reading*, 5, 141-176.
- Dudley-Marling, C., Paugh, P. (2004), Tapping the power of student voice through whole language practices, *Reading and Writing Quarterly*, 20, 385-399.
- Edelsky, C., Altwerger, B., Flores, B.(1991), *Whole language: what's the difference?*, Portsmouth, NH:Heinemann.
- Goodman, K.(1986), *What's whole in whole language*, Berkeley, CA: RDB Books.
- Goodman, K.(1993), *Phonics phacts*, Portsmouth, NH:Heinemann.
- Holdaway, D.(1979), *The Foundations of Literacy*, Portsmouth, NH: Heinemann Educational Books, Inc.
- Keith, C. L., Lynda, W., Christine, H. P., (1993), *The impact of school library media centers on academic achievement*, San Jose, Calif: Hi Willow Research and Publishing.

- Krashen, S.(1995), School libraries, public libraries, and the NAEP reading scores, *School Library Media Quarterly* 23, 235-38.
- Krashen, S.(2002), Whole language and the great plummet of 1987-92: An urban legend from California, *Phi Delta Kappan*, 83(10), 748-753.
- Kucer, S. B.(1998), Two students' responses to, and literacy growth in, a whole language curriculum, *Reading Research and Instruction*, 38(3), 233-253.
- Lems, K.(1995), Whole language and the ESL/EFL classroom, (report no. FL 022 04). ED 384 210.
- Perez, B. (1994). Spanish literacy development: A descriptive study of four bilingual wholelanguage classrooms. *Journal of Reading Behavior*, 26, 75-94
- Redmond, M. L.(1994), The whole language approach in the FLES classroom: Adapting strategies to teach reading and writing, *Foreign Language Annals*, 27(3), 429-444.
- Reyes, M. de la Luz. (1991). A process approach to literacy using dialogue journals and literature logs with second language learners. *Research in the Teaching of English*, 25, 219-313.
- Richards, J. C. & Rodgers, S. R.(2001), *Approaches &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전병만, 윤만근, 오준일, 김영태 옮김 (2003), *외국어교육 접근 방법과 교수법*, 케임브리지)
- Routman, R. (1997), Back to the basics of whole language, *Educational Leadership*, 54(5), 70-74.
- Schwarzer, D.(2001), Whole language in a foreign language class: from theory to practice, *Foreign Language Annals*, 34(1), 52-59.
- Rigg, P.(1991), Whole language in TESOL, *TESOL Quarterly*, 25(3), 521-542.
- Suen, S.(1999), The development of reading strategies in a whole language classroom, *Reading Psychology*, 20(2), 91-105.
- Vaish, V.(2014), Whole language versus code-based skills and interactional patterns in Singapore's early literacy program,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DOI:10.1080/0305764X.2013.863830. 1-17.
- Watson, D. J.(1989), Defining and describing whole language,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90(2), 128-141.
- Weaver, C. (1990), *Understanding whole language*, Ontario: Irwin Publishing.



#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활용한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 동료 피드백 활동을 중심으로 -  
김현주(중앙대학교)

## 1. 서론

본고는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한국어 쓰기 교육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함에 있어서 학습자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 내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동료 피드백 활동을 채택하였다.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쓰기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숙달도 향상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학습자들의 학습 선호도 또한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지닌다(이준호, 2013). 이준호(2005)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문목적 학습자의 80%가 언어의 네 가지 영역 중 쓰기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말하기, 듣기, 읽기에는 비교적 많은 어려움이 없는 학생들이임에도 불구하고 쓰기에는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sup> 초급 단계보다는 고급 단계로 갈수록 쓰기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는 데서 온 결과로 보인다.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사도 쓰기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윤지원(2013)은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쓰기 교육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들은 시간적인 제한과 알맞은 교재의 부재 등의 환경적인 요인 등도 쓰기 교육에 대한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쓰기 교육의 어려움을 학습자 요인, 교사 요인, 교육 환경 요인 등의 많은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규 수업 시간에 쓰기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대부분의 쓰기

1) 본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실시한 사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총 15명의 학습자 중 한국어 학습 시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 쓰기(8명, 53%), 말하기(5명, 33%), 읽기와 듣기 각 1명(각7%)의 결과를 보였으며, 본인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영역, 즉 더 많은 학습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쓰기(7명, 47%), 말하기(6명, 40%), 듣기(2명, 13%)의 결과를 보였다.

교육은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숙제 형식으로 교실 밖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어진 주제에 해당하는 글을 학생들이 숙제로 제출하면 교사가 수정해주는 방식을 대부분의 교육 현장에서 취하고 있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인 수업 방식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오프라인 교육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쓰기 교육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로 교실 밖에서 숙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자의 쓰기 활동을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하여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수업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결과에 대하여 살펴본 후 그 가능성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개념 및 교육적 효용성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정리하면, 블렌디드 러닝이란 전통적인 면대면 교실 수업인 오프라인 교육과 이러닝(e-learning)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교육이 혼합된 학습자 중심의 교수 학습 방법으로 혼합 교육이라고도 불린다.<sup>3)</sup>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함으로써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최소화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다양한 상호 작용이 촉진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 및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다음은 장미라(2014)가 제시한 블렌디드 러닝의 범주와 유형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 교실 수업 + 온라인 커뮤니티1 (전자우편, 카페,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자료게시, 숙제 부과, 숙제 제출 등) 병행
- 교실 수업 + 온라인 커뮤니티2 (카페, 페이스북 등(전자우편 포함)을 활용한 피드백, 토론 등 상호작용) 병행
- 교실 수업 + 온라인 강의

위의 범주에서 ‘교실 수업과 온라인 커뮤니티2’를 활용한 수업을 통하여 그동안 주로 교사가 해 오던 일방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학습자와 학습자 간에, 또는 학습자와 교사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피드백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호 작용을 통한 다양한 전달 방식을 통하여 보다 개별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학습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에서도 반복 학습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결국 학습자의 교육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업은 교사의 철저하고 계획성 있는 준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에 참여한 총 15명의 학습자 중 13명(87%)의 학생이 이러한 방식으로 그동안 쓰기 수업을 받았다고 답변하였으며, 2명(13%)의 학습자는 별도로 쓰기 수업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즉, 쓰기 수업을 별도로 받지 않은 학습자를 제외하면 100%의 학습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쓰기 수업을 받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전동일·김희용(2010), 진정란(2010)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4년도 1학기 중앙대학교에서 ‘Advanced Korean Language’를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 15명<sup>4)</sup>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 중 13명의 학생들은 본국에서의 전공이 한국어 관련 전공이었으며 2명은 영어가 전공이고 한국어는 부전공<sup>5)</sup>이다. 이들은 1년 과정으로 한국에서 한국어 관련 수업 및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학점 취득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으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환학생들이다. 이들의 한국어 학습 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한국어 학습 기간

본국에서의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에서의 학습 기간	
1년	1년 6개월	2년	1개월	7개월
4명(27%)	4명(27%)	7명(46%)	5명(33%)	10명(67%)

이들이 수강하고 있는 'Advanced Korean Language'는 16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3시간동안 진행되는 3학점의 교양과목이다. 한국어 통합 수업이기 때문에 쓰기에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고, 일주일에 한 번만 진행되기 때문에 피드백을 주고 받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다. 이에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하여 쓰기 수업을 진행할 경우 이러한 시간적 한계점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14년 3월31일 예비 모임에서 서면 조사와 면담을 통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이 한 달 동안 해야 할 일과 계획에 대하여 전달하였다. 15명의 학습자 중 15명 전원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한국어 쓰기 수업을 받아 본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13명(87%)의 학습자가 동료 피드백 활동을 통한 학습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학습자들에게는 동료 피드백 지침서가 배부되었으며, 이메일을 만들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방법 등을 구두로 설명하고 직접 보여주었다.<sup>6)</sup>

본 실험은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되었다. 매주 목요일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주제를 공지하고 학습자들이 스키마를 활성화시켜 쓰기 내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매주 금요일 밤까지 제시된 주제에 대하여 쓴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로 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모든 글에 적어도 하나 씩 피드백을 할 것을 권장하였다. 학습자들 간의 활발한 상호 작용 유도하기 위해 교사는 최대한 관여를 하지 않았으나 학습자들끼리 피드백을 주고 받는 과정 속에서 틀린 방향으로 피드백이 흘러갈 때는 교사도 피드백을 주어 정정해 주었다. 이는 틀린 것을 맞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다. 또한 피드백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도 가끔씩 재

4) 이들의 국적은 중국(11명), 우즈베키스탄(2명), 카자흐스탄(2명)으로 모두 20대 초반의 학생들이며, 남학생이(3명), 여학생이 12명이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취득자가 9명, 4급이 2명, 5급이 4명이다.

5) 전공인 영어는 1학년 때부터 계속 배우고 2학년이 되면 자신의 전공 이외의 외국어를 선택하여 4학년 때까지 공부한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부전공이라는 용어가 쓰이지는 않는다고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전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6) N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였으며, 5명의 학생은 이미 N포털 사이트의 아이디가 있었다.

미있는 피드백을 주거나 안부 인사 등을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피드백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일주일 단위의 일정은 다음 <그림 1>와 같이 진행되었다.

목	금	토	일	월	화	수
초고 쓰기		동료 피드백		수정본 쓰기		교사 피드백

<그림 1> 쓰기 과정

쓰기에 선정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2> 글쓰기 과제 목록

회	주제	내용
1	외국어 교육	①여러분은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②외국어 교육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③외국어 교육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2	행복한 삶	①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②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③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3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①인터넷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②인터넷의 부정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③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십시오.
4	내가 가지고 싶은 능력	①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습니까? ②왜 그 능력을 가지고 싶습니까? ③그 능력이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와 동료 피드백을 활용한 수업이 처음인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한국어능력시험 기출문제 중·고급에 해당되는 문제들 중 비교적 평이한 주제들로 선정하여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 변형시켜 사용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편안하게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 4. 연구 결과

### 4.1. 동료 피드백 양상

#### 4.1.1 실제 동료 피드백

아래 그림은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을 주고 받은 실제 모습이다.



<그림 2> 동료 피드백 화면(1)

면대면 한국어 쓰기 교실에서 학습자들 간에 활발한 상호 작용을 할 기회가 별로 없는 데 반해,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학습자들 간에 활발하게 피드백을 주고 받는 모습을 위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긍정적인 피드백, 철자나 문법에 관한 형식 중심 피드백과 상대방의 설명에 반응을 하는 피드백 등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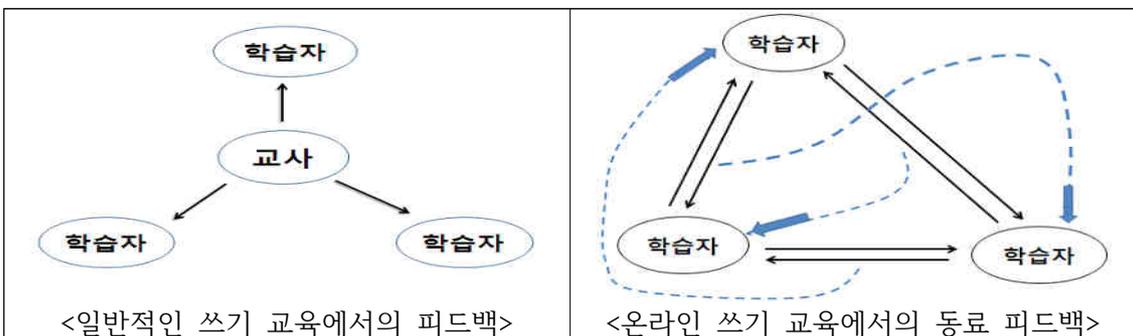
학습자들은 자신이 모르는 문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새로운 문법을 알게 되고 설명해주는 학습자는 친구에게 설명해 주면서 자신도 한 번 더 복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동료의 피드백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쓴 글을 다시 읽어 봐야 하므로, 한번 쓰고 제출하는 방식의 1회성의 쓰기 교육 방식과는 달리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읽기 교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림 3> 동료 피드백 화면(2)

위의 피드백처럼 친구의 피드백에 반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이 문어체인 쓰기와는 달리 구어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피드백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구어체에도 익숙해지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또한 거의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일어나고 있는 상호 피드백을 통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학습자들은 활발한 상호 작용을 하며 피드백 활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대화를 지켜보는 제 3자의 학습자들도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사후 설문 조사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수의 학습자들은 친구들이 학습자 본인에게 한 피드백 외에도 다른 친구들에게 한 피드백도 읽어보았고 그 피드백이 자신의 작문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sup>7)</sup> 대부분의 쓰기 교육에서는 교사가 피드백을 주고 학습자는 수동적으로 그 피드백을 받기만 하는 일방적인 피드백이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동료 피드백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서로 활발하게 피드백을 주고 받았으며,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끼리 주고 받는 피드백을 자신의 작문에도 적용하여 자신의 작문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아래의 오른쪽 그림의 점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제 3자들이 피드백을 주고 받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작문에 적용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쓰기 수업과는 달리 훨씬 더 다양한 방향으로 피드백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피드백 양상

7) 매우 그렇다(8명, 53%), 그렇다(4명, 27%), 보통이다(3명, 20%)의 결과가 나왔다.

### 4.1.2. 동료 피드백 유형

다음은 학습자들의 피드백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3> 동료 피드백 유형<sup>8)</sup>

기준	유형	1회	2회	3회	4회	합계
정의적 측면	긍정적 피드백	30	15	1	9	55
	부정적 피드백	-	-	-	2	2
언어적 측면	형식 중심 피드백	99	117	82	78	376
	내용 중심 피드백	3	1	2	-	6
반응적 측면	호의적 피드백	66	46	18	17	117
	반박형 피드백	6	6	5	3	20

본 연구에 앞선 사전 모임에게 학습자들에게 동료 피드백 지침서를 제공하였음에도 위의 표를 보면 형식 중심 피드백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언어 형식적인 면에서 오류를 많이 범한 것이 이유일 수도 있고, 그동안 교사들이 쓰기 교육을 할 때 주로 형식 중심의 피드백을 주었고 학습자들도 여기에 익숙해 있다 보니 형식 중심 피드백을 많이 준 것으로 유추해 볼 수도 있다.<sup>9)</sup> 의미 중심 피드백에서도 글의 전개 방식이나 글의 구성 등에 대한 피드백은 전혀 없었으며, 문장의 의미 파악 여부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좋은 글이라 함은 철자, 문법, 어휘 등의 형식적인 것 못지않게 글의 내용이나 구성 등도 주어진 주제에 알맞게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교사가 쓰기 교육을 할 때 형식적인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학습자들의 글의 구성이나 전개 방식, 적절한 내용 등도 의식하고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인 피드백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것이 호의적 피드백이었는데, 학습자들은 서로 호의적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친밀감을 더 느끼게 되면서 활발하게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이 피드백을 주고 받은 것 중에서 몇 개의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감을 살리기 위해 학습자들의 글을 그대로 옮겨서 약간의 오류들이 눈에 띈다.

#### (1) 긍정적인 피드백

- 너무 잘 썼어요. 나도 이렇게 잘 쓰면 좋겠어요.
- 역시 내 친구!
- 깊은 생각하면서 썼나 보다. 잘 썼어.

#### (2) 부정적인 피드백

- 참 짧네요.

8) 본고에서는 ‘잘 썼어요’ 등을 ‘긍정적 피드백’으로, ‘너무 짧게 썼어요’ 등을 ‘부정적 피드백’으로 보았다. 보았다. 문법, 철자, 구두점 등에 관한 피드백을 ‘형식 중심 피드백’으로, 문장의 의미나 글의 내용, 구성 등에 관한 피드백을 ‘내용 중심 피드백’으로 보았으며,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반박하는 피드백을 ‘반박형 피드백’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고맙다’는 등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호의적 피드백’으로 보았다.

9)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할 것이다.

- 너무 적게 쓴 게 아니에요?

### (3) 형식중심 피드백

- 작문할 때 "저"보다 "나"로 쓰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 가인->가족으로 바꾸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 "엔"은 "에는"의 줄린 말이에요. 뒤에 조사"는"붙일 필요가 없어요.
- 모두 많은 사람들의 꿈일 것이다.=>대부분 사람들의 꿈일 것이다.

### (4) 내용 중심 피드백

- 우선 잘 썼어요. 근데 제가 읽어 볼 땐 많은 부분이 문법상에 틀린 것이 없지만 좀 이상 한 느낌이 있어요. 나중에 더 자세히 읽고 어색한 부분을 고치길 바랍니다
- 나는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 (5) 반박형 피드백

- 나이가 들수록 라는 말이 사람이 늙게 되는 말이란 비슷하니까 안썼어요~~
- 내 생각에 써도 될것같아요~
- 없어서는 안된다 ---라고도 해요...실수가 아니다~~
-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 (6) 호의적 피드백

- 어...좀 자세히 생각해 볼게요~~고마워요.
- 굿! 어제 이 문제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 아, 그래요? 몰랐어요(부끄) 가르쳐 줘서 감사합니다~
- 아...실수...고마워요.

## 4.2. 동료 피드백 수용 양상

### 4.2.1. 동료 피드백 전후의 쓰기 비교

다음은 연구에 참여한 한 학생의 피드백 전후의 글이다. 동료 피드백 전과 후의 글을 비교하여 변화가 있는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동료 피드백 전의 글을 읽어 보면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조사의 생략과 띄어쓰기의 오류이다. 이 학습자는 다른 언어 영역에 비해서 말하기 영역이 우수한 학습자이다. 말하기에서의 오류가 별로 없고 적당한 속도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며 한국인 친구가 많아서 한국어로 대화를 할 기회가 많은 학습자이다. 한국어의 특성상 구어에서는 조사의 생략이 많은데, 동료 피드백 전의 글에서 조사의 생략이 지나치게 많은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동료 피드백 활동에서 다른 학습자들이 이 학습자의 이러한 오류를 잘 지적하였으며 동료 피드백 후의 글을 보면, 조사의 오류가 거의 고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어 교육 | 우리들의 '쓰기'

날루 11

외국어 공부하기 어렵지만 요즘 다른 나라 언어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외국어를 공부할때 언어뿐만 아니라 그나라 문화도 공부할수있다. 자기나라 말만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보다 여러 나라 언어를 할줄 아는 사람 사고방식이 더 넓다.

현대 사회의 발전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요즘 다른 나라 언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도 외국어 공부하기 너무 좋아한다. 어렸을때 언어 공부하기 싫어서 영어나 러시아어등 하나도 못했다. 그때 내 사고방식이 지금보다 완전히 달랐다. 고등학교때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어 공부하기에 관심이 갖게 됐다. 한국어 공부들위해서 먼저 영어 공부했다.

언어 공부하기가 우리 사고방식 과 활동, 그리고 생활에 효능이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친구도 없고 언어 공부하기 시작한다음에 외국 친구도 사귀고 외향적인 여자가됐다. 한국어 공부하고 한국에 관심이 많아지고 여기어기됐다. 어렸을 때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초등 학교 선생님이 되고싶었지만 이제 통역사 되고싶다. 언어 때문에 내인생을 이렇게 심학하게됐다.

여러 나라 언어 랑 그나라 문화도 배우고 자기 문화도 모르고 가끔 그나라 종교에 따라하는 상화도 많이있다.



외국어 교육 (2) | 우리들의 '쓰기'

날루 11

외국어 공부하기가 어렵지만 요즘 다른 나라의 언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외국어를 공부할때 언어뿐만 아니라 그나라의 문화도 공부할수있다. 자기 나라의 말만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보다 여러 나라의 언어를 할줄 아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더 넓다.

현대 사회의 발전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요즘 다른 나라 언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도 외국어 공부하기를 너무 좋아한다. 어렸을때 언어 공부하기 싫어서 영어나 러시아어등 하나도 못했다. 그때 내 사고방식이 지금보다 완전히 달랐다. 고등학교때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 공부하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한국어 공부들위해서 먼저 영어를 공부했다.

언어를 공부하기가 우리 사고방식 과 활동, 그리고 생활에 효능이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친구도 별로 없었는데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한다음에 외국 친구도 사귀고 외향적인 여자가됐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에 관심이 많아지고 여기 한국에 오게됐다. 어렸을때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초등 학교 선생님이 되고싶었지만 이제 통역사가 되고싶다. 언어때문에 내인생이 이렇게 심학하게됐다.

여러 나라의 언어 랑 그나라의 문화를 배우면서 가끔은 자기 나라의 문화를 잊고 그나라의 종교를 따라하는 경우도 많이있다.

<그림 5> 동료 피드백 전후의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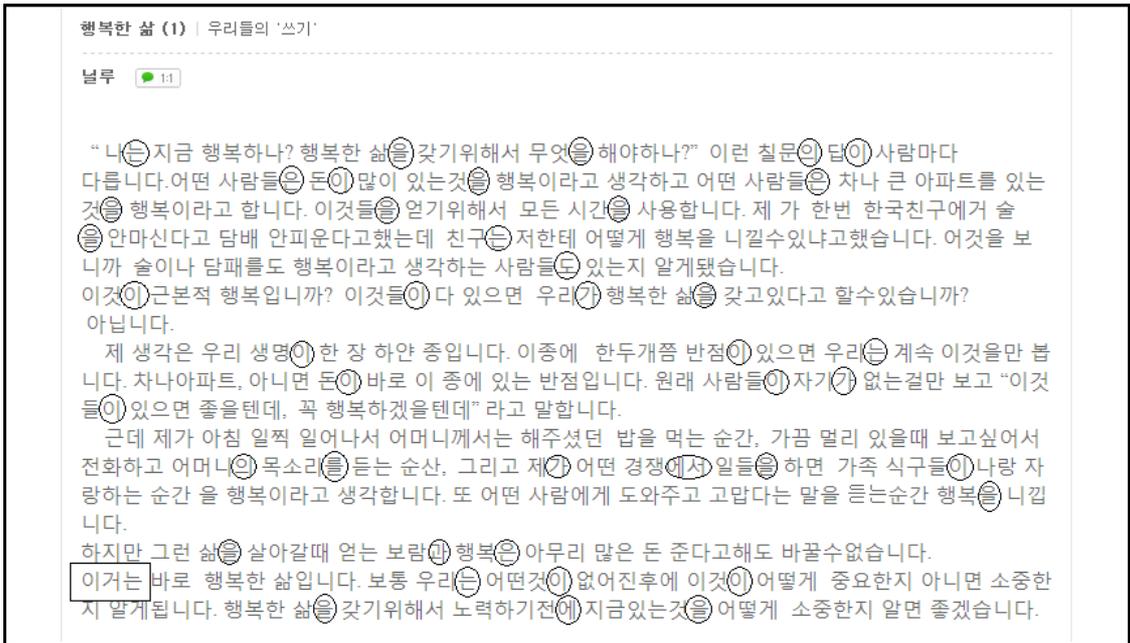
초고에서 '친구도 없고 언어 공부하기 시작한 다음에 외국 친구도 사귀고 외향적인 여자됐다'라는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동료 피드백 후에 친구도 별로 없었는데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다음에 외국 친구도 사귀고 외향적인 여자가 됐다'라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뀌었다. 이 문장에서도 조사(를, 가) 오류가 있었는데, 이 또한 수정되었다. 초고에서 '여기어기됐다'라는 부분은 여러 번 읽어봐도 의미를 유추하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그런데 수정본에서 '여기 한국에 오게 됐다'라고 수정되어 있는 글을 읽고 나서야 '여기어기됐다'가 '여기 오게 됐다'의 의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료 피드백 활동 시 다른 학습자는 이들 잘 수정하였으며 게다가 '여기 오게 됐다'에 '한국에'를 덧붙여서 더 명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만들었다. 이 글은 철자 오류뿐만 아니라 알맞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서 독자를 더 혼란스럽게 하였다. 마지막 문장인 '여러 나라의 언어랑 그 나라 문화도

배우고 자기 문화도 모르고 가끔 그 나라 종교에 따라하는 상화도 많이 있다’를 보면 철자, 어휘, 문법, 띄어쓰기 등의 다양한 오류가 있어 독자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문장이다. 그런데 동료 피드백 후 오류가 거의 고쳐지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수정되었다. 또 ‘상화’의 오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화’를 ‘상황’으로 고쳐서 철자만 수정해 줄 수도 있었는데 비슷한 의미의 ‘경우’라는 어휘로 바꿔서 문맥상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었다.

초고와 비교해 보았을 때 수정본의 오류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하여 초고보다 좋은 작문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사가 처음부터 학습자들의 오류를 고쳐주지 않고 학습자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도 된다는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교사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오류가 수정이 된 글을 보고 피드백을 주면 되므로 어느 정도의 수고를 덜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학습자의 글을 보면 요구된 내용을 적절하게 수행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글의 전개 구조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문장을 보면 지금까지 전개된 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없는 문장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가 반드시 피드백을 주어서 앞으로 더 짜임새 있는 쓰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수정본에서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는 여러 오류에 대해서도 교사가 반드시 피드백을 주어야 할 부분이다.

아래 그림은 앞의 학습자가 첫 번째 주제에 대한 글을 쓰고 나서, 일주일 후에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쓴 글이다.



<그림 6> 두 번째 주제의 초고

이 학습자가 이전의 쓰기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주격, 목적격, 소유격 조사를 위의 글에서 원으로 표시 하였다. 첫 번째 주제의 동료 피드백 전의 글에서 가장 두드러진 오류가 대부분의 ‘조사’를 생략하는 것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그러한 오류가 많이 없어진 것이 보인다. 물론 이러한 조사에 대한 학습은 초급 단계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 하지만 중

·고급 단계의 학습자들에게는 ‘조사’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고, 중·고급 단계로 갈수록 한국어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학습자들 또한 조사를 생략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쓰기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하지만 중·고급 단계로 갈수록 정확한 쓰기가 요구되며 그에 따라서 알맞은 조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료 피드백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가 ‘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다음 글을 쓸 때는 오류가 훨씬 많이 줄었다는 것은 본 활동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네모로 표시한 ‘이거는’을 보면, ‘이것은’이라고 써야 맞겠지만, 구어에 익숙한 이 학습자는 여전히 구어체 ‘이거’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거’라는 구어체에 ‘는’이라는 조사를 덧붙임으로써 학습자가 조사를 써야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은 동료 피드백 내용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더 향상된 쓰기를 하는데 잘 적용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지면관계상 하나의 예만 들었으나 추후에 더 많은 예를 통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4.3. 설문 조사 결과

실험이 끝난 후에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쓰기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 동료 피드백 활동의 유용성<sup>10)</sup>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1. 동료 피드백 활동이 쓰기에 동기부여가 되었다.	6명(40%)	8명(53%)	1명(7%)
2. 동료 피드백을 받는 것이 쓰기에 도움이 되었다.	5명(33%)	9명(60%)	-
3. 동료 피드백을 주는 것이 쓰기에 도움이 되었다.	7명(47%)	7명(47%)	1명(7%)

본 수업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피드백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피드백을 주는 것 또한 본인의 쓰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응답이 많았다.

초고에 대한 동료 피드백을 거친 후 수정본을 올리면 교사는 그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주었다. 이 과정 속에서 ‘누구의 피드백이 더 기억에 남았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5> 피드백의 종류에 따른 기억 정도

① 교사의 피드백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5명(33%)
② 친구들의 피드백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3명(20%)
③ 둘 다 비슷하게 기억에 남는다	6명(40%)
④ 둘 다 기억에 안 남는다	1명(7%)
⑤ 기타	-

10) 5점 척도로 사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응답한 학습자가 없었으므로 편익상 표에서 제외하였다.

‘교사 피드백이나 동료 피드백 모두 비슷하게 기억에 남는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결과를 보면, 학습자의 쓰기를 교사가 반드시 수정해 주어야 한다는 기존 생각에서 벗어나서 학습자들끼리 피드백을 주면서 수정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학습자에게 교사 피드백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동료 피드백의 효용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는 동료 피드백 과정에서의 오류가 없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글의 전개나 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서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동료 피드백 활동에서 가장 염려 되는 부분이 있다면, 비슷한 실력을 가진 동료가 다른 동료의 쓰기에서 얼마나 오류를 찾을 수 있으며 글의 구성 등에 대한 피드백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일 것이다. 본 실험에 앞서 실시한 사전 설문 조사와 사후 설문 조사에서 실시한 동료 피드백에 대한 신용도를 비교해 본 결과가 <표 6>이다. 이는 사전 조사에서의 결과보다 실제 동료 피드백 활동을 한 후에 동료 피드백에 대한 생각이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결과이다.

<표 6> 동료 피드백에 대한 신용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사전 설문 조사	-	2명(13%)	8명(53%)	5명(33%)	-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사후 설문 조사	-	9명(60%)	6명(40%)	-	-

다음은 온라인상에서의 활발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생긴 학습자간, 그리고 교사와 학습자 간의 친밀감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 7> 피드백 활동 후 상호 친밀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학습자 간	3명(20%)	7명(47%)	4명(26%)	1명(7%)	-
2. 교사 대 학습자	7명(47%)	8명(53%)	-	-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피드백 활동을 통해 학습자간의 친밀감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나 이보다 교사와 학습자간의 친밀도가 더 증가하였다. 이는 일주일에 한번만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는 것으로 인해 제기되었던 상호작용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한 쓰기 교육은 기존의 방식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온라인을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 기법에서 얻을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블렌디드 러닝의 교육적 효용성과도 일치되는 부분이다.

&lt;표 8&gt; 앞으로의 희망 여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1.앞으로 쓰기 수업에서의 동료 피드백 활동 희망 여부	8명(53%)	7명(47%)	-
2.쓰기 수업에서의 블렌디드 러닝 활용 수업 희망 여부	7명(47%)	8명(53%)	-

위의 질문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수업에 대하여 희망하는 학습자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좋았던 점을 서술형으로 묻는 질문에 친구들과 온라인 상에서 대화를 주고 받으며 수정해 주는 것이 재미있었고, 거의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대답이 많이 나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쓰기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내 글을 읽는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쓰기를 하였다는 학습자들도 많았는데, 독자를 의식하고 글 쓰는 습관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친구들이 내 글을 읽는 게 싫었고, 친구들의 글을 읽고 고쳐줘야 한다는 게 부담감이 들었다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면대면 수업에서의 시간적 제약 등의 문제로 쓰기 교육이 대부분 교실 밖에서의 숙제로 이루어졌던 점과 일방적인 교사 피드백의 한계를 느끼고 여기에서 탈피하여 더 발전적인 쓰기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블렌디드 러닝의 한 방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였으며 정해진 주제에 따라 학습자들이 글을 올리고 동료 피드백 활동을 한 후 수정본의 글을 다시 올리면 교사가 피드백을 주는 방법의 쓰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교육 방안을 실제 쓰기 수업에 적용하였으며, 학습자들 간의 피드백 활동 양상과 쓰기 결과물에 대한 분석 및 사후 설문 조사를 통하여 동료 피드백 활동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확인된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교실 밖에서의 숙제로 실시되었던 쓰기 학습을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가상의 공간으로 이동시켜 쓰기 학습이 진행되었으며, 학습자가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피드백을 받던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들끼리 피드백을 주고 받는 동료 피드백 활동을 통하여 활발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쓰기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높아졌으며 쓰기 학습에 대한 흥미도와 참여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쓰기 결과물을 한번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1회성의 기존의 일반적인 쓰기 교육 방법과 달리 초고를 올린 후에 동료 피드백에 대한 답변을 하고, 동료 피드백이 끝난 후에는 수정본을 다시 올려야 하므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쓰기 교육이 반복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드백을 주고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글과 동료들의 글을 계속 읽어야 하므로 읽기 학습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동료 피드백 활동은 구어체로 진행된다. 따라서 문어체의 쓰기뿐만 아니라 구어체에도 익숙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넷째,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로 구성된 수업이었지만, 학습자들은 서로 질문을 주고 받

으면서 자신이 몰랐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면서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들에게 개별 활동의 기회를 줄 수 있었다.

다섯째, 수정본의 글은 동료 피드백 전의 초고보다 훨씬 향상된 모습을 보였으며, 피드백을 주는 교사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문법이나 철자 등의 오류가 수정된 글에 대하여 피드백을 주면 되므로 기존의 방식보다 피드백을 주는 것이 훨씬 수월하였다.

하지만 교사는 블렌디드 러닝에서의 동료 피드백 활동이 알맞은 방향으로 흘러 가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하며, 다른 학습자들에 비해서 비교적 실력이 낮고, 소극적인 학습자들도 동료 피드백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의 분위기를 편안하고 활기차게 만들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언어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좋은 글이 어떤 글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것이며 이는 곧 좋은 쓰기와도 직면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학습자나 교사 모두에게 쉽지 않은 영역으로 여겨졌던 한국어 쓰기 교육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본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음으로써 동료 피드백 활동을 중심으로 한 블렌디드 러닝에서 한국어 쓰기 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더 많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더 다양한 측면에서의 면밀한 분석은 추후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윤지원(2013), “한국어 쓰기 수업에 대한 교사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 화학회 10-1』, pp.99-129,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이준호(2005), “대학 수학 목적의 쓰기 교육을 위한 교수요목 설계: 보고서 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호(2013),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쓰기 전략 분석-장르 기반 전략과 동기화 전략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3』, pp.565-575, 국제한 국어교육 학회.
- 장미라(2014),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한국어 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 회 학술대회논문집 2014』, pp.272-28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전동일·김희용(2010),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모형 개발 및 적용”, 『교사 교육 연구 49-1』, pp.49-69,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 진정란(2010), “혼합 학습(Blended Learning)을 적용한 한국어 교원 양성 방안”, 『외국어 교 육연구 25-2』, pp.83-10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 한국어 쓰기에서 교사의 구두 피드백과 문자 피드백에 대한 고급 학습자의 인식 및 반응 양상 연구

임형옥(고려대학교) · 이인혜(한성대학교)

##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교사의 피드백이 학습자의 고쳐쓰기에 반영되는 양상을 살펴 교육적 시사점을 찾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sup>1)</sup> 이를 위해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구어로 제공된 피드백과 문어로 제공된 피드백 각각의 방식이 학습자 인식과 고쳐쓰기 행위, 그리고 텍스트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쓰기 수업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교사의 중재 행위란, 학습자에게 직접적인 교육적 비계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습자 산출물에 대한 평가 행위로서 학습자의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매우 핵심적인 교육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Knoblach & Brannon, 2006; Underwood, 2008; 김경화, 2011:283). 특히 기존의 결과 중심 쓰기 교육에서 과정 중심 쓰기 교육으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피드백 행위는 이전보다 더욱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한국어교육에서도 이와 같은 피드백 관련 연구가 최근 들어 더욱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up>2)</sup>

최근 학습자 중심 교육이 강조되면서 피드백 연구 역시 일방적인 교사의 피드백 방식에 관한 논의를 벗어나 동료 간의 피드백 방식에 대한 논의라든지, 피드백 내용과 관련하여 세부 변인에 대한 논의라든지 또는 피드백 수용자인 학습자 인식 및 반응에 대한 연구

1) 본 연구에서 '고쳐쓰기(rewrite)'란 학습자가 이미 완성된 초고를 다시 수정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학습자 수정 행위의 결과는 때로는 실제 텍스트의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적 사고로만 그치는 경우도 있다. 가령, 학습자가 자신의 초고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을 시도하지만 결국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해 수정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은 수정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텍스트에는 큰 변화를 주지 못한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수정이 실제 텍스트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존의 논의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학습자 인식 측면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외적 수정 행위와 내적 사고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고쳐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피드백 관련 학습자 연구는 자신의 글에 반응을 받으면서 쓰기 학습을 해야 하는 학습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즉, 자신의 글에 반응을 받는 학생이 선호하는 반응 유형, 학생이 반응을 이해하는 정도와 수준 등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의 논의들은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피드백이 과연 학생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Haswell, 2006; Hodges, 1997; 김경화 2011).

등으로 점차 논의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설수연·김영규, 2013 Ferris, 1995, 1997).

이와 같이 쓰기 교육에서 피드백 연구는 그 성과가 매우 풍성하다. 그러나 실제 한국어 현장에서는 실제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피드백 연구의 결과를 모두 적용하기에는 교육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쓰기는 개입되는 교육적 변인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산출물 생성까지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교사들은 쓰기를 보통 교실 밖 과제로 부과하고 학습자의 산출물에 대해 문어의 형태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은 학습자에게 목표 언어인 한국어 쓰기 방식을 유형화시켜 제시하고 학습자가 이를 충실히 따를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피드백은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갖지만, 학습자의 의도 파악이 어렵고 상당 부분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의 어려움을 배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교사의 피드백이 학습자의 쓰기 산출물과 고쳐쓰기 행위 및 학습자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급 한국어 학습자 20명의 쓰기 산출물을 대상으로 구어 방식과 문어 방식으로 나누어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학습자가 피드백을 수용하여 고쳐쓰기에 반영하는 양상을 학습자 인식 측면과 산출물 변화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어로 제공된 피드백과 문어로 제공된 피드백이 각각 학습자 쓰기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가? 둘째, 구어로 제공된 피드백과 문어로 제공된 피드백이 학습자의 인식에 차이를 가져오는가?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국어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 첫째, 초고와 수정본의 비교 및 인식 조사를 통해 구어로 제공된 피드백과 문어로 제공된 피드백에 대한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반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둘째, 구어로 제공된 피드백과 문어로 제공된 피드백의 어떠한 면이 학습자의 고쳐쓰기에 비계로 작용했는지 살펴 한국어 쓰기 피드백 방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학습자 개인의 피드백 반영 양상 및 인식 분석을 통해 교사 피드백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인 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2. 선행연구

쓰기 교육에서 피드백 관련 연구들은 제공되는 피드백 방식과 관련하여 내용 대 형식, 명시적 대 암시적, 직접적 대 간접적, 동료 제공 대 교사 제공, 교사 대 자가 등과 같이 방식의 차를 기준으로 교육적 효과에 대해 논의한 것들이 많다(Ashwell, 2000; Ferris, 1997, 1999, 2004; Ferris & Roberts, 2001, Sommers, 1982; Zimmerman, 1985). 한국어교육에서도 이러한 피드백의 효과를 살피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박주현, 2007; 박연희, 2009; 설수연, 2011; 이진주, 2011; 이유림·김영주, 2013).

이와 같은 논의들은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교사의 피드백이 모두 교육적으로 유용함을 대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피드백은 학습자 자신이 위치한 현재의 수준을 인식하게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를 내재화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매우 유용한 중재 활동이다. 그러나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에 대해 학습자 개개인이 반응하는 방식은 매우

다르며, 이러한 이유로 학습자에게 내재화되는 결과 역시 차이를 보인다. 즉, 학습자가 제공된 피드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피드백의 반영 양상, 피드백의 효과도 달라지며, 곧 교사가 양질의 피드백을 제공한다하여도, 학습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이는 학습자의 중간언어 발달로 이어질 수 없다(Cohen, 1987; Cohen & Cavalcanti, 1990; McCurdy, 1992; Ferris, 1995, 1997; 차진경·이은주, 2012; 박영지, 2013).<sup>3)</sup>

따라서 최근 피드백 관련 연구는 학습자 측면의 연구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학습자가 선호하는 교사의 피드백 유형에 대해 살펴보거나 학습자가 교사의 피드백을 얼마나 이해했는가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그 예이다. 이러한 논의는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피드백이 과연 학생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의의가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Haswell, 2006; Hodges, 1997; 김경화 2011).

학습자 인식을 비교적 자세히 살핀 연구로 Ferris(1995, 1997)이 있다. Ferris(1995)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교사가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해 학습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Ferris(1997)에서는 학습자 산출물에 좀 더 초점을 두어, 학습자의 인식이 텍스트 산출과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살폈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실제 교사의 피드백에 대해 긍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으나, 교사의 피드백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의도적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피드백이 학습자의 인지, 태도, 동기 등과 연관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피드백에 있어서 교사의 비계뿐만 아니라 비계와 학습자 수용 간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쓰기 교육에 더욱 유용함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어 교실에서 쓰기에 대한 피드백은 교육 여건상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문어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간혹 특정 상황에서 구어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구어(spoken language)는 대화 상대자가 함께 있어 동시적이고 순간적이며 환경, 맥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반면 문어(written language)는 대화 상대자가 함께 있지 않기에 지연성을 가지고, 구어에 비해 사람, 장소, 시간과 같은 특정 환경의 영향을 덜 받으며 기록성, 지속성을 가진다(Goody & Watt, 1963:321). 이와 같은 구어와 문어의 특징은 피드백에서 활용될 때에도 각각 그 특성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다. 구어로 제공되는 피드백은 즉각적이고 비지속적이며 피드백이 제공되는 상황 및 맥락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또 학습자와의 동시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문어로 제공되는 피드백은 자칫 일방적이고 학습자의 개별 변인이 다소 무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학습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며 지속성을 가지므로 피드백을 제공받는 당시에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구어 피드백, 문어 피드백과 관련된 국내 연구로 영어교육 분야에서는 차진경·이은주(2012)에서 구어 피드백과 문어 피드백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 개별 변인을 존중해 줄 수 있고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의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점에서 구어 방식이 문어 방식보다 더 구체적이고 활용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한국어교육에

3) Gardner(1985a, 1985b)에 따르면, 학습동기는 크게 네 가지 구인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통합성(integrativeness)으로, 제2언어에 대한 관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동기(motivation)로, 동기의 강도, 제2언어 학습에 대한 열망, 제2언어 학습에 대한 태도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는 학습상황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learning situation)로, 제2언어 교사와 교실수업에 대한 평가로 풀이된다. 마지막은 학습의 목적(orientation)이다(이은하 외, 2011:259).

서는 박영지(2013)에서 구어 방식과 문어 방식이 각각 텍스트 질과 학습자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작문의 내용과 구조가 아닌 형태적 측면의 정확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제까지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 쓰기 교육에서 피드백이 매우 유용하지만 교사의 피드백이 온전히 학습자의 쓰기 능력 배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드백이 학습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의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피드백의 가장 기본적 두 가지 방식인 문어 방식과 구어 방식이 분명히 학습자 수용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명확히 어떠한 측면으로 인해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더욱이 이러한 점을 학습자 인식과 더불어 살펴보고자 한 논의도 극히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피드백이 쓰기 교육에 유용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교사의 피드백이 학습자 수용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집단을 둘로 나눈 후 현재 한국어 교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어 방식과 문어 방식으로 피드백을 각각 제공하고 이에 따른 학습자 수용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피드백 반영 양상은 통계적 분석과 함께 학습자 개인의 피드백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각 피드백이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에 어떠한 비계를 제공하는지를 밝히고 학습자가 구어 피드백, 문어 피드백에 의한 비계를 수용하는 데 있어 어떠한 인지적, 상위인지적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인 피드백인 교사 피드백을 제공할 때 보다 유익한 비계를 제공하는 피드백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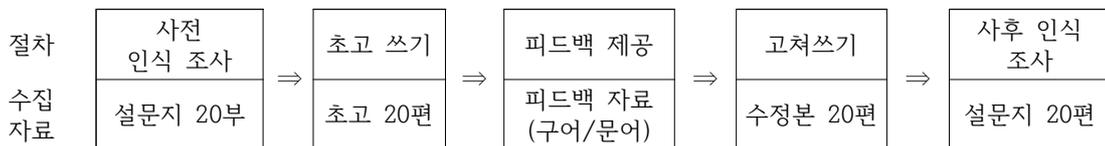
### 3. 연구 방법

#### 3.1.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한국어교육 기관(모두 3곳)의 고급 학습자 20명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다. 20명의 학습자는 각각 10명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졌다. 학습자 쓰기는 최소 3~6명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실시했고, 피드백은 쓰기 수행 후 1주일 이내에 다시 제공되었다. 이후 3~4일 후 다시 수정본과 개방형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며, 이후 다시 한 차례 미팅을 통해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절차



본격적인 쓰기 수행에 앞서 먼저 쓰기와 피드백에 관한 학습자의 평소 인식을 조사하

였다. 그리고 쓰기 과제를 제공하여 초고 쓰기를 수행한 후, 학습자의 초고에 대해 구어 또는 문어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각각의 피드백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쓰기 영역의 분석적 평가 범주와 동일하게 내용 및 과제 수행, 글의 전개 구조, 언어 사용의 다양성 및 정확성, 사회언어학적 기능으로 나누어 제공하였다. 기본적으로 두 피드백 방식 모두 질문형, 개방형, 암시적 피드백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구어와 문어, 각각의 언어 유형이 갖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피드백 세부 절차에는 다소 차이를 두었다.

구어 방식의 피드백은 교사와 학습자 간의 협의(conference)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학습자 1인 당 20~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피드백이 시작되면 교사는 먼저 간단한 일상 대화를 통해 라포를 형성하여 학습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사의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자는 먼저 간단히 자신의 초고를 훑어본 후 궁금한 점을 교사에게 질문하도록 하였고, 교사는 학습자의 질문에 대해 미리 준비해간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자와의 대화를 유도하였다.

문어 방식으로 제공된 피드백은 미리 서면으로 작성한 피드백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피드백 내용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평가 범주별로 구분하여 교사가 질문을 통해 암시적인 반응을 보이는 방식으로 하였다. 제공된 피드백의 분량은 글자 크기 11로 A4 1장반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제공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자신의 초고를 고쳐쓰게 하였으며, 수정본을 수집한 이후에 교사가 제공한 피드백과 고쳐쓰기 과정에 대하여 사후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학습자의 초고와 수정본은 경력 5년 이상의 한국어 교사 5명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실험이 모두 끝난 후 참여자들에게 합산된 결과(전체 점수 및 세부 항목 상승률과 교사의 의견)를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분석을 위해 수집된 초고와 수정본 40편에 제공된 피드백의 방식별로 구어 방식으로 제공된 피드백 집단의 학습자는 O1~O10으로, 문어 방식으로 제공된 피드백 집단의 학습자는 W1~W10으로 연번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각 초고와 수정본별로 O1(초고), O1(수정본), W1(초고), W1(수정본)과 같은 방식으로 연번을 부여하였다.

### 3.2. 연구 도구

본 연구를 위한 도구는 학습자의 쓰기 과제, 구어 및 문어 방식의 피드백, 사전·사후 설문지, 연구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 도구로 구성되었다. 학습자에게 부여한 쓰기 과제는 제 26회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작문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사전 조사를 통해 20명의 학습자들은 모두 이전에 같은 주제로 글을 써 본 적이 없는 주제임을 확인하였다.<sup>4)</sup> 학습자의 초고와 수정본에 대한 분석적 평가는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작문 채점 기준과 동일한

4) 학습자들에게 부여한 쓰기 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중 매체에서 사건을 보도할 때,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도 된다는 주장과 개인 정보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십시오.

- (1) 시청자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중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가?
- (2)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3) 대중 매체의 올바른 보도 자세는 무엇인가?

범주와 배점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피드백 활동으로 참여자들은 구어로 제공되는 방식의 피드백을 받거나 문어로 제공되는 방식의 피드백을 받았다. 학습자에게 제공한 피드백의 내용은 연구자 2인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구어로 제공되는 방식의 피드백은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드백의 내용은 미리 준비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 학습자의 질문에 의해 협의가 개시된 후에는 교사와 학습자와 함께 초고를 읽으면서 의미협상을 진행하였다. 문어로 제공되는 방식의 피드백은 분석적 평가 범주와 동일하게 작성하였으며, <표 2>와 같이 각 범주별로 대략 내용 및 과제 수행 40%, 글의 전개 구조 20%, 언어 사용의 다양성과 정확성 30%, 사회언어학적 기능 10%의 비율로 피드백을 작성하였다.

<표 2> 분석적 평가 범주와 배점 및 피드백 제공 범주와 비율

범주	배점	피드백 범주별 제공 비율(%)
내용 및 과제 수행	9	40%
글의 전개 구조	6	20%
언어 사용	다양성	30%
	정확성	
사회언어학적 기능	3	10%
총점	30	100%

쓰기와 피드백 활동에 대한 사전 경험과 평소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정본을 작성한 이후에도 피드백이 제공되는 방식에 따른 쓰기에 대한 인식과 반응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사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설문 조사는 쓰기와 피드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사후 설문 조사는 피드백 활동과 고쳐 쓴 내용을 묻는 영역으로 구성하였다.<sup>5)</sup>

## 4. 결과 분석

### 4.1. 집단별 분석

#### 4.1.1. 구어로 제공된 집단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작성한 초고에 대해 집단별로 각각 구어 방식과 문어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두 집단의 학습자들이 각자 자신이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본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초고에 비해 수정본의 점수가 향상되었다.<sup>6)</sup> 다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피드백 제공 방식에 따른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

5) 사전·사후 설문 조사는 박영지(2013), 차진경·이은주(2012), 설수연·김영규(2013) 등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6) 본 연구에서 제공한 피드백을 활용하여 고쳐쓰기 한 결과가 텍스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집단의 초고와 수정본의 총점에 대해 비모수 통계 검정 방법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어로 제공된 방식 집단에서는 초고와 수정본의 총점이 유의확률이 .037로 나타났고 문어로 제공된 방식 집단의 경우 .022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영향의 정도는 문어 방식이 다소 높

다. 아래는 집단별로 초고와 수정본의 분석적 평가 결과에 대해 일록슨 부호 순위 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3> 구어로 제공된 집단의 분석적 평가

		배점	평균	평균차	Z	P	
내용 및 과제 수행	9	초고	3.50	0.62	-2.106	.035*	
		수정본	4.12				
글의 전개 구조	6	초고	2.32	0.42	-1.181	.238	
		수정본	2.74				
언어 사용	다양성	7	초고	2.66	0.24	-1.265	.206
		수정본	2.90				
	정확성	5	초고	1.66	0.24	-1.527	.127
		수정본	1.90				
사회언어학적 기능	3	초고	1.06	0.68	-2.310	.021*	
		수정본	1.74				

\*p<.05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구어로 제공된 집단은 유의확률 .035로 내용 및 과제 수행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유의확률 .021로 사회언어학적 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과제 수행의 경우 구어가 가지고 있는 상호작용적 특성이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협상을 이끌면서 과제 수행 및 내용과 측면에서 수정본의 질 향상을 가져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내용 및 과제 수행의 경우 글의 특정 부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글의 전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협상이 가능한 구어로 제공된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언어학적 기능의 경우 고급 학습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구어체 1인칭 대명사 ‘저’ 또는 구어체 종결어미 ‘-아요/어요’의 사용이 나타나는 편이었는데, 학습자들이 교사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고쳐 쓰면서 수정본의 점수 향상을 이끈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피드백 과정에서 교사가 해당 부분이 문어체가 맞는지 질문하는 암시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자가 이에 대해 돌이켜 생각해 보고, 스스로 고쳐 쓰게 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구어로 제공된 집단의 초고와 수정본을 비교한 결과 사회언어학적 기능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 받은 6명 중 1명을 제외한 5명의 학습자가 피드백을 반영하여 고쳐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어로 제공된 집단의 경우 글의 전개 구조, 언어 사용의 다양성과 정확성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 먼저 글의 전개 구조의 경우 고쳐 쓴 후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피드백을 받은 후에 고친 내용을 묻는 항목에 대해 10명 중 2명만이 단락 나누기나 논리적인 연결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글의 전개 구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더라도 이에 대해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쓰기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교사가 제공하는 피드백만큼 피드백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나 수용 양상이 중요하다

은 수준이지만, 본 실험에서 제공한 피드백이 두 집단 모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언어 사용의 다양성과 정확성의 경우 내용 및 과제 수행에서의 고쳐쓰기 양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이 내용 및 과제 수행과 관련한 교사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수정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언어 사용의 다양성이나 정확성 측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언어 사용의 다양성이나 정확성과 관련하여 수정본의 유의미한 질 향상을 이끌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는 구어와 문어라는 피드백의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문어로 제공된 방식의 경우 고쳐쓰기를 할 때 언어의 정확성 및 다양성에 대한 수정을 하도록 이끄는 교사의 피드백이 활성화되어 남아 있는 반면, 구어의 경우 학습자가 피드백을 받을 때 메모를 하지 않는 이상 학습자의 기억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구어로 피드백을 받은 학습자가 내용 과제 수행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수정에 집중하게 될 경우 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수정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구어로 제공된 방식이 문자 피드백보다 유용하다고 한 Zamel(1985), 박영지(201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쓰기 수정본의 향상 정도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구어 방식으로 제공된 피드백 전후의 학습자의 쓰기 결과물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내용 및 과제 수행과 사회언어학적 기능 항목의 쓰기 결과물의 일부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수정본에서 밑줄로 표시된 부분은 새로 첨가되거나 수정된 부분이다.

<예시 1> 내용 및 과제 수행

<p><b>O2의 초고:</b> 사실상, 시청자들이 연예인이나 배우에 관한 사생활의 일 알 권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시청자의 호기심이다. 연예인과 배우는 대중적인 인물이 있지만 보통 사람과처럼 자기의 사생활도 있다. 나는 알 권리가 대중적인 인물의 대중활동이나 공개한 정보를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사생활은 대중 활동 뿐만 아니라 공개한 정보도 아니다. 시청자들은 연예인과 배우에게 개인 사생활을 지나친 관심이 있으면 본인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 게다가 이치적이지 않은 팬들은 스타의 개인 생활에 관한 관심이나 호기심이 많이 있느라고 항상 스타에게 부적절한 일이나 발작적인 일을 하는 상황도 많이 생긴다. 그래서 사생활에 관한 호기심은 시청자의 알 권리와 상관 없다.</p> <p>대중 매체는 공중의 매체가 있는데 시청자에게 정확한 선도적 역할이 있는 의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인에 관한 보도할 때 본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도할 때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 본인의 보호에 위해 특별한 문자나 영상 편집에 관한 처리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재가 대중 매체의 올바른 보도자세가 있다고 생각한다.</p>
<p><b>O2의 수정본:</b> 사실상 시청자들의 알 권리는 연예인이나 배우의 사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다. ①연예인의 사생활을 알고 싶다는 것은 알 권리가 아니라 시청자의 호기심이다. 연예인이나 배우는 공인이지만 일반 사람과 같은 자기의 사생활도 있다. 내가 알 권리의 범위는 공인의 대중활동과 공개한 정보만 포함 된다고 생각한다. 공인의 사생활은 대중활동뿐만 아니라 공개한 정보도 아니다. ②그래서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은 시청자의 알 권리와 관계가 없다. 시청자들은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지나친 관심이 있으면 연예인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 있다. 게다가 팬들은 공인의 사생활에 관한 호기심이 있으면 양식 없는 행동을 할 것이다. 이 런 양식 없는 행동을 하다가는 공인의 사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③예를 들면 최근의 연예계 소식에 의해서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는 요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인기가 정말 많이 있다. 여자들은 특히 남자 주인공을 아주 좋아해서 김수현의 집 주소를 찾고 날마다 그 근처에 계속 기다린다. 계속 기다리는 때다가 김수현은 집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다 알고 싶다. 이런 일이 많이 생기면 공인에게 나쁜 영향이 많이 줄 것이다. ④대중매체는 공공 매체로서 시청자에게 정확한 바르게 이끄는 역할이 있는 의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인에 대한 것을 보고할 때 공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보도할 때 사생활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자와 영상 편집을 통해 미리 처리해야 한다. 이것은 대중 매체의 올바른 보도자세라고 생각한다.</p>

학습자 O2는 주장하는 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장과 관련된 예시를 들어 글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만들라는 피드백을 받았고, 이를 반영하여 ①이나 ④와 같이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②와 같은 문장을 삽입하여 문장 간의 논리적인 결속을 강화하였다. 또한 ③과 같이 주장과 관련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 만 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수정본의 질이 향상되었다.

<예시 2> 사회언어학적 기능

<p><b>O3의 초고:</b> 요즘 대중 매체는 시청률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보도할데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연예인의 개인 적보를 공개하기도 한다. 그런 행위를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중략...)</p> <p>제 생각에는 팬이면 그 연예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략...) 저는 대중 매체가 사건을 보도할 때 연예인의 사생활을 공개하기 전에 그 연예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그 연예인의 공명에 대한 보도가 더 중요하다.</p> <p><b>O3의 수정본:</b> 요즘 대중 매체는 시청률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보도할 때,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기도 한다. <u>나는 시청자의 알 권리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 더 우선시한다고 생각한다.</u> (...중략...) 공인들도 공인이라서 개인 정보가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대중 매체가 사건을 보도할 때 공인들의 허락을 받으면 더 좋다. 그리고 연예인의 개인 정보 공개보다 연예인의 작품 더 중요하다.</p>
---

학습자는 초고 작성 시 ‘저는’, ‘제’와 같이 문어체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을 받은 후 문어체에 적합한 표현으로 고쳐 쓰거나 삭제함으로써 사회언어학적 기능 측면에서 수정본의 질 향상을 꾀하였다.

4.1.2. 문어로 제공된 집단

다음의 <표 2>은 문어로 제공된 집단의 피드백 전·후 쓰기에 대한 분석적 평가 결과이다. 구어로 제공된 집단과 달리 문어로 제공된 집단은 글의 형식적인 측면, 즉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유의확률 .015로 다양성에서 차이를 나타냈고, .007로 정확성 측면에서도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언어학적 기능의 경우에도 .037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문어로 제공된 집단의 분석적 평가

		배점	평균	평균차	Z	P
내용 및 과제 수행		9	초고 3.40	0.68	-1.755	.079
		수정본 4.08				
글의 전개 구조		6	초고 2.30	0.32	-1.367	.172
		수정본 2.62				
언어 사용	다양성	7	초고 2.52	0.62	-2.442	.015*
		수정본 3.14				
	정확성	5	초고 1.58	0.58	-2.677	.007*
		수정본 2.16				
사회언어학적 기능		3	초고 1.08	0.70	-2.091	.037*
		수정본 1.74				

\*p<.05

문어로 제공된 집단의 고쳐쓰기 후 인식 조사 결과는 앞서 언급한 구어로 제공된 집단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구어로 제공된 집단에서 피드백 후 고친 부분과 고치기 쉬웠던 부분에 대해 대부분 내용 및 과제 수행에 대해 언급한 것과는 달리 문어로 제공된 집단의 경우 <예시 4>의 인식 조사 내용과 같이 70%의 학습자가 피드백을 받은 후에 고친 부분 또는 고치기 쉬웠던 부분으로 문법이나 어휘를 꼽았다. 또한 이들 가운데 약 70%의 학습자들 수정본의 언어적 다양성 및 정확성 점수가 향상되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내용이나 구조 관련 수정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서면으로 전달된 내용과 과제 수행에 관한 피드백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구어로 제공된 방식과는 달리 이해는 했더라도 수정 방향에 대해 교사에게 질문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수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자들은 내용이나 과제 수행, 구조와 관련된 글의 전반적인 부분을 고쳐 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간단한 언어 형식에 대한 수정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적극적인 수용이 수정본 작성 과정에서 언어 사용의 다양성과 정확성의 향상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사회언어학적 기능의 경우 초고와 수정본을 비교한 결과 피드백을 제공 받은 4명 중 1명을 제외한 3명의 학습자가 피드백을 반영하여 고쳐 쓴 것으로 나타났다. 4.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언어학적 기능의 경우 구어로 제공된 집단에서도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 이와 같이 두 집단에서 모두 향상이 있었던 것은 사회언어학적 기능을 대표하는 구어체와 문어체의 구분의 경우 한국어로 작문할 때 지켜야 하는 사회적 약속임을 학습자들이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문어로 제공된 집단의 경우 내용 및 과제 수행과 글의 전개 구조면에서는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내용이나 과제 수행에 대한 피드백의 경우 언어 형식에 대한 피드백에 비해 글의 전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드백의 내용 전달이 보다 복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와 학습자 간의 의미협상이 가능한 구어 방식과는 달리 문어 방식의 경우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피드백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피드백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해했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고쳐 써야 할지 몰라 실제 텍스트의 변화로 이어지는 데에 실패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구어로 제공된 피드백의 경우 의도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의미협상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문어로 제공된 피드백은 상대적으로 낯설고 딱딱한 문어체 용어나 개념을 해석해야 하는 이중고로 인해 학습자에게 정의적 부담만을 안겨 주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까지는 제공해 주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글의 전개 구조의 경우, 고쳐 쓴 후의 인식 조사에서 피드백을 받은 후에 고친 내용을 묻는 항목에 대해 10명 중 2명만이 단락 나누기나 논리적인 연결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따라서 글의 전개 구조에 있어서는 피드백의 제공방식과 관련 없이 피드백을 제공하기에 앞서 교사의 피드백을 학습자가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반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쓰기 수정본의 향상 정도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문어 방식으로 제공된 피드백 전후의 학습자의 쓰기 결과물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언어 사용의 다양성 및 정확성과 사회언어학적 기능 항목의 쓰기 결과물의 일부를 예시로 제시하였

다. 수정본에서 밑줄로 표시된 부분은 새로 첨가되거나 수정된 부분이다.

<예시 3> 언어 사용의 다양성과 정확성

**W6의 초고:** 나는 일반인의 경우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시청자의 알 권리보다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지 않으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략...)

‘보도의 자유’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일본에는 보도기관이 가지가지의 표현 매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봉사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그 말처럼 국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고 그것을 위해 보도하는 자유도 있는데, 연예인의 사생활 보도는 위험성이 아주 높다. 그 보도 하나 때문에 연예활동이 못하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생각하고 보도해야 한다. (...후략...)

**W6의 수정본:** 나는 일반인의 경우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시청자의 알 권리보다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지 않으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고 평온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략...)

‘보도의 자유’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일본에는 보도기관이 여러가지 표현 매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봉사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그 말처럼 국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고 그것을 위해 보도하는 자유도 있는데, ‘보도 피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잘못된 보도 때문에 피해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연예인의 사생활 보도에는 큰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어떤 인기 여배우가 “열에 보도가 난 후 일이 다 끊겼다”라고 밝혔다. ‘이미지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연예인, 그들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는 바로 사생활 문제에 연결이 된다. 또한, 금전 트러블이나 스캔들이 드러나면 그것에 대한 지나친 비난과 인터넷상의 악질한 코멘트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자칫하면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고, 영향력이 큰 연예인의 자살은 일반인의 자살을 유발할지 모른다. (...후략...)

위의 <예시 5>의 고쳐 쓴 내용과 관련하여 교사는 학습자에게 고급 수업 중 배운 문법과 어휘를 더욱 다양하게 사용해 볼 것을 권유하였고, 특정 문법이나 어휘가 적절한지 혹은 정확한지 확인해 보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문법과 어휘를 사용하였고, 초고에서는 조사 주격 조사 ‘이/가’나 목적격 조사 ‘을/를’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교사의 피드백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이를 정확하게 고쳤다. 또한 적절하지 않은 문법이나 어휘를 적절하게 바꾸려는 시도도 하였다. 교사의 피드백을 반영하려는 학습자의 이러한 시도들이 언어 사용의 다양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수정본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이끈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시 4> 사회언어학적 기능

**W7의 초고:** 저의 생각에는 시청자의 알 권리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략...)

**W7의 수정본:** 요즘 TV에 연예인의 사생활이 모두 보도되고 있다. 그러기에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시청자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중 어떤것을 중시해야 하는지 논의가 많다. ① 나는 시청자의 알 권리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략...)

<예시 4>의 경우 초고 작성 시 구어체 표현 ‘저’와 더불어 종결어미 역시 구어체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나 수정본에서는 구어체 표현과 종결어미가 모두 문어체로 바뀌었다. 고쳐쓰기 단계에서 사회언어학적 기능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 및

반영한 결과 수정본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4.1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에서는 구어로 제공된 방식과 문어로 제공된 방식이라는 피드백 유형에 따라 집단별로 초고와 수정본 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총점에서는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구어로 제공된 방식 집단의 경우 내용 및 과제 수행과 사회언어학적 기능에서 초고와 수정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고, 문어로 제공된 방식 집단의 경우 언어 사용의 다양성과 정확성 그리고 사회언어학적 기능에서 초고와 수정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 4.2. 개인별 분석

이장에서는 개별 학습자의 사례를 초고와 수정본 간의 점수 향상 폭의 차이가 큰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즉 학습자 개인별로 수정본의 질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를 피드백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반영 정도와 관련지어 살펴볼 것이다.

##### 4.2.1. 초고와 수정본 간의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례

전체 학습자의 초고와 수정본 간 점수 상승 폭을 살펴본 결과 아래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수정본의 총점이 0.01점 이상 3점 미만으로 상승한 학습자가 전체 학습자 중 7명(35%), 3점 이상 5점 미만으로 상승한 학습자가 3명(15%)이며, 5점 이상 상승한 학습자가 7명(35%)으로 나타났다. 수정본의 총점이 상승한 학습자들 중에서 3점 이상 상승한 학습자들의 경우 분석적 평가 범주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모든 범주에서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학습자들의 수정본에서 점수 향상을 이끈 원인이 무엇인지를 교사가 제공한 피드백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3> 초고와 수정본 간의 점수 상승 폭과 학습자 수

점수 상승 폭	구어로 제공된 집단	문어로 제공된 집단	학습자 수(%)
-3~0점 미만	2명(10%)	1명(5%)	3명(15%)
0점~3점 미만 <sup>7)</sup>	3명(15%)	4명(20%)	7명(35%)
3점~5점 미만	3명(15%)	2명(10%)	5명(25%)
5점 이상	2명(10%)	3명(15%)	5명(25%)

먼저 초고와 수정본의 점수 상승폭이 5점 이상인 5명<sup>8)</sup>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이 작성한 고쳐 쓴 후의 개방형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5명의 학습자 모두 교사가 제공한 피드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고쳐 쓰는 과정에서 교사의 피드백을 거의 모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응답한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7)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학습자 20명의 초고와 수정본 간의 점수 상승도를 살펴본 결과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은 사례 즉, 점수의 변화가 0점인 경우는 없었다.

8) 이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O2, O3, W3, W7, W9이다.

<표 4> 수정본의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학습자별 개방형 인식 조사 응답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생님이 말한 부분을 모두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하려고 했다. -O2</li> <li>• 지적해 준 부분을 하나하나 고민하고 모두 고치려고 한 것 같다. -O3</li> <li>• 고칠 수 있는 만큼 고쳤습니다. -W7</li> <li>• 거의 다 고쳤습니다! -W8</li> </ul>
--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수정본의 점수가 5점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한 학습자들의 경우 대부분 교사의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고쳐쓰기 단계에서 반영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교사의 피드백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적극적으로 고쳐쓰는 과정에서 글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sup>9)</sup> 단, 학습자 W3의 경우 개방형 인식 조사 결과 교사의 피드백을 모두 고쳤으나 인식 조사에서는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당 학습자의 초고와 수정본, 교사의 피드백 내용과 분석적 평가 결과를 검토한 결과 교사가 제공한 피드백을 거의 대부분 고쳐쓰기에 반영하였으며, 수정본의 분석적 평가 결과도 범주별로 모두 균형 있게 점수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초고와 수정본의 점수 폭이 크게 향상된 학습자들의 초고와 수정본을 비교하여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고쳐쓰기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내용 및 과제 수행의 경우 학습자들은 교사의 피드백에 반응하여 다음과 같은 고쳐쓰기 양상을 나타냈다.

- 과제 추가하기
- 주장과 근거 구체화하기
- 예시 추가하기
- 부연 설명하기
- 자료 인용하기
- 삭제하기

글의 전개 구조는 앞서 4.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단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학습자 개별적으로는 차이를 보이는 사례들이 있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고쳐쓰기 양상이 나타났다.

- 단락 나누기
- 단락별 내용 추가하기
- 담화 표지 사용하기

언어 사용의 다양성과 정확성의 경우 주로 내용을 수정하면서 새로운 어휘나 문법을 추가하거나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 고쳐 써야 할 내용이 분명한 항목에 대해 고쳐쓰기가 이루어졌다.

9) Ferris(1995:46)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93.5%가 교사의 피드백이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고, 차진경·이은주(2012:275)에서는 피드백 활동에 대한 영어 학습자의 호응도 조사에서 컨퍼런스 피드백 집단과 문자 피드백 집단 모두 피드백 활동이 쓰기 능력 향상에 기여했고 앞으로도 쓰기 학습 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수연·김영규(2013:117-119)에서는 피드백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및 선호 조사에서 피드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이 가장 높아 한국어 학습자들이 교사 피드백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새로운 문법 및 어휘 추가하기  
적절한 문법이나 어휘로 교체하기  
맞춤법 및 띄어쓰기 고쳐쓰기

사회언어학적 기능의 경우 고쳐 쓸 내용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구어체를 문어체로 변경한 경우 점수 폭의 향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제가’ 등을 ‘나는’, ‘내가’ 등으로 교체하기  
구어체 종결어미를 문어체 종결어미로 교체하기

#### 4.2.2. 초고와 수정본 간의 점수가 하락한 사례

한편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학습자 중 3명(15%)<sup>10)</sup>은 점수 상승 폭이 -3점 이상 0점 미만으로 초고에 비해 수정본의 점수가 오히려 하락한 결과가 나타났다. 개별 학습자들의 초고와 수정본을 분석한 결과 고쳐쓰기의 양상 면에서는 앞서 4.2.1에서 제시한 점수 폭이 크게 향상된 사례와 마찬가지로의 특징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들이 작성한 고쳐 쓴 후의 개방형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앞서 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된 집단과는 달리 교사가 제공한 피드백 중에서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교사의 피드백과 자신의 의견이 대립되거나 교사의 피드백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 자신이 생각한 대로 수정 방향을 결정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표 5> 수정본의 점수가 하락한 학습자별 개방형 인식 조사 응답 결과

- 대중 매체의 역할에 대해서 쓰는 것이 어려웠어요. 고치고 싶는데 아직도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중심 생각이라는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맞다는 부분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07
- 4번째 단락을 그다지 고치지 않습니다. 고치면 이 단락이 너무 길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글의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서 안 고치는 걸로 했습니다. -08
- 서술(설명) 부분이다. 애초에 잘 몰라서 못한 거니까 다시 고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다. 끝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은 고치지 않았다.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고, 또 공간도 부족했다.

그러나 학습자가 교사가 제공한 피드백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정본의 질이 하락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학습자들의 초고와 수정본, 그리고 피드백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음의 <예시 5>는 W3의 초고와 수정본이다.

10) 이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O7, O8, W1이다.

<예시 5> W1의 초고와 수정본 전문

<p><b>W3의 초고:</b></p> <p style="text-align: center;">사생활 존중</p> <p>시간이 지날수록 정보도 점점 투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 매체에서 사건을 보도할 때, 보도 대상의 직업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까지 다 공개하게 되었다. 대중 매체가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도 제 생각에는 이런 행위는 사생활 침해이기도 한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하기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더 우선시해야 한다.</p> <p>물론, 사람마다 알 권리가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를 전제로 하면 무리하다고 생각한다. 김연아를 예로 들면, 운동 선수인 그에 대해 우리가 알 권리가 있는 범위 김연아가 경기에서 한 표현과 성적뿐이다. 왜 김연아에게 발자취를 뒤따라 사생활까지 공개하는가?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 하는 짓이 아니라, 대중 매체들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채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므로 제가 이기적으로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하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p> <p>대중 매체는 사실대로 보도하는 본직에 입각하는 동시에, 그 보도는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보도할 필요가 있는지 꼼꼼히 생각해야 한다. 또한 대중 매체는 시청자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소재를 정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적극적인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했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제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b>W3의 수정본:</b></p> <p style="text-align: center;">알 권리와 사생활 침해</p> <p>①시간이 지날수록 정보도 점점 공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중 매체에서 사건을 보도할 때, 보도 대상의 직업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까지 다 공개하게 되었다. 대중매체가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도 제 생각에는 이런 행위는 사생활 침해이기도 한다. ②왜냐하면 대중 매체들이 시청자가 알 권리가 있는 직업, 사건 자체 뿐만 아니라 보도 대상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폭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시청자의 알권리를 만족 시키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사생활까지 침해하고 그들에게 불편을 주기 쉽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하기보다 개인의 사생활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p> <p>물론, 사람마다 알 권리가 있다. 그런데 ③저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를 전제로 하면 무리하다고 생각한다. 김연아를 예로 들면, 운동 선수인 그에 대해 우리가 알 권리가 있는 범위는 김연아가 경기에서 한 표현과 성적뿐이다. 왜 김연아에게 발자취를 뒤따라 사생활까지 공개하는가? 제 생각에는 이런 행위는 대중 매체들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여긴다.</p> <p>그래서 ④제가 이런 행위를 반대한다. 대중매체들이 이기적으로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하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제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

교사는 W3이 쓴 초고의 내용 및 과제 수행에 대하여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문장에 대해 질문하는 피드백을 주었고, 학습자는 이를 ①과 같이 고쳐 썼다. 그 결과 ‘투명화’라는 어휘의 의미를 ‘공개하게 되다’로 바꾸면서 좀 더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게 된 점에서 고쳐쓰기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②의 경우 교사가 앞선 주장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본문에서 제시하기를 바라는 의도로 앞선 문장 ‘이런 행위는 사생활 침해이기도 하다’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피드백에 학습자가 ②의 이유를 삽입하여 이유를 제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본문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서론에서 다루게 됨에 따라 글의 전개 구조 점수가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교사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반영하려 한 학습자의 시도에 주목한다면, 이러한 학습자의 적극적인 시도를 바탕으로, 1회 피드백이 아닌 교사의 피드백과 학생의 고쳐쓰기가 2회 이상 오가는 다중 고쳐쓰기(multiple-draft) 통

해 수정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사는 초고의 세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대중 매체의 올바른 보도 태도’에 대한 학습자의 주장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학습자는 <표 15>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유를 들어 수정을 포기하였고, 해당 단락을 삭제해 버림으로 인해 내용 및 과제 수행의 점수가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문어로 제공된 피드백 방식의 특징과도 관련 지어 분석할 수 있다. 학습자가 수정의 방향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 때 구어로 제공된 상황에서는 교사-학습자 간의 즉각적인 질문과 응답을 통해 수정의 방향을 협상할 수 있지만, 문어로 제공된 방식에서는 학습자는 수정의 방향에 질문할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수정을 포기해 버리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해당 부분에 고쳐쓰기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즉 교사와 학습자의 고쳐쓰기에 대한 신념이 다른 경우, 교사가 그 이유를 학습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고쳐쓰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문어로 제공된 방식 상황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통제되는 것도 학습자의 고쳐쓰기 포기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회언어학적 기능의 경우에는 해당 학습자가 교사의 피드백에 주목하지 않았음을 인식 조사에 대한 응답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 학습자가 교사의 피드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점수의 하락을 이끈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해야 한다’, ‘-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표현이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교사의 피드백을 받은 학습자가 이와 같은 형식의 표현을 ③, ④와 같이 추가하면서, 주어로 ‘제가’, ‘저는’이라는 구어체 표현이 추가적된 것도 사회언어학적 기능 점수를 하락하게 한 또 다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수정본의 점수가 하락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교사의 피드백에 학습자가 깊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주의를 기울였으나 고쳐쓰기 과정에서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학습자가 그렇게 반응하게 한 원인 즉, 교사의 피드백이 어떻게 학습자에게 인식되고 수용되는가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5. 결론 및 제한점

### 참고문헌

- 김경화(2013). “학생 글에 대한 반응 연구 동향 및 전망.” 『작문연구』 (한국작문학회) 13. 282-314.
- 김지숙(2008). “암시적 피드백과 명시적 피드백이 조사 오류에 미치는 영향-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36. 93-114.
- 박연희(2009). “한국어 쓰기에서 교사의 피드백 유형이 문법 오류 수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직접 피드백과 간접 피드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지(2013). “교사의 피드백 유형이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능력 및 정의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면담 피드백과 서면 피드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현(2007). “교사 피드백 방법이 학습자 작문의 형태 오류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8-1. 131-154.
- 설수연(2011). “서면으로 제공되는 수정적 피드백, 제2언어적성 및 학습자 태도가 한국어 조사 습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수연·김영규(2013). “한국어 쓰기 피드백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인식 및 선호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4-3. 109-138.
- 심유나·이병규(2012). “초등 쓰기 교육에서의 고쳐쓰기 교육의 실태 연구.” 『새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93. 83-111.
- 이유림·김영주(2013). “교사의 피드백 방법이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내 어휘 오류 감소에 미치는 영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39. 165-191.
- 이은하 외(2011). “한국어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개인차 요인과 제2언어 성취 간의 관계.”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46. 253-296.
- 이재승(1998). “쓰기 과정에서 교정의 의미와 양상.” 『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연구회) 97. 117-136.
- 이진주(2011).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한 집중 피드백이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적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덕(2008). “교사 질문발화와 학생 반응에 대한 교사 피드백 발화.” 『국어교과교육연구』 (국어교과교육학회) 15. 177-216.
- 정희모(2008). “글쓰기에서 수정(Revision)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연구-인지적 관점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34. 333-360.
- 조두상(1984). “한·영 구어와 문어의 차이점 비교연구.” 『언어연구』 (부산대학교 어학연구소) 7. 1-19.
- 차진경(2012). “피드백 제공 유형이 성인 학습자의 영어 쓰기 능력과 정의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컨퍼런스 와 문자 피드백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진경·이은주(2012). “피드백 유형이 성인 학습자의 영어 쓰기에 미치는 영향: 컨퍼런스 와 문자 피드백의 비교.” *Foreign Languages Education*, (한국외국어교육학회) 19-3. 255-284.
- 최연희 외(2009). 『영어쓰기 교육론 : 원리와 적용』. 서울: 한국문화사.
- Ashwell, T. (2000). Patterns of Teacher Response to Student Writing in a Multiple-Draft Composition classroom: Is content feedback followed by form feedback the best method?.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9(3), 227-257.
- Cohen, A. D. (1987). Student Processing of Feedback on Their Compositions. In A. L. Wenden & J. Rubin(Eds.). *Learner Strategies in Language Learning*. 57-69.
- Cohen, A. D. & Cavalcanti, M. C. (1990). Feedback on compositions: Teacher and student verbal reports. *Second language writing: Research insights for the*

- classroom*. 155-177.
- Ferris, D. R. (1995). Student Reactions to Teacher Response in Multiple-Draft Composition Classrooms. *TESOL Quarterly* 29-1. 33-53.
- Ferris, D. R. (1997). The Influence of Teacher Commentary on Student Revision. *TESOL Quarterly* 29-1. 315-339.
- Ferris, D. R. (1999). The Case for Grammar Correction in L2 Writing: Where are we, and where do we go from here?(and what do we do in the meantime...?.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8(1), 1-11.
- Ferris, D. R., & Hedgcock, J. S. (2004). *Teaching ESL Composition: Purpose, Process, and Practice(2nd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London: UK.
- Ferris, D. R., & Roberts, B. (2001). Error Feedback in L2 Writing Classes: How explicit does it need to be?.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10(3), 161-184.
- Hyland, K. (2003). *Second language writ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 Hyland, K. & Hyland, F.(2006). Feedback on second language students' writing. *Language Teaching* 39. 83-101.
- Knoblauch, C. H. & Brannon, L. (2006). Introduction: The Emperor (Still) Has No Clothes. In R. Straub(2006). *Key Works on Teacher Response*. Boynton/Cook Publishers.
- McCurdy, P. (1992). What Students Do with Composition Feedback. *Paper Presented at the 27th Annual TESOL Convention*, Vancouver, BC. Canada.
- Patty-Chavez, G. G., & Ferris, D. R. (1997). Writing Conferences and the Weaving of Multi-voiced Texts in College Composition. *Research in the Teaching of English* 31. 51-90.
- Sheen, Y.(2010). Differential Effects of Oral and Written Corrective Feedback in the ESL Classroom.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32. 203-234.
- Sommers, N. (1982). Responding to student writing.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3. 148-156.
- Underwood, J.S.(2008). Effective Feedback: Guidelines for Improving Performance. *ICLS'08 Proceedings of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Learning Sciences 2*.
- Zamel, V. (1985). Responding to student writing. *TESOL Quarterly* 19. 79-102.

# 프레지(prezi)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박현주(중앙대)

## 1. 들어가면서

최근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멀티미디어 도구의 등장으로 한국어 교실 내 학습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멀티미디어 도구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거나 학습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찾는 것은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니다. 특히 요즘 학습자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학습할 때 시청각적인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러한 자극이 없을 경우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와 몰입을 위해서라도 학습현장에서 언어교사로서 멀티미디어 도구를 적절하게 다루고 수업 적재적소에 그것들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수업 현장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도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워포인트(ppt)이다. 프레지(prezi)는 파워포인트와는 조금 다른 기능과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본문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류성현(2012)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레지를 활용한 학습이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신장시키고 학습 흥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으며 김명량(2012)은 스마트 환경<sup>1)</sup>에 적합한 멀티미디어 도구로써 프레지를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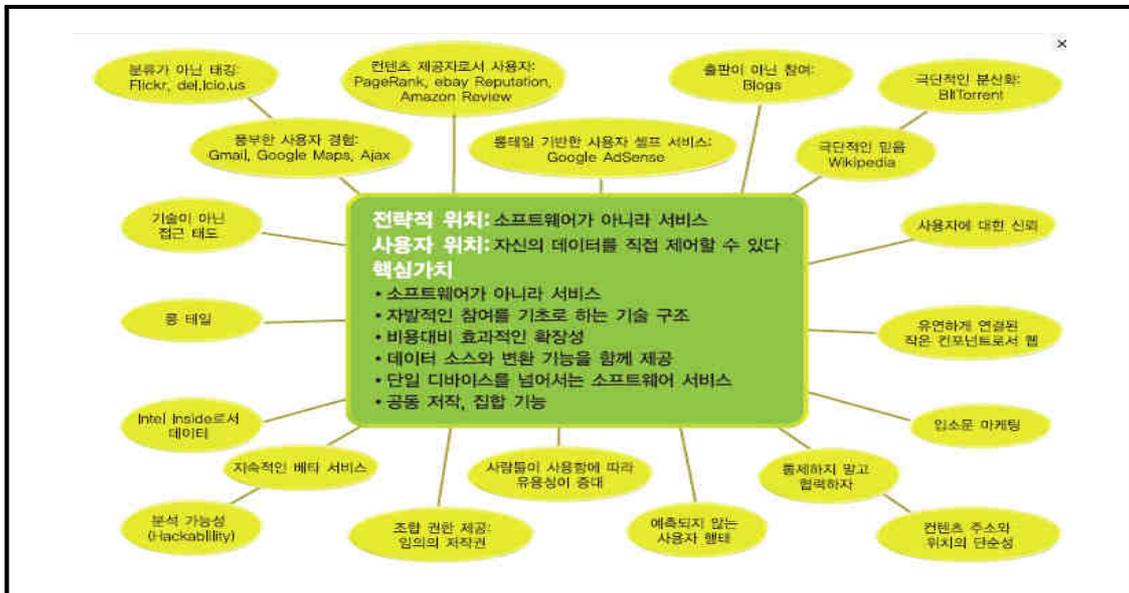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프레지가 많이 연구되지 않았지만 앞선 연구들을 살펴 볼 때 한국어 교육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프레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프레지의 큰 특징인 웹 2.0과 클라우드 기반에 대해 먼저 살펴 본 후 프레지의 기능 그리고 수업 모형에 대하여 밝히도록 하겠다.

1) 스마트 환경은 웹2.0, 스마트 미디어, 소셜 미디어,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 5.0M,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통해 다양화 되고 있다(김명량, 2012)

## 2. 웹 환경의 변화와 프레지(prezi)

### 2.1 웹 2.0 시대

웹 2.0이란 개방, 참여, 공유의 개념을 대표하며, 사용자가 정보의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되는 인터넷 통합 환경을 말하는데 이 용어는 2004년 IT관련 컨퍼런스에서 오라일리(O'Reilly)사와 미디어라이브(Media Live)사 간에 아이디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개념이 처음 도출되었다(김명량, 2012). 유혜림, 송인국(2010)에서는 개방성 서비스 구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핵심가치를 창출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말하며, “정보의 개방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들 간의 정보공유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정보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움직임”으로 웹 2.0을 정의하고 있다. 즉 웹 2.0시대에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그 정보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 웹2.0의 Meme Map(Oreilly Media's Conference)

(유혜림 · 송인국, 2010)

송해덕(2008)은 이전 학습자와 웹 2.0 시대의 학습자의 특징을 비교 기술하였는데 웹 2.0시대의 학습자 특징은 다수의 과제, 비선형적 접근, 즉각적인 보상 필요, 환상적, 테크놀로지의 친화력으로 기존의 학습자 특징과 구분될 수 있다(송해덕,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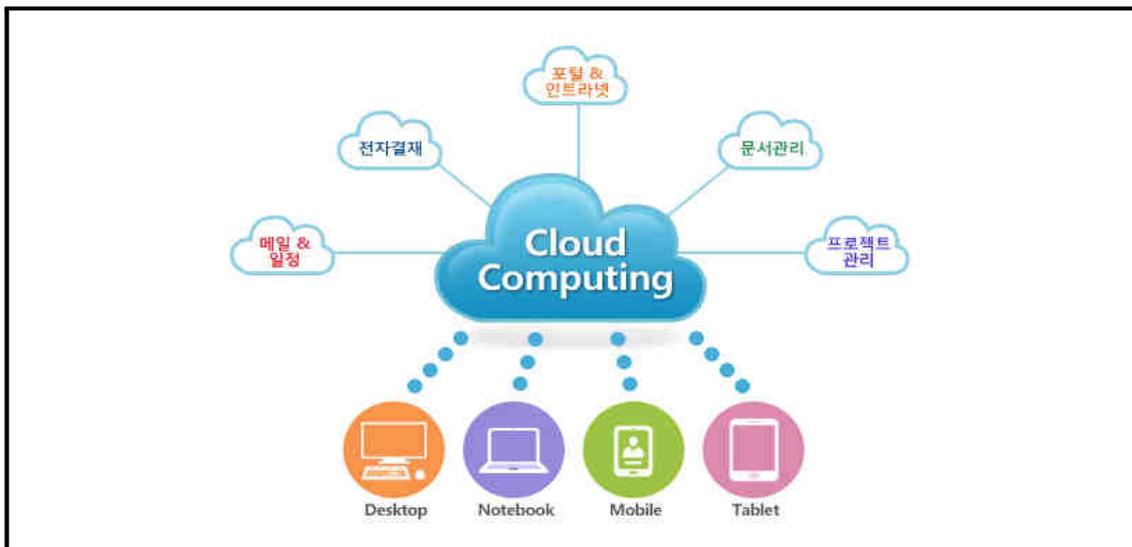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기술 친화적인 성향이 있어서 새로운 멀티미디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러한 학습자들에게 미디어를 잘 구현해 낸 수업을 제공한다면 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 1> 웹 2.0 시대 학습자 특징 비교

웹 2.0 이전 세대 학습자	웹 2.0 시대 학습자
단일의 과제	다수의 과제
선형적 접근	비선형적 접근
단일한 차원의 정보흐름	불연속적 정보처리
독자적	연계적
경쟁적	협동적
수동적	주도적
학습과 행동의 분리	행동에 의한 학습
지연	즉각적 보상
현실적	환상적
테크놀로지에 대한 두려움	테크놀로지 친화적

### 2.2 클라우드(cloud) 기반 서비스

클라우드란(cloud) 컴퓨터로는 입·출력만 하고 모든 데이터는 인터넷(클라우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언제 어디에서든지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네이버의 N드라이브 서비스, 애플의 icloud 등이 있다. 클라우드 기반은 웹 2.0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림 2> 클라우드 컴퓨팅(www.gowi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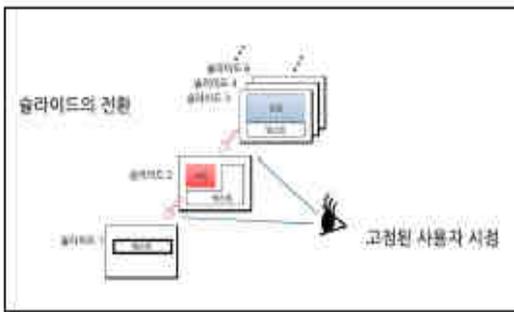
### 2.3 프레지(prezi)

프레지의 창업자 중 한 사람인 아담 솜러이 피셔(Adam somlai-fisher)는 건축가로, 연구 과제였던 상호작용 디자인 및 역동적인 그룹 등을 설명하기 위해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과 전체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축소된 사진, 설명에 필요한 크고 작은 화살표를 직접 손으로 만들다가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어 2001년부터 줌인(Z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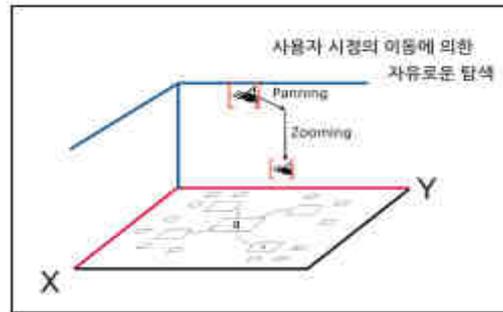
in)과 줌아웃(Zoom out)을 이용한 발표를 시도했는데 이것이 현재 프레지의 시초가 되었으며 2009년부터 시제품을 만들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sup>2)</sup>

프레지는 앞에서 언급한 웹 환경(웹 2.0, 클라우드 기반)에 최적화된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써 www.prezi.com을 통해 누구나 쉽게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프레지는 자료를 만드는 톨로 ZUI(Zooming User Interface) 방식을 사용한다. 이것은 카메라 줌렌즈가 확대·축소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며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다. 또한 카메라의 이동 경로를 path를 통해 설정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조준성(2011), 남충모·김종우(2013)<sup>3)</sup>, 류성현(2012)은 파워포인트와 프레지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 프레지는 파워포인트 같은 차트개념의 슬라이드 방식이 아니며, 무한의 캔버스(canvas) 속에서 각 아이디어들 간의 상·하위 요소들을 마인드맵 형식의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조준성, 2011). 즉,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를 통해 선형적으로 정보를 제시하고 프레지는 자유롭게 공간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선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류성현, 2012).



<그림 3> 슬라이드에 의한 선형적 자료 제시



<그림 4> 프레지의 비선형적인 탐색

2) 이도원, 배준우, 최종서(2011),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프레지, 멘토르 출판사

3) 파워포인트와 프레지의 비교 (남충모, 2012)

구분	파워포인트	프레지
형식	• 슬라이드 -한 장 한 장 완성해가는 형식	• 캔버스 -한 장의 도화지에 모든 내용을 넣을 수 있음
설치	• 사용자 PC에 설치해야 함	• 클라우드 기반
가격	• 한글 MS 파워포인트 정품 14만원대	• Public-무료 • Enjoy-연간 59달러 • Pro-연간 159달러 *Pro-오프라인에서도 사용가능, 프레지 마크 삭제
운영 체제	• 윈도우	• 윈도우나 Mac의 OS X
주요 기능	• 다양한 디자인 서식 • 기본 제공되는 도형 • 클립아트 • 애니메이션 효과 • 차트제작 • 워드아트 • 엑셀 등 다른 프로그램과 연동	• 쉬운 버블 메뉴 • ZUI(Zoomable User Interface) • Planning 기능 • 구글 검색을 통한 쉬운 이미지 삽입 • 유튜브 검색을 통한 쉬운 동영상 삽입 • 사용자가 공유한 프레지 작품들의 재활용 가능

프레지는 어떤 틀 안에 있는 것이라 아니라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이다. 또한 유튜브, 페이스북, 파워포인트, 소리와 같은 여러 가지 자료를 쉽게 프레지에 삽입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이 한국어 수업에서 잘 활용한다면 학습자들에게 좀 더 흥미로운 수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3. 프레지를 활용한 읽기 수업 방안

#### 3.1 프레지를 통한 읽기활동

학습자들에게 긴 텍스트를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언제나 큰 부담으로 다가 온다. 특히 초급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문자 읽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본 수업에서는 프레지를 통하여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텍스트를 단락별로 나누어 읽히면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이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해 잘 파악하고 텍스트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텍스트 내용>

#### 읽어 봅시다

• 여러분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체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① 에이미 씨는 밥을 먹고 나서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할 일이 많거나 걱정이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에이미 씨는 소화제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병원에 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될 때는 콜라나 사이다를 마십니다.

② 어느 날 에이미 씨는 지영 씨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지영 씨는 에이미 씨를 위해서 닭고기, 갈비, 갈비, 해물탕 등 한국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에이미 씨를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음식이 맛이 없어도 많이 드세요."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미 씨는 평소보다 음식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③ 저녁을 먹고 나서 지영 씨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에이미 씨는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손과 발에서는 땀이 났고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머리도 너무 아팠습니다. 지영 씨는 에이미 씨가 약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화가 잘되는 약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도 에이미 씨의 증상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④ 그때 지영 씨가 실과 바늘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이미 씨는 그것을 보고 놀라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뭘까요? 이걸 왜 가져왔나요?"  
지영 씨는 에이미 씨의 손가락을 살피고 말했습니다.  
"조금 아플 거예요. 아파도 봐주세요."



⑤ 지영 씨는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찔렀습니다. 손가락에서 아간색 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배가 아프지 않고 편안해졌습니다. 에이미 씨는 놀랐습니다.

"에이미 씨, 한국에서는 체했을 때 이렇게 해요."  
에이미 씨는 지영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의 내용은 중앙한국어 2급 13과의 읽기 영역 텍스트이다. 텍스트를 5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학습자들에게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잘라서 제시하였다. 프레지의 줌인, 줌아웃 기능을 활용하여 단락의 내용이 강조되도록 했다.

### 3.2 수업 방안

학습대상	2급
읽기 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들이 스키마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음식을 많이 먹고 배가 아프거나 몸이 안 좋을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지 물어본다.</li> <li>• 프레지를 통해 다시 한 번 주목을 이끈다.</li> </ul> <div data-bbox="368 640 922 748" style="background-color: #d3d3d3;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b>여러분은 소화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나요?</b></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번 텍스트를 나누어 주며 주인공 에이미는 어떻게 했을지 함께 읽어 보기로 하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li> </ul>
읽기 단계	<p>① 1번 텍스트를 다 읽은 후 프레지의 다음 장면을 제시한다.</p> <div data-bbox="391 869 724 925"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p>에이미 씨는 소화가 안 될 때 콜라나 사이다를 마십니다.</p> </div> <div data-bbox="419 945 670 1267">  </div> <p>② 학습자들에게 자신들이 읽은 내용을 시각화를 통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제시된 문장을 통해 핵심 내용도 파악할 수 있게 한다.</p> <p>③번 텍스트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읽게 하고 프레지를 제시한다.</p> <div data-bbox="391 1391 699 144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p>어느 날 지영 씨에게 초대를 받았습니니다.</p> </div> <div data-bbox="778 1391 1070 144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p>에이미 씨는 음식이 맛있어서 평소보다 더 많이 먹었습니다.</p> </div> <div data-bbox="408 1469 1070 1771">  </div>
읽기 단계	<p>④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단락별로 읽으면서 지금 자신이 텍스트의 전체 중 어디쯤 읽고 있는지 확인하고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프레지의 프레임 기능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p>

	 <p>⑤ 마지막 단락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읽힌다.          ⑥ 내용 이해 확인을 위해 학습자들에게 프레지를 보면서 읽은 내용을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때 프레임 안에 있는 문장은 삭제한다.</p>
읽기 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을 따는 것 이외에 한국에서 체했을 때 사용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본다.</li> </ul>

### 3.3 프레지의 사용 효과

학습자들 대부분은 프레지를 처음 접해 봤기 때문에 흥미로움을 느꼈으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기존에 텍스트의 맥락을 자주 놓쳐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던 학습자들도 본 수업에서는 맥락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읽기 활동으로 끝내지 않고 준비된 자료를 통해 자신의 말로 다시 한 번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한 학습자도 있었다. 또한 문제를 파악하고 푸는 속도도 이전에 비해 조금은 단축되었다. 이를 통해 프레지가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 면담을 통해 효과에 대해 알아 봤을 뿐 구체적인 실험을 하지 못하였다. 이 부분은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하여 보완할 계획이다.

## 4. 나가면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프레지를 통한 읽기 수업 방안과 그 효과에 대하여 논하였다. 웹환경의 빠른 변화는 한국어 교실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웹 2.0시대의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수업을 구성하기위해 한국어 교사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프레지의 ZUI(Zoom User Interface)기능을 통하여 텍스트를 조금 더 강조하고 맥락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이것이 학습자들에게 자극이 되고 흥미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멀티미어 도구를 잘못 사용할 경우 학습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어떤 수업에서 어떤 멀티미디어 도구를 사용할 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프레지의 사용효과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곽덕훈(2010), 스마트 교육의 의미와 전망, 스마트 교육 코리아 발표 자료집, 한국이러닝
- 김명량(2012), 스마트 교육을 위한 Prezi와 Facebook을 활용한 교수매체 제작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교육방법연구, 제24권 1호
- 남충모·김종우(2013), 프레지 학습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교육학회논문지, 제17권 1호.
- 류성현(2012), 프레지의 ZUI를 활용한 학습이 학습자의 흥미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해덕(2008), Web 2.0시대 HRD 2.0으로의 도약. 민관협력 인적자원 개발 페스티벌, 산업협회.
- 유혜림·송인국(2010), 웹 서비스 형태 변화에 따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진화, 인터넷정보학회, 제11권 3호.
- 이도원·배준오·채종서(2011),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프레지, 멘토르출판사.
- 이찬규 외(2012), 중앙한국어 Core Krean 2(하), 태학사.

<참고 홈페이지>

<http://www.gowit.co.kr/>

第32次 中央語文學會 全國 學術大會

## 고전문학

<여우설화(狐說話)>에 나타난 여우신성관념의  
내셔널리티(nationality)와 <신라신화(新羅神話)>의  
여우신(狐神) 배제 원리  
권도경(세명대)

女鬼의 變移樣相 考察 - 說話와 都市怪談의 比較를 通하여 -  
진수현(성결대)

가람 時調論에 대한 小考  
강관진(중앙대)

古典 敘事文學에 나타난 술 研究  
유권석(남서울대)

<醉遊浮碧亭記>와 <南炎浮洲志>의 比較 考察  
유상숙(중앙대)



# 〈여우설화(狐說話)〉에 나타난 여우신성관념의 내셔널리티(nationality)와 〈신라신화(新羅神話)〉의 여우신(狐神) 배제 원리

권도경(세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 국문초록

본 연구가 규명해 보고자 한 부분은 이류토텐으로 선택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인식되고 있는 여우신성관념과 신라 건국·왕권신화의 내셔널리티 관련성 문제이다. 이러한 아젠다가 성립 가능한 것은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지만 <여우설화>의 향유맥락 속에 <고조선신화>의 내셔널리티와 관련된 여우토텐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해당 텍스트 속에서 여우토텐은 <고조선신화>의 내셔널리티 맥락으로부터 배제되어 나타나는데, 여기서 배제된 여우토텐은 <신라신화>의 내셔널리티 관련 컨텍스트 속에서 다시 확인된다. 여우는 신라의 내셔널리티를 대표하는 토착신격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한국신화의 통시적(通時的)인 수직좌표축에서 보자면 전대 국가와 후대 국가 사이에 상이한 내셔널리티 상징 이류의 교체가 된다. 즉, 고평에서 여우로의 교체다. 여우신격이 지니는 신라 내셔널리티는 동시대의 수평좌표축에서 병립한 <백제신화>의 토착 용토텐과 대비되어 그 특수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여우신격은 <신라신화>의 내셔널리티를 상징하는 신수(神獸)로 지목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류토텐으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내는데, <신라신화>가 국가이념으로 선택한 불교에 신성유전형질(神聖遺傳形質)을 전달하여 권위를 정당화 해주기만 하고 배제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우와 대비적으로 신라왕가 집단의 이류토텐으로 선택된 것은 불교의 용 토텐이 된다.

<신라여우설화>에 나타난 <신라신화>의 내셔널리티는 여우신성관념을 포획하여 객체화는 시켰으나 이류토텐으로 선택하지 않았던 배제의 원리는 신라 왕실의 법룡 토텐 확립기에 대립한 두 개의 왕권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객체화와 악신화이다. 진평왕대에 확립된 동륜태자계 집단은 법룡을 왕실토텐으로 선택하여 석가종족의 불교이념적 신화를 확립시켜 나갔는데, 이 왕권이념을 뒷받침 하는 원광법사의 신생호국불교는 토착 여우신성관념을 신성토텐으로 선택하여 기존 불교를 대체할 이념적 권위를 수혈하였다. 토착 여우

신격은 이처럼 동률태자계 집단의 왕권질서에 복무하는 호국불교의 관념 체계 속에 관념적인 유전자를 전달하는 객체로는 선택되었지만 왕위계승권자 혹은 왕권관념질서 계승권자의 유전형질 속에 해당 신성성을 육화 시킨 이류토템으로 선택되는 데는 실패하고 자살의 형태로 자발적 소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금률태자계 집단은 토착 이류신격을 악신화 하여 살해함으로써 불교관념의 매개 없이 직접 토착민속신앙을 통제할 왕권질서 계승자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금률태자계와 관련된 자료 속에서 토착 여우신격은 객체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악신화(惡神化) 되고 있으며 타살의 형태로 소거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악신화를 통한 배제가 가능한 것은 금률태자계 집단의 신성택줄이 토착 여우신격이 아닌 다른 제3의 이류토템이기 때문이다. 동률태자계 집단은 불교를 통한 왕권이념질서 구축을 위해 토착 여우신앙관념을 관념적인 신성택줄로 선택했기 때문에 관념적인 신성부모인 여우신격을 악신화 하여 살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민속신앙에서 악귀를 벽사하는 도목벽사(桃木辟邪)의 신성수(神聖樹)를 신성택줄 기원인 이류토템으로 선택한 금률태자계 집단은 토착 여우신격을 악신화 하여 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률태자계 집단은 물리적인 측면이든 관념적인 측면이든 토착 여우신격에게 신성택줄을 대고 있지 않는 데다 직접적인 신성택줄로 선택된 모계가 토착 민속신격의 통제를 신직(神職)으로 하는 이류토템이기 때문에 왕권질서 속에서 기왕에 배제한 토착 여우신격을 악신화 하여 퇴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여우설화, 여우신격, 여우신성관념, 내셔널리티, 신라신화, 건국신화, 왕권신화, 배제

## 1. 문제 설정의 방향

이류신(異類神) 관념은 한국 건국신화사의 첫머리를 구성하는 핵심 인자중의 하나다. 건국신화가 부계(父系)와 모계(母系)가 교혼(交婚) 하여 건국시조를 파송하는 신성혼(神聖婚)과 건국시조가 건국행위를 수행해 나가는 통과제의(通過祭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이류신격과 관련된 토템은 전자에 신성성을 부과하기 위해 끌어온 건국신화 이전 단계의 전신화(前神話)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건국신화 구성을 위해 동원된 일종의 원류신화(源流神話)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부계(父系)와 모계(母系)의 대표적인 토템은 각각 자연물인 해(日), 동물인 곰(熊)·호랑이와 식물인 버드나무(柳木)다. 전자는 <단군신화>와 <고구려신화>에서 각각 건국조(建國祖)·건국조부(建國祖父)로 등장하는 고주몽·해모수의 성씨로 전이되어 있고, 후자는 <단군신화>와 <고구려신화>·<고려신화>에 수용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으로 건국신화사의 범주에 포함되는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수용되는 동물 토템이 된다.

일단,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건국신화사 텍스트만 들여다봐도 한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특정한 이류토템의 신성화소(神聖話素)가 역시 특정한 건국신화의 내셔널리티(nationality)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맥락이다. 해 토템의 일신(日神) 관념은 기마유목민의 도래 경로에 따라 고조선·고구려·신라의 건국신화 속에 건국조의 부계로 편입

되어 나타난다. 해 토렘은 상대적으로 특정 지역권의 지리적인 바운더리나 혹은 토착적인 지역사적 맥락과의 밀착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얘기다. 대신 각 지역적 경계를 넘나드는 비정주적(非定住的)이고 탈경계적(脫境界的)이다. 반면, 국가 창건 직전까지 존재하던 토착 선주집단의 시조신화 속에 나타나는 이류토렘은 상대적으로 지역적 정체성과의 밀착성이 강하다. 정주적(亭主的)이고 경계내적(境界內的)이다. 이렇게 본다면 로컬리티(locality)와 국가적 아이덴티티(identity)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대국가의 특성상 이류토렘의 신성화소가 건국신화 속에 수용되는 맥락 속에 특정 국적(國籍)과의 관련성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북한 일대를 포함한 북방고토(北方故土)와 한반도 동남부의 남방고토(南方故土)를 지리적 바운더리로 하는 고구려와 신라에서는 각각 유목(柳木)과 닭(鷄)·말(馬)이 이류토렘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서 이류토렘의 내셔널리티가 수평화 표층에 나란히 분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이류토렘의 신성화소가 동시대 각국들의 건국신화 속에 동시대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다. 해신 토렘의 이주집단과 결합한 토착집단의 이류시조 관념이 동시대에 공존한 국가들에서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이는 해신 토렘을 공유하는 도래집단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건국신화 창작과정에서 토착 이류집단의 특정한 신성화소 수용이 선택적(optional)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된다. 바꿔 말하면 하나의 특정 이류토렘이 한 건국신화의 내셔널리티와 결합되는 신화적 선택(mythical choice)은 해당 건국신화의 내셔널리티 맥락에서 다른 특정 이류토렘이 제외되는 신화적 배제(mythical exclusion)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건국신화의 특정 국적이 이류토렘의 신성화소를 선별하여 선택하거나 혹은 동시에 배제하기도 한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건국신화 국적의 이류토렘에 대한 신화적 선택·배제 원리는 건국신화사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고조선신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조선의 내셔널리티를 상징하기 위한 신성화소로 선택된 이류는 곰이고, 배제된 것은 호랑이다. 이렇게 일단 한번 이류토렘이 특정 건국신화사의 내셔널리티 맥락 속에서 배제되고 나면 다시 공식적으로 선택되는 일은 없다. 주지하다시피 <고조선신화>의 내셔널리티를 공식적으로 상징하는 이류토렘으로 향유의식 속에 고정관념으로 고착되어 있는 것은 곰 쪽이다.

그런데 건국신화를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고 향유과정을 유기체적(有機體的)으로 파악하게 되면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한 국가의 건국신화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닌 비고정적(非固定的)인 것으로 파악하는 시각이다. 이류토렘설화를 자양분으로 하여 일단 성립된 건국신화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류토렘설화와 상호순환(相互循環)된다는 관점의 전환이 된다. 즉, 특정한 이류토렘을 가진 정치집단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성장하여 개국을 공인받음에 따라 이들 집단의 헤게모니를 인정하는 향유층에 의해 이류토렘설화들이 건국신화로 특수화 되기도 하며, 국가의 멸망과 향유층의 해체에 따라 건국신화가 이류토렘설화로 보편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 왕조로서의 내셔널리티를 상징하는 상위의 지배이념은 유지하는 위에서, 제3의 이념이나 정치집단과의 결합에 의해 지배이념을 변형시켜나간 후대 왕위계승자들을 중흥시조로 인식하는 관념이 새로 유입된 이류토렘과 관련된 전설·민담을 왕권신화로 특수화 하여 향유하는 맥락도 존재할 수 있다.

이처럼 이류토렘설화와 건국신화가 관련되는 순환적인 체계를 변동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특정한 이류토렘에 관한 설화가 독자적으로 전승되다가 하나의 건국신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건국조 파생을 위한 신성부계 혹은 모계

로 수용되는 객체화(客體化) 단계다. 대신 해당 이류토템과 경쟁하다가 건국신화 속에 편입되지 못한 제2의 이류토템은 건국신화의 부계·모계로 선택된 이류토템과 경쟁했던 기억을 신화가 아닌 전설이나 민담 속에 남겨놓을 수 있다. 두번째는 초기 건국집단의 이합(離合)과 이동, 지배이념의 변동에 따라 건국초기에 선택되었던 이류토템과는 별개인 제3의 이류토템이 새롭게 지배질서 속에 유입되어 건국신화와 공존하는 단계다. 건국 초기의 지배질서가 리부트(reboot) 되는 상황에서 국가체제 일신을 위해 창안되거나 전파된 이데올로기가 지배이념으로 새롭게 선택되거나, 혹은 새로운 지역을 병합하거나 해당 지역의 지배집단과 연합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제3의 이류토템이 지배집단의 권력을 합리화 하는 신성관념 체계의 메이저 영역으로 이동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건국조가 아닌 후계왕에 관한 왕권설화 속에 이류토템에 관한 화소가 동원되고 있는 텍스트들이 모두 여기에 속하게 된다. 세 번째는 새롭게 유입되었던 제3의 이류토템이 다시 해당 국가의 멸망과 함께 건국신화의 흔적을 담은 전설과 민담으로 해체되는 단계다. 비속화가 진행되어 있는 속에 이류토템의 신성화소가 함께 들어 있는 건국조 혹은 후계왕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류토템 설화와 건국·왕권신화와의 관계를 상호 순환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전설과 민담으로 전승되고 있는 것 중에 이류토템의 신성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건국·왕권신화사 속에서 배제되어 왔던 많은 텍스트들을 해당 맥락 속에 포함시켜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건국신화의 이류토템에 관한 흔적을 담고 있는 전설·민담 자료들이 건국신화와 이류토템의 내셔널리티 관계에 대한 설화 향유층의 인식체계를 보여주는 자료 속에 포함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이류토템을 수용한 건국·왕권신화사의 컨텍스트가 확장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가 특히 주목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류토템으로 선택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인식되고 있는 여우신성관념과 신라 건국·왕권신화의 내셔널리티 관련성 문제이다. 이러한 아젠다가 성립 가능한 것은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지만 <여우설화>의 향유 맥락 속에 <고조선신화>의 내셔널리티와 관련된 여우토템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해당 텍스트 속에서 여우토템은 <고조선신화>의 내셔널리티 맥락으로부터 배제되어 나타나는데, 여기서 배제된 여우토템은 <신라신화>의 내셔널리티 관련 컨텍스트 속에서 다시 확인된다. 관련 자료 속에서 여우는 신라의 내셔널리티를 대표하는 토착신격으로 나타나 있다. 한국신화의 통시적(通時的)인 수직좌표축에서 보자면 전대 국가와 후대 국가 사이에 상이한 내셔널리티 상징 이류의 교체가 된다. 즉, 곰에서 여우로의 교체다. 여우신격이 지니는 신라 내셔널리티는 동시대의 수평좌표축에서 병립한 <백제신화>의 토착 용토템과 대비되어 그 특수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여우신격은 <신라신화>의 내셔널리티를 상징하는 신수(神獸)로 지목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류토템으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내는데, <신라신화>가 국가이념으로 선택한 불교에 신성유전형질(神聖遺傳形質)을 전달하여 권위를 정당화 해주기만 하고 배제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우와 대비적으로 신라 왕가 집단의 이류토템으로 선택된 것은 불교의 용토템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신라신화>의 내셔널리티가 여우신성관념을 포획하여 객체화는 시켰지만 이류토템으로 선택하지 않았던 배제의 원리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sup>1)</sup>

1) 지금까지 <여우설화>에 나타난 신성관념에 대해서는 여우의 초월적 능력 속에 긍정적·부정적 면모가 공존하

## 2. 건국 · 왕권신화 이류토텐의 내셔널리티(nationality)와 <신라신화>

<여우설화>가 <고조선신화>의 내셔널리티를 구성하는 이류토텐의 향유맥락과 결합되게 되어 나타나는 자료들로부터 논의를 출발해 보자.

[자료1] ① 『단군고기(檀君古記)』에는 이러한 말이 있다. ②옛날 환인(桓因)의 서자 환웅(桓雄)이 있었는데, 종종 하늘 아래 세상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었다. 아버지가 자식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三危太伯)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그래서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고 내려가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삼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太伯山)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神壇樹) 아래로 내려와서 그곳을 신시(神市)라고 불렀다. 이 분을 바로 환웅천왕(桓雄天王)이라고 한다. 환웅천왕은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생명·질병·형벌·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시켰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항상 신웅(神雄)에게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기도하였다. 이때 환웅은 신령스러운 썩 한 심지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몸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③곰과 호랑이는 이것을 받아서 먹었다. 곰은 삼칠일(21일) 동안 참아서 여자의 몸이 되었지만, 호랑이는 참지 못해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④웅녀는 혼인할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신단수 아래에서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잠시 사람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하였고, 웅녀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이 분을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 한다. 왕검은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平壤城)에 도읍하고 비로소 국호를 '조선(朝鮮)'이라 하였다. 이후 백악산(白岳山) 아사달(阿斯達)로 도읍을 옮겼다. 이곳을 궁홀산(弓忽山)이라고도 하고 금미달(今彌達)이라고도 한다. 이곳에서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sup>2)</sup>

고 있으며 전자 보다 후자가 상대적으로 주도적이나 후자를 통해 전자를 유추해낼 수 있다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강진옥의 <구전설화의 이물교혼 모티브 연구>(『이화어문논집』11, 이화어문학회, 1990, 173-203쪽)과 강진옥의 <변신설화에 나타난 "여우"의 형상과 의미>(『고전문학연구』, 한국고전문학회, 1994, 5-45쪽.)에 자세히 밝혀져 있다. 이후 제출된 여우신격의 신성권능의 존재양상에 대한 모든 연구들은 강진옥의 연구 성과에 기반 해 있다. 강진옥의 상기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확장된 연구 가지를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동아시아설화 속 여우 형상 비교
- ②설화 속 여우 형상의 고소설적 수용
- ③설화 속 여우 형상의 문화콘텐츠적 수용

①의 범주에는 김지선의 <한·중·일 여우 이야기에 대한 비교학적 고찰>(『중국어문논총』29, 중국어문연구회, 2005, 501-525쪽.)과 이안나의 <한·몽 설화 속의 여우 형상성 비교 고찰>(『한민족문화연구』35, 한민족문화학회, 2010, 7-38쪽.), 김홍겸의 <한중일 여우 이미지의 유사성과 차이>(『동양학』5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11, 43-64쪽.) 등이 속한다. ②의 연구에는 박대복의 <여우의 超越的 性格과 變貌 樣相>(『중국어문논총』23, 동아시아고대회, 2010, 279-315쪽.)가 대표적이다. ③의 카테고리에는 이명현이 진행한 일련의 연구 성과들을 들 수 있다.(이명현, <이물교혼담에 나타난 여자요괴의 양상과 문화콘텐츠로의 변용>, 『우리문학연구』21, 우리문화회, 2007 ; 이명현, <구미호에 대한 전통적 상상력과 애니메이션으로의 재현>, 『문학과학』8, 문학과영상학회, 2007 ; 이명현, <<傳說의 故鄉>에 나타난 구미호이야기의 확장과 변주>, 『우리문학연구』28, 우리문화회, 2009 ; 이명현, <영화 <구미호 가족>에 재현된 구미호와 주체와 타자의 문제>, 『다문화콘텐츠연구』10,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1 ; 이명현, <설화 스토리텔링을 통한 구미호 이야기의 재창조>, 『문학과영상』13, 문학과영상학회, 2012 ; 이명현, <구미호 이야기의 확장과 억압된 타자의 귀환>, 『국제어문』55, 국제어문학회, 2012.)

최근에는 여우신성관념이 객체화(客體化)·악신화(惡神化) 되는 동태적인 변동단계를 거쳐서 현전 자료의 지배적인 마물(魔物)의 형상이 정착되었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 분야 연구로는 권도경, <여우여신의 남성신화와 반인반호(半人半狐) 남성영웅서사의 탄생, 그리고 드라마 <구가의 서>의 인간화 욕망 실현의 이니시에이션>, 2013년 한국구비문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권도경, <여우여신의 남성신화에 따른 반인반호(半人半狐) 남성영웅서사의 탄생과 드라마 <구가의 서>의 인간화 욕망 실현의 이니시에이션>, 『한국학연구』48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 권도경, <여우구슬의 신성털줄 기원과 <여우구슬설화>의 시조신학적 성격 규명>, 2014년도 비교민속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2) “古記云, 昔有桓因,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生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 時神遣

② 옛날 밥 나무서 밥 따서 먹고 옷 나무서 옷 따서 입을 시절 ㉗하늘에서 사람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의 신(腎)이 예순 댓 말이 될 정도로 길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이 마다하는데, ㉘곰이 굴 속에 있다가 그 신(腎)을 맞아 단군을 낳았고 다시 여우가 받아서 기자(箕子)를 낳았다.<sup>3)</sup>

③ 봉화산 산정의 넓적한 자리에는 지금은 잡초만 우거져 있지만 예전에는 커다란 소나무가 있었다. 까마득한 옛날에 이 소나무 아래에서 사람이 되고 싶어 기도하는 늙은 곰이 있었다. 그 곰은 기도 끝에 드디어 소원을 이루어 어여쁜 처녀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따뜻한 봄날에 사냥을 나왔다가 길을 잃은 젊은 사냥꾼을 만나서 구해주고는, 자기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 자신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했다. 사냥꾼이 수락하고 약속대로 곰치녀와 굴 속에서 함께 살았다. 몇 년 뒤 처자가 보고 싶어진 사냥꾼이 처녀가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간 뒤에 약속을 어기고 도망갔다. 사냥꾼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한 곰 처녀는 그만 그 곳에 있던 늙은 소나무에 목을 매어 죽었다.<sup>4)</sup>

[자료1]-①은 익숙한 『삼국유사(三國遺事)』본 <단군신화>이고, [자료1]-②는 <단군>이라는 제목의 민담 형태로 해체되어 있는 <단군신화>이다. 그런데 [자료1]-①과 [자료1]-②는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이류토템 신성화소의 구성요소는 상호 대응적이다. 예컨대, [자료1]-①-㉗에서 해 토템의 이류신격인 환웅은 [자료1]-②-㉗의 하늘에서 떨어진 하늘사람(天人)에 대응되고, [자료1]-①-㉘에서 환웅과 혼인한 곰 토템의 웅녀는 [자료1]-②-㉘에서 하늘 도래인과 이류교혼 한 곰에 대응된다. 단군을 낳아 고조선의 내셔널리티와 결합되는 신성이류(神聖異類)로 곰이 선택되는 것은 [자료1]-①과 [자료1]-② 사이의 공유화소가 된다.

주목할 것은 곰 토템과 공존했으나 해 토템 도래집단을 신성주체로 하는 고조선 내셔널리티에서 배제된 신성이류가 [자료1]-①과 [자료1]-②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자료1]-①의 배제이류(排除異類)는 익숙한 호랑이인데, [자료1]-②에서는 여우이다. 즉, 선택이류의 대응쌍인 배제이류가 호랑이에서 여우로 대체되어 있는 것이 [자료1]-②다. [자료1]-②의 여우가 [자료1]-①의 호랑이와 다른 점은 고조선의 내셔널리티 맥락에서는 선택되지 못했지만 제3의 국가 내셔널리티 맥락 속에서는 선택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료1]-①의 공식적인 <단군신화> 향유층은 단군의 생존시대를 고조선 단일국가 시대로 파악하고 있지만 [자료1]-②의 민담 향유층은 같은 시기를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이 수평좌표축에서 공존한 시대로 인식하고 있다. 단군조선을 한민족사의 단일기원이자 단일중심으로 보는 시각에서 여우는 신성이류 토템에서 배제된 것이지만,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한민족의 다극기원이자 다극중심으로 보는 인식체계에서는 해 토템의 도래집단과 정치적으로 연대하여 고대국가를 성립시킨 전주 토착집단의 신성이류 토템이 애초부터 곰과 여우로 병립(竝立)되어 있었던 것이 된다. 즉, 여우를 국가적 이류토템으로 하여 성립된 <기자신화>가 곰을 신성 이류토템으로 하는 <단군신화>와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靈艾一炷，蒜二十枚曰，爾輩食之，不見日光百日，便得人形，熊虎得而食之，忌三七日，熊得女身，虎不能忌而不得人身，熊女者無與爲婚，故每於壇樹下，呪願有孕，雄乃假化而婚之，孕生子，號曰壇君王儉，以唐堯卽位五十年，庚寅都平壤城，始稱朝鮮，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又名弓忽山，又今彌達，御國一千五百年，周武王卽位己卯，封箕子於朝鮮，壇君乃移於藏唐京，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壽一千九百八歲。”『三國遺事』卷第一紀異 第一 <古朝鮮>.

3) <단군>, 임석재, 『임석재전집』3, 평민사, 1988. 230쪽.

4) <봉화산의 처녀 곰>, 김광순, 2006년 김광순이 집필하고 도서출판 박이정에서 발행한 『한국구비문학』, 경북-고령군 편, 박이정, 2006, 구술자:최만희[남, 54], 채록장소: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강정리 강정마을, 채록일:2000년 11월 18일. 같은 내용의 <봉화산 암곰>이란 텍스트가 유증선의 『영남의 전설』(형설출판사, 1971)에도 실려있다.

이처럼 곰과 여우로 병치되어 있었던 고조선의 이류토템 내셔널리티가 곰으로 단일화 된 것은 [자료1]-②에서 여우를 국가적 이류토템으로 하여 성립된 기자조선이 [자료1]-①의 단군조선과의 서사경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원래 <단군신화>와 함께 공시적(公示的)인 축에서 기자조선의 건국신화로 성립되어 있었던 <기자신화>가 기자조선 멸망과 함께 민담으로 해체된 반면, <단군신화>는 단군조선 멸망 이후에도 건국신화로서의 신화지위(神話地位)를 유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웅녀신화>가 고조선 멸망 이후 이류토템의 내셔널리티를 상실했던 사실은 [자료1]-③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1]-③은 고조선의 내셔널리티 맥락에서 분리되어 전설화 하여 전하는 다수의 <웅녀설화> 중의 한 각편이다. <단군신화> 역시 국가 멸망 후 <기자신화>처럼 전설·민담으로서의 신화해체(神話解體) 단계를 거쳤을 것인데, 고려조 원나라 침략기에 국난의 위기를 단일민족신화 담론의 형성을 통해 타개하고자 했던 일연에 의해 개인적으로 민족국가 기원신화로 발탁되었던 것이 범민족적인 호응을 얻어서 현재까지 신화적 포지션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즉, 건국신화에서 전설로 신화적 하강기(mythical downcycle)를 거쳤다가 다시 정치사회적인 목적에 의해 신화적 지위(mythical position)를 회복함으로써 곰 토템의 내셔널리티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기자신화>는 민담으로 해체된 이후 신화적 상승기(mythical upcycle)로 복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우 토템의 내셔널리티는 회복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고조선신화> 체계에서 분리된 여우 토템이 다시 신화적 내셔널리티(mythical nationality) 맥락 속에서 확인되는 것은 <신라신화>다.

[자료2] ①당(唐) 나라 도사(道士) 나공원(羅公遠)이 유성(劉成)으로 둔갑한 ②천호(天狐)를 죽이지 않고 멀리 신라로 내쫓아 보냈더니 신라에서 여우를 유성신(劉成神)으로 숭배하고 있었다. 지금도 신라(新羅)에서는 유성신(劉成神)이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를 경건히 모신다.<sup>5)</sup>

② 전한(前漢) 지절(地節) 원년 임자(기원전 69) 3월 초하루에, 여섯 부의 조상들은 자제를 거느리고 알천(闕川)의 언덕 위에 모여서 의논하여 말하였다. “우리들은 위로 백성들을 다스릴 임금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두 방자하고 안일하여 제멋대로 하고 있소. 그러니 어찌 덕 있는 사람을 찾아 임금으로 삼고 나라를 세워 도움을 정하지 않을 수 있겠소?” 그래서 이들은 높은 곳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았는데 양산(楊山) 밑에 있는 나정(蘿井)가에 번갯빛처럼 이상한 기운이 땅에 드리워져 있고, 한 ③백마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그곳을 찾아가보니 ④자줏빛 알 하나가 있었다. 말은 사람을 보더니 길게 울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 알을 깨뜨리자 사내아이가 나왔는데 모습이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모두들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며 아이를 동천(東泉)에서 목욕을 시켰는데,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이 따라 춤을 추었으며, 천지가 진동하더니 해와 달이 맑고 밝아졌다. 그래서 이름을 혁거세왕이라고 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다투어 축하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천자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 당연히 덕 있는 왕후를 찾아 임금의 배필로 삼아야 하리라.” 이날 사랑리(沙梁里) 알영정(闕英井) 주변에 ⑤계룡(鷄龍)이 나타났는데 왼쪽 옆구리에서 여자 아이가 태어났다. 얼굴과 모습이 매우 고왔지만 입술이 닭의 부리와 비슷하였다. 월성(月城)의 북쪽 시내에서 목욕을 시켰는데, 그 부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그 시내 이름을 발천(撥川)이라고 하였다.<sup>6)</sup>

5) “今新羅有劉成神，土人敬事之”，<泮陽令>，『太平廣記』，卷449.

6) “前漢地節元年壬子，三月朔，六部祖各率子弟，俱會於闕川岸上，議曰，我輩上無君主臨理蒸民，民皆放逸，自從所欲，蓋覓有德人，爲之君主，立邦設都乎，於是乘高南望，楊山下蘿井傍，異氣如電光垂地，有一白馬跪拜之狀，尋撿之，有一紫卵，馬見人長嘶上天，剖其卵得童男，形儀端美，驚異之，浴於東泉，身生光彩，鳥獸率舞，天地振動，日月清明，因名赫居世王，位號曰居瑟邯，時人爭賀曰，今天子已降，宜覓有德女君配之，是日，沙梁里闕英井，邊有雞龍現，而左脇誕生童女，姿容殊麗，然而唇似雞觜，將浴於月城北川，其觜撥落，因名其川曰撥川。”，『三國遺事』卷第一 紀異 第一，<新羅始祖 赫居世王>.

[자료3] (상략) 작제건이 활과 화살을 잡고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졌는데 밑에 바위들이 있어 그 위에 섰더니 안개가 개이고 손풍이 불어 배는 나는 듯이 가벼웠다. 이윽고 한 늙은이가 절하며 말하기를 “나는 ㉞서해의 용왕인데 매일 신시에 ㉟늙은 여우가 치성광여래상(熾盛光如來像)이 되어 하늘에서 내려와 일월성신(日月星辰)을 구름과 안개 사이에 벌려 놓고 패라(貝螺)를 불고 북을 치며 풍악을 잡히고 와서 이 바위에 앉아 <옹종경(臃腫經)>을 읽으면 나의 머리라 심히 아파집니다.” 듣자하니 낭군은 활을 잘 쏜다니 원컨대 나의 재해를 물리쳐주오. 하는지라 작제건이 이를 허락하였다. 때가 됨에 공중에서 풍악소리가 들리더니 과연 서쪽으로부터 오는 자가 있기에 작제건이 진짜 부처(眞佛)가 아닌가 의심하여 감히 쓰지 못하고 있는데 늙은이가 다시 와서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늙은 여우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마시오.” 라고 하거늘 작제건이 활을 들고 화살을 먹여서 겨누어 쏘니 활시위 소리와 같이 떨어지는 것은 과연 늙은 여우였다. 늙은이가 크게 기뻐하여 궁(宮)으로 맞아들이고 감사하며 말하기를 “낭군의 힘에 의하여 나의 재난은 이미 덜어졌으니 그 큰 은혜에 보답하고 합니다. 장차 서쪽 당 나라에 들어가서 천자이신 아버지를 뵈려고 하십니까? 부에는 칠보가 있으니 동쪽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봉양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므로, 말하기를 “나의 바라는 바는 동쪽 땅(東土)에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 늙은이가 말하기를 “동쪽 땅에서 왕이 되려면 반드시 그대의 자손 삼건(三建)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것이라면 오직 명하시는데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작제건이 그 말을 듣고 시명(時命)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고 우물쭈물하며 미처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자리 뒤에서 한 노파가 희롱삼아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의 딸에게 장가들지 않고 가려 하는가?” 고 하므로 작제건이 알아차리고 장가들기를 청하니 늙은이가 딸 딸 저민으로 아내를 삼게 하였다.<sup>7)</sup>

[자료4] ㉠ 사비하의 강변에 바위하나가 있다. 소정방이 일찍이 그 위에 앉아서 고기와 용을 낚아서 바위 위에 용이 꿇어 앉은 자국이 있기 때문에 용암으로 이름하였다.<sup>8)</sup>

㉡호암(虎巖)으로부터 물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 부소산(扶蘇山) 아래에 이르러, 한 괴석(怪石)이 강가에 걸터앉은 듯이 있는데 돌 위에는 용(龍)이 발톱으로 할퀴 흔적이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공격할 때, 강에 임하여 물을 건너려고 하는데 홀연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므로 흰 말로 미끼를 만들어 용 한 마리를 낚으니, 잠깐 사이에 날이 개어 드디어 군사가 강을 건너 공격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강을 백마강이라 이르고, 바위는 조룡대라고 일렀다’고 한다.<sup>9)</sup>

[자료2]-㉠는 당나라 설화집인 『태평광기(太平廣記)』 권449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나공원은 당 현종(玄宗)에게 환술로 달구경을 시켜준 덕분에 <예상우의곡(霓裳羽衣曲)>이 탄생되었다고 하는 악곡 배경설화<sup>10)</sup>의 주인공인데, [자료2]는 그와 관련된 신라여우신(新羅狐神) 관념을 기록한 문헌설화에 해당한다. 이 신라여우신의 신직은 천신(天神)([자료2]-㉠-㉡)으로 명시되어 있다. 신라국민들의 민속신앙으로 숭배되었던 것이다. [자료2]-㉡에서 확인되듯이 <신라신화>는 해 토템([자료2]-㉡-㉢)과 천마(天馬) 토템([자료2]-㉡-㉣)을 각각 신화 주체와 객체로 하여 성립된 신화다. <고조선신화>와 <고구려신화>의 이류객체(異類客體)인 곰과 유목을 천마로 대체하면 이 형태가 된다. 신라건국조의 후속왕을 낳는 이류객체로 닭 토템([자료2]-㉡-㉣)까지 편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디에도 여우가 신라시조를 낳는 토템으로 선택된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7) “作帝建執弓矢，自投海。下有巖石，立其上，霧開風利，船去如飛。俄有一老翁拜曰，我是西海龍王。每日晡，有老狐作熾盛光如來像，從空而下，羅列日月星辰於雲霧間，吹螺擊鼓，奏樂而來，坐此巖，讀臃腫經，則我頭痛甚。聞郎君善射，願除吾害。(中略)及期，聞空中樂聲，果有從西北來者。作帝建疑是真佛，不敢射，翁復來曰，正是老狐，願勿復疑，作帝建撫弓撚箭，候而射之，應弦而墜，果老狐也。”『高麗史』，世系。

8) “泗泚河邊有一崑 蘇定方嘗坐此上 釣魚龍而出 故崑上有龍跪之蹟 因名龍崑”，『三國遺事』卷二，紀異 第二，南扶餘 前百濟條。

9) <釣龍臺>，『新增東國輿地勝覽』卷十八，忠清道 扶餘縣 古跡條。

10) 전관수, 『한시어사전』, 전관수, 국학자료원, 2007.

건국신화의 수직좌표축에서 여우가 고조선 다음의 고대국가를 연 개조(開祖) 토텐으로 선택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신라에서 고려로 교체되는 건국신화의 수직전환의 지점에서는 신라의 내셔널리티를 대표하는 신수(神獸)로 지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자료3]은 고려 건국시조 왕건의 조부인 의조 경강대왕(懿祖景康大王) 작제건(作帝建)에 관한 『고려사(高麗史)』 세계(世系)의 기사 내용이다. <고려신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작제건신화>가 된다. 작제건은 정체 미상의 왕국조(王國調)와 고구려계 신라인 강호경(康虎景)의 3세손 정화왕후(貞和王后) 강진의(康辰義)의 아들로 원창왕후(元昌王后) 저민의(渚旻義)와 혼인하여 왕건의 부친인 위무대왕(威武大王) 세조(世祖) 왕릉(王隆: ?~897)을 낳은 인물이다. 용녀와 이류신성혼을 함으로써 왕건의 부계를 신성화 시킨 주체가 되었다. 대부분의 건국신화가 해 토텐의 부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고려신화>는 <조선신화>와 함께 천강부계(天降父系)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계열에 속하는데, 미확인의 부계 혈통에 대하여 <고려신화> 내셔널리티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이류토텐이 되는 것이 [자료3]-㉔의 해룡(海龍)이다.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용 토텐의 성립이 여우([자료3]-㉓)에 대한 신성관념을 해체한 위에서 성립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자료3]-㉔의 해룡과 [자료2]-㉓-㉔의 여우는 서해 제해권을 두고 대결하는 신수로 등장하고 있는데, 해룡에 앞서 제해권을 갖고 있던 해신(海神)은 여우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구해신(舊海神)의 신직을 대체하고자 한 신해신(神海神)을 도와 구해신을 물리치고 신해신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용 토텐을 건국을 위한 내셔널리티 체계 속에 수용해내는 것이 [자료3]에서 작제건이 수행한 이니시에이션이 된다. 여기서 작제건이 신해신의 용 토텐을 <고려신화>의 내셔널리티 체계에 편입시키기 위해 해체시킨 구해신은 당연히 신라의 내셔널리티와 관련된 이류가 되어야 한다. 여우라는 이류가 고려의 건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체해야 할 신라의 국가적인 신성관념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류토텐 내셔널리티의 수직적인 대체가 전시대의 건국신화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건국신화 체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이었던 사실은 [자료4]-㉑-㉒의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자료4]-㉑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위해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면서 용을 사냥했다는 내용인데, [자료4]-㉒는 용 사냥에 신라 건국신화의 이류토텐이었던 백마를 동원했다는 사실을 밝혀놓고 있다. 용은 백제 말기를 주도한 마한계 정치집단<sup>11)</sup>의 이류토텐이었다. 신라는 백제와 동시대에 지리적인 경계를 맞댄 수평좌표축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양국 건국신화의 신성수인 백마와 용도 애초에 이류토텐의 내셔널리티 체계에서 수평적으로 양립해 있던 것이 된다. 그런데 신라가 백제를 포함한 삼국을 통일하고 통일신라의 새로운 국가질서 체계를 열게 되면 두 이류토텐의 관계도 달라지게 된다. 백마는 백제의 용 토텐을 대체하여 성립되는 이류토텐의 수직적 내셔널리티 체계에 재배치되게 되는 것이다.

일단, <백제신화>는 천신(天神)·일신(日神)의 이류토텐을 기반으로 성립되었던 부여계 도래집단을 주체로 성립되었다. 백제가 온조왕 원년에 동명왕(東明王) 시조묘를 건립<sup>12)</sup> 했던 것은 부여계의 신성이류 관념을 범부여계 시조신화인 <동명왕 신화>의 연장선상에 두고자 하는 향유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성장하는 신라에 밀려 남하를 거듭한 백

11) 서대석, <백제신화>,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216쪽.

12) “元年夏五月, 立東明王廟”, 『三國史記』, 卷第二十三, 百濟本紀, 第一.

제는 개국 초기의 범부여계 국가 부흥을 외치며 사비백제 시대를 열었으나 정세를 역전시키지 못하게 되자, 무왕(武王)의 등극시점부터 옛 마한(馬韓)의 고도(古都)였던 익산(益山)을 이도(移都)이자 불교성지인 신도(神都)로 삼아 마한 토착집단과의 연대 속에서 새로운 지배질서의 구축을 시도<sup>13)</sup>했다. [자료4]-③의 <서동설화>는 멸망 직전 백제의 마지막 부흥기를 이끈 무왕의 탄생을 익산 지방에 전승되고 있었던 마한 건국조 무강왕(武康王)의 <마한신화>를 무왕의 것으로 재생산 하는 방식으로 성립시킨 일종의 <무왕신화>가 된다.<sup>14)</sup> 여기서 부계를 신성화 하기 위한 이류토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용 토템이다. 용은 지신(地神)이자 수신(水神)으로, 범부여계 도래집단의 해 토템 시조관념과는 다른 계열에 해당 하는 것으로 <마한신화>의 이류토텐이 말기 <백제신화>에 유입되어 편제된 것이다. 용 신앙이 마한 토착집단과의 연대를 통해 정치질서를 개편하는 신화적 매개체였다면, 미륵신앙은 이념질서를 개편하는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룡(池龍)을 부계로 설정한 마한의 <무강왕신화> 전승이 전자의 목적에 의해 동원되었다면, 후자는 익산 미륵사 창건을 기점으로 불교 미륵신앙의 법룡(法龍) 관념을 새로운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공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백제 건국초기의 건국신화였던 <온조신화>에서 천신 이류신격을 마한고지(馬韓故地)에서 신성시 되던 토착 이류신격인 용토텐으로 교체한 것이 [자료4]-③의 <서동설화>인 것이다.

이 <무왕신화>는 인간이 아닌 이류신격을 건국조를 탄생시키기 위한 부모대의 신성혼 주체로 끌어 들였다는 점에서 백제 건국신화인 <온조신화>에 비해 오히려 건국신화의 유형적인 보편성에 더 가깝다. 건국집단의 권력을 정당화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역사적 사실을 이류신격의 신성화소로 교체하는 건국신화의 보편적인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은 건국 초기의 <온조신화>가 아니라 현재, 전설로 인식되고 있는 <서동설화> 쪽인 것이다.<sup>15)</sup> 이처럼 백제 후기에 국가 지배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서동설화>가 건국 초기에 형성된 <온조신화> 보다 더 건국신화의 전형적인 모습에 가깝다는 것은 <서동설화>가 무왕 당대에는 기존질서를 리부트(reboot) 하여 지배질서를 개편한 중흥시조의 신화적 이야기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게 한다. 백제라는 국가질서의 보편적 프레임은 유지하면서도, 그 속에서 시대에 따라 특수성을 부가하여 새롭게 변형시킨 지배질서를 창안한 후대왕에게도 건국시조에 해당하는 신화 부여의 메커니즘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무왕 당대에는 역사적 실존인물인 무왕의 사적과 건국신화의 전형적인 이류토텐의 화소들을 재구성한 왕권신화<sup>16)</sup>였다가, 백제 멸망 이후 해당 설화를 신화로 인식하는 향유 집단이 해체되면서 전설로 재편된 이야기로 규정해 볼 수 있다. 이때, 백제 건국신화로 널리 인정되는 건국 초기의 <온조신화>는 제1차 건국신화로, 건국신화의 구성원리에 따라 백제 말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서동설화>는 제2차 건국신화로 명명해 볼 수 있게 된다. 후자는 광의의 건국신화, 혹은 건국신화에서 파생된 왕권신화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용 토템이 말기 백제의 국가적인 신성관념 체계를 지배한 이류토텐이었고, 이

13) 김기흥, <백제의 正體性에 관한 일 연구>, 『역사와 현실』 54, 2004.

14) 이장웅, <百濟의 馬韓 薯童(武康王) 神話 수용과 益山 彌勒寺>, 『역사민속학』 38, 역사민속학회, 2012.

15) 물론 현전 <온조신화>는 『삼국사기』에 투영되어 있는 신라 중심적 시각에 의해 원래 존재했을 신화소들이 탈각한 텍스트일 가능성이 있다.

16) 여기서 왕권신화는 건국시조의 후대 계승왕이 지닌 왕권을 합리화 하거나, 혹은 그 형성과정을 신성하게 운색한 이야기로 규정한다.

를 공식적으로 대체한 신라 이류토텐의 내셔널리티가 [자료4]-②의 백마였다면 건국초기에 <신라신화>로 편입되었던 백마가 통일신라 성립기까지 국가적 이류토텐의 지위를 유지했다는 것이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통일신라 성립기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던 이류토텐이 백마였는데, 멸망 시점에서 고려의 새로운 이류토텐으로 대체되어야만 할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것은 왜 [자료3]의 여우였는가 하는 문제가 된다. 여우가 신라 건국 주체집단에게 이류토텐으로 선택되지는 못했지만 신라의 내셔널리티를 상징하는 신성이류로 향유되고 있었던 인식체계를 상징해 볼 수 있다. 여우가 신라 토착민속신앙의 국가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왕권집단에게 국가이류토텐으로 공식적인 선택을 받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여우는 신라신앙체계의 내셔널리티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신라신화>로 편입되지는 못했는데, 이는 여우가 신라 왕권집단에 의해 국가이류토텐 체계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던 토착신격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여우신앙이 <신라신화>의 이류토텐으로 선택되지는 못했지만 신라의 토착신앙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여우설화>에 나타난 여우신성화소(狐神聖話素)와 <신라신화>의 여우신(狐神) 배제원리

지배집단이 관념질서를 새롭게 정립하거나 혹은 개편해 나갈 때 토착이류토텐 관념은 관리의 대상이 되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관리의 양상은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객체화(客體化) 혹은 보조자화(補助者化)를 통한 종속화(從屬化)이다. 해 토텐을 신성주체로 하는 건국신화 속에 객체로 편입된 이류토텐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예컨대, <단군신화>의 곰, <고구려신화>의 유목, <신라신화>의 말과 닭이 이들 종속화 된 이류토텐들이다. 토착이류토텐에 대한 선택원리가 작용한 경우다. 다른 하나는 부정화(不正化)·악신화(惡神化)를 통한 부정화(否定化)다. 해 토텐이 신성주체가 된 건국신화 체계 속에 토텐으로 편입되지 않은 이류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소극적인 배제만으로 그친 경우가 있고, 일단 배제된 이류를 적극적으로 부정화·악신화 하는 경우가 있다. 부정화와 악신화는 해당 이류를 토텐으로 수용하지 않은 근거로 제시되는데, 후자로 가면 인간에게 해악을 미치는 것으로 정도가 심화되어 나타난다. <단군신화>에서 배제되었던 호랑이가 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여우는 후자에 해당된다. 호랑이가 끈기와 참을성이 부족하여 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不正的)인 존재로 형상화 되는데 그친데 비해, 여우는 전설화 되어 전하는 <신라신화>의 확장된 맥락 속에서 악신으로 이행되는 동태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호랑이에 비해 배제의 정도가 심화되어 있는 이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화·악신화는 이류가 원래 갖고 있던 신성권능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컨대, 지배관념 중심적인 객체화·대상화(對象化)를 거부한 호랑이의 주체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왜곡하는 형태다. 이는 지배관념의 이념적 헤게모니(hegemony)를 정당화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호랑이의 신성 정체성이 부정적으로 왜곡되면 곰토텐의 신성 우월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게 되며, 궁극적으로 곰을 이류토텐으로 선택한 지배관념의 이념적 권력이 효과적으로 합리화 되는 방식이다.

<신라신화>를 성립시킨 지배관념 질서가 여우를 이류토텐에서 배제시키는 원리 또한 이러한 방식에 입각해 있다. <신라신화>의 체제는 해 토텐을 주체로 말·닭 토텐이 결합된 건국신화가 일종의 메인(main) 국가신화로 유지되는 속에서 왕실계파의 교체과정에 따라 다양한 이류토텐과 결합된 왕권신화가 서브(sub) 국가신화로 분지되어 나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건국초기에는 선택되지 않았던 제3의 이류토텐이 새롭게 <신라신화>의 맥락 속으로 편입되는 왕권신화의 분기점 중의 하나가 제24대 진흥왕(眞興王)에서 제26대 진평왕(眞平王)에 이르는 시기다.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제23대 법흥왕(法興王) 때 공인된 불교가 국가이념을 넘어서 왕권신화이념으로 편입되면서 불교의 법룡(法龍)이 진흥왕에서 진평왕으로 이어지는 동륜태자(銅輪太子)계 집단의 이류 토텐화 되었기 때문이다. 불교 유입에 따른 관념적 도래 신수인 법룡이 동륜태자계 집단의 특수한 이류토텐으로 선택되면서 일단 건국신화 성립과정에서 한번 배제되었었던 토착 여우신성관념이 이 시기에 지속적으로 배제되어나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국가 내부에 두 개의 이류 신성관념이 병립하고 있을 때 한 쪽은 주류관념 체계 속에 수용되고 다른 한 쪽은 배제되는 이류토텐 성립의 선택적인 원리가 된다. 도래의 법룡을 왕권 토텐으로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토착 이류신격 중에서도 향유층에게 가장 영향력이 높은 대상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법룡 토텐의 성립기에 국가·왕실이념 체계에서 배제의 대상으로 특별히 지목된 이류신격은 법룡 관념의 유입 이전 시기 신라인의 신성관념 질서 속에서 지배층에 의한 중심(center)은 아니지만 주변부(margin)의 주류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여우가 이 시기 왕권집단에 의해 특별히 배제 대상으로 지목되었다면 여우가 신라 신앙관념 체계의 변두리에 위치해 있으나, 해당 주변부 범위 내에서의 영향력은 주류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우신성관념에 관한 자료가 동륜·금륜태자계 집단의 왕권 대립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 이해될 수 있다.

[자료5] 제26대 백정왕(白淨王)은 시호가 진평대왕(眞平大王)으로 성은 김씨이다. (중략) 왕 위에 오른 첫해에 하늘에서 천사(天使)가 궁전 뜰로 내려와 왕에게 말하였다. “상제께서 저에게 명하시어 이 ㉞옥대(玉帶)를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왕이 친히 꿇어앉아 그것을 받자, 천사가 하늘로 올라갔다. 무릇 교외와 종묘에서 큰 제사를 지낼 때면 모두 이 옥대를 사용하였다. 훗날 고려왕이 신라를 치려고 계획하면서 말하였다. “신라에 세 가지 보물이 있어 침범할 수 없다고 하니,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㉞황룡사(皇龍寺)의 장육존상(丈六尊像)이 그 첫째이며, 그 절의 9층탑이 둘째이며, 진평왕의 천사옥대가 셋째입니다.” 왕은 곧 신라를 공격하려던 계획을 중지하였다. 다음과 같이 찬미한다. 구름 밖 하늘에서 옥대를 내리시어 두르시니 임금님의 ㉞곤룡포와 전아하게 잘 어울리네. 우리 임금님 이로부터 몸이 더욱 무거워지시니 내일 아침에는 강철로 돌계단 만들까 한다네.<sup>17)</sup>

[자료6] ㉞또한 경주의 안일 호장(戶長) 정효(貞孝)의 집에 있는 고본 『수이전(殊異傳)』의 <원광법사전(圓光法師傳)>에는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㉞법사의 세속의 성은 설씨(薛氏)

17) “第二十六, 白淨王, 諡眞平大王, 金氏, (中略) 卽位元年, 有天使降於殿庭, 謂王曰, 上皇命我傳賜玉帶, 王親奉跪受, 然後其使上天, 凡郊廟大祀皆服之, 後高麗王, 將謀伐羅乃曰, 新羅有三寶, 不可犯, 何謂也, 皇龍寺丈六尊像一, 其寺九層塔二, 眞平王天賜玉帶三也, 乃止其謀, 讚曰, 雲外天頒玉帶圍, 辟雍龍袞雅相宜, 吾君自其身彌重, 准擬明朝鐵作堦.”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 第一.

로 경주 사람이다. 처음 승려가 되어 불법을 배웠는데, 나이 30세에 한가로이 지내면서 수도하려고 삼기산(三岐山)에 홀로 머물렀다. ㉔그 후 4년이 지나 어떤 승려가 와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따로 절을 짓고 2년을 살았다. 그 승려는 사람됨이 강하고 사나웠으며 주술 배우기를 좋아하였다. 어느 날 밤 법사가 혼자 앉아 불경을 외는데, 홀연히 ㉕신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였다. “좋고 좋도다! 그대의 수행이여! 무릇 수행하는 자는 비록 많지만 법대로 하는 이는 드물지. 지금 이웃의 중을 보니, 주술을 곧잘 하지만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시끄러운 소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요한 생각을 괴롭히지. 그가 머무는 곳은 내가 다니는 길에 방해가 되어서, 매번 지날 때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야. 나를 위해 법사가 그 사람에게 말해 다른 곳으로 옮겨 가도록 해주게나. 만일 오래 머무른다면 내가 갑자기 죄를 저지르지도 모르거든.” 그래서 이튿날 법사가 찾아가 말하였다. “어젯밤 내가 신의 말을 들었는데, 스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겠소. 그렇지 않으면 응당 재앙이 있을 것이오.” 그러자 중이 대답하였다. “수행이 지극한 사람도 마귀에게 현혹됩니까? 법사는 어찌 ㉖여우 귀신의 말 때문에 근심하시오?” 그날 밤 또 신이 와서 말하였다. “지난번에 내가 한 말에 대해 중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법사는 신이 노여워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결국 아직 말을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말을 하면 어찌 감히 듣지 않겠습니까?” 신이 말하였다. “내 이미 다 들었소. 법사는 어찌하여 말을 덧붙이는 것이오? 단지 잠자코 내가 하는 것만 보시오!” 마침내 작별하고 가 버렸다. ㉗밤중에 벽락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다음 날 보니 산이 무너져 중이 있던 절을 물어버렸다.

㉘신이 또 와서 말하였다. “법사가 보기에는 어떻소?” 법사가 대답하였다. “보기에 너무나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㉙“내 나이가 3천 세에 가깝고 신술(神術)도 가장 뛰어나니, 이런 건 작은 일인데 어찌 놀랄 것이 있겠소? 단지 미래의 일도 모르는 게 없을 뿐더러 천하의 일도 통달하지 못한 것이 없소. 이제 생각해 보니, 법사가 이곳에만 있으면 비록 자신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되겠지만 남을 이롭게 하는 공은 없을 것이오. 지금 높은 명성을 날리지 못하면 미래에도 뛰어난 성과를 이루지 못할 것이오. 어찌하여 중국에서 불법을 배워 이 나라의 중생들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오?” 법사가 대답하였다. “중국에서 도를 배우는 것은 본래 저의 소원입니다. 하지만 바다와 육지가 멀리 막혀 있어서 가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자 신이 중국으로 갈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법사는 그 말대로 중국에 가서 11년을 머무르며, 삼장(三藏)을 널리 통달하고 아울러 유학도 배웠다. 진평왕 22년 경신(서기 600)에 행장을 정리하여 중국에 왔던 사신을 따라 귀국하였다. 그리고 법사는 신에게 감사를 드리려고 예전에 머물던 삼기산의 절로 갔다. 밤이 되자 신도 역시 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말하였다. “바다와 육지의 길을 다녀온 것이 어떠한가?” 법사가 대답하였다. “신의 크나큰 은혜를 입어 편안히 다녀왔습니다.” 신이 말하였다. ㉚“나 또한 법사에게 계(戒)를 드리겠소.” 이렇게 말하고는 곧 윤회하는 모든 세상에서 서로 구제하기로 약속을 맺었다. ㉛법사는 또 청하여 말하였다. “신의 실제 모습을 뵈 수 있겠습니까?” 신이 말하였다. “법사가 만일 내 모습을 보고 싶거든, 내일 아침에 동쪽 하늘 끝을 바라보시게.” 법사가 다음날 아침 동쪽 하늘을 바라보니 커다란 팔뚝이 구름을 뚫고 하늘 끝에 달아 있었다. 그날 밤 신이 또 와서 말하였다. “법사는 내 팔뚝을 보았는가?” 법사가 대답하였다. “보았습니다만, 너무도 신기하고 기이했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세간에서는 삼기산을 비장산(臂長山)이라고도 한다. ㉜신은 말하였다. “비록 이 몸이 있다 해도 덧없는 죽음은 면할 수 없다네. 그래서 나는 얼마 후에 그 고개에 내 몸을 버릴 것이니, 법사는 그곳으로 와서 영원히 떠나는 내 영혼을 전송해 주시게나.” 약속한 날이 되어 법사가 그곳으로 가보니, 옷칠을 한 것처럼 새까만 늙은 여우 한 마리가 단지 험뚝거리기만 할 뿐 숲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더니 잠시 뒤에 죽어버렸다.<sup>18)</sup>

18) “又東京安逸戶長貞老者在古本殊異傳 載圓光法師傳曰 法師俗姓薛氏 王京人也 初爲僧學佛法 年三十歲 思靜居修道 獨居三岐山 後四年 有一比丘來 所居不遠 別作蘭若 居二年 爲人強猛 好修呪術 法師夜獨坐誦經 忽有神聲呼其名 善哉善哉 汝之修行 凡修者雖衆 如法者稀有 今見隣有比丘 徑修呪術而無所得 喧聲惱他靜念 住處礙我行路 每有去來 幾發惡心 法師爲我告語而使移遷 若久住者 恐我忽作罪業 明日法師往而告曰 吾於昨夜有聽神言 比丘可移別處 不然 應有餘殃 比丘對曰 至行者爲魔所眩 法師何憂孤鬼之言乎 其夜神又來曰 向我告事 比丘有何答乎 法師恐神瞋怒而對曰 終未了說 若強語者 何敢不聽 神曰 吾已具聞 法師何須補說 但可默然 見我所爲 遂辭而去 夜中有聲如雷震 明日視之 山頽填比丘所在蘭若 神亦來曰 師見如何 法師對曰 見甚驚懼 神曰 我歲幾於三千年 神術最壯 此是小事 何足爲驚 但復將來之事 無所不知 天下之事 無所不達 今思法師唯居此處 雖有自利之行 而無利他之功 現在不揚高名 未來不取勝果 盍採佛法於中國 導群迷於東海 對曰 學道中國 是本所願 海陸迢阻 不能自通而已 神詳誘歸中國所行之計 法師依其言歸中國 留十一年 博通三藏 兼學儒術 貞平王二十二年庚申[三國史云 明年辛酉來] 師將理策東還 乃隨中國朝聘使還國 法師欲謝神 至前往三岐山寺 夜中神亦來呼其名曰 海陸途間 往還如何 對曰 蒙神鴻恩 平安到訖 神曰 吾亦授

[자료기] ① 제25대 사륜왕(舍輪王)은 시호가 진지대왕(眞智大王)이고 성은 김씨이며, 왕비는 기오공(起烏公)의 딸인 지도부인(知刀夫人)이다. 대건(大建) 8년 병신(서기 576)에 왕위에 올라[고본(古本)에는 11년 기해(서기 579)라고 하나 잘못된 것이다.] 나라를 4년 동안 다스렸는데, 정치가 어지럽고 음란하여서 나라 사람들이 그를 폐위시켰다.

②이에 앞서 사랑부(沙梁部) 백성의 딸이 있었는데, 자색이 곱고 아름다워서 당시에 도화랑(桃花娘)이라고 불렸다. 왕이 이 소문을 듣고 궁중에 불러들여 관계를 갖고자 하자 여자가 말하였다. (중략) 이 해에 왕이 폐위되어 죽었는데, 2년 후에 도화랑의 남편도 죽었다. 열흘 뒤에 갑자기 밤중에 왕이 살아 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여자의 방으로 들어와서 말하였다.

“네가 옛날에 허락하였는데, 지금 네 남편이 없으니 괜찮겠느냐?”

여인은 가벼이 허락하지 않고 부모에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부모가 말하였다.

“임금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리고는 딸을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왕은 7일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늘 오색구름이 집을 덮었고 향기가 방안에 가득하더니, 7일 후에 홀연히 왕의 자취가 사라졌다. 여자는 이 일로 인해 태기가 있었다. 달이 차서 해산을 하려 하는데 천지가 진동하면서 남자 아이 하나를 낳았으니, 이름을 비형(鼻荊)이라고 하였다.

③진평대왕(眞平大王)은 이 이상한 소문을 듣고 그 아이를 궁중으로 데려다 길렀다. 나이가 15세가 되자 집사(執事)라는 벼슬을 주었다. 비형은 매일 밤마다 멀리 도망 나가 놀았다. 왕이 용사 50명에게 지키게 하였지만, 매번 월성(月城)을 날아 넘어서 서쪽 황천(荒川) 언덕 위에 가서 귀신들을 거느리고 놀았다. 용사들이 숲 속에 엎드려서 엿보았는데, 귀신들은 여러 절에서 울리는 새벽 종소리를 듣고는 각각 흩어졌고 비형랑도 돌아오는 것이었다. 군사들이 이 일을 왕에게 아뢰자, 왕이 비형을 불러서 말하였다.

“네가 귀신들을 거느리고 논다는데 정말이냐?”

“그러하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귀신들에게 신원사(神元寺) 북쪽 개천에 다리를 놓으라고 하거라.”

비형은 왕명을 받들고 귀신들을 시켜서 돌을 다듬어 하룻밤 만에 큰 다리를 완성하였다.

그래서 그 다리를 귀교(鬼橋)라고 한다.

왕이 또 물었다.

“귀신들 중에 인간 세상에 나타나서 조정을 도울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길달(吉達)이란 자가 있는데 나라의 정치를 도울 만합니다.”

“함께 오라.”

다음날 비형이 길달을 데리고 와서 뱃자 길달에게 집사 벼슬을 내렸는데, 과연 충성스럽고 정직하기가 짝이 없었다. 그 당시 각간 임종(林宗)이 자식이 없었으므로 왕이 명하여 그를 아들로 삼게 하였다. ④임종은 길달에게 명하여 흥륜사(興輪寺) 남쪽에 누문(樓門)을 세우게 하고 밤마다 그 문 위에서 자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 문을 길달문이라고 한다.

하루는 길달이 여우로 변해서 도망가자, 비형이 귀신들을 시켜 그를 잡아 죽였다. 그래서 귀신들이 비형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서 달아났다.

④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글을 지었다. ‘성스러운 제왕의 혼령이 아들을 낳았으니, 비형랑의 집이 이곳이라네. 날고뛰는 온갖 귀신들아! 이곳에 머물지 말지어다. 나라 풍속에 이 글을 써 붙여서 귀신을 쫓아버리곤 하였다.’<sup>19)</sup>

戒於師 仍結生生相濟之約 又請曰 神之眞容 可得見耶 神曰 法師若欲見我形 平旦可望東天之際 法師明日望之 有大臂貫雲 接於天際 其夜神亦來曰 法師見我臂耶 對曰 見已甚奇絕異 因此俗號臂長山 神曰 雖有此身 不免無常之害 故吾無月日 捨身其嶺 法師來送長逝之魂 待約日往看 有一老狐黑如漆 但吸吸無息 俄然而死”, <圓光西學>, 『三國遺事』, 卷第四, 意解.

- 19) “第二十五 舍輪王 諡眞智大王 姓金氏 妃起烏公之女 知刀夫人 大建八年丙申卽位[古本云 十一年己亥 誤矣] 御國四年 政亂荒姪 國人廢之 沙梁部之庶女 姿容艷美 時號桃花娘 王聞而召致宮中 欲幸之 女曰 女之所守 不事二夫 有夫而適他 雖萬乘之威 終不奪也 王曰 殺之何 女曰 寧斬于市 有願靡他 王戲曰 無夫則可乎 曰 可 王放而遣之 是年 王見廢而崩 後二年其夫亦死 浹旬忽夜中 王如平昔 來於女房曰 汝昔有諾 今無汝夫 可乎 女不輕諾 告於父母 父母曰 君王之教 何而避之 以其女入於房 留御七日 常有五色雲覆屋 香氣滿室 七日後 忽然無蹤 女因而有娠 月滿將產 天地振動 產得一男 名曰鼻荊 眞平大王 聞其殊異 收養宮中 年至十五 授差執事 每夜逃去遠遊 王使勇士五十人守之 每飛過月城 西去荒川岸上[在京城西] 率鬼衆遊 勇士伏林中窺伺 鬼衆聞諸寺曉鐘各散 郎亦歸矣 軍士以事奏 王召鼻荊 曰 汝領鬼遊 信乎 郎曰 然 王曰 然則汝使鬼衆 成橋於神元寺北渠[一作神衆寺 誤 一云荒川東深渠] 荆奉勅 使其徒鍊石 成大橋於一夜 故名鬼橋 王又問 鬼衆之中 有出現人間 輔朝政者乎 曰 有吉達者 可輔國政 王曰 與來 翌日荆與俱見 賜爵執事 果忠直無雙 時角干林宗無子 王勅爲嗣子 林宗命吉達 創樓門於興輪寺南 每夜去宿其門上 故名吉達門 一日吉達變狐而遁去 荆使鬼捉而殺之 故其衆聞鼻荊之名 怖畏而走 時人作詞曰 聖帝魂生子 鼻荊郎室亭 飛馳諸鬼衆 此處莫留停

[자료5]·[자료6]·[자료7]은 제 24대왕인 진흥왕 이후 금륜(金輪)계와 동륜(銅輪)계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왕권다툼 과정을 배경으로 한 텍스트들이다. 제25대 진지왕을 정란황음(政亂荒淫)<sup>20</sup>으로 몰아 폐위시킴으로써 왕권을 탈취한 진평왕 김백정(金白淨)은 진흥왕의 큰 아들이었던 동륜태자의 장자이고, 금륜태자(金輪太子) 진지왕(眞智王)은 진흥왕의 둘째 아들이다. 동륜태자의 요절로 왕권은 일시적으로 진지왕에게 넘어갔으나 다시 진평왕이 등극하면서 동륜태자계 집단의 왕권은 진평왕에서 선덕여왕을 거쳐 진덕여왕까지 삼대에 걸쳐 계승되었다. 진덕여왕 사후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사촌형제이자 진지왕의 손자인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면서 왕권은 다시 금륜태자계 혈통으로 교체되었다. 김춘추의 등극과 동시에 진지왕의 아들 김용춘(金龍春)을 문흥대왕(文興大王)으로 추존하여 금륜태자계 혈통을 복권시켰다. 이러한 왕권다툼 과정에서 동륜·금륜태자계 내부에서는 각자의 혈통을 신성시 하고 왕위계승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류토텐과 관련된 각 계보의 왕권신화들이 전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륜태자계 집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택된 이류토텐은 일신(日神)과 용신(龍神)으로 나타난다.

먼저, 해 토템은 제26대 왕이자 동륜태자계 왕통의 증시조격인 진평왕을 신라 건국시조 박혁거세에서부터 이어지는 천신족(天神族) 관념의 정통 계승자로 정당화하기 위해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5]는 『삼국유사』본 진평왕의 등극기사로 일종의 <진평왕 신화>에 해당된다. 주지하다시피 신라는 해 토템을 가진 외래(外來)의 일신족 박씨 집단에 의해 건국되었다. 이들의 해 토템을 상징하는 천강란(天降卵) 화소는 신라 왕조의 거대 지배질서 내부에서 이루어진 왕통의 씨족 교체 과정에서 후대 왕위계승자의 왕권을 합리화하기 위해 반복 복제된 바 있다. 박씨 왕통을 대체한 김씨족의 시조 김알지의 시조신화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자료 1]-㉔에서 확인되는 천사옥대(天賜玉帶)는 이 탄강란이 변주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늘이 내린 옥대는 진평왕의 등극과 함께 동륜태자계가 천신족 신라왕의 정통성을 계승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해 토템의 시각적 구상물인 알이 옥대로 변형된 것은 동륜태자계의 왕위계승이 김알지의 김씨족 계보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씨족을 새로 연 것은 아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천사옥대는 신라건국조와 김씨족 시조신화에서부터 이어지는 해 토템의 정체성을 변주한 것인 동시에, 진흥왕의 후계왕로서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㉕에서 언급된 신라 삼대 보물(新羅三寶)은 진흥왕이 만든 황룡사(黃龍寺) 장륙불상(丈六佛像)을 제외하면 동륜태자계 왕인 진평왕·선덕여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황룡사는 불교에 의거한 신라의 삼국통일 발원을 담은 건축물로, 본사(本寺)는 진흥왕 14년(553년)에 착공을 시작하여 27년(566년)<sup>21</sup>에 창건되었으며, 장륙불상은 진흥왕 35년(574년)에 주조되었고, 금당(金堂)은 진평왕 6년(584년)에, 구층목탑(九層木塔)은 선덕여왕 14년에 완공되었다. 통일신라의 기업구축이 진흥왕-진평왕-선덕여왕으로 이어졌음을 부각시킴으로써 동륜태자계 혈통의 적통성을 합리화 한 것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건국시조로부터 이어져온 신성상징의 보편성에 병행하여 부가되어 있는 동륜태자계 왕통상징의 특수성이다. 전자가 천자옥대로 상징되는 해 토템이라면 후

鄉俗帖此詞而辟鬼.”,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 第一.

20) “御國四年 政亂荒淫 國人廢之”,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一, 桃花女鼻荊郎條

21) 『삼국유사』에는 진흥왕 30년에 완공된 것으로 되어있다.

자는 용 토テム이다. ㊦를 보면 진평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이류토テム이 하나 더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사옥대를 두른 왕포(王袍)에 새겨져 있었다는 용이다. 일반적으로 용을 새긴 곤룡포는 조선왕조에서 처음으로 왕의 정복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장 이른 시기의 개작 기록은 신라 제23대 법흥왕 14년대<sup>22)</sup>에 있었던 이차돈 순교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흥왕 대에 왕권상징으로 등장한 용은 불교적 법룡(法龍)이다. 법흥왕조에 처음으로 공인된 불교에 의해 수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용신상징은 토착의 것이 아니라 외래의 이류토テム에 해당한다.<sup>23)</sup> 이 법룡을 삼국통일을 위한 호국용신 관념으로 구상화 한 것이 바로 진흥왕 대부터 건립되기 시작하여 선덕여왕 대에 최종적으로 불사가 완결된 황룡사이다. 법흥왕과 진흥왕에 이어 선덕여왕이 입었던 곤룡포는 지금도 불국사에 보관되어 있다. 진평왕은 법흥왕 대에 공인된 불교로 신라의 재래 이념질서를 재편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이류토テム 또한 토착적인 것에서 용신 토テム으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진흥왕은 삭발을 하고 법복을 입은 채 임종에 임함으로써 불교와 정치의 제정일치 시대의 서막을 알린 인물이다. 황룡사가 불정일치질서(佛政一致秩序)의 물리적 구현체였다면, 직계 혈통집단을 석종화(釋宗化)<sup>24)</sup> 시킨 직계 혈통 집단은 인격적 구상물이었다. 예컨대, 진흥왕은 두 아들의 이름을 불교의 이상적인 제정일치 군주인 전륜성왕(轉輪聖王)의 4륜보(輪寶)<sup>25)</sup> 중에서 따서 동륜과 금륜으로 지었으며, 진평왕 부부는 석가모니 부모의 이름인 백정(白淨)과 마야(摩耶)에서, 진평왕 형제는 석가모니 삼촌인 백반(伯飯)과 국반(國飯)에서, 선덕여왕의 이름은 전륜성왕의 전신인 선덕바라문(善德婆羅門)에서 각기 따왔다. 진흥왕에서부터 시작한 불정일치의 석종은 선덕여왕에서 완성되는 구조로 짜여있다. 후계 왕통 구성원들을 석가족(釋迦族)으로 만듦으로써 법룡을 상징하는 곤룡포를 입고 불정일치를 실행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왕권자 집단으로 자처하고자 했던 것이다. 동륜태자계 왕위계승권자들이 곧 불교 이데올로기의 용 토テム을 인격화 한 구상물이라는 용족(龍族) 관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동륜태자계 왕위계승권자들을 용 토テム의 인격적 구현체로 등치시킨 용족 관념의 이데올로기적 필요성이 된다. 동륜태자계 왕통이 이어지던 시기, 법흥왕대에 공인되었던 불교는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기존 질서를 불교적으로 재편하는 방식으로 중앙집권화를 이루어 나갔는데, 특히 토착 민속신앙의 불교 습합과 대체는 지역 단위로 지배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호족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민중을 이념적인 측면에서 직접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동륜태자계 왕위계승권자들의 용족화(龍族化)는 왕실이 이처럼 불교를 중심으로 재편된 이념체계의 주재자임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불교의 법룡은 동륜태자계 집단의 왕위계승권을 상징하는 왕실의 토テム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법룡토テム의 강화는 곧 동륜태자계 집단의 신화적인 왕권 정당화 방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동륜태자계 집단이 왕권을 정당화 시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신성상

22) “聖人哀戚 沾悲淚於龍衣”, 『三國遺事』, 卷第三, 興法 第三.

23) 알영의 계룡(鷄龍)에서 보이는 천룡(天龍) 관념과 해외(海外) 용성국(龍成國) 출신인 석탈해의 수룡(水龍) 관념에서도 외래의 용신 토テム 유입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불교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법흥왕대 이후로 왕권상징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불교의 법룡 관념과는 다른 케이스가 된다.

24) 진평왕 혈통집단의 석종의식에 대해서는 김두진, 「新羅 眞平王代の 釋迦佛信仰」, 『한국학논총』 10, 1987, 33쪽을 참조하기 바람.

25) 금륜(金輪), 은륜(銀輪), 동륜(銅輪), 철륜(鐵輪)이 4륜보이다.

장인 범룡토텐의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범룡의 토텐화 덕분에 <신라신화>의 맥락에서 다시 또 배제된 여우신성관념의 비속화(卑俗化) 혹은 악신화(惡神化)이다. 전자의 범룡토텐은 동륜태자계 주체적인 왕권신화의 맥락 속에 종속적으로 객체화(客體化) 되어 선택되어 있다면, 후자의 토착 여우신성관념은 비속화·악신화 되어 배제시키는 방향이 선택된 것이다. 비속화와 악신화는 동태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가 바로 [자료6]·[자료7]이다.

[자료6]-①-㉔의 원광법사(圓光法師)는 진평왕22년에 <세속오계(世俗五戒)>를 만들어 신라호국불교(新羅護國佛教)의 이념체계를 만든 인물이다. 바로 이어서 운문산(雲門山) 가실사(加悉寺)에서 貴山(귀산)·추항(筵項) 두 사람에게 <세속오계>를 내리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료6]은 원광법사가 이 신라호국불교의 이념체계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설화 텍스트가 된다. 원광법사가 기존 불교와 차별화 되는 신라호국불교란 신생종파(宗派)를 창안하여 종조(宗祖)가 되는 일종의 문화시조(文化始祖) 탄생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원광법사에 의해 창안된 호국불교의 이념적 위치가 [자료6]-①-㉔의 호국불교 성립이전 불교와 대립적 관계에 있는 동시에, [자료6]-②-㉔의 토착 여우신 관념과는 보조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원광법사의 호국불교는 토착 여우신관념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법흥왕 대에 공인되어 진흥왕대까지 이어진 기존 불교를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자료6]-①-㉔에서 기존 불교를 주술이나 행하는 부정적인 종교로 규정해 놓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여기서 토착 여우신관념은 호국불교의 이념적 경쟁상대로 지목되지 않는다. 법흥왕대 불교공인 이후 토착 여우신관념은 기존 불교에 의해 이미 [자료6]-②-㉔처럼 악신화 되었기 때문이다. 호국불교 이전의 기존 불교는 이 토착 여우신관념을 악신화 하여 배제하는 방식으로 관념체계의 헤게모니를 획득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대신 원광법사의 호국불교가 기존 불교와의 이념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차용한 것이 바로 기존 불교에 의해 악신화 되어 <신라신화>의 맥락에서 배제되었었던 [자료6]-②-㉔의 토착 여우신 관념이다. 여우신성관념이 민속신앙의 체계에서는 여전히 관념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기존 불교가 악신([자료6]-②-㉔)으로 규정한 여우신의 신성권능을 호국불교가 [자료6]-①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토착 민속신앙 체계에서 유지되고 있는 여우신성관념의 권위를 빌려서 기존 불교를 부정적인 이념화 하여 배제([자료6]-②-㉔)하는 방식이다. 신생 호국불교가 주체적인 국가이념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존 불교에는 있으나 자체 내부에서는 부재한 이념적 권위를 토착 여우신성관념 체계를 재구성해서 차용하는 방식이 된다. 이렇게 호국불교에 의해 재구성된 신라여우신의 신직은 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권의 질서를 관장하고 안녕·평안을 위협하는 존재를 퇴치하는 [자료6]-①-㉔의 산신(山神)과 그 신체(神體)가 하늘까지 닿는 거대 팔뚝으로 현현되는 [자료6]-②-㉔의 거인신(巨人神)인 천신(天神)이다. 특히, 후자의 천신 신직은 신라여우신을 천호(天狐)로 규정해 놓은 [자료2]-①의 기록 내용과도 상통한다.

그런데 신생 호국불교이념과 토착 여우신앙관념 사이의 관계가 좀 복잡하다. [자료6]-②-㉔-㉔를 보면 토착 여우신은 원래 보통의 불승이었던 원광법사로 하여금 기존 불교를 대체할 신생불교를 창안하기 위한 중국유학을 권유했을 뿐 아니라 귀국 후에는 자신이 직접 계(戒)를 주는 당사자로 나타난다. 전자의 도당유학에서 획득한 이념적 젓줄은 중국불

교이기 때문에 여우신과 이념적인 혈연관계가 없지만, 후자는 다르다. 여우신이 직접 원광법사에게 계를 주었다는 것은 토착 여우신성관념이 신라호국불교 탄생을 위한 신성유전기원(神聖遺傳起源)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토착 여우신이 호국불교 창안자인 원광법사를 탄생시키는 관념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생 호국불교에 부재한 이념적 권위가 토착 여우신앙과의 관념적 혈연관계를 맺음으로써 차용한 신성유전관념(神聖遺傳觀念)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 [자료6]의 여우신은 기존 불교와 차별화되는 신라호국불교란 신생 종파를 창안한 문화시조를 낳은 시조부(始祖父)가 된다. 여우신은 원광법사를 호국불교의 이념적 시조로 탄생시키기 위해 관념적인 신성유전자(神聖遺傳子)를 상속시켜 주는 관념적인 신성부모(神聖父母)가 되는 셈이다. 여우신성관념은 호국불교 주체적인 국가이념질서를 배태시키기 위해 객체화(客體化)된 일종의 신성탯줄(神聖臍帶)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여우신격이 객체화는 됐는데 원광법사를 종조로 하는 호국불교의 관념체계 속에 시조부로 정착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데 있다. [자료6]-㉔-㉕를 보면 여우신격은 수계(授戒)를 통해 원광법사에게 자신의 신성권위를 상속시켜 준 직후에 바로 운명한다. 이때 재확인되는 여우신격의 신체(神體)가 문제다. [자료6]-㉔-㉕에서 현현되었던 찬란한 거인 천신성(天神性)과는 달리 새까맣고 작은 몸에 숨조차 헐떡거리는 비속(卑俗)한 존재로 현시되어 있다. [자료6]-㉔-㉕에 와서 이루어진 여우신격의 신성성 박탈은 여우신격을 호국불교의 주체적인 국가이념화를 위한 신성탯줄로만 차용하고 해당 신성기원은 소거하고자 하는 호국불교 향유집단의 의식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우신격으로 소급되는 신성기원을 단절시키게 되면 기왕 상속받은 관념적 신성유전형질이 오롯이 해당 종조의 소유로 남게 된다. 관념적 신성유전자를 물려준 것은 신성여우 부모인데 관념적 탯줄의 신성기원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신성자식에게 육화(肉化)되어 남은 관념적 권위는 인간시조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원광법사는 이렇게 자신에게 관념적으로 육화되어 남은 신성세계의 관념적 권위를 인간세계의 관념적 권위로 바꾸어 인간세계를 주관하는 국가이념화 함으로써 한 종파의 종조로 탄생된다. 여우신격으로부터 관념적인 신성유전형질을 물려받아서 <세속오계>라는 호국불교 이념을 창안하기까지의 과정은 원광법사가 문화시조로 재탄생되는 이니시에이션이 되는 것이다. 여우신격은 호국불교의 국가이념화를 위한 신성탯줄만 제공하고 [자료6]-㉔-㉕에서 자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둘 사이에 갈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 금륜태자계 집단은 석종가의 이름을 공유하고 있었던 진지왕이 폐위되어 왕위계승권을 박탈당하면서부터 법흥왕대부터 시작된 용 토템의 향유맥락에서도 분리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진평왕의 직계가 성골의 골품을 만들어 왕위계승권을 독식<sup>26)</sup>하게 되면서 불정일치(佛政一致)의 왕권을 상징하는 법룡의 토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던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금륜태자계 집단은 진흥왕 이후의 적통을 동륜왕계가 독점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용 토템의 왕위계승권 상징을 언표화 할 다른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동륜태자계 집단이 불교적 용 토템을 통해 재편한 신앙관념의 중앙집권화 체제를 해체하고 민속신앙의 통제능력을 금륜태자계 집단이 과시함으로써 왕위계승권을 신성관념의 측면에서 정당화 하고자 한 방식이었던 것으로

26) 김병곤, <신라의 태자 책봉제 수용 과정 고찰>, 『한국고대사연구』64, 한국고대사학회, 2011.

생각된다. 여기서 금륜태자계 집단이 왕위계승권을 주장하기 위해 재편해야 할 토착신앙의 대표격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여우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료7]의 <도화녀 비형랑> 텍스트가 된다.

[자료7]의 <도화녀 비형랑>은 폐왕(廢王) 진지왕의 폐위 사실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진지왕을 성제(聖帝)로 재규정하는 것으로 서사가 마무리된다. 금륜태자계 왕위계승권 박탈로부터 시작해서 복권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것이다. 서사구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i) 진지왕의 폐위([자료7]-①)
- ii) 진지왕의 원혼(冤魂)·도화녀의 인귀교혼(人鬼交婚)과 비형랑의 탄생([자료7]-②)
- iii) 도호(逃狐) 축출을 통한 비형랑의 역호(役狐) 능력 입증([자료7]-③)
- iv) 문신(門神) 좌정과 왕위계승권의 복권(復權)([자료7]-④)

상기 서사구조에 의거해 보자면, <도화녀 비형랑>은 액자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7]-①과 [자료7]-④이 액자가 되고, [자료7]-②와 [자료7]-③이 액자 속의 이야기가 된다. 액자 도입부와 종결부는 각각 진지왕의 폐위(廢位)와 성제(聖帝)로의 복권으로 되어 있다. 액자 내부는 진지왕의 유복자로 태어난 비형랑이 부왕으로부터 왕권을 탈취한 동륜태자계 왕권질서 내부에서 여우신격을 통제하는 능력을 입증하기까지의 이니시에이션이다. 이니시에이션의 성공적인 수행 결과가 액자 외부에서 비형랑의 문신(門神) 좌정을 통한 금륜태자계 왕권의 정당성을 합리화 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형랑의 문신 좌정이 금륜태자계 집단의 왕위계승권을 합리화 할 수 있는 이유는 문신이란 신격이 집으로 상징되는 인문질서(人文秩序) 유지를 위해 귀신을 통제하고 악귀를 벽사(辟邪)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민속신앙에서 문신은 집의 관문에 위치하면서 안으로 들일 것과 축출할 것을 관장하는 신직을 수행한다. 토착의 재래 신격들을 인간이 중심이 된 인문질서 속에 재위치 시키는 역할을 맡은 신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장하면 지배 질서의 내부에 위치하는 구성원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기존 신격들을 통제하는 신격이 된다. 이러한 문신의 신직은 민속신앙을 자신들의 왕권질서 속에 재편하기 위해 활용했던 불교의 용 토템에 대응되는 것이다. 금륜태자계 집단이 불교의 법륜 신앙 개념을 통해서 토착신앙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왕권을 합리화 했다면, 금륜태자계 집단은 비형랑을 토착 민속신격의 통제자로 위치시키는 신화적 방식으로 왕위계승권의 복권을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왕권집단이 왕위계승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통제능력을 확인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지목된 토착신격이 바로 [자료7]-③-㉗의 여우이다.

[자료7]-③-㉗에서 토착 여우신격과 금륜태자계 집단의 관계는 전자가 왕권집단의 신성관념체계 확립을 위해 기여하는 객체화 대상으로 기능하였으나 이류토템으로 선택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동륜태자계 집단과 토착 여우신격의 관계와 같다. 대신, [자료7]-③-㉗의 토착 여우신격은 흥륜사(興輪寺) 문루 창건 역사를 말함으로써 동륜태자계 집단의 이념질서에 복무했다가 자신이 주체가 된 이류질서로 복귀해서 주체적 신성관념을 회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형랑에게 악신(惡神)으로 규정되어 살해되었다는 점에서 다르다. [자료6]의 여우신격 배제가 동륜태자계 집단에게 신성유전형질을 전달하여 객체화 되었다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자살로 소거하는 형태였는데 비해 [자료7]에서는 객체화에서 한 단

게 더 나아가 악신화(惡神化)가 이루어져 있으며 타살의 형태로 소거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악신화를 통한 배제가 가능한 것은 금륜태자계 집단의 신성토텐이 토착 여우신격이 아닌 다른 제3의 이류토텐이기 때문이다. 동륜태자계 집단은 불교를 통한 왕권이념질서 구축을 위해 토착 여우신앙관념을 관념적인 신성토텐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관념적인 신성부모인 여우신격을 악신화 하여 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자료7]에서 비형랑에게 신성유전형질을 전달한 신성토텐은 도목이류신격(桃木異類神格)이다. 민속신앙 속에서 도목(桃木)은 악귀를 벽사하는 도목벽사(桃木辟邪)의 신성수(神聖樹)로 숭앙되기 때문이다. [자료7]에서 일단 죽었던 진지왕을 귀신으로 불러내어 이 도목벽사 관념의 인격화 된 인물인 도화녀(桃花女)<sup>27)</sup>와 인귀교혼(人鬼交婚) 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도화녀는 토착 여우신격을 제어할 신성유전형질을 금륜태자계 집단에게 상속시켜 줌으로써 신라 왕권집단의 왕권 정당성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 금륜태자계 집단에 의해 선택된 이류토텐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금륜태자계 집단은 물리적인 측면이든 관념적인 측면이든 토착 여우신격에게 신성토텐을 대고 있지 않는 데다 직접적인 신성토텐으로 선택된 모계가 토착 민속신격의 통제를 신직(神職)으로 하는 이류토텐이기 때문에 왕권질서 속에서 기왕에 배제한 토착 여우신격을 악신화 하여 퇴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 4. 나오는 말

본 연구가 규명해 보고자 한 부분은 이류토텐으로 선택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인식되고 있는 여우신성관념과 신라 건국·왕권신화의 내셔널리티 관련성 문제이다. 이러한 아젠다가 성립 가능한 것은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지만 <여우설화>의 향유맥락 속에 <고조선신화>의 내셔널리티와 관련된 여우토텐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해당 텍스트 속에서 여우토텐은 <고조선신화>의 내셔널리티 맥락으로부터 배제되어 나타나는데, 여기서 배제된 여우토텐은 <신라신화>의 내셔널리티 관련 컨텍스트 속에서 다시 확인된다. 여우는 신라의 내셔널리티를 대표하는 토착신격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한국신화의 통시적(通時的)인 수직좌표축에서 보자면 전대 국가와 후대 국가 사이에 상이한 내셔널리티 상징 이류의 교체가 된다. 즉, 곶에서 여우로의 교체다. 여우신격이 지니는 신라 내셔널리티는 동시대의 수평좌표축에서 병립한 <백제신화>의 토착 용토텐과 대비되어 그 특수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여우신격은 <신라신화>의 내셔널리티를 상징하는 신수(神獸)로 지목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류토텐으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내는데, <신라신화>가 국가이념으로 선택한 불교에 신성유전형질(神聖遺傳形質)을 전달하여 권위를 정당화 해주기만 하고 배제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우와 대비적으로 신라왕가 집단의 이류토텐으로 선택된 것은 불교의 용 토텐이 된다.

<신라여우설화>에 나타난 <신라신화>의 내셔널리티는 여우신성관념을 포획하여 객체화는 시켰으나 이류토텐으로 선택하지 않았던 배제의 원리는 신라 왕실의 법통 토텐 확립기

27) 권도경, <<도화녀(桃花女) 비형랑(鼻荊郎)> 텍스트의 적층구조와 진지왕·도화녀·비형랑 관련설화의 결합원리>, 한민족어문학 64집, 한민족어문학회, 2014.

에 대립한 두 개의 왕권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객체화와 악신화이다. 진평왕대에 확립된 동륜태자계 집단은 법룡을 왕실토텐으로 선택하여 석가종족의 불교이념적 신화를 확립시켜 나갔는데, 이 왕권이념을 뒷받침 하는 원광법사의 신생호국불교는 토착 여우신성관념을 신성텃줄로 선택하여 기존 불교를 대체할 이념적 권위를 수혈하였다. 토착 여우신격은 이처럼 동륜태자계 집단의 왕권질서에 복무하는 호국불교의 관념 체계 속에 관념적인 유전자를 전달하는 객체로는 선택되었지만 왕위계승권자 혹은 왕권관념질서 계승권자의 유전형질 속에 해당 신성성을 육화 시킨 이류토텐으로 선택되는 데는 실패하고 자살의 형태로 자발적 소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금륜태자계 집단은 토착 이류신격을 악신화 하여 살해함으로써 불교관념의 매개 없이 직접 토착민속신앙을 통제할 왕권질서 계승자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금륜태자계와 관련된 자료 속에서 토착 여우신격은 객체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악신화(惡神化) 되고 있으며 타살의 형태로 소거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악신화를 통한 배제가 가능한 것은 금륜태자계 집단의 신성텃줄이 토착 여우신격이 아닌 다른 제3의 이류토텐이기 때문이다. 동륜태자계 집단은 불교를 통한 왕권이념질서 구축을 위해 토착 여우신앙관념을 관념적인 신성텃줄로 선택했기 때문에 관념적인 신성부모인 여우신격을 악신화 하여 살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민속신앙에서 악귀를 벽사하는 도목벽사(桃木辟邪)의 신성수(神聖樹)를 신성텃줄 기원인 이류토텐으로 선택한 금륜태자계 집단은 토착 여우신격을 악신화 하여 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륜태자계 집단은 물리적인 측면이든 관념적인 측면이든 토착 여우신격에게 신성텃줄을 대고 있지 않는 데다 직접적인 신성텃줄로 선택된 모계가 토착 민속신격의 통제를 신직(神職)으로 하는 이류토텐이기 때문에 왕권질서 속에서 기왕에 배제한 토착 여우신격을 악신화 하여 퇴치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高麗史』, 世系.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 第一.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 第二.

『三國遺事』, 卷第三, 興法 第三.

『三國遺事』, 卷第四, 意解.

『三國史記』卷第二十三, 百濟本紀, 第一.

『新增東國輿地勝覽』 卷十八, 忠清道 扶餘縣 古跡條, <鈞龍臺>.

『太平廣記』, 卷449, <沂陽令>.

권도경, <여우여신의 남신화에 따른 반인반호(半人半狐) 남성영웅서사의 탄생과 드라마 <구가의 서>의 인간화 욕망 실현의 이니시에이션>, 『한국학연구』48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권도경, <<도화녀(桃花女) 비형랑(鼻荊郎)> 텍스트의 적층구조와 진지왕·도화녀·비형랑 관련설화의 결합원리>, 한민족어문학 64집, 한민족어문학회, 2014.

김광순, 『한국구비문학』, 경북-고령군 편, 박이정, 2006.

- 김두진, 「新羅 眞平王代의 釋迦佛信仰」, 『한국학논총』 10, 1987, 33쪽
- 김병곤, <신라의 태자 책봉제 수용 과정 고찰>, 『한국고대사연구』64, 한국고대사학회, 2011.
- 김지선, <한·중·일 여우 이야기에 대한 비교학적 고찰>, 『중국어문논총』29, 중국어문연구회, 2005, 501-525쪽.
- 김기흥, <백제의 正體性에 관한 일 연구>, 『역사와 현실』 54, 2004.
- 김홍겸, <한중일 여우 이미지의 유사성과 차이>, 『동양학』5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11, 43-64쪽.
- 박대복, <여우의 超越的 性格과 變貌 樣相>, 『중국어문논총』23, 동아시아고대회, 2010, 279-315쪽.
- 서대석, <백제신화>,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216쪽.
- 유증선, 『영남의 전설』, 형설출판사, 1971.
- 이명현, <이물교혼담에 나타난 여자요괴의 양상과 문화콘텐츠로의 변용 >, 『우리문학연구』21, 우리문학회, 2007
- 이명현, <구미호에 대한 전통적 상상력과 애니메이션으로의 재현>, 『문학과영상』8, 문학과영상학회, 2007
- 이명현, <<傳說의 故鄉>에 나타난 구미호이야기의 확장과 변주>, 『우리문학연구』28, 우리문학회, 2009
- 이명현, <영화 <구미호 가족>에 재현된 구미호와 주체와 타자의 문제>, 『다문화콘텐츠연구』 10,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1
- 이명현, <설화 스토리텔링을 통한 구미호 이야기의 재창조>, 『문학과영상』13, 문학과영상학회, 2012
- 이명현, <구미호 이야기의 확장과 억압된 타자의 귀환>, 『국제어문』55, 국제어문학회, 2012.
- 이안나, <한·몽 설화 속의 여우 형상성 비교 고찰>, 『한민족문화연구』35, 한민족문화학회, 2010, 7-38쪽.
- 이장웅, <百濟의 馬韓 薯童(武康王) 神話 수용과 益山 彌勒寺>, 『역사민속학』38, 역사민속학회, 2012.
- 임석재, 『임석재전집』3, 평민사, 1988. 230쪽.
- 전관수, 『한시어사전』, 전관수, 국학자료원, 2007.

# 女鬼의 變移樣相 考察

－ 說話와 都市怪談의 比較를 通하여 －

진수현(성결대학교)

## 1. 서론

인간을 규정하는 여러 학명들 가운데 "Homo sapience"는 타 유기체들과 우리의 근원적 차이를 생각 즉 관념으로 상정하고 있다. 물론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연과 사물의 인식 주체로서 존재하고 활동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만 인간만이 거의 유일하게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반응을 본능적이기보다는 관념적 인지의 결과로써 표출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러한 인간의 관념적 소산물들이 실증적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여전히 증명되지 않는 부분들 역시 존재하고 있다. 본 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鬼神 역시 인간들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대상 중 하나이다.<sup>1)</sup> 하지만 귀신이 인간들의 관념 속에 자리하기에 그 인식의 범위가 매우 넓고 포괄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연구대상의 범주<sup>2)</sup>를 설정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鬼神은 鬼와 神의 복합개념으로 범신론적 존재였다. “대개 죽은 사람의 혼령, 혹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화와 복을 주는 정령으로 정의하여 왔다.”<sup>3)</sup> 星湖 李瀾은 『星湖僊說』에서 神과 鬼神의 關係를 陰陽에 比較해서 說明하고 天地間에 있는 모든 것에 氣가 있고 氣란 精靈이라 밝혔다. 이는 사람의 죽음은 陽氣인 魂의 浮散을 뜻하며 浮散하는 魂은 다시 둘로 分化해서 하나는 天界로 上昇하고 하나는 地界로 下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昇天한 氣는 陽으로서 神이 되는 것이며 下降한 氣는 陰으로 鬼가 된다고 본 것이다. 金時習 역시 『金鰲新話』의 南炎浮洲志에서 “鬼者陰之靈, 神者陽之靈”이라 하여 鬼神을 陰

1) 그 간 초자연적인 대상인 귀신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지속되어 왔다. 이들 논의는 대체로 인간 심리기제의 분석 등을 통하여 관념적 존재인 귀신의 표출양상에 대해 천착하거나 음과 양의 이분적 사고로써 귀신의 존재 그 자체를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귀신담의 서사분석을 통해 원인과 해원의 구조를 추출하는 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1981: 이육, 「조선전기 귀신론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15권, 한국종교학회, 1998: 성기열, 『한국 구비전승의 연구』, 일조각, 1982: 조희웅, 「귀신의 정체」, 『한국학논집』제 3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원, 2003: 안병국, 『韓國說話研究』, 學古房, 2011.)

2) 연구대상의 범주는 임동권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3) 안병국, 『韓國說話研究』, 學古房, 2011, 131쪽.

陽說로 해석, 결국 이 둘의 견해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sup>4)</sup> 이상의 논의들로 미루어 볼 때, 神과 鬼神은 理論적으로는 區分될 수 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이 둘을 混同하기 쉽다. 때로는 鬼神이라는 표현에 神과 鬼神이 포함되어 지칭되기도 하며 神明으로서의 神을 除外하고 惡神으로서의 鬼神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다.<sup>5)</sup>

이러한 鬼神들은 다양한 형태로 창작 . 전승되는 이야기에 그려지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삶 속에 그 존재를 드러낸다. 즉 귀신 소재 이야기 속에는 귀신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이 구체적 형상으로 드러나 있고 우리는 이를 인식함으로써 귀신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에 주목하는 이유와 이를 통해 그들이 표출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들의 실체를 밝히는 열쇠인 것이다.

이야기 속 귀신은 반드시 인간과의 교섭이 전제되어 등장한다. 이는 귀신이라는 초월적 현상으로써 우리 삶의 모습을 더욱 진실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초경험적인 것과 관련된 귀신의 존재가 주목받았던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더하여 인간사회의 내면을 드러내는 하나의 통로로서 기능을 한다.<sup>6)</sup> 즉 귀신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와 흥미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향유층의 사회인식과 문제의식 . 가치관 등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sup>7)</sup>

본고는 이 鬼神들 중 下降한 陰의 氣 즉 鬼를 대상으로 삼는다. 이 鬼神은 사람이 一生을 苦生, 苦難 속에 살거나 非命橫死 했을 때, 그 靈魂이 陽의 氣로 化하여 昇天하지 못하고 陰의 氣로써 下降해 나타난다. 그리고 이 鬼神은 자신의 未練과 恨을 사람들에게 危害하는 방식으로 표출한다. 때문에 사람들에게 鬼神은 매우 두려운 존재로 각인되고 있는 것이다.<sup>8)</sup> 이 중에서도 女鬼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우리가 인식하는 대표적인 귀신의 형상은 긴 머리를 풀어헤친 女鬼이다. 이들은 대개 억울하게 죽거나 위로받지 못해 원한을 가지고 있는 冤鬼로서, 그 모습은 소복을 입고 피를 흘리는 여성으로 인식된다.<sup>9)</sup> 고소설 865종 중에서 원귀를 다루고 있는 작품 대부분에서는 원귀가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sup>10)</sup> 현대의 다양한 매체, 특히 TV나 영화 등의 영상매체에서는 긴 머리 여귀의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환기되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귀의 생성과 변화 등 그 존재양상은 필연적으로 당대 민중의 인식을 반영해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의 분석을 위해서는 인간의 심리기제는 물론 여귀의 모습이 표출된 당시의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라야마 지준은 조선인들은 처녀귀신인 손각씨와 원귀를 가장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귀신들은 조선 처녀의 순결과 과부의 절조를 지나치게 고수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았다.<sup>11)</sup> 즉 여귀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철저히 타자화된 여성 억압의 산물으로써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남성에 있어 여성 원귀는 공포 그 자체로 인식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시대의 여귀는 특정 개인을 향한

4) 임동권, 「鬼神論」, 『어문논집』10집, 민족어문학회, 1975, 11~12쪽 참조.

5) 임동권, 위의 논문, 12쪽 참조.

6) 신태수, 「귀신등장소설의 본질과 그 변모과정」, 『어문학』제 76호, 한국어문학회, 2002, 389~390쪽 참조.

7) 이찬욱 . 이채영, 「韓國 鬼神의 原型성과 아랑형 女鬼譚」, 『우리문학연구』24, 우리문학회, 2008, 87쪽 참조.

8) 임동권, 위의 논문, 12쪽 참조.

9) 이찬욱 . 이채영, 위의 논문, 95쪽

10) 안병국, 『귀신설화연구』, 규장각, 1995, 77쪽.

11) 무라야마 지준, 『조선의 귀신』, 동문선, 1993, 175~176쪽

원한에 의해 생성·출현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 그 자체의 모순에 의해 발생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연구자들도 대체로 이와 같은 시각에서 과거 사회에 등장한 여성 冤鬼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원혼설화·원귀설화에 나타나는 민중의 인식과 그 이야기가 내포한 사회적 성격 구명을 통해 여귀의 존재의미를 천착한 연구,<sup>12)</sup> 원귀설화의 현대적 변모와 그 존재양상에 대한 고찰<sup>13)</sup>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귀를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랑설화의 아랑이 유교 가부장제에 순응하여 남성 官吏를 통해 해원을 이루는 ‘억압된 존재’로서 그려졌다면 현대의 아랑은 스스로 가해자에게 복수함으로써 모순이 잔존한 사회질서를 지속적으로 해체시키는 형태로 등장한다. 이는 해원의 과정에서 사회 질서 내에 再編入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회에 이와 같은 문제를 공론화 하며 그 기능이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sup>14)</sup> 이러한 사실에서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사람들의 여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 변하지 않고 전승되는 여귀의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예컨대 아랑형 여귀는 산발한 머리에 소복을 입은 피 흘리는 여성의 형상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이 같은 여귀의 형상은 매체환경의 변화 - 즉 문헌설화에서 영상으로 - 속에서도 두드러진 차이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고 전승되고 있는 여귀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까닭이다. 그러나 아랑설화의 여귀들이 억울한 죽음의 증거로써 죽던 당시의 모습 그대로 등장하는 것에 반해, 영화나 TV에서의 여귀들은 ‘공포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장치로써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날 뿐이다.<sup>15)</sup> 즉 사람들의 인식 속 여귀의 형상이 비록 크게 변모하여 나타나지는 않으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공포기제’로써의 의미만으로 기능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이전 괴기담에서 여귀의 형상이 가지는 의미에 연민과 동정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자리했다면 현대는 이들 여귀의 성격 차이만을 그 형상에 부각시킬 뿐이다. 현대 여귀 영화에 이르러 비로소 여귀는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이다.<sup>16)</sup> 이렇듯 여귀는 시대에 따라 변모해 가면서 - 과거의 설화 속에서 뿐만 아니라 - 현재에도 여러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sup>17)</sup> 본고에서는 說話와 도시괴담의 비교를 통하여 - 과거와 현재 - 여귀의 표출양상 변화를 살펴보고 이것이 함의하는 바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 12) 강진옥, 「원혼형 전설 연구」, 『구비문학』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1.  
 \_\_\_\_\_, 「원혼설화에 나타난 원혼의 형상성 연구」, 『구비문학연구』 12, 한국구비문학학회, 2001.  
 \_\_\_\_\_, 「원혼설화의 담론적 성격 연구」,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이부영, 「일령전설과 한의 심리」, 『한국 민담의 심층 분석』, 집문당, 1995.  
 조현설, 「남성지배와 「장화홍련전」의 여성 형상」,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_\_\_\_\_, 「원귀의 해원 형식과 구조의 안팎」,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 13) 본 논의는 현대에 영화로 재탄생한 <<아랑>>(2006)과 아랑형 여귀담의 서사구조의 비교 분석과 여귀의 변이양상 고찰을 통해 한국 귀신의 원형성을 아랑설화의 원귀 ‘아랑’에서 찾고 있다.(이찬욱·이채영, 앞의 글.)
- 14) 이찬욱·이채영, 앞의 글, 108쪽 참조.
- 15) 이찬욱·이채영, 앞의 글, 106~107쪽 참조.
- 16) 백문임, 「미지와 의 조우-“아랑형” 여귀 영화」, 『현대문학의 연구』 17, 한국문학연구학회, 2001, 74쪽.
- 17) 영화가 아닌 현대의 귀신담과 그 속에 나타나는 여귀에 대한 연구는 김종대의 빨간 마스크 연구가 있다. (김종대, 「도시에서 유행한 <빨간 마스크>의 변이와 속성에 대한 시론」, 『한국민속학』 41, 한국민속학회, 2005.)

## 2. 說話와 都市怪談 속 女鬼의 表出樣相

본 장에서는 『한국구비문학대계』<sup>18)</sup>와 도시괴담<sup>19)</sup>(이하 괴담)을 대상 텍스트로 삼아 여귀의 表出樣相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물론 설화와 괴담의 비교, 그 자체가 성립되는 가 하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상이나 관념 등을 표현해왔으며, 현재와 과거에서 그 차이란 단지 표현수단과 방법의 다름에 지나지 않는다. 즉 설화와 괴담 모두는 인간의 언어행위에서 비롯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요컨대 본고가 전착하고자 하는 바는 두 대상 텍스트간의 상호관련성에 있지 않다. 그 보다 여귀라는 記票가 시대를 초월해 다양하게 생산해내는 記意에 있으며 결국 이러한 변화 기저에 그것을 작동시키는 요인에 있다 하겠다.

### 2.1. 說話 속 女鬼의 表出樣相

說話와 怪談 속 女鬼의 表出樣相에 대한 고찰을 위해 여귀의 출현 시간·공간·형상·이유(귀신이 된 사연)·해원(유·무) 총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설화 속 여귀의 표출양상을 알아보기 위한<sup>20)</sup> 대상 텍스트로 『한국구비문학대계』를 선정, 각각 귀신·처녀·원귀를 그 키워드로 추출하였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총 64건의 귀신관련 기사가 검색되었고 여귀와 관련된 설화가 이중 11편, 처녀관련 기사 221건 중 7편, 원귀관련 기사 21건 중 8편이 이에 해당했다. 이들 검색어의 총 건수에는 민요자료가 포함된 것이며 귀신·처녀·원귀 키워드에 중복되는 항도 존재하였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모든 자료를 키워드로 정리하여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했으나 검색된 결과만을 놓고 보았을 때, 처녀와 관련된 설화에서 여귀의 등장 비중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귀신이라는 키워드에서 여귀의 등장 비중이 높다는 점, 그리고 원귀로 검색했을 때 가장 많았다는 사실은 여귀는 冤鬼라는 우리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처녀와 원귀의 키워드가 서로 중복되어 나타난다. 이로써 여귀의 冤과 恨은 처녀로 맞은 죽음이 그 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짐작케 한다. 게다가 여성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결연(혼사장애)을 이루지 못하거나, 정절이 유린(의심) 당하는 등의 이유에서 이들이 선택하게 되는 자결의 이면에는 당대인들의 여성 담론이 내재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총 26편의 설화 중, 여귀가 되어 자신과의 결연을 거부한 대상이 참여한 전쟁을 패배시키는 이야기(10, 13, 17, 20, 23)는 그 내용이 같거나 유사하다. 한편 『한국구비문학대계』6집 4책의 「귀신을 태워준 택시 운전사」는 택시라는 현대 이동수단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설화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음절에 논의할

18)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yoksa.aks.ac.kr/>)을 이용하여 자료를 발췌하였다.

19) 잠들 수 없는 밤의 기묘한 이야기(<http://www.thering.co.kr/>). 줄여서 '잠밤기'라고 칭한다. 2003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언론매체 등의 매스컴에 여러 번 소개되어 더욱 유명해졌다. 사람들이 투고한 괴담을 운영자가 선별하여 게시판에 업로드한다. 사이트 내의 괴담을 모아서 사이트명과 동일한 제목의 괴담집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20) 그 대상 텍스트는 다음과 같으며 논의의 편의상 번호를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① 「처녀 원귀」, 『한국구비문학대계』6집 2책; ② 「처녀 원혼」, 『한국구비문학대계』7집 7책; ③ 「처녀를 살인한 진범(眞犯)」, 『한국구비문학대계』1집 2책; ④ 「첫 날밤에 억울하게 죽은 원귀」, 『한국구비문학대계』3집 4책; ⑤ 「처녀귀신과 결혼한 총각」, 『한국구비문학대계』2집 6책; ⑥ 「상사병으로 죽은 처녀」, 『한국구비문학대계』7집 1책

괴담에 가깝게 보인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앞서 언급한 다섯 항목으로 총 26편의 설화를 정리하였다. 그 정리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이야기의 내용은 생략함)

번호	『대계』	제목	형상	시간	공간	이유	해원
1	1집 2책	공동묘지	예쁜 모습	저녁	공동묘지	없음	없음
2	1집 2책	귀신이야기	예쁜 모습	저녁	빨래터	없음	없음
3	2집 9책	귀신을 보는 선비	물에 손을 얹고 무엇을 자꾸 휘두름	저녁	강가	익사	없음
4	6집 4책	귀신을 태워준 택시 운전사	죽었을 때의 복장 눈에 보이지 않음	저녁	고개(택시 안)	없음	없음
5	2집 5책	귀신의 도움으로 점치는 이경화	머리를 푼 산발한 모습 치마를 입었으며 거꾸로 서 손으로 땅을 짚고 있음	저녁	고개(묘소)	계모에 의한 독살	없음
6	6집 8책	옛 먹는 여자귀신	나타나지 않음	저녁 12시	마을 (옛 장수 집)	없음	없음
7	2집 8책	원귀를 귀신통에 넣은 김판서	나타나지 않음	없음	이 대감의 집 시신유기장 소	정절유린	삼대독자의 생명 위협에 퇴치함
8	8집 3책	처녀귀신을 쫓은 아이	나타나지 않음	저녁 12시	절	화재 (결연장애)	남녀 거석을 세워줌
9	7집 17책	처녀귀신 탓에 일본군에게 패한 신립장군	나타나지 않음	저녁 (꿈속)	깊은 산 속	혼사장애 자결(불)	전쟁에서 패배시킴
10	2집 6책	처녀귀신과 결혼한 총각	나타나지 않음 물에 시체가 떠내려 옴	없음 (장마)	큰 강	없음(처녀)	처녀로 죽은 한을 위로, 아이를 해코지
11	8집 8책	처녀귀신과 총각	나타나지 않음	저녁	집	병사	사랑하는 이와 합치
12	6집 2책	구렁이가 된 처녀	구렁이로 변함	저녁 12시	집(안)	상사병	없음 스스로 물러남
13	7집 18책	신립장군의 패전과 처녀의 원혼	산발한 머리	없음	탄금대	상사병	전쟁에서 패배시킴
14	6집 2책	처녀원귀	나타나지 않음	없음	없음	혼인 거절 (자결)	없음
15	7집 7책	처녀원혼	나타나지 않음	없음	총각의 집	구애거절 (자결)	총각에게 해코지 퇴치 당함
16	1집 2책	처녀를 살인한 진범(眞犯)	나타나지 않음	달밤	집	살해당함	진범을 잡아 해원함
17	3집 4책	처녀의 원귀로 패전한 장병사(張兵使)	나타나지 않음	없음	고개	구애거절 (자살)	장병사를 패전시킴

18	7집 13책	남편 구한 원귀(冤鬼)	머리를 풀고 산발한 모습	저녁	사또의 거처 (관아)	정절유린 (자결)	사또가 범인을 처형
19	6집 6책	소박 당하고 원귀가 된 며느리	나타나지 않음	없음	집	소박맞음 (화병)	집안을 파멸시킴
20	3집 3책	원귀 때문에 탄금대에서 패한 신립(申砮)	나타나지 않음	없음	조령	구애거절 (자결)	전쟁에서 패배시킴
21	7집 13책	원귀 썬 아들 살려 준 조양래	나타나지 않음	없음 (선달)	남자의 방	구애거절 (상사병)	퇴치 당함
22	5집 6책	원귀(冤鬼)를 쫓아낸 신부	나타나지 않음 공중으로 날아다님	저녁	집	쫓겨남 (한으로)	스스로 물러남
23	4집 2책	원귀(冤鬼) 때문에 참패한 신립	나타나지 않음	없음	문경새재	구애거절 (자결)	전쟁에서 패배시킴
24	7집 17책	원귀를 도와주고 자명금을 얻은 태안공	산발한 머리	저녁 (현몽)	관사	결연장애 (죽임당함)	연못에 유기된 시신을 찾아 장사함
25	3집 4책	첫 날밤에 억울하게 죽은 원귀	나타나지 않음	12시	동네 (화를 미침)	정절의심 (소박맞음)	오해가 풀려 부인의 시신을 수습, 장사함
26	1집 1책	선비를 기다리다 죽은 처녀	나타나지 않음	없음	목을 맨 곳	구애거절	과거에 낙방시킴

우선 26편의 설화 중 처녀가 결연(혼사) 장애로 인해 여귀가 된 것으로 그려지는 이야기  
가 총 16편으로 가장 높은 빈도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0, 21, 23,  
24, 25, 26)를 보인다. 다시 말해 처녀가 죽었을 때, 그 한 때문에 여귀가 된다는 인식이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3집 4책의 「첫 날밤에 억울하게 죽은  
원귀」의 경우(25), 결혼은 했으나 정절을 의심받아 첫날밤도 치루지 못하고 소박맞아 죽은  
여성이 그려지고 있다. 이 한은 처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포함시켰다. 이  
외에 정절을 유린당한 여성이 여귀가 된 설화(7, 18)가 두 편이다. 또한 이미 처가 있는  
남자와 결혼한 탓에 본처와 갈등을 빚어 끝내 결연하지 못한 설화(22), 소박당한 며느리가  
원귀가 된 이야기(22)가 각각 한 편씩이다. 이들의 편수가 총 26편 중 20편인 것으로 볼  
때, 결국 젠더(Gender)의 문제가 여성을 여귀로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출현 시간은 밤(1, 2, 3, 4, 5, 6, 8, 9, 11, 12, 16, 18, 22, 24, 25)으  
로 설정되어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 외는 정확한 언급은 없으나 정황상 저녁이라는 사실  
은 짐작할 수 있다. 여귀의 출현 공간은 대부분 죽은 곳 혹은 원한이 서린 곳이다. 여귀  
의 형상은 예쁜 얼굴(1, 2), 산발한 머리(5, 13, 18, 24), 죽었을 당시의 모습(4)을 제외한  
대부분의 설화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恨에 의해 구렁이(12)로 변하기도  
한다. 여귀가 된 까닭은 정절의 유린(7, 18) 및 의심(25), 구애의 거절(14, 15, 17, 20,  
21, 23, 24, 26), 상사병(12, 13, 21), 결연장애(8, 19, 22), 그리고 기타로 익사(3), 독살  
(5), 병사(11), 살해(16)가 나타났으며 특별한 이유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1, 2, 4, 6, 10)  
도 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으로 해원이 이루어진 설화(8, 11, 16, 18, 24, 25), 원한의  
대상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정적 방법으로 해원(21)에 이르는 이야기(9, 13, 17, 19,

21) 조현설, 앞의 논문, 77쪽.

20, 23, 26), 위해의 대상에게 퇴치(7, 15, 21)를 당하거나 스스로 물러나고(12, 22) 있다. 그 밖의(1, 2, 3, 4, 5, 6, 14) 이야기에는 해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종합해 볼 때, 위 이야기들은 여귀가 된 이유와 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귀의 형상에 주목한 구체적인 묘사보다는 전체 이야기의 구성적 완결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개의 아랑설화와 마찬가지로, 억울한 사연이 있어 여성이 원귀가 되고 이 여귀들이 해원에 이르는 내용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여귀가 등장하는 설화의 중심축은 아랑형 설화나 상사뱀설화처럼 여귀의 한을 풀어주는 내용이 핵심이라 하겠다.

## 2.2. 都市怪談 속 女鬼의 表出樣相

다음으로 괴담 속 여귀의 표출양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현대의 괴담이 통용되는 곳은 여럿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소통되는 공간은 인터넷이다. 다만 방대하고 난잡한 인터넷 자료의 특성상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자료의 선별은 어렵다. 또한 현대의 여귀는 과거의 여귀와 비교했을 때 이야기의 배경이나 내용, 형상 등이 무척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앞서의 설화와 마찬가지로 각 항목에 따라 그 이야기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이야기의 내용은 생략함)

괴담	제목	형상	시간	공간	이유	해원
1	흉가	소복을 입은 머리카락이 긴 모습	저녁	흉가	없음	부적 처방 불 태우자 귀신퇴치
2	바람에 흔들립니다	소복 (죽을 당시의 모습)	저녁	버스정류장 (소나무)	목을 매 자살	우물을 파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음
3	기이한 소나무	나무에 목을 매달고 있는 모습	없음	처녀 시신 유기장소 (산 소나무 아래)	목을 매 자살	없음
4	처녀혼	나타나지 않음	정월보름	산길 (자살한 장소)	구애거절 (목을 매 자살)	총각이 미침
5	문 열어	나타나지 않음	저녁	이사한 집 (젊은 여자 목소리)	없음	이사 후 나타나지 않음
6	확인	긴 머리,와 외다리로 걸음	저녁	버스 안	없음	없음
7	창문	산발한 머리	저녁	방 안	없음	아침이 되자 사라짐 (머리카락의 흔적 남음)
8	합석	원피스를 입음 치마 밑 다리 없음	한밤중	택시	없음	없음
9	한기	얼굴이 반 밖에 없고 피를 흘림	없음	집	없음	이사 이후 사라짐
10	막차버스	나타나지 않음	늦은 밤	막차 버스	없음	없음

11	동행	남자에 여성이 붙음	깊은 밤	골목길	없음	없음
12	질투	나타나지 않음	없음	아파트	없음	없음
13	편의점	나타나지 않음	없음	편의점	없음	원망하는 표정으로 사라짐
14	사라진 모녀	나타나지 않음 (모녀)	저녁	택시에서 한적한 곳에 하차(무덤)	없음	없음
15	모텔괴담	흰 소복 머리가 김	없음	모텔	없음	없음
16	모르는 전화	나타나지 않음 (여자의 목소리)	저녁	집 (전화기)	없음	없음
17	엘리베이터 안에서	긴 머리의 여자	저녁	엘리베이터	투신자살	불이 켜지자 사라짐
18	텔레비전 심령 프로그램	긴 머리의 여자	저녁	집 TV 화면 모서리	없음	TV를 꺼도 사라지지 않음
19	교통사고 현장	부상당한 여자	아침	교통사고 현장	교통 사고사	없음
20	여자 친구와의 섹스	여자친구의 모습	없음	자취방	없음	없음
21	지하철 승강장	나타나지 않음	저녁	지하철 승강장	없음	없음
22	비밀연애	나타나지 않음	없음	버스 안에서 잠 든 꿈 속에서	없음	헤어지자 사라짐
23	등 뒤의 여자	나타나지 않음	저녁	딸의 등	없음	남편의 등에 다시 나타남
24	강가의 여자아이	3-4세의 여아	없음	강가	없음	없음
25	열대야	어머니의 모습 (긴 머리 다른 여성)	저녁	자신의 집	없음	머리가 360도 회전하던 여자가 아침이 되자 사라짐
26	한밤중의 미용실	산발한 머리 뒤통수가 파여 뇌가 보임	한밤 중	미용실	철도사고 사고사	없음 (아이를 업은 젊은 여성)
27	그림	소녀	없음	누나의 방 그림 안	없음	그림을 버리자 사라짐
28	엘리베이터의 여자	나타나지 않음	저녁	엘리베이터	없음	없음 (그 자리에 서 있음)
29	창가의 여자	여자의 키가 비정상적으로 큼	저녁 (추석연휴)	자신의 집 계단 창가	없음	없음
30	산길에서 걸려온 전화	나타나지 않음	없음	산길 운전 중 (휴대전화 목소리)	계곡에서 실족사	없음
31	아파트 관리사무소	흰 옷을 입은 여성	저녁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1층 에어로빅 교실	없음	없음 (불을 켜자 사라짐)
32	왜 하필	나타나지 않음	늦은 밤	자신의방 천장	교통 사고사	없음 (자신이 당한 죽음에 억울해 함)

33	고시원	등을 돌린 여자가 공중에 떠 있음	새벽4시	고시원 창 밖	없음	없음 (고시원을 옮김)
34	지하철 야간근무	여자의 목소리 (보이지 않음)	저녁	없음	없음	없음
35	등산	흰 옷을 입고 절벽 중간에 떠 있음	새벽	뒷동산	없음	없음 (산에 오르지 않음)
36	파란 얼굴	벽에 반쯤 여자 얼굴이 나옴	새벽	자취방	없음	없음 (발목에 멍이 들어 있음)
37	다리	거울에 다리에 끼려 다니는 여자 아이	없음	자신의 다리	없음	없음
38	고모의 자취방	나타나지 않음	없음	자취방	자살	없음 (이사를 감)
39	동생 방	나타나지 않음	없음	동생의 방	없음	없음
40	오봉저수지	소복을 입은 단발머리	새벽두 시	오봉저수지	없음	없음 (자신을 응시하고 있음)
41	할머니의 부엌	생쌀 먹는 여자	없음	한옥 부엌	사고사	없음
42	중고자동차	피투성이의 여자	없음	중고차	없음	없음 (차를 팸)
43	복숭아나무	소복을 입은 여자	없음	집에 심은 복숭아나무	없음	복숭아나무를 베자 사라짐
44	한복	한복을 입은 여자 (숙모로 착각)	저녁	자신의 방 책상 밑	없음	없음 (방에 들어간 사람이 없음)
45	창가에서	거꾸로 매달린 여자	없음	친척의 집 창가	없음	없음
46	긴 머리의 그녀	긴 머리의 피투성이	새벽두 시	지하도	없음	없음 (사고차량에서 긴 머리카락 나옴)
47	학교에서	흰 옷을 입은 고개를 숙인 여자	저녁7시	무덤 터에 지어진 학교	없음	없음 (갑자기 사라짐)
48	고갯길의 여자	눈이 내렸지만 눈에 젖지 않음	없음	고속도로 고갯길	없음	없음 (사라지고 없음)
49	버스를 쫓아오는 여자	산발한 여자가 버스를 쫓아옴	새벽	남산터널 (710번 버스)	없음	없음 (닫혀있던 창문이 반쯤 열렸음)
50	고갯길의 피투성이 여자	온 몸이 피투성이	없음	산 길 운전 중	없음	없음 (해코지 실패)
51	바닷가의 그 여자	나타나지 않음	저녁	바닷가	익사	없음
52	뉘시터의 머리카락	나타나지 않음 (여자가 자신을 응시)	새벽	댜(뉘시터)	없음	없음 (아이스박스에 머리카락 가득함)
53	파란 소복	파란한복 비녀를 한 20대 후반여성	없음	자신의 방	없음	없음 (베개를 던지자 사라짐)

		(공중에 떠 있음)				
54	한밤중의 택시에서	긴 머리의 여자	저녁	택시 안 (여자와 합승)	없음	없음 (남자의 목을 물어뜯으려다 실패)

먼저 괴담에서 여귀의 출현 시간은 대부분 늦은 밤과 새벽으로 묘사되고 있다. 구체적인 시간의 언급이 있는 경우는 새벽 두시(40, 46) 새벽 4시(33)가 있다. 그 출현 공간은 일상적(거주) 공간 (①-1 집 : 1, 12, 15 ①-2 방 : 9, 20, 25, 26, 33, 36, 38, 39, 44, 53 ①-3 창문 : 7, 45 ①-4 부엌 : 5, 41 ①-5 마당 : 43 ①-6 계단 : 29 ①-7 엘리베이터 : 17, 28 ①-8 관리사무소 : 31 ①-9 기타 : 18(가전제품), 27(가구))이 대부분이며 비 일상적 공간(② 물가 ②-1 강 : 24, 52 ②-2 저수지 : 40 ②-3 바닷가 : 51 ③ 산 : 3, 4, 30, 35, 48, 50)이 나타난다. 또한 현대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그에 따른 도로 등에서 나타났고(④ 교통수단 ④-1 버스 : 6, 10, 49, 22 ④-2 택시 : 8, 14, 54 ④-3 지하철 : 21, 34 ④-4 자가용 : 42 ⑤ 길과 도로 : 11, 19, 32, 46) 그 외(⑥ 학교 : 47) (⑦ 미용실 : 26), (⑧ 편의점 : 13)의 공간에서 여귀가 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여귀의 형상을 살펴보면 그 옷차림(① 옷차림 ①-1 소복 : 1, 2, 6, 31, 35, 40, 47, 53(파란한복), 44(노란한복) ①-2 치마(원피스) : 8, 9, 14, 17, 22, 25), 신체(② 신체 ②-1 긴 머리카락 : 1, 6, 7, 9, 11, 15, 17, 18, 22, 31, 35, 46, 49, 52, 54 예외 40 (단발머리) ②-2 다리가 없음 : 6, 8 ②-3 피 : 9, 25, 32, 42, 46, 50 ②-4 신체훼손 : 9(얼굴))이 나타났다. 귀신이 된 이유로는 사고사(① 사고사 : 9(기계에 머리가), 19(교통 사고), 26(철도)) 자살(② 자살(이유) : 2, 3, 4(짝사랑), 17, 21, 30) 타살은 없다.(③ 타살 : 없음) 마지막으로 해원의 유무가 나타난 이야기(2(유))는 하나 외에 없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현대 여귀괴담의 가장 큰 특징은 여귀의 형상과 출몰 장소가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여귀가 된 이유와 해원은 이야기에서 그 비중이 매우 소략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여귀설화와 정반대의 결과이다. 요컨대 현대의 여귀괴담은 설화와는 달리 내용의 완결성보다는 시각적 묘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공포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현설은 기존에 원귀설화를 해원방식에 따라 정절형 . 욕구형 . 좌절형으로 나누었던 것을 다시 신원형 . 구애형 . 좌절형으로 수정하여 분류한 바 있다.<sup>22)</sup> 그러나 현대의 여귀 등장 괴담은 기승전결의 서사구조 틀을 갖추고 있다기보다는 결말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현대의 괴담에는 이러한 유형분류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서사구조의 불완전성은 과거 여귀설화의 기본틀을 이루던 원한의 발생과 해소가 현대의 괴담에 수용 . 반영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여귀의 원한 발생 이유가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귀의 실체가 원귀인지 모호하며 만약 이들이 원귀라 하더라도 꼭 해원이 주목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없게 만드는 것이다. 한마디로 과거 여귀 설화를 분석할 때처럼 여귀는 원귀이며 해원이 필요하다는 공식이 현대에 와서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현대의 괴담 속 여귀들은 까닭 없이 원한과 분노를 표출하거나 단지 같은 장소를(죽은 곳

22) 조현설, 앞의 글, 67쪽.

근처) 배회하다가 사람들에게 목격될 뿐이다.

여귀들의 출몰 장소는 건물 안 중에서도 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산이나 길, 버스 등이다. 과거에는 귀신은 陰의 성질을 지녔기에 음침한 곳을 좋아한다고 여겼지만, 현대의 여귀들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의 모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다만 여전히 출현시간은 대부분 늦은 밤과 저녁 등으로 설정된다. 외모의 특징은 긴 머리카락이 압도적이다. 옷차림도 흰색이나 소복(한복)이 많은 것으로 보아 외형 자체는 과거의 여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볼 때, 설화와 괴담 속 여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서 밝혔듯이 해원과정의 유·무에서 나타난다. 또한 귀신이 된 이유가 누군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타살) 보다 자살한 경우가 많고, 자살의 이유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3. 女鬼의 變移樣相과 意味

여귀담 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 과거의 여귀담과 현대의 여귀담은 이야기 구조와 내용에서 많은 변화를 보인다. 과거 여귀담의 일정한 서사구조 틀은 현대에 와서 자유로이 변형되었고, 교훈이나 시사점을 주기보다는 실재성을 강조하여<sup>23)</sup> 재미로서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데 주력한다. 즉 귀신담을 유희거리로 대하는 태도를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과거 아랑전설 등의 원귀설화는 가해자 남성과 피해자 여성이 등장하는 대립적 구도를 이루고 있어 그러한 이야기들이 남성지배구조의 생산물임을 드러냈다.<sup>24)</sup> 그러나 현대 괴담에서의 여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다. 이는 현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것과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대의 여귀들은 더 이상 연민과 동정의 대상이 아닌 공포의 대상으로만 존재한다. 원귀설화의 여귀들은 해원함으로써 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민중에게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지만 현대의 여귀들은 사회보다는 개인적으로 저마다의 복수나 이유 모를 위협을 가한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괴담을 통해 그 이야기가 자신에게도 얼마든지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사실적이고 직접적인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현대의 괴담에서 이러한 공포를 위한 공포를 조성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귀 형상의 기괴함이다. 이야기 속 여귀의 모습은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복을 입었으며 피를 흘린다는 점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의 여귀가 억울한 죽음의 증거로서 죽을 당시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현대의 여귀들은 단지 공포를 주기 위한 장치로서 괴기스러운 형상을 띠고 있다. 이는 현대의 여귀가 나약한 피해자가 아닌 위협적 존재라는 가시적인 공포감의 강조를 위함이다.

여귀의 등장배경이 밤이라는 점은 과거와 현재 모두 동일하지만 현대의 여귀는 개인적 공간과 공공장소를 가리지 않는 등 사람들에게 방심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히 방이나 엘리베이터와 같이 개인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등장하는 여귀들은

23)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겪은 일임을 서두에 밝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구체적인 지명과 장소가 나타나기도 하며 일상적인 공간을 빈번하게 배경으로 제시한다.

24) 조현설, 앞의 논문, 67쪽.

현대인의 불안하고 소외된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장소나 밖에서 맞닥 트리게 되는 여귀들의 경우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자신에게만 보이는 것 또한 위와 같은 이유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여귀들이 귀신이 된 이유를 살펴보면 현대에는 타살은 거의 없고 자살이나 사고사가 많아졌다. 이는 과거에 비해 사고사와 자살이 늘어난 현대 사회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렇듯 이유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고사와 자살로 죽은 여귀들은 특정한 복수의 대상(가해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危害의 대상으로 삼게 되며 따라서 듣는 이 모두에게 공포감을 준다. 여기서의 공포는 자신에게 여귀가 접근하는 것 그 자체로도 느껴지는 것이겠지만 대개 생명을 위협함으로써 극대화된다. 사고로 죽은 누군가와 동일하게 불의의 사고를 자신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자신과 같은 처지로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사람에게, 수중에 거처하며 그 속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물귀신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한다. 단지 죽음 그 자체가 억울한 현대의 여귀들에서 이러한 - 산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자신처럼 죽게 하려는 - 속성이 엿보인다. 이는 현대인의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삶, 해체된 공동체에서 비롯된 타인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예나 지금이나 산발한 긴 머리에 흰옷을 입고 자신의 원한과 분노를 표출하는 여귀의 이미지는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여귀괴담의 구조나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 이야기의 서사성이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교훈적 내용이나 여귀의 원한 해결로 인한 대리만족의 기능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 여귀가 이유 없이 사실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가시적 공포의 존재로서 부각되고 있을 뿐이다. 이웃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공동체나 사회보다 개인적 삶과 안위가 더 소중하며, 이에 대한 불안으로 위협적 존재인 여귀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 4. 결론

흔히 처녀귀신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여귀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이야기되고 있다. 그들의 외양은 오랜 시간 속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귀신이 된 사연이나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목적 등은 시대에 따라 변모하여 왔다. 이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본다면, 구술과 문자의 시대에서 시각(영상)의 시대로 우리사회가 변화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구술과 문자 시대의 산물인 설화에서는 이야기의 완결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이루어졌다. 과거 설화에 등장하는 여귀는 고착된 사회에 균열을 일으켜 공동체 전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담론 형성의 기능을 담당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이들이 등장하는 이야기에는 자신들이 여귀가 된 이유와 해원의 과정이 강조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까닭에 여귀설화는 내용의 전체적 완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반면 현대의 여귀는 실재적 공포를 통해 개인적이고 파편화된 현대사회의 단면을 드러내 보여줄 뿐이다. 괴담 속 여귀는 설화의 그들과 달리, 공동체 전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담론 형성의 기능보다는 현대사회의 불안과 공포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한 점은 여귀가 된 이유와 해원이 괴담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 대신, 그들 형상의 강조와

출몰장소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그들의 형상 즉 시각적인 부분만을 파편화시켜 기괴하게 묘사함으로써 현대인의 내재된 불안감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는 해체된 공동체에서 기인한 개인적이고 파편화된 현대의 특징이 여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여귀의 변화된 모습과 행동은 그러한 귀신들을 만들어내고 이야기하는 당대 사람들의 사회나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여귀가 등장하는 설화와 현대의 여귀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비교해보고, 그 속에 나타나는 여귀의 표출양상은 또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다만 과거와 여귀설화와 현대의 여귀괴담을 비교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은 사실이다. 과거의 여귀설화는 주로 구전되다가 문헌으로 정착된 것에 비해 현대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귀괴담이 생산·유포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영상 매체에서 가시적으로 부각된 여귀의 형상이 다시 이야기로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글에서 사례로 제시한 이야기들의 적은 표본 수와 대표성에 대해서도 재고할 여지가 있다

## 참고문헌

- 『한국구비문학대계』1집 1책(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yoksa.aks.ac.kr/>))  
 『한국구비문학대계』1집 2책(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yoksa.aks.ac.kr/>))  
 『한국구비문학대계』2집 5책(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yoksa.aks.ac.kr/>))  
 『한국구비문학대계』2집 6책(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yoksa.aks.ac.kr/>))  
 『한국구비문학대계』2집 8책(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yoksa.aks.ac.kr/>))  
 『한국구비문학대계』2집 9책(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yoksa.aks.ac.kr/>))  
 『한국구비문학대계』3집 3책(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yoksa.aks.ac.kr/>))  
 『한국구비문학대계』3집 4책(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yoksa.aks.ac.kr/>))  
 『한국구비문학대계』4집 2책(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yoksa.aks.ac.kr/>))  
 『한국구비문학대계』5집 6책(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yoksa.aks.ac.kr/>))  
 『한국구비문학대계』6집 2책(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yoksa.aks.ac.kr/>))  
 『한국구비문학대계』6집 4책(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yoksa.aks.ac.kr/>))  
 『한국구비문학대계』6집 6책(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yoksa.aks.ac.kr/>))  
 『한국구비문학대계』6집 8책(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yoksa.aks.ac.kr/>))  
 『한국구비문학대계』7집 1책(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yoksa.aks.ac.kr/>))  
 『한국구비문학대계』7집 7책(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yoksa.aks.ac.kr/>))  
 『한국구비문학대계』7집 13책(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yoksa.aks.ac.kr/>))  
 『한국구비문학대계』7집 17책(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yoksa.aks.ac.kr/>))  
 『한국구비문학대계』7집 18책(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yoksa.aks.ac.kr/>))  
 『한국구비문학대계』8집 3책(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yoksa.aks.ac.kr/>))  
 『한국구비문학대계』8집 8책(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yoksa.aks.ac.kr/>))

무라야마 지준, 『조선의 귀신』, 동문선, 1993.

- 백문임, 「미지와 의 조우-“아랑형” 여귀 영화」, 『현대문학의 연구』 17, 한국문학연구학회, 2001.
- 신태수, 「귀신등장소설의 본질과 그 변모과정」, 『어문학』제 76호, 한국어문학회, 2002.
- 안병국, 『귀신설화연구』, 규장각, 1995.
- \_\_\_\_\_, 『韓國說話研究』, 學古房, 2011.
- 이찬욱 . 이재영, 「韓國 鬼神의 原型性和 아랑형 女鬼譚」, 『우리문학연구』24, 우리문학회, 2008.
- 임동권, 「鬼神論」, 『어문논집』10집, 민족어문학회, 1975.
- 조현설, 「남성지배와 「장화홍련전」의 여성 형상」,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 조현설, 「원귀의 해원 형식과 구조의 안팎」,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 가람 時調論에 대한 小考

강관진(중앙대학교)

## 1. 序言

가람 이병기(1981~1968)는 우리의 문학사에서 가장 오랜 생명력을 지닌 시조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시조문학의 현대화를 위한 그의 노력은 이론과 창작의 두 가지 면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시조에 있어서 가람은 형식과 내용을 불가분의 관계로 보면서 어느 한 측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훌륭한 문학 작품이 되려면 그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신문예의 한 경향으로 형식보다 내용을 중요히 여기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경계하고 있다. 내용만 풍부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본고에서는 가람의 시조론을 형식과 내용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형식적인 면에서는 三章 八句體說, 感覺語의 活用, 連作의 活用, 豊富한 繪畫性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三章 八句體說로 이를 주장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둘째, 感覺語의 活用에서는 사용한 어휘 중 감각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즉 사람의 五感を 자극하는 視覺・聽覺・嗅覺・味覺・觸覺적 심상을 많이 활용했는데 그 특징과 의도를 파악해 볼 것이다. 셋째, 連作의 活用에서는 그가 주장하고 활용한 연작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연작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豊富한 繪畫性에서는 가람이 주장하고 구현한 회화성 짙은 시조를 분석한다. 또한 그것이 시조 혁신을 위한 그의 노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본다.

다음으로, 내용적인 면에서는 志士的 面貌, 攝理的 時間 認識, 願望空間과 上昇意志, 自然指向의 社會批判 등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본다.

첫째, 志士的 面貌에서는 가람의 작품 속에 녹아 있는 지사적인 면모를 살펴본다. 겉으로 드러나는 목소리는 비록 높지 않지만 그 의식 속에 흐르는 의지는 자못 의연하다. 둘째, 攝理的 時間 認識에서는 가람이 인식하는 시간의 의미를 살펴본다. 우주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자세가 그의 시조에 깃들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願望空間과 上昇意志에서는 가람이 응시하고 지향하는 공간을 고찰해 본다. 넷째, 自然指向的 社會批判에 서는 자연을 중심에 두고 사회현실을 비판하는 그의 비판의식을 고찰해 본다.

본고는 가람의 시조론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인 형식과 내용의 대표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가람이 시조 창작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에 관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과 혼신을 다했는지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가람 時調의 形式的 特徵

時調는 일정한 형식을 가진 定型詩로서의 ‘時調를 繼承·發展시키는 일은 그 形式的 維持란 側面과 變化란 側面의 調和로운 結合에 의해서 可能할 것이다.’<sup>1)</sup> 시조의 혁신을 주장한 가람은 형식과 내용의 두 가지 면에서 새로움을 추구했다. 새로운 내용은 새로운 형식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內容을 斬新케 充實케 하자면 따라서 그 形式도 얼마큼 變化가 있어야 한다’고 했으며, ‘千篇一律로 古時調의 調格만 본받아 짓는다 하면 비록 斬新한 內容을 가진 것이라도 斬新케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흔히 單調하고 平凡하기 쉬운 것’이라고 하였다.<sup>2)</sup>

이 장에서는 가람이 인식하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형식적 특징 중에서 네 가지 면모, 즉 三章 八句體說, 感覺語의 活用, 修辭法의 活用, 豊富な 繪畫性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1) 三章 八句體說

시조 형식을 말할 때 크게 3장 6구, 3장 12구, 3장 8구로 보는 세 가지 경향이 있다. 3장 6구로 보는 입장으로는 六堂, 春園, 安自山, 李泰極 등이 있으며, 3장 12구로 보는 입장으로는 陶南, 鷺山, 曹雲 등이 있다. 가람은 특이하게 3장 8구를 주장했는데 초장과 중장은 각 2구씩으로 보았고 종장은 4구로 보아 8구라 한 것이다.

3장 8구체설은 가람이 최초로 주장하였으나 설득력을 얻지 못했고 그에 대한 동조도 이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는 3장 6구체 또는 3장 12구체를 주장하는 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3장 6구체설로 정착되는 것이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람의 주장을 살펴보는 것은 3장 8구체를 주장한 그 본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고 그 의의를 밝혀 보고자 함이다.

따라서 3장 8구체설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배제하고 그 효용성을 평가하는 견해를 살펴본다. 우선 3가지 설에 따른 시조의 자수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3장 6구		3장 12구				3장 8구			
초장	7(3,4)	7(3,4)	3	4	4(3)	4	6~9		6~9	
중장	7(3,4)	7(3,4)	3	4	4(3)	4	5~8		6~9	
종장	9(3,6)	7(4,3)	3	5	4	3	3	5~8	4~5	3~4

1) 李滌旭(1987), 「六堂의 「百八煩惱」 研究」, 中央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p.71.

2) 李泰極 編(1965), 『時調研究論叢』, 乙酉文化社, p.141 참조.

가람의 주장대로 하면 자수는 최소 38자에서 최대 55자다. 이와 관련하여 閔濟는 李泰極과 陶南의 주장과 비교하면서 가람의 주장이 신축성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평가했다.

古時調作品을 통해볼 때 이 三八字에서 五五字의 數는 陶南의 四一字에서 五十字의 數와 李教授의 最短 三九字에서 最長 四九字 사이의 數에 比해서 가장 正確한 伸縮範圍이다. 陶南의 字餘歌 字不足歌의 未盡한 처리, 李教授의 三百首의 多樣한 統計보다는 비록 統計表는 提示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古時調 千餘首를 가지고 字數를 調査한 가람의 伸縮範圍가 더 近似할 수 밖에 없고 當然之事일 것이다.<sup>3)</sup>

이찬옥은 가람의 견해에 따른 학계의 분분한 의견에 대하여 그 핵심은 ‘제3행 제2음보의 처리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제3행 제2음보가 여타의 음보와 달리 비록 평균 5음절 이상의 과음보(過音步)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는 시조를 吟詠의 연행양식으로 해석할 때 하등 문제시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sup>4)</sup>

조남령은 가람의 8구체설에 대해서 그 창조적인 정신을 평가했다. 즉 가람의 8구체설은 창작을 위하여 고착된 형식의 틀을 초월한 결과라고 이해한 것이다.

가람님은 創作을 위하여 표현을 위하여, 不完全한 八句體나마 敢然히 들고 나시었다. 그리고 말하시기를 『그 特性을 잃지 않는 限 句章 篇法을 安만이라도 變化있게』 쓰라고! 이렇게 하여 가람님은 型을 超越하시었다. 나는 가람님의 句法을 全的으로 容認하는 者는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 精神을 배웠다. 내가 나의 딜레마에서 發見한 것이 가람님의 征服의 精神, 超越의 精神 아니고 무엇이었던냐!<sup>5)</sup>

조남령은 일찍이 ‘팔팔 날뛰는 힘, 가날픈 마음, 애끓는 가슴을 안고 그 感情·律動이 똑같은 韻數를 反復한다는 것은 우수울 따름’<sup>6)</sup>이라 하여 자수를 엄격히 규정하는 데 회의적인 생각을 밝힌 바 있다. ‘튀어나오는 初章, 떠나가는 中章, 억제하려고 애쓰는 終章’<sup>7)</sup>을 어떻게 글자 수로 규정하겠느냐는 입장이다.

필자는 가람이 주장했던 8구체설은 읽는 시라는 점을 감안하여 읽는 이에게 부담을 덜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판단한다. 부르는 시조에서 읽는 시조로의 변화를 주창한 가람에게 있어서 읽는 이를 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가람의 제자인 閔濟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람 生存時 筆者의 拙作에 對해서 指導를 바랄 때, 마음 속으로 꼭 읊어 보시면서 推敲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마음 속으로 읊어 보신다는 것을 비록 文學的인 時調라 하지만 唱을 全然 無視해 버릴 수도 없다는 말로도 解釋되었는데 時調의 革新이나 改新을 부르짖는 그분으로서 무척 以外の 일로 생각되었다.<sup>8)</sup>

마음 속으로 읊어 본다는 것은 읽는 것을 염두에 둔다는 반증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람은 일찍이 ‘시는 읊조리는 것 노래하는 것’<sup>9)</sup>이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찬옥의 견해

3) 閔濟(1975), 「時調의 形式과 韻律考」, 『서라벌』 1집, 中央大學校藝術大學學生會, p.78.

4) 이찬옥(2013), 「시조론 - 시조의 율격구조와 미의식을 중심으로」, 이찬옥 외, 『시조 문학 특강』, 경인문화사, 2013, pp.29~30 참조.

5) 李泰極 編(1965), 앞의 책, pp.212~213.

6) \_\_\_\_\_, 위의 책, p.364.

7) \_\_\_\_\_, 위의 책, p.363.

8) 閔濟, 앞의 글, p.78.

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吟詠은 律格의 실현인 律讀과 동질적인 것으로서 한국인에게 先驗的으로 體得되어진 生來的인 리듬의 表出이다.<sup>10)</sup>

음조리고 노래하는 시조로서 읽는 이를 배려한 결과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한 것이 8구체로 귀결된 것이라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초·중장이 창을 중심으로 정착된 형식을 받아들인 것이라면 중장은 읽기를 염두에 둔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三章 六句說이나 三章 十二句說에 비해 입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2) 感覺語의 活用

문학은 언어의 예술이라는 말도 있듯이 작품에 사용하는 언어를 취사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어느 작품에 있어서든 어휘의 선택은 중요하게 여겨진다. 가람은 시조에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언어의 취사선택에 있어서 가람에게 특징적인 것으로 감각이 풍부한 시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고시조와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다.

여기서 감각은 신체 기관을 통하여 안팎의 자극을 느끼거나 알아차리는 능력으로서 視覺·聽覺·嗅覺·味覺·觸覺등의 五感으로 제한하여 논한다. 특히 視覺의 경우 적용 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색채감각으로 제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고개 고개 넘어 호젓은 하다마는  
풀섣 바위서리 빨간 딸기 패랭이꽃  
가다가 다가도 보며 휘휘한 줄 모르겠다

묵은 기와쪽이 발끝에 부딪치고  
城을 고인 돌은 검은 버섯 돌아나고  
성긋이 벌어진 틈엔 다람쥐나 넘나든다

그리운 옛날 자취 물어도 알 이 없고  
별건 뉘 검은 바위 파란 물 하얀 모래  
맑고도 고운 그 모양 눈에 모여 어린다

깊은 바위굴에 솟아나는 맑은 샘을  
위로 뚫린 구멍 내려오던 供養米를  
이제도 義湘을 더불어 新羅時節 말한다

별이 짹짹하고 하늘도 말갈더니  
설레는 바람끝에 구름은 서둘대고  
거뭇한 먼산 머리에 비가 몰아 들온다

- 「大聖庵」 5수 중 전문<sup>11)</sup>

9) 李泰極 編(1965), 앞의 책, p.130.

10) 李濼旭(1995), 「時調의 韻律構造 研究」, 中央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p.165.

11) 李秉岐(1969), 『가람文選』, 新丘文化社, p.15.

이 시조에서는 색채 감각이 특히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빨간’(1수), ‘검은’(2수), ‘별건’ ‘검은’ ‘하얀’(3수), ‘맑은’(4수), ‘말갈더니’ ‘거뭇한’(5수) 등의 색채어들이 매 수마다 등장한다.

이와 같이 감각을 표현하는 어휘들을 가람의 시조에서는 풍부하게 등장한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시각(색채)을 나타내는 언어들로서 희고(迦葉峯, 萬瀑洞, 月出山), 하얀(白松), 하얀한(蘭草 四), 하얗게도(落葉), 하이얀(玉簪花), 흰(함박꽃, 扶蘇山), 까만(迦葉峯), 꺼먼(故土), 검고(垂松), 검은(그리운 그날 2, 曙海를 묻고, 戲題 3), 어둡던(月出山), 어둔(비 3), 어두운(瑞香, 밤 2), 어스름(밤 1), 저뭇한(밤 2), 음음한(梅花), 붉은(함박꽃), 붉어라(戲題 4), 붉기(故土), 빨강이(戲題 4), 발갈고(萬瀑洞), 별건(扶蘇山), 푸르다(萬瀑洞), 푸르르고(봄 2), 푸르고(戲題 4), 푸른(追悼-故 李鉀君), 푸르리다(曙海를 묻고), 푸르도다(바람), 파란(月出山, 玉簪花, 白松, 바다, 봄 2), 퍼런(葡萄), 누르지만(戲題 4), 노랑이(戲題 4) 등이 있으며 같은 색깔도 그 표현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청각적인 언어들로 졸졸(天磨山峽), 졸졸거리고(故土), 졸졸이고(松廣寺), 고요하다(비 1), 고요하고(瑞香), 소란한(追悼-故 李鉀君), 은은한(소나기), 우르르 우르르(우리) 등이 사용되고 있다. 후각적인 어휘로는 상긋하도다(萬瀑洞), 은은하게(玉簪花), 향기로운(梅窓唄) 등이 있다. 촉각을 표현하는 어휘들로서 다스하다(萬瀑洞), 다스한(봄 1), 따듯한(梅花, 水仙花, 젓), 따가운(白松), 따가와라(그리운 그날 2), 훈훈하여(戲題 3), 차다(戲題 3), 찬(白松, 시름, 故土, 病席, 저무는 가을), 차고(怪石), 추운(戲題 3), 쌀쌀한(시름), 서늘도 하여(별), 시원한(비 1), 보드랍고(蘭草 四), 솔고(그리운 그날 2) 등이 있다. 단, 미각을 나타내는 어휘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시조의 혁신을 주장하고 그 일환으로서 實感實情을 강조한 가람은 고시조의 진부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조로 혁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와 같이 감각어를 풍부하게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連作의 活用

가람은 ‘連作의 時調形에 대해 意識的인 關心을 表明한 最初의 時調作家이다.’<sup>12)</sup> 가람이 연작을 주장한 이유의 중심에는 생활상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짧은 단형 시조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생활이 복잡화함으로써 시조의 양상 또한 그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작에 대해서는 가람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임종찬의 경우도 연작을 주장한 가람의 견해에 대해 일면 긍정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면을 함께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가람의 연작은 일정 부분은 실패했고 일정 부분은 성과가 있는 것이다.<sup>13)</sup>

가람은 連作의 必要性을 생활상의 복잡화로 인한 心象의 複雜性에 두고 있다. 과연 이 감각이 옳은 것일까. 물론 現代人이 감당해야 할 思考의 영역이 확대되어 있고, 文明生活을 營爲하다 보면 自然히 複雜性을 띠게 마련이지만, 이 複雜性을 담을 그릇으로서의 時調가 옹졸하다고 단언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時調로서도 자유시를 능가하는 작품들을

12) 李濼旭(1987), 앞의 논문, p.57.

13) 임종찬(1975), 「가람 時調論」, 『論文集』 1호, 東義工業專門大學, pp.140~141 참조.

얼마든지 例로 들수 있기 때문이다. 가람의 持論대로라면 시대가 나아 갈수록 現代詩는 상당히 긴 長詩쪽으로 기울어져야 함에도 오히려 現代詩는 절제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능히 짐작이 가능해진다.<sup>14)</sup>

이호우는 가람의 제자로서 초기에는 연작을 쓰다가 후에 單首를 고집했다. 그가 연작에서 단수로 돌아선 이유에 대하여 임종찬은 1) 고시조는 단수로 완결된다는 점과 연작인 경우엔 이지미의 반복이 우려된다는 점, 2) 시가 길어져야 할 이유가 현대의 생활상에 기인한다면 오늘의 시는 그 출발기 때보다 훨씬 더 길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시가 짧아지는 경향도 있다는 점, 3) 연작은 감정의 해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단수는 감정의 해이가 있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sup>15)</sup>

시조 고유의 형식과 관련한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할 점이다. 조운제는 가람의 연작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시조의 정형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람의 시조를 평가하면서 ‘그 一首一首가 完全 獨立하지 못하고 그 먼저의 或은 그 다음의 首에 依支하여서만 存在할 수 있어 所謂聯格式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벌써 그 內容은 三章의 定型에 統一되지 못하고 六章 或은 九章에 가서 비로소 그 統一的 表現을 얻을 수 있어 時調의 定型詩的 形式은 完全히 破壞되었다 밖에 볼 수 없다.’<sup>16)</sup> 라고 지적하였다.

다른 면에서 긴장의 결핍도 지적할 수 있다. 달리 말한다면 치열성의 부족이라 할 것이다. 김윤식은 가람의 연작에 대하여 ‘연작성으로 말미암아 응축(dichten)되지 못했고 따라서 예술(Dichtung)의 차원을 확보함에 상당한 난점을 머금는다. 소위 긴장감이 해소되는 쪽으로 傾斜되어 있는 것이다.’<sup>17)</sup> 라고 평하였다. 치열한 어휘 선택으로 긴장감을 주는 대신 느슨하게 풀어져 있는 시행을 지적하여 그렇게 평가한 것이다.

가람은 연시조는 내용은 길어졌으나 그저 쉽게 풀어 쓴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내용의 함축미가 떨어진다. 연작은 그 내용에서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긴장감 있고 긴축성 있는 표현이어야 한다. 그 점에서 가람의 연작은 한계성이 있는 것이다.

연작은 고시조의 혁신 차원에서 추구한 작업으로서 새로운 형식을 시도했다는 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치열성이 상실된 면은 한계로 남는다.

가람의 노력에 대하여 그 긍정적인 면을 이어받고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작을 허용하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가능하면 시조 본래의 묘미인 정형성과 함축성을 살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단수든 연작이든 고도의 언어 선택으로 압축미와 치열성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면 될 것이다.

#### 4) 豊富な 繪畫性

가람이 시조에 대하여 시도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노력의 하나로 회화성을 들 수 있다. 가람의 시조에는 繪畫性이 풍부하게 깃들여 있다. 이는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는데 문학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란 ‘언어가 상상적으로 환기하는 회화적인 형태, 즉 심상(心象)을

14) \_\_\_\_\_, 위의 논문, p.138.

15) 임종찬(1992), 『現代時調論』, 국학자료원, pp.168~171 참조.

16) 趙潤濟(1984), 『韓國詩歌의 研究』, 乙酉文化史, p.194.

17) 金允植(1970), 「李秉岐論(下) - 現代時調는 可能한가」, 『現代詩學』 通卷 第16號, 現代詩學社, p.82.

의미한다.’<sup>18)</sup> 언어로 그려진 그림 또는 영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람의 시조에는 그러한 회화성이 풍부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람은 寫生을 중요하게 여겼다.

물은 파란 빛이 언덕은 草綠 빛이  
그건너 모랫벌은 안개와 한빛인데  
그 속에 검붉은 무지개는 鐵橋이라 하더라

- 曹雲의 漢江小景에서

가람은 위 시조를 인용하면서 ‘이것은 곧 그림이다. 寫生이다. 古時調에서는 이런 예를 얻어 보기가 어렵다. 作者는 이것을 그리기 위하여 첫새벽에 漢江까지 나가 보았다 한다.’<sup>19)</sup> 라고 언급하였다.

가람은 창작을 할 때는 사생을 하라고 주문했다.

創作을 함에는 먼저 寫生을 하라.  
寫生은 모든 事物, 모든 情景을 다 그려낼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그저, 혹은 생각, 혹은 수작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어느 實物·實事·實景·實情·實感을 근거하여 하는 까닭에 그 材料가 廣汎하고 豊富하며, 그 內容도 眞實하고 生新할 수 있다.<sup>20)</sup>

가람 자신의 작품에서도 회화성이 돋보이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한다. ‘맑은 시내 따라 그늘 짙은 소나무숲/높은 가지들은 비껴드는 별을 받아/가는 잎 은비늘처럼 어지러이 반작인다/형기고 또 형기어 알알이 닦인 모래/고운 옥과 같이 갈리고 갈린 바위’(「溪谷」)라든지, ‘풀섰 바위서리 빨간 딸기 파랭이꽃/성을 고인 돌은 검은 버섯 돌아나고/성긋이 벌어진 틈엔 다람쥐나 넘나든다/벌건 뉘 검은 바위 파란 물 하얀 모래’(「大城庵」) 또는 ‘금시 바위라도 굴러내릴 듯한 강파로운 사태바기/꽃나무 드러난 뿌리 발에 자주 걸린다/바위에 돋은 버섯 꽃처럼 혼란하고’(「月出山」) 등이 그런 예다.

繪畫性を 중시하는 가람의 창작 기법이 현대시조의 발전에 기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논자들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이선희의 경우 ‘사생론을 토대로 한 회화성’에 초점을 맞추어 가람의 시를 탐구했으며, 특히 전기 시세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를 한 장면씩 카메라로 찍어 옮겨 놓은 듯한 영상적 흐름이 있다.’고 평가하였다.<sup>21)</sup>

회화적인 표현들은 독자의 머리 속에 그림이 그려지듯 하는 표현들이다. 가람은 이러한 표현들을 활용하여 시조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였다. 이러한 회화성을 근거로 가람이 모더니스트였음을 지적하는 논의도 있는데<sup>22)</sup> 가람의 파격적인 혁신성을 생각할 때 타당성이 있는 논의라고 하겠다.

가람이 선구적으로 활용한 회화성은 후대의 시조는 물론 시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18) 文德守·申尙澈(2010), 『文學一般의 理解』, 시문학사, p.148.

19) 李泰極 編(1965), 앞의 책, p.144.

20) 李秉岐(1969), 앞의 책, p.309.

21) 이선희(1994), 「가람 이병기 시조에 나타난 전통성 연구」, 『청람어문학』 11, 청람어문학회, pp.219~222 참조.

22) 吳昇姬(1990), 「가람 李秉岐 時調의 空間 研究」, 『批評文學』 4, 韓國批評文學會, p.327 참조.

“이를 ism에 代入시키면 가람이 「文章」誌의 중심인물이었다는 것은 鄭芝溶과 더불어 모더니스트였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모더니즘의 表現本質이 시에 있어서의 이미지를 중시하는 회화성에 있고 보면 가람시조의 寫生性이나 寫實眼은 확실히 事物詩的의 이미지경향편에 가람을 세우게 하는 근거가 된다.”

끼쳤다. 현대시는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미지는 곧 시인의 상상력에 의하여 창조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독자의 상상력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효과가 있다. 설명이나 의미 전달에 치중하기 보다는 마음 속에 그림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리의 시’와 ‘의미의 시’를 거쳐 바야흐로 ‘이미지의 시’에 도달<sup>23)</sup>했다고 언급될 만큼 현대시에서는 이미지가 점점 중요하게 여겨진다.

가람이 일찍이 회화성의 활용에 역점을 둔 것은 시조의 부흥은 물론 현대시의 발전에도 선구적인 공헌으로 남을 것이다. 오늘날 ‘일상의 사실적 이미지와 환상적이고 초월적(超越的)인 이미지의 뒤섞임을 통해 기존관념이나 의미를 넘어선 비약(飛躍)의 세계를 보여주는’<sup>24)</sup> 첨단 시작법이 두각을 나타내게 된 데도 그러한 징검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 3. 가람 時調의 內容의 特徵

이 장에서는 시조에 나타난 가람의 정신과 주제의식을 탐구해 본다. 정신적 측면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志士的 面貌로서 일제강점기 하에서 지조를 지켜 온 그의 성품을 잘 알게 해 주는 부분이다. 가람의 작품에서는 攝理에 순응하는 時間 認識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가람이 응시하는 空間과 그 세계로 향하고자 하는 上昇意志 또한 나타난다. 가람은 사회비판적 작품도 많이 남겼는데 그의 비판의식 저변에는 自然指向的 정서가 깔려 있다.

#### 1) 志士的 面貌

가람 시조문학의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가람의 志士的 面貌다. 일제강점기 어두운 시대 상황으로 인해 직접적인 표현은 불가능했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더욱 치열한 압축과 상징이 작품 내면에 배어들 수 있었다.

가람의 시조에서 민족정신이나 망국의 설움에 따른 울분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기는 쉽지 않다. 實感實情을 중시한 자신의 신조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 없는 것은 아니다. 숨어 있는 정서를 캐내면 민족정신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봄날 宮闕 안은 고요도 고요하다  
御苑 넓은 언덕 버들은 푸르르고  
素服한 宮人은 홀로 하염없이 거닐어라

썩은 고목 아래 殿閣은 비어 있고  
파란 못물 우에 비오리 한 雌雄이  
온종일 서로 따르며 한가로이 떠돈다

- <봄> 4수 중 3, 4수<sup>25)</sup>

23) 문덕수(2003), 『모더니즘을 넘어서』, 詩文學社, p.402.

24) 김규환·심상운(2011), 『발간사』, 『하이퍼시』, 시문학사, p.5.

25) 李乘岐(1969), 앞의 책, p.46.

시조의 배경으로 궁궐을 제시하고 있다. 궁궐은 왕조의 상징, 국가의 상징이다. 자연스레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현실을 생각하게 된다. 이 배경은 고요하고 적막하다. 활기차야 할 궁궐이 비어 있음을 그리고 있다. 국권을 상실한 나라를 암시하기에 충분하다. 푸르른 것은 오직 버들뿐이다. ‘넓은 언덕’이라는 배경을 그려 주고 있어 외로움과 고적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소복한 宮人’이 등장하여 망국의 한을 표현하는 의도를 슬며시 내비친다. ‘소복한 宮人’은 가람의 마음 속에 그려진 인상일 수도 있고, 흰 옷 입은 누군가를 보고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가람의 심상에 비친 영상이므로 가람 자신의 투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써 가람의 의도는 명백해진다. 망국의 허허로움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가람은 민족에 대하여 말로 떠드는 사랑보다는 묵묵히 실천하는 성품이었다. 그러했기에 가람은 한 여인에게 사랑을 바치는 춘원의 행태가 거슬렸던 것이다.

조선일보에 春園이 돌아왔다는 말이 났다. 許英肅하고 相思病이 나서 왔단다. 무엇이 사랑스러우니 해도 춘원에게는 허영숙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다. 이천만 동포니 삼천리 강산이니 하고 남보다 더 떠들고 사랑하는 체한 이가 겨우 한 허영숙에게 바치었다. (중략) 나는 허영숙이보다 더 큰 데 바치려 한다. 아직 아무 데에도 무엇을 한다고 세상에 떠들지 아니했다. (중략) 그러나 춘원 일을 들으면서 내 스스로 두려워하고 놀라 하노라. 더욱 얼을 차려 가다듬을 것이로다.

- 가람 일기에서(1921. 04. 04)<sup>26)</sup>

춘원의 경우를 他山之石으로 삼아 삶의 자세를 올바르게 가져야 하겠다는 다짐이 엿보인다. 거창하게 말을 앞세우기보다 묵묵히 큰 뜻을 따를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가람의 일관된 삶의 행적을 보면 이러한 결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평생 변치 않는 삶의 자세였음을 알 수 있다.

가람의 민족애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침잠하는 것이었다고 하지만 일제의 탄압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결국 가람은 1942년 10월 22일 경찰의 수색으로 『조선말본』을 빼앗기고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그러나 혹독한 시련을 겪은 후에도 가람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으니, ‘語學會事件과 같은 情神의 일이라면 나는 囹圄되어 썩더라도 기쁘게 參加하겠다.’<sup>27)</sup> 고 밝히고 있다.

그러한 가람이었기에 創氏改名의 압박도 이겨내고 ‘끝까지 志操를 지키며 단 한 편의 親日文學도 남기지 않은 영광된’<sup>28)</sup> 학자요 시인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 2) 攝理的 時間 認識

가람이 삶을 영위한 시간은 민족사의 浮沈이 심했던 시기다. 이 시기를 가람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살펴보면 시간을 응시하는 그의 시선을 파악할 수 있다.

낮에 녹은 눈이 밤이면 도로 얼다  
앞뒤 잔개울에 물소리 적어지고

26) \_\_\_\_\_, 위의 책, p.104.

27) \_\_\_\_\_, 위의 책, p.206.

28) 林鐘國(2002), 『親日文學論』, 민족문제연구소, p.457.

半壁에 흐린 등불은 밤을 외로 밝힌다.

- <故土> 8수 중 8수<sup>29)</sup>

일제 강점기 가람의 심사를 대변할 수 있는 작품이다. 가람은 엄혹한 당시의 상황을 밤 또는 겨울이라는 시간적 변화의 시기로 흔히 표현했다. 세상은 얼어붙고 흐르던 물도 적어진다. 여기까지는 당시를 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밤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하는 시간과 계절은 영구불변이 아니다. 때가 되면 흘러가고 변화한다. 그렇다면 변화의 시기를 대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가람은 ‘흐린 등불’이 ‘밤을 외로 밝힌다’고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표현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람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면에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시절 가람은 조선말을 일깨우기 위해 진력했고 고문서를 수집, 보존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며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겨울과 같은 엄혹한 시기에 외로이 밤을 밝히며 보낸 삶이 그의 작품과 닮아 있다.

가람의 시조에는 유구하고 심원한 자연의 섭리를 알고 현실의 고통을 희망으로 이겨내는 선비의 기질이 배어 있다. 고난의 현실과 희망을 표현할 때 흔히 등장하는 것이 봄이라는 계절과 꽃이라는 자연물이다.

가람이 ‘봄의 느낌만은 自然이나 人生이 같을 것이다.’<sup>30)</sup>라고 술회하고 있듯이 봄은 단순한 절기의 봄만은 아닐 것이다. 자연의 섭리와 변화에서 인간 세계의 변화를 바라고 그 속에서 희망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차디찬 겨울날 어느덧 다 지나고  
따뜻한 봄별이 동산에 비치오니  
새들도 때를 만난 듯 지저귀며 반기더라

동산에 꽃이 피니 벌나비 날아든다  
덤불속 梅花야 뉘라서 알라마는  
드러난 桃花李花만 서로 보고 새우더라

구렁에 얼음 녹고 메위에 아지랭이 끼는데  
아낙은 나물 캐고 사내는 밭을 간다  
진실로 제별이 제삶이 죄질 것 없어라

- 가람 일기에서(1922. 03. 01)<sup>31)</sup>

1922년 3월 1일자 일기에 실린 시조로서 탑골공원을 지나다가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계절적 배경은 봄으로서 새들의 지저귀고 꽃, 벌나비 등의 소재로써 새로운 기운이 솟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2수에 나타나 있듯이 梅花는 덩굴 속에 있어 알아주는 이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3월 1일이라는 날짜 그리고 탑골공원이라는 장소와 함께 숙고해 봐야 할 내용이다. 가람이 일기를 쓰던 당시로부터 3년 전 그 날은 민족적 저항운동인 3·1운동이 일어난 날이고 그 장소는 저항운동의 발상지로 여겨지는 곳이다.

29) 李秉岐(1969), 앞의 책, p.28.

30) \_\_\_\_\_, 위의 책, p.189.

31) \_\_\_\_\_, 위의 책, p.106.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덤불 속 梅花’는 봄은 왔으되 여전히 숨어 지내야만 하는 민족의 운명을 한탄하는 숨겨진 표현으로 읽힐 수 있다. 가람의 현실인식이 녹아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3수에서 제시하듯이 가람은 ‘얼음 녹고’ ‘아지랭이 끼는’ 가운데 ‘아낙은 나물 캐고 사내는 밭을’ 갈며 제각기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죄지을 것 없는 세상을 갈망하는 것이다. 고통스런 상황에서도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희망을 놓지 않는 자세가 깃들어 있다.

가람은 겨울과 같은 엄혹한 시기에 봄을 준비하는 자세로 마음의 준비를 다졌으며, 봄과 같은 해방의 시기를 맞아 싹을 틔웠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가람의 섭리적인 시간관을 읽을 수 있다. 攝理라 함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요, 기독교에서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sup>32)</sup>

이와 같은 가람의 섭리적 시간관은 가람의 시조 전체에 반영되어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볼 때 그 진가를 더욱 깊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3) 願望空間과 上昇意志

작가의 이상적인 바람은 작품에 투영되게 마련이다. 현실의 사물을 볼 때에도 자신이 인식하는 내용과 바라는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 가람이 바라는 이상적인 세계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으며 어떤 의지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본다.

맑은 시내 따라 그늘 짙은 소나무숲  
높은 가지들은 비껴드는 별을 받아  
가는 잎 은비늘처럼 어지러이 반작인다

靑기와 두어 장을 法堂에 이어 두고  
앞뒤 비인 뜰엔 새도 날아 아니 오고  
흙으로 나리는 물이 지나 저를 울린다

헝기고 또 헝기어 알알이 닦인 모래  
고운 玉과 같이 갈리고 갈린 바위  
그려도 더러일까봐 물이 씻어 흐른다

瀑布소리 듣다 귀를 막아도 보다  
돌을 베개삼아 모래에 누워도 보고  
한손에 해를 가리고 푸른 虛空 바라본다

바위 바위 위로 바위를 업고 안고  
또는 넓다 좁다 이리저리 도는 골을  
시름도 疲勞도 모르고 물을 밟아 오른다

얼마나 험하다 하리 오르면 오르는 이길  
물소리 끊어지고 흰구름 일어나고  
우러러 보이던 봉우리 발아래로 놓인다

- <계곡> 6수 중 전문<sup>33)</sup>

32) 국립국어원(2013),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누리집 참조.

33) 李乘岐(1969), 앞의 책, p.14.

이 시조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눈은 자연에 대한 단순한 동경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화자는 원망공간에 대한 상승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나아가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시조의 구성은 가람이 쓴 대부분의 다른 시조와 마찬가지로 자연과 인간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1~3수는 자연에 대한 관망이 그 내용이고, 3~6수는 사람(화자)이 등장한다.

자연에 관조하는 부분에서는 맑고 깨끗하며 숭고하면서도 신비한 이미지가 주를 이룬다. ‘맑은 시내’ ‘물이 씻어 흐른다’ 등은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소나무’ ‘높은 가지’ 등은 숭고한 이미지를 대변하며, ‘새도 날아 아니’ 온다고 하여 더욱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여기에 신비함을 더하는 어휘들이 있는데, ‘비껴드는 별’과 ‘은비늘처럼 어지러이 반짝인다’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가람이 평소 응시하는 願望空間의 성격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맑고 깨끗하며 숭고하면서도 신비한 곳은 가람이 그리는 유토피아의 한 면모인 것이다.

4~6수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한다. 먼저 4수에서는 청각, 촉각, 시각을 동원한 행위가 이루어진다. ‘瀑布소리 듣다 귀를 막아도 보’고(청각) ‘돌을 베개삼아 모래에 누워도 보고’(촉각) ‘한손에 해를 가리고 푸른 虛空 바라본다’(시각). 다시 말해서 모든 감각기관이 자연에 매료됨을 표현한 것이다. 유토피아를 향한 동경의 극치라 할 수 있다.

5수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뒤따른다. 동경하던 그 세계로 오르는 장면이다. ‘시름도 疲勞도 모르고’ 오른다. 시름은 이 세상의 것이다. 인간사의 일부분이다. 그것을 잊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 유토피아를 향해 가는 자의 행복감을 나타낸다. 피로는 육체적인 것으로서 願望空間을 찾아 오르는 길에 따르는 육체적인 어려움은 얼마든지 잊을 수 있을 만큼 화자는 행복에 젖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6수에서 화자는 원하던 곳에 이르러 있다. 그러한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적인 어려움을 먼저 되새긴다. ‘얼마나 험하다 하리 오르면 오르는 이길’에서 그 험난함과 그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얻은 귀중한 장면이 다음 두 행에서 이어진다. ‘물소리 끊어지고 흰구름 일어나고/ 우러러 보이던 봉우리 발아래로 놓인다’는 표현은 마치 노스님의 悟道頌을 연상케 한다. 초탈한 도인의 모습이요, 신선의 모습이다.

이 시조는 가람의 유토피아적 원망공간과 그것을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총체적으로 보여 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가람은 이상적인 공간을 바라보고(1~3수) 그 분위기에 취하여(4수) 결국 그 곳을 향하여 오르고(5수) 마침내 원하던 곳에 이른다(6수).

#### 4) 自然指向的 社會批判

가람은 자연에 천착하여 사회를 비판했다. ‘자연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세속과는 구별되는 無爲의 세계다. 그러므로 시인들은 현실에 대한 부정과 불만을 토로할 때, 자연에 기대고 자연을 동원하여 왔었다.’<sup>34)</sup>

자연을 바탕으로 한 사회비판은 메시지가 선명하고 안정감이 있다. 사회를 자연과 대비시키기 때문에 메시지는 선명할 수 있고 지향점이 자연이기에 그만큼 안정된 느낌을 줄

34) 임종찬(2004), 『현대시조탐색』, 국학자료원, p.38.

수 있는 것이다.

가을은 明朗하다 이 갈도 또한 明朗하다  
피땀에 젖은 곡식 다 툇툇히 여물었다  
흐뭇한 農村의 마음은 해보다도 明朗하다

오려를 서리하고 무우배추 절이하고  
살진 게 찜을 하고 밤대추 군것하고  
밤이면 한방에 모여 春香 沈淸 들을까

가시 사립문 아예 달을 것 없다  
달은 비껴 가고 밤은 더욱 고요하다  
낮에도 서울에서는 强盜 자주 난다 한다

- <農村의 明朗> 3수 중 전문<sup>35)</sup>

이 시조는 도시와 농촌을 대비시켜 보여 주고 있다. 농촌은 ‘가시 사립문 아예 달을 것 없’이 인심이 넉넉하고 ‘달은 비껴 가고 밤은 더욱 고요’할 정도로 안정된 환경이다. 여기에 ‘낮에도’ ‘强盜 자주 난다’는 서울의 상황을 배치하였다. 도시의 각박한 환경과 농촌의 정신적 여유로움을 선명하게 대비시켜 보여 준다. 비판의식과 더불어 자연을 지향하는 사고가 깃들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을 지향하는 가람의 비판의식은 세계적 차원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밤이면 그 밤마다 잠은 자야 하겠고  
낮이면 세때 밥은 먹어야 하겠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詩도 읊고 싶고나

지난봄 진달래와 올 봄에 피는 진달래가  
지난 여름 피꼬리와 올 여름에 우는 피꼬리가  
그 얼마 다를까마는 새롭다고 앓는가

太陽이 그대로라면 地球는 어떨 건가  
水素彈 原子彈은 아무리 만든다더라도  
냉이꽃 한 잎에겐들 그 목숨을 뉘 넣을까

- <냉이꽃> 3수 중 전문<sup>36)</sup>

가람은 이 시조에서 사람인 이상 잠도 자고 밥도 먹어야겠지만 시를 읊고 싶다는 의식을 피력한다. 시의 대상은 진달래, 피꼬리 등 자연에 대한 관심이다. 해마다 보는 꽃과 새도 새롭다고 하는 점을 상기시킨다. 새로움을 자연에서 찾는 마음으로서 자연지향적인 정서,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나타나 있다. 이 때 자연은 새로움과 생명의 대명사다.

인공의 결과물인 수소탄과 원자탄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냉이꽃 한 잎에도 목숨을 불어넣지 못한다. 결국 가람의 지향점은 자연이다. 물질문명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비판의 대상은 자연회귀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특히, 세 번째 수에서는 인류 문명을 질타하는 내용이 드러난다. 수소탄이며 원자탄을

35) 李乘岐(1969), 앞의 책, p.93.

36) \_\_\_\_\_, 위의 책, p.69.

만들어 내는 인류 문명이지만 그것은 생명 하나도 창조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것일 뿐이다. 파괴의 대명사인 수소탄과 원자탄에 비하면 창조와 변화를 선사하는 자연은 위대한 것이다.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연회귀 정신이 가람의 시조 세계에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람의 시조에 등장하는 자연은 결코 정복의 대상이 아니다. 자연은 생명이 움트고 성장하는 공간으로서 그 속에 새로움이 있다.

#### 4. 結言

본고에서는 시조문학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한 가람의 시조론을 형식과 내용 면에서 각각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가람은 훌륭한 문학 작품이 되려면 형식과 내용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식 면에서 살펴본 특징은 三章 八句體說, 感覺語의 活用, 連作의 活用, 豊富な 繪畫性의 네 가지다.

첫째, 가람은 三章 八句體를 주장했는데 이는 3장 6구체나 3장 12구체설에 비해 다소 특이한 주장으로서 후대에 적극적으로 계승되지는 않았다. 가람이 이를 주장한 것은 읽는 사람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부르는 시조에서 읽는 시조로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가람은 感覺語를 많이 사용했는데 특히 색채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많았다. 이 역시 가람의 시조 혁신론, 특히 실감실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가람은 생활상의 복잡화를 감안하여 연작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고시조와는 다른 새로운 형식을 추구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시도로 볼 수 있으나, 내용의 치열성과 긴축성을 떨어뜨린 면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남게 되었다. 연작은 활용하되 긴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넷째, 가람의 시조에는 繪畫性이 풍부하게 깃들여 있다. 가람이 주장하고 구현한 회화성은 시조 혁신을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내용 면에서는 志士的 面貌, 攝理的 時間 認識, 願望空間과 上昇意志, 自然指向의 社會批判 등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째, 가람의 작품 속에는 志士的 面貌가 숨어 있다. 그러한 면모는 어휘로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전후 맥락과 배경을 함께 고려해 볼 때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겉으로는 서정적인 모습만 보이는 시조 가운데도 의연한 민족적 의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가람의 시조에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초조함이 거의 묻어나지 않으며 한탄조의 내용도 찾기 어렵다. 시간을 攝理的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우주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자세가 그의 시간 의식에 배어 있어 기다림의 여유를 읽을 수 있다.

셋째, 가람은 현실 속에서 유토피아를 그리며 이를 시조 속에 형상화했다. 이상적인 공간을 향해 상승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넷째, 가람의 사회 비판은 자연을 지향하는 의식이 배어 있다.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중심에는 自然指向性이 배어 있다. 따라서 그의 비판의식은 명료하며 안정감이 느껴진다.

본고는 가람의 시조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인 형식과 내용의 대표적 특징을 이해하고 시조 혁신을 위한 가람의 고민과 노력이 이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參考文獻

- 김규화·심상운(2011), 『발간사』, 『하이퍼시』, 시문학사.
- 金允植(1970), 「李秉岐論(下) - 現代時調는 可能한가」, 『現代詩學』 通卷 第16號, 現代詩學社.
- 문덕수(2003), 『모더니즘을 넘어서』, 詩文學社.
- 文德守·申尙澈(2010), 『文學一般의 理解』, 시문학사.
- 閔濟(1975), 「時調의 形式과 韻律考」, 『서라벌』 1집, 中央大學校藝術大學學生會.
- 吳昇姬(1990), 「가람 李秉岐 時調의 空間 研究」, 『批評文學』 4, 韓國批評文學會.
- 李秉岐(1969), 『가람文選』, 新丘文化社.
- 이선희(1994), 「가람 이병기 시조에 나타난 전통성 연구」, 『청람어문학』 11, 청람어문학회.
- 李滌旭(1987), 「六堂의 「百八煩惱」 研究」, 中央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 \_\_\_\_\_(1995), 「時調의 韻律構造 研究」, 中央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 \_\_\_\_\_(2013), 「시조론 - 시조의 율격구조와 미의식을 중심으로」, 이찬욱 외, 『시조 문학 특강』, 경인문화사.
- 李泰極 編(1965), 『時調研究論叢』, 乙酉文化社.
- 林鐘國(2002), 『親日文學論』, 민족문제연구소.
- 임종찬(1975), 「가람 時調論」, 『論文集』 1호, 東義工業專門大學.
- \_\_\_\_\_(1992), 『現代時調論』, 국학자료원.
- \_\_\_\_\_(2004), 『현대시조탐색』, 국학자료원.
- 趙潤濟(1984), 『韓國詩歌의 研究』, 乙酉文化史.



# 古典 敘事文學에 나타난 술 研究

유권석(남서울대학교)

## 1. 머리말

본 研究는 16~17세기 愛情傳奇小說에<sup>1)</sup> 빈번히 등장하는 술의 收容 樣相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해 보는 것을 目標로 시도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술은 음식이다. 그러나 술이 다른 음식과 달리 사람의 감정을 表出하는 喜怒哀樂과 깊게 연관될 수 있었던 것은 알코올의 效能 때문이다.<sup>2)</sup> 이러한 술의 특징은 그동안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에 수용되면서 일정한 役割을 담당해 왔다.

16~17세기에 창작된 애정전기소설은 남녀의 애정과 신이한 체험을 주제로 전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sup>3)</sup> 그리고 남녀의 만남이나 이별, 超越界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最高이자 最善의 음식이 술이었다. 특히 冥婚小說의 경우 술이 時空間을 超越하여 존재하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술의 종류에 따른 명칭, 술병, 술잔, 술의 향기, 술을 마신 후의 흥취 등이 모두 傳奇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sup>4)</sup> 즉 鬼神과의 만남과 이별, 저승과 같은 낯선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로서 술이 활용된 것이다. 그러나 17세기로 오면 傳奇的 속성이 弱化되면서 술은 神秘感 대신 사건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소설에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면서 술이라는 소재에도 변화가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5)</sup>

1)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申光漢의 『企齋記異』에 실려 있는 「安憑夢遊錄」과 「崔生遇眞記」, 權輶이 지은 「周生傳」과 「韋敬天傳」, 작자 미상의 「雲英傳」과 「相思洞記」, 趙緯韓의 「崔陟傳」, 金萬重의 「九雲夢」 등 8편의 傳奇小說과 愛情小說들이다. 이 작품들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선행된 『金鰲新話』에 활용된 술에 대한 연구에 힘입은 바 큰데, 古小說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재 중의 하나가 술이고 술이 愛情傳奇小說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安憑夢遊錄」과 「崔生遇眞記」의 내용은 신광한 지음, 박헌순 옮김(2008), 『企齋記異』, 종합출판범우, 「周生傳」과 「韋敬天傳」, 「雲英傳」, 「相思洞記」, 「崔陟傳」의 내용은 이상구 역주(1999), 『17세기 애정전기소설』, 月印, 「九雲夢」은 『한국고전문학전집』제27권(1996),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에 따라음을 밝혀둔다.

2) 술은 酒精과 알코올 1% 이상의 음료를 이른다. 우리나라는 三國時代 이전부터 술을 마셔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朝鮮時代에는 家釀酒가 발달했다. 冠婚喪祭에 따른 儀禮가 엄격했던 점으로 미루어볼 때 술이 일상에서 얼마나 중시되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원용희(2003), 『술/음료의 세계』, 백산출판사, pp.11~13, 정대성 저, 최진선 역(2006), 『새일교포가 찾아낸 우리 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혜』, 이회문화사, pp.24~37.)

3) 『殊異傳』 逸文에 전한다는 「崔致遠」에도 雙女墳의 주인공인 두 여인과 치원이 함께 술을 마시는 내용이 있는데, 술은 남녀의 사랑을 다룬 애정소설에서 주로 활용되었다.(박일용(1993),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pp.51~215.)

4) 졸고(2013), 『金鰲新話』에 활용된 술의 역할과 의미 연구, 『어문논집』제54집, 중앙어문학회, p.302.

5) 박일용은 愛情小說을 연구하면서 17세기 소설의 한 경향을 ‘사실’로 규정한 바 있다.(박일용, 앞의 책,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pp.121~216.

일찍이 고전 서사문학에 등장하는 술의 위상에 대해 지적한 것은 정병헌<sup>6)</sup>이다. 그러나 정병헌은 『金鰲新話』에 등장하는 술의 역할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을 뿐 深度있는 논의로 이어가지는 못했다. 또한 김응모<sup>7)</sup>의 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술의 역사와, 종류, 구조법, 문학작품까지 통찰해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술에 치중하다보니 문학적인 측면을 깊이 있게 穿鑿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金鰲新話』에 활용된 술의 役割과 意味 研究<sup>8)</sup>라는 논문이 발표되어 비로소 고전 서사문학에 수용된 술에 대한 論議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金鰲新話』에 수록되어 있는 네 편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기에 통공시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작품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이 고전 서사문학의 소재로 술이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着眼한 연구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애정전기소설의 특징이 좀 더 明確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 2. 술의 收容 樣相

『企齋記異』에는 신광한이 창작한 네 편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 이 중에서 「安憑夢遊錄」과 「崔生遇眞記」 두 편에 술이 등장한다. 8편의 작품을 검토해 보면 애정소설이나 전기소설이나에 따라 술의 역할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傳奇性的의 有無이다. 물론 「雲英傳」 같은 경우는 명혼소설의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金鰲新話』의 「萬福寺樗蒲記」나 「李生窺牆傳」처럼 남녀의 만남과 이별에 술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비슷한 敍事의 설정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17세기의 작품들은 다분히 실존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작품에는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술이 개입되면서 傳奇的 요소가 偶然性으로 대체되고 있다. 즉 술의 수용 양상은 시대와 작가에 따른 작품의 성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편의 愛情傳奇小說들을 분석해 보면 술이 수용된 양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작중 인물들의 만남과 이별에 따른 興趣와 情恨의 정서이다. 벗이나 연인, 賓客 등 반가운 사람과 함께 할 때나 특별한 만남의 자리에는 항상 술이 등장한다. 또한 한 번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를 이별의 순간에도 술이 등장한다. 술로써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이다. 흥취와 정한의 정서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건의 端初로 작용하는 경우다. 술로 인해 서사에 변화가 초래되기도 하고 사건의 진행과정에 술이 등장하여 심리상태를 드러내기도 한다. 작중인물들이 술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서사의 흐름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8편의 愛情傳奇小說에는 아름다운 情景를 드러내는 설명과 일정한 感懷를 담아내기 위한 插入詩<sup>9)</sup>가 상당수 등장한다. 이러한 정경에 대한 설명과 결부되거나 삽입시의 내용에 등장하는 술과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風情으로 나타난다. 즉 아름다운 주변 경치

6) 정병헌(2008), 「한국 고전문학과 술 문화」, 『한국어와 문화』제3집, pp.8~11.

7) 김응모(1997), 『어문학에 담긴 술의 멋』, 박이정, pp.9~352.

8) 줄고(2013), 앞의 책, 「『금오신화』에 활용된 술의 역할과 의미 연구」, pp.299~320.

9) 插入詩歌의 기능에 대해서는 (정숙인(2011), 「崔致遠 插入詩歌의 양상과 기능」, 『어문논집』제47집, pp.151~158.) 참조.

에 가탁하여 자신의 흥겨운 마음을 담아내는 풍정은 술로 인해 한층 돋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傳奇性의 구현이다. 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음식이며 때로는 이승과 저승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超越의 기능을 갖고 있다.<sup>10)</sup> 죽은 영혼이 등장하는 冥婚小說의 경우 이승과 저승 사람들이 경계를 벗어나 사이좋게 마시기도 하고 超越界에 다녀온 증거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즉 술에 의한 傳奇의 구현은 冥婚小說이나 傳奇小說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 각 작품들에 수용된 술의 樣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興趣와 情恨의 象徵

興趣의 사전적 의미는 ‘즐거운 멋과 취미’이다. 또한 情恨은 ‘정이 얽혀 있는 恨’이다. 이렇게 본다면 흥취는 기쁨, 정한은 슬픔과 관련됨을 알 수 있는데, 8편의 애정전기소설 작품을 살펴보면 술과 관련된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흥취의 정서이다. 반면 정한의 정서는 절반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흥취의 정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작품은 「九雲夢」<sup>11)</sup>이며 정한의 정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작품은 「韋敬天傳」<sup>12)</sup>이다. 이러한 특징은 작품의 結末과도 무관치 않은데, 「구운몽」에서 양소유가 팔선녀를 만나는 과정에 다양한 즐거움이 개입된다면 「위경천전」은 주인공이 겪는 이별과 죽음 등 悲劇的 사건으로 인해 정한의 정서가 여러 부분에 나타나 있다.

흥취는 술로 인해 행복한 상황이 倍加될 때 나타난다. 흥취는 「崔生遇眞記」를 제외한 일곱 작품에 모두 수용되어 있다. 그리고 정한은 다섯 작품에 나타나 있다. 작품에 따라 흥취와 정한의 정서가 함께 나타나기도 하는데, 상황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술이 개입된다는 점은 一致한다.

먼저 「安憑夢遊錄」<sup>13)</sup>에는 書生인 안빙이 회화나무에 기대어 졸다가 꿈에서 꽃나라의 왕을 만나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 흥취가 드러나 있다. 안빙은 진사시험에 연달아 낙방하고 남산 별채에서 한가로이 지내는 인물이다. 그러나 꽃나라에서는 안수재로 불리며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 함께 손님으로 자리한 주씨와 옥비로 더불어 좋은 술로 인해 잔치의 자리가 더욱 흥겨워졌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구화상에다 도미주를 부어 안생에게 먼저 잔을 권했다. 안생이 머뭇머뭇 뒤로 물러나며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 사양하니, 왕이 말하기를 “이미 뒷자리에 앉았는데, 어찌 잔을 먼저 받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다.<sup>14)</sup>

10) 박희병교수는 한국 전기소설의 주류는 愛情傳奇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때 傳奇의 특징 중 하나로 超越을 들고 있다.(박희병(1997), 『韓國傳奇小說의 美學』, 돌베개, pp.216~228.)

11) 「九雲夢」에 대해서는 (정규복 해설, 김열규·신동욱 편집(1990), 『金萬重研究』, 새문사.)에서 자세히 다루어졌다.

12) 「韋敬天傳」과 「周生傳」은 石州 權輶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권필은 광해군 때의 외척인 유희분 일파의 전횡을 풍자한 임숙영의 절행을 칭송한 「宮柳詩」를 지었다가 발견되어 유배형에 처해졌는데, 유배지로 향하던 중 동문 밖에서 행인들이 주는 술을 모두 받아먹고 44세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다.(『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제3권(1991), 정신문화연구원.)

13) 「安憑夢遊錄」과 「崔生遇眞記」에 대해서는 (柳奇玉(1999), 『申光漢의 企齋記異 研究』, 한국문화사, pp. 91~196.)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14) 「安憑夢遊錄」王出席於九華觴，酌醪醢酒，向生先稱。生逡巡退跪左右辭，王曰“既坐上座安得復辭先觴”

한편 「相思洞記」에서는 김생과 영영이 身分의 障礙를 극복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는 점에서 행복한 결말로 귀결되어 있다.<sup>15)</sup> 이로 인해 술과 관련된 부분 또한 정한보다는 흥취가 주를 이룬다.

김생은 봄날의 흥취에 젖어서 목이 마를 정도로 술 생각이 간절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흰 모시 적삼을 전당잡히고 진주 빛이 나는 홍주를 사서 꽃무늬가 그려진 자기 술잔에 따라 마셨다. 술에 취해서 술집 누각 위에 누워 있는데, 꽃향기가 옷에 스미고 대나무 이슬이 얼굴을 적셨다.<sup>16)</sup>

“낭군께서는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제가 위로하고자 따뜻한 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침내 영영이 금으로 된 연꽃 모양의 술잔에다 술을 따라 김생에게 권하니, 김생이 받아 마셨다. 영영이 또 한 잔을 권하자, 김생이 사양하며 말했다.  
“마음이 정에 있지, 술에 있지 않소.”<sup>17)</sup>

김생은 봄날의 경치에 취해 술을 마시면서 흥에 겨운 몽롱한 상태가 되었다. 이것은 봄날의 따뜻한 날씨로 인해 흥취가 절로 유발된 것인데, 이러한 때 가장 간절한 것이 술이었다. 김생은 술로 인해 행복한 순간을 만끽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檜山君宅 담을 넘어 목숨을 걸고 영영을 만나 정을 나눌 때에도 술이 등장하고 있는데, 술은 두 사람의 만남을 즐겁게 해주는 妙藥으로<sup>18)</sup> 작용했다.

이러한 만남에 따른 흥취는 「周生傳」과 「韋敬天傳」, 「崔陟傳」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하루는 악양성 밖에 배를 매어 놓고 곧잘 방문하곤 했던 나생을 찾아갔다. 나생 역시 뛰어난 선비였는데, 주생을 보고는 매우 기뻐하며 술을 사와 서로 즐겁게 마셨다. 주생은 술에 취해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는데, 배로 돌아와서 보니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sup>19)</sup>

위생과 장생은 노래를 마친 뒤 술을 다 마셔버리고 한껏 취흥에 젖어서 서로를 베개 삼아 배 안에서 잠이 들었다. 한참 후 위생이 멍하니 먼저 깨어나 머리를 긁적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니, 상강의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모래톱의 새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었으며, 강둑 흥교에서 노닐던 사람들도 점차 줄어들었다.<sup>20)</sup>

일찍이 날씨가 맑은 어느 봄날 밤이었는데, 어둠이 깊어 갈 무렵 미풍이 잠깐 일어나면서 밝은 달이 환하게 비추었으며, 바람에 날리던 꽃잎이 옷에 떨어져 그윽한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다. 이에 최척과 옥영은 술병을 열고 술을 따라 마신 후, 침상에 기대어 피리를 세 곡조 부니 그 여음이 하늘거리며 퍼져나갔다.<sup>21)</sup>

주생은 잘 알고 지내던 나생을 만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함께 만난 것이 얼마나 즐거웠으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는데, 이때 두 사람이 즐겁게 보낼 수 있도

15) 졸고(2011), 「宮女를 소재로 한 愛情敍事의 스토리텔링 樣相 연구」, 『어문논집』제48집, pp.247~251.

16) 「相思洞記」 生不勝春興之惱, 思醉如渴. 遂典白紵單衫, 沽得眞珠紅酒, 酌以花磁盞而飲之. 醉臥酒樓之上, 花香襲衣, 竹露酒面.

17) 「相思洞記」 "郎君無乃有驚懼之心乎? 妾欲慰之. 故持溫酒而來." 遂以金荷葉盞, 酌而勸生, (生飲之. 英又勸一杯), 生辭曰 "在情, 不在酒也."

18) 졸고, 앞의 책, 『金鰲新話』에 활용된 술의 역할과 의미 연구, pp.302~309.

19) 「周生傳」 一日, 繫舟岳陽城外, 訪所善羅生. 羅生亦俊逸士也, 見生甚喜, 買酒相歡. 生不覺沈醉, 比及還舟, 則日已昏黑.

20) 「韋敬天傳」 歌竟酒蘭, 盡醉極懽, 相與枕籍于舟中. 韋生沈然先覺, 搔頭起坐, 湘天已暝, 沙禽飛盡, 岸上虹橋, 遊人漸稀.

21) 「崔陟傳」 嘗於暮春清夜, 將半微風乍起, 素月揚輝, 飛花撲衣, 暗香侵鼻, 開壺酌酒而飲, 據床三弄, 餘音嫋嫋.

록 작용한 것이 술이었다. 또한 「위경전전」에서 위생이 장생과 떠난 여행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흥취에 젖어 배안에서 자고 일어나니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으며, 「최척전」에서 최척이 옥영과 봄날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술은 일단 마시게 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속성을 갖고 있다. 또한 서로 따라주고 권하면서 인간적인情理를 더욱 두텁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술의 역할은 「구운몽」에서도 지속되는데, 「구운몽」에서는 성진이 팔선녀를 만나 어울리는 대목에서 등장한다.

금 술잔에 술을 따라 섬월에게 상으로 내렸다.  
경월과 섬월 두 사람이 월궁의 네 미인과 함께 맑은 노래와 정묘한 춤으로 빈객에게 헌수  
하니 마치 봉황이 쌍쌍이 울고 청란이 마주 보고 춤추는 듯 진정한 호적수를 이루어 한  
푼도 어그러짐이 없었다.<sup>22)</sup>

「구운몽」에서 육관대사의 제사였던 성진이 인간세계로 내쳐져 팔선녀를 만나게 되면서 술의 등장이 다른 작품보다 빈번하고 흥취와 관련된 부분 또한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 정한의 정서 또한 흥취의 정서에 비해 빈도수는 적지만 이별의 슬픔을 나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정서로 나타나고 있다. 「雲英傳」에서는 운영과 김진사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유명이 술병을 들고 壽城宮에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술이 개입되고 있다. 그러나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이 비극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이별에 따른 정한에 술이 등장하고 있다.

진사는 술에 취해 운영에게 몸을 기댄 채 절구 한 수를 읊었다.

꽃이 진 궁중에 제비와 참새가 나니  
봄빛은 여전하나 주인은 아니로다  
밤하늘의 달빛은 이렇듯 서늘한데  
푸른 이슬은 푸른 깃털 옷을 적시지 못하네

운영이 이어서 읊었다.

고궁의 꽃과 버들은 새로이 봄빛을 띠었는데  
호화롭던 오랜 옛일 자꾸만 꿈속에 드네  
오늘 저녁 옛 자취를 찾아와 노니  
슬픈 눈물이 절로 수건 적심을 금하지 못하네

유영도 술에 취해서 잠깐 잠이 들었다. 잠시 후 산새 우는 소리에 깨어나 보니, 구름과 연기가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이 어슴푸레하게 비치었다. 사방을 돌아보아도 사람은 없고 단지 김생이 기록한 책자만 있을 뿐이었다.<sup>23)</sup>

22) 「九雲夢」

23) 「雲英傳」 進士醉倚雲英之身，吟一絕句曰 花落宮中燕雀飛，春光依舊主人非。中宵月色涼如許，碧露未沾翠羽衣。

雲英繼吟曰 故宮柳花帶新春，千載豪華入夢頻。今夕來遊尋舊跡，不禁哀淚自沾巾。柳泳亦醉暫睡，小馬，山鳥一聲，覺而視之，雲烟滿地，曉色蒼茫，四顧無人，只有金生所記冊子而已。

운영과 김진사의 이승에서 맺어지지 못한 안타까운 사랑이 그나마 술이 있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영은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 초월계를 경험했는데, 믿기 힘든 상황의 證據物로 대두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술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운영전」에서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생전」에서는 배도가 죽은 뒤 주생이 장사를 지내주는데, 이때 죽은 배도를 애도하는 祭文의 내용 속에 함께 술을 마셨던 즐거움과 이별에 대한 정한이 對比되어 나타나 있다. 슬픔의 순간에 즐거웠던 때를 回想하는 소재가 술인 것이다.

한 주발의 좋은 술을 마시며 수없이 생황을 연주하였는데, 시간이 흘러서 우리들의 인연이 끝나고 즐거움이 다하여 슬픔이 올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비취 이불이 따뜻해지기도 전에 월양의 꿈이 먼저 깨어지니, 즐거운 마음은 구름처럼 사라지고 은혜로운 정은 비처럼 흩어졌습니다.<sup>24)</sup>

이러한 정한의 정서는 「위경천전」과 「최척전」, 「구운몽」에도 나타난다. 「위경천전」에서는 위생이 소낭자와 헤어질 때 술을 대접하고 있으며 떠나는 위생 또한 동이로 술을 마시며 아픔을 달랬다. 「최척전」에서 주우는 최척과 이웃하며 살던 의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최척이 蜀으로 떠난다고 하니 최척의 자를 부르며 술잔에 술을 권하며 배웅했다. 반면 「구운몽」에서는 승상의 지위에 오른 양소유가 항상 즐거움을 나누던 술이 옆에 있건만 떠날 때가 되자 마음이 회한으로 가득차면서 술로 心境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소낭자는 손수 촛대 술잔에 술을 따라 위생에게 받들어 올리고, 스스로 <임강선> 한 곡을 지어 위생이 술 마시는 것을 도왔다.

오구를 비단 띠에 비껴 차고 청사마를 탔으나  
머나먼 용사에서 돌아올 길 잃었네  
안개 낀 계문의 나무 저 멀리 희미한데  
누런 잎 뜰 가득히 떨어져 사립문을 가렸네

소낭자가 노래를 마치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위생은 억지로 큰 술동이의 술을 다 마신지라, 남의 부축을 받고 겨우 말에 올라서 떠나갔다.<sup>25)</sup>

최척이 촉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술을 가지고 왔다. 주우는 술잔을 들고 최척의 자를 부르며 말했다.<sup>26)</sup>

“좋은 시절을 만나 풍경을 감상하면서 향기로운 술을 가득 붓고 미인도 옆에 있으니, 이것은 또한 인생의 즐거운 일인데 통소 소리가 이와 같으니 오늘의 통소 소리는 전날에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sup>27)</sup>

24) 「周生傳」 一椀瓊漿，幾回鸞笙，豈期時移事往，樂極生哀。翡翠之衾未煖，鴛鴦之夢先回。雲消歡意，雨散恩情。

25) 「韋敬天傳」 吟罷，蘇娘手酌金荷杯，奉進韋生前，自製臨江仙一闋，以侑之。吳鉤錦葉青絲馬，龍沙千里迷歸途，薊門煙樹遠依微，滿庭黃葉掩柴扉。歌竟，座中皆垂淚，韋生強醉深樽，扶擁上馬而去。

26) 「崔陟傳」 其入蜀，載酒而來，舉觴字陟而言曰。

27) 「九雲夢」

여기에서 「주생전」과 「구운몽」의 정한에 등장하는 술은 過去와 現在의 행복했던 때를 反芻하는 행복의 상징물로 인식된다는 점이 다르다. 즉 직접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에 대한 回想을 통해 영원한 이별의 아픔을 달래고자 한 것이다.

## 2) 傳奇性的 具現

「萬福寺樗蒲記」나 「李生窺牆傳」처럼 죽은 영혼과 情을 나누고 그 과정에서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은 설정이 「安憑夢遊錄」과 「崔生遇眞記」, 「雲英傳」 등에도 나타나 있다. 애정 전기소설에서 술은 俗世와 超越界에 두루 존재하는 음료이기 때문에 비록 시공의 차이는 있지만 마시고 취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초월계에서도 손님을 맞이하거나 잔치를 열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술이며, 속세에서 마시기 힘든 진귀한 종류의 술을 등장시킴으로 인해 잔치의 성대함을 간접적으로 표출시키기도 한다.

「안빙몽유록」에서 안빙은 꿈에서 꽃나라에 갔다가 조래 선생과 수양처사, 동리은일, 옥비, 부용성주 등과 어울려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돌아온다. 그런데 안빙이 모란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현실로 돌아왔음을 느꼈을 때 꿈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꿈이었더라는 의문이 들게 한 것이 바로 술이었다. 안빙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 꽃나라에서 마셨던 술기운이 은은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안빙은 이 일을 겪은 후로 휘장을 내리고 다시는 정원의 꽃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 안빙이 속세와는 다른 초월계를 다녀온 증거물로 술이 활용된 것이다. 즉 술은 안빙의 이야기를 사실처럼 믿게 만들고 속세와는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神異한 음식이라는 전기성을 획득한 것이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천둥 소리가 광 하고 땅이 갈라지는 듯하게 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 곧 한바탕 꿈이었다. 술 기운이 몸에 있고 꽃 향기가 옷에 배어 있었다. 멍한 정신으로 일어나 앉으니, 부슬비가 회화나무에 내리고 천둥 여운이 은은하였다.<sup>28)</sup>

안빙이 꽃나라의 잔치에 초대되어 술을 마시고 돌아왔다면 최생은 용추동을 찾아갔다 가 水府에서 용용과 손님으로 와 있던 동선, 도선, 산선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돌아온다.

내오는 음식이 인간 세상의 음식이 아니었다. 단지 몇 가지만 갖추었는데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 술이 이르자 최생은 자리에서 물러서서 절을 하고 마셨다. 술이 목구멍에 들어가자마자 진한 술기운이 온몸에 퍼져 배고프고 목마르던 것이 깨끗이 잊혀졌다.<sup>29)</sup>

최생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여러 날을 헤맨 끝에 찾아간 곳이 龍宮이었으며 그곳에서 마신 술은 그동안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단번에 잊게 해주었다. 술을 마신 순간 이곳이 속세와는 다른 초월계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최생이 마신 술이 속세에는 없는 특별한 종류임을 ‘인간 세상의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에서도 짐작할 수 있지만 신이함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라고 하겠다.

안빙과 최생이 꽃나라와 수부를 다녀왔다면 유영은 이미 죽은 靈魂인 운영과 김진사를

28) 「安憑夢遊錄」 語未訖，迅雷一聲，劃若地裂，遽然醒悟，乃一夢也。頗覺酒暈在身，芳馨襲衣，恍然起坐則微雨酒槐，餘雷殷殷。

29) 「崔生遇眞記」 非如人世，只具數品，莫辨名物。酒到，生避席拜飲，纔入喉，醞薰徧體，頓忘飢渴。

만나 술을 마시며 슬픈 사연을 듣고 온다. 그런데 유영과 두 사람이 만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도 술이 등장하고 있다.

두 계집종이 명령 받들고 갔다가 잠시 후에 술과 안주를 가지고 되돌아 왔는데, 나는 새가 오가는 것처럼 발걸음이 가벼웠다. 유리로 된 술단지에는 자하주가 가득히 담겨 있었으며, 진귀한 과일과 훌륭한 음식 등 모두가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술을 세 잔 마신 후에 여자가 새로운 사곡을 지어 부르며 유생에게 술을 권하였다.<sup>30)</sup>

셋이 둘러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마신 술은 신선들이 마신다는 자하주다. 「최생우진기」에서 최생이 마신 술과 비슷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들의 만남이 술로 인해 일반적인 만남과는 차원이 다름을 대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술은 속세와 초월계에 존재하는 음료로서 神仙들이 주로 마신다는 점에서 특별함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인간으로서 이상세계에 다녀왔다는 증거물로 작용하면서 전기성<sup>31)</sup>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 3) 事件의 端初

술은 17세기에 창작된 고소설에 수용되면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기성이 약화되고 일정한 사건의 단초로 작용하거나 심리상태의 변화를 대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술을 통해 神秘함을 추구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한 장치로 활용됨을 의미한다. 즉 술이 특정한 사람을 만나 흥을 돋우는 것과 함께 우연성을 가장한 필연적 사건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운영전」에서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게 된 것은 유영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영은 가난한 선비로서 탁주 한 병을 사들고 수성궁을 찾았다가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이때 술은 새로운 만남과 슬픈 사랑을 전해 듣게 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고 있다.

만력 신축년 3월 16일에 유영은 탁주 한 병을 사들고 집을 나섰다. 어린 종은 물론 이미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마저 없어 몸소 술병을 허리춤에 차고 홀로 궁문 안으로 들어가자, 그를 본 사람들마다 서로 돌아보며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다.<sup>32)</sup>

유영이 술에 취했기 때문에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졌다면 「상사동기」에서 김생과 영영의 극적인 邂逅에도 술이 개입되어 있다. 영영과 헤어진 지 3년 만에 영영에 대한 그리움을 극복하고 장원급제한 김생은 술에 취해 檜山君宅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때 김생은 불현 듯 영영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고 재빨리 술김에 말에서 떨어진 것으로 가장하여 회산군택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김생과 영영은 3년 만에 再會할 수 있었고 다시 사랑을 이어갈 수 있었다.

30) 「雲英傳」 二叉鬟承命而往，少旋而返，飄然若飛鳥之往來。琉璃樽，盛紫霞之酒，珍果奇饌，皆非人世所有。酒三行，女口呼新詞，以勸其酒。

31) ‘취’에 담긴 의미는 (김문희(2006), 『전시소설의 서술 문체와 환상성』, 보고서, pp.18~21.)에 잘 나타나 있다.

32) 「雲英傳」 萬歷辛丑春，三月既望，沽得濁醪一壺，而又乏童僕，既無朋知，躬自佩酒，獨入宮門，則觀者相顧，莫不指笑。

김생은 얼큰하게 술에 취한지라, 의기가 호탕해져 채찍을 잡고 말 위에 걸터앉아 수많은 집들을 한 번 둘러보았다. 갑자기 길가의 한 집이 눈에 띄었는데 높고 긴 담장이 백 겹 걸음 정도 빙빙 둘러 있었으며, 푸른 기와와 붉은 난간이 사면에서 빛났다. 섬돌과 뜰은 온갖 꽃과 초목들로 향기로운 숲을 이루고, 희롱하는 나비와 미친 벌들이 그 사이를 어지러이 날아 다녔다. 김생이 누구의 집이냐고 물으니, 곧 회산군택이라고 하였다.<sup>33)</sup>

한편 「周生傳」에서는 술로 인한 만남이라는 점에서는 「雲英傳」이나 「相思洞記」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眞心을 숨기고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상황에서 술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주생과 배도가 만나 술잔을 기울인 것은 둘 사이의 관계가 表面的으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주생의 배도에 대한 애정은 식어 있었으며 마지못해 즐거워할 뿐이었다. 선화를 본 뒤부터 주생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생겼고 배도와는 멀어지게 되었다. 원래 주생이 배도를 만나게 된 것은 나생과 함께 마신 술로 인해 전당에 이르게 되었던 데 원인이 있다. 이처럼 술은 주생이 전당에 이르러 배도를 만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다시 선화를 향한 사랑의 감정으로 배도를 멀리할 때에도 등장하고 있다.

주생은 한 번 선화를 본 후부터는 배도를 향한 마음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서 배도와 술잔을 주고받는 사이에도 애써 웃고 기뻐할 뿐, 마음은 온통 선화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다.<sup>34)</sup>

「위경천전」에서도 위생이 소년자를 만나 情을 나누고 함께 놀러 갔던 장생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장생이 놀라 위생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데 이용한 것이 술이었다. 위생은 將來가 촉망받는 文士였기 때문에 과거를 보아 立身揚名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 위생이 소년자에게 빠져 헤어나지 못할까봐 술에 취하게 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만든 것이다. 이는 잔치를 벌여 함께 어울렸지만 술을 이용하여 僞計로 속인 것이다.

장생은 그가 이미 심하게 침혹되어 있어 말로서는 풀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침내 위생에게 강제로 술을 권하여 다시 흐드러지게 술판을 벌였다. 위생이 술에 취해 먼저 배 안에 쓰러지자, 장생은 사공 아이로 하여금 동쪽 아래에 자리를 잡고 노를 젓게 하여 유성처럼 빨리 나아갔다.<sup>35)</sup>

주생과 위생이 마신 술이 단순히 興을 돋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僞計에 가깝다면 「구운몽」에서 성진은 술을 마심으로 인해 인간 세상으로 내려지는 원인이 되었다.

성진이 그 성의에 감동되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연거푸 석 잔을 기울여 마셨다. 성진이 용왕을 하직하고 수부를 나와 바람을 타고 연화봉을 향하여 오다가 산 밑에 이르러 자못 술기운이 얼굴에 나타나고 눈앞이 어른거리고 어지러워 자책(自責)해 말하였다.  
“사부께서 만약 내 얼굴에 가득 찬 술기운을 보신다면, 어찌 놀라 꾸짖지 않으시겠는가?”<sup>36)</sup>

33) 「相思洞記」 生半醉半醒，意氣浩蕩，着鞭跨馬，一目千家。忽見道傍，高墉遠牆，逶迤乎百步，碧瓦朱欄，照耀乎四面。千花百卉，芬菲乎階庭，戲蝶狂蜂，喧咽乎林園。生問之則乃懷山君宅也。

34) 「周生傳」 生自見仙花之後，向挑之情已薄，應酬之際，勉爲笑歡，而一心則惟仙花是念。

35) 「韋敬天傳」 張生知其沈已甚，不可以言語解之，遂力勸韋生，更闌酬酢。韋生先倒于舟中。張生令篙童，掛席東下，倏如流星之疾也。

36) 「九雲夢」

성진은 용왕이 권하는 술을 거절할 수 없어 마시게 되었고 돌아가는 길에 醉氣에 팔선녀를 만나 희롱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성진은 속세에 양소유로 태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같이 술은 흥취를 나누는 것과 결부되어 있으면서도 때로는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위계에 활용되기도 하는 등 고소설에서 사건의 단초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4) 風情의 代辯

風情은 ‘정서와 회포를 자아내는 풍치나 경치’를 뜻한다. 고소설에는 아름다운 경치를 드러내는 시를 읊조리거나 연회에서 노래를 부를 때 아름다운 情景이 나타난다. 물론 이것은 글을 통해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술은 이러한 풍정을 드러낼 때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풍정을 표현함에 있어 술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없이 좋은 음식으로 부각된다는 점에서 술의 技能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안빙몽유록」에서는 안빙이 꽃나라의 잔치에 참석했을 때 妓女가 부른 노래 속에 술이 등장한다. 가사 속에는 세월이 가는 것을 꽃에 비유하면서 현재를 즐겨보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술에 취한 것을 행복한 순간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러한 풍정의 양상은 「최생우진기」에서도 이어진다. 맛있는 음식에 술이 있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더 없이 아름다운 자리임을 읊은 것이다.

깃털옷을 입은 기생이 접련화를 불렀다. 그 가사에

바쁨 속에 번뇌하는  
세간을 다 보아도  
있도 지고 꽃도 지고  
꽃다운 나이 늙음 막지 못하네  
오늘 어찌 알라  
내일이 좋을지를  
이몸은 이제  
술이나 실컷 마시리<sup>37)</sup>

쟁반엔 천제의 진미요  
자리엔 요지 술잔이라  
심오한 이야기, 옥을 흠뿌리듯  
하늘 꽃 향기를 흠날리듯 하네<sup>38)</sup>

최생이 지은 龍宮會眞詩 30편은 용궁의 아름다움과 용왕을 만난 기쁨, 잔치의 즐거움 등을 묘사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정경에 술을 등장시킴으로써 詩를 더욱 멋지게 지을 수 있었다.

「운영전」에서는 유영이 술에 취해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기 전 수성궁의 서쪽 동산으로

37) 「安憑夢遊錄」 羽衣妓唱蝶戀花，其詞曰 草綠南園春又謝，夢裏風光，爾豈非吾化，一會華筵天所借，更尋何處紛紛過，看盡世間忙裏惱，綠碎紅殘，不禁年芳老，今日那知，明日好，有身莫惜樽前倒。

38) 「崔生遇眞記」 盤羅帝厨珍，座飛瑤地觴，玄談或霏玉，天葩時散香。

들어가 바위에서 앉았을 때 그곳의 멋스러운 분위기에 빠져 蘇東坡의 시를 읊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다. 술은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유영이 두 사람을 만나는 곳의 아름다움을 술로 부각시킨 것이다.

유생은 홀로 바위 위에 앉아 소동파의 ‘내가 조원각에 오르니 봄은 반쯤 지났는데, 땅 가득히 떨어진 꽃 쓸어버릴 사람조차 없네.’라는 시구를 읊조렸다. 곧이어 허리춤에 차고 왔던 술병을 끌러 다 마시고, 술에 취해서 돌에 머리를 기대던 채 바위의 가장 자리에 누웠다.<sup>39)</sup>

유영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깨어나 운영과 김진사를 만난 것처럼 「周生傳」의 주생은 나생을 만나러 갔다가 술에 취해 배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주생이 잠든 사이에 배가 저절로 움직여 錢塘에 가 있었는데, 새벽녘의 경치가 가히 幻想的이었다. 이에 주생이 자신이 술에 취해 전당으로 온 것을 읊은 시에 풍정이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취한 기분을 담아냈기에 韻致를 더해주고 있다.

악양성 밖에서 목란 샷대에 기대었더니,  
바람 따라 하룻밤 사이 취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네.  
두견새 지저귀고 봄 달이 이운 새벽녘인데,  
놀랍게도 몸은 이미 전당에 와 있네.<sup>40)</sup>

이와 같이 술은 아름다운 주변 경치를 읊거나 즐거운 자리에서 所懷를 담아내는 삽입시에 등장하여 풍정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위에서 살펴 본 술의 네 가지 양상이 작품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간략하게 도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8편의 고소설에 수용된 술의 양상-

작품 / 양상	興趣와 情恨	傳奇性	事件의 端初	風情의 代辯
安憑夢遊錄	○(흥)	○		○
崔生遇眞記		○		○
雲英傳	○(정)	○	○	○
想思洞記	○(흥)		○	
周生傳	○(흥+정)		○	○
韋敬天傳	○(흥+정)		○	
崔陟傳	○(흥+정)			
九雲夢	○(흥+정)		○	

### 3. 술의 意味

8편의 愛情傳奇小說을 살펴보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否定的인 시각은 존재하지 않

39) 「雲英傳」 生獨坐岩上，乃咏東坡，‘我上朝元春半老，滿地落花無人掃’之句，輒解所佩酒，盡飲之，醉臥岩邊，以石支頭。

40) 「周生傳」 岳陽城外倚蘭漿，一夜風吹入醉鄉。杜宇數聲春月曉，忽驚身已在錢塘。

는다. 또한 술에 취해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동도 나타나 있지 않다. 즉 술을 마시는 것에 상당히 好意的이고 관대하다. 마치 사람과 사람사이의 만남에서 술이 없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는 점에서 술에는 단순히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숨겨져 있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점은 작가들의 桎梏으로 점철된 삶과도 무관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 「운영전」과 「상사동기를 제외한 네 명의 작가들이 살았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土禍와, 戰亂, 暴君의 시대라는 매우 중대한 시련을 경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이들 애정전기소설의 작가들이 걸었을 고단하고 불안한 삶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음식이 술이었기 때문에 술에 대한 호의적인 시각이 작품에 반영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8편의 애정전기소설에 수용된 술의 양상에 담긴 의미를 유추해 보면 첫째, 平等과 和合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분제 사회였지만 술은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으며 남녀가 모두 마신다는 점에서 平等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승의 사람과 저승의 사람이 함께 마신다는 점에서 時空을 초월한 平等사상이 술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나이가 적은 사람도 술을 마심에는 차별이 없으며,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格式이 달랐던 것도 아니다. 다만 마시는 술의 종류에 따라 가치에 차이가 있거나 모임의 중요성 등이 암시되고 있을 뿐 男女老少와 身分에 따른 제한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술의 특징과도 연관성이 깊은데, 품질에 따른 차이를 떠나 술은 취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平等은 서로 情을 나누고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和合으로 이어진다. 청춘남녀나 부부, 벗이 만났을 때는 물론이고 중요한 연회의 자리에서도 술은 모든 사람을 화합으로 이끄는 유일한 음식이다. 만남에서는 언제나 술을 권하고 함께 마시면서 마음을 나눈다. 즉 술을 통해 서로 共感하는 가운데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음주에는 疏通과 治癒의 의미가 담겨 있다. 술을 마심으로 인해 적막한 분위기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정든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서글픈 과거를 회상할 때도 술에 의지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주생은 전당에서 우연히 배도를 만났을 때와 선화를 만났을 때 술을 마심으로 인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위생은 소년자와의 아쉬운 이별을 술로 달래고 떠났으며 운영과 김진사는 술을 마시면서 지난날의 슬픈 추억을 떠올릴 수 있었다. 이렇듯 술은 오랜만에 만나거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통하게 하고 이별의 슬픔을 잠시나마 치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술 외에 이별을 대신할 그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셋째, 음주에는 幻想性を 통한 親密과 辨別에 대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飲酒 후에 벌어지는 결과는 다분히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술을 마심으로 인해 남녀의 만남이 억지스럽지 않고 한결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있다. 이는 술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환상적인 만남임에 틀림없다. 술기운을 빌어 상대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시키기도 하고 정을 나눈 후 술을 마심으로 인해 여인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도 이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세상의 것이 아닌 초월계를 드러내는 환상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술만한 것도 없을 것이다. 술을 통한 說明과 暗示는 초월계에 대한 환상성을 인식하게 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넷째, 술은 아름다움을 표출시키는 소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술은 마시는 자리는 지

극히 유쾌하고 즐거운 경우가 많고 자연의 風光을 노래할 때도 술이 개입되면서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다. 즉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보이는 세상은 평상시보다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에 술을 통해 心的으로 전달되는 美의 尺度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8편의 애정전기소설에 등장하는 음주행위는 단순히 마시고 취한다는 차원을 넘어 情을 바탕으로 한 평등과 화합, 소통과 치유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술은 그 자체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통한 친밀감과 변별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소재이며, 삶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表出시키는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 4. 맺음말

이상으로 16~17세기에 창작된 8편의 愛情傳奇小說에 수용된 술의 樣相과 意味를 살펴 보았다. 술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으로 그 동안 다양한 장르의 문학에 수용되어 문학적 소재로 활용되어 왔는데, 8편의 애정전기소설을 대상으로 술의 수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대략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술이 興趣와 情恨의 象徵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만남에는 의례적으로 술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술은 흥취를 자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별의 슬픔을 달랠 경우에도 술이 등장하는데, 이는 술 외에 그 무엇도 진심을 담아 전할 수 없다는 認識이 깔려 있다. 8편의 애정전기소설 중에서 술을 통한 흥취의 정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작품은 「九雲夢」이며 情恨의 정서가 지배적인 작품은 「韋敬天傳」인데, 흥취와 정한은 작품의 結末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음으로 傳奇性을 具現하고 있다. 술은 이승과 저승, 超越界에 존재하는 유일한 음식이라는 점에서 神異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술의 효능과 명칭, 향기 등 술과 관련된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술을 통해 서로 다른 세계의 경계를 明確하게 드러내 傳奇를 실현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술은 17세기의 작품에 수용되면서 사건의 端初로 작용하고 있다. 17세기 소설의 흐름이 實存했던 역사적 사실을 수용하는 傾向을 보이면서 전기적인 특징 대신 우연성에 바탕을 둔 사건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風情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풍정은 대부분 시와 노래, 설명을 통해 나타나는데, 아름다운 경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心情을 담아 낼 때 술이 개입됨으로 인해 더 멋스럽게 비춰지고 있다.

이와 같이 애정전기소설에 수용된 술의 네 가지 양상을 작품별로 대별해 보면 興趣는 「최생우진기」와 「운영전」을 제외한 여섯 편에, 情恨은 「안빙몽유록」과 「최생우진기」, 「상사동기」를 제외한 작품에 수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傳奇性은 「안빙몽유록」과 「최생우진기」, 「운영전」에 나타나 있으며, 事件의 端初는 「안빙몽유록」과 「최생우진기」, 「최척전」을 제외한 작품에서 확인된다. 아울러 風情의 代辯은 「안빙몽유록」과 「최생우진기」, 「운영전」, 「주생전」에 수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8편의 작품에 수용된 술의 양상에 내포되어 있는 意味를 파악해 보면 平等과 和合, 疏通과 治癒, 幻想性을 통한 親密과 辨別, 美的 表出 소재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즉 술은 단순히 마신다는 차원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規定하고 神異함을 드

러내며, 美의 尺度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終>



## 〈醉遊浮碧亭記〉와 〈南炎浮洲志〉의 比較 考察

유상숙(중앙대학교)

당일 배포합니다.



第32次 中央語文學會 全國 學術大會

## 현대문학

패러디를 통한 추리소설의 영역 확대 - 김재희와 윤해환의 작품을  
중심으로  
오혜진(남서울대)

손창섭의 신문연재 소설에 나타난 남녀관계와 결혼 서사  
- <세월이 가면>과 <결혼의 의미>를 중심으로 -  
강유진(중앙대)

서울, 가난과 상경의 서사 - 박완서와 조선작을 중심으로 -  
용석원(건국대)

최인호 소설의 경계적 인물 연구  
김지혜(가천대)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저학년을 위한 자기소개서 쓰기' 수업 방안  
고찰  
한승우(중앙대)



## 패러디를 통한 추리소설의 영역 확대

- 김재희와 윤해환의 작품을 중심으로 -  
오혜진(남서울대학교)

### 1. 추리소설과 패러디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변하게 한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로 명명되는 다양한 미디어와 관계망은 정치, 사회, 문화의 저변을 흔들고 있다. 디지털 세대로도 불리는 이들이 주도하는 블로그, 싸이질, 댓글, 펌, 아햏햏, 뽀샵질, 유시시, 온라인 카페와 클럽, 인증샷 등은 새로운 놀이의 소재들이자 문화정치의 공작소<sup>1)</sup>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정치나 사회적 이슈 역시 문화이자 놀이인 것이다. 그 놀이 중 하나가 바로 패러디(parody)이다. 그들의 패러디는 선거와 같은 정치 영역부터 포스터, 영화, 드라마, 웹툰, 노래 등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패러디는 그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미디어인 셈이다. 패러디란 예술의 영역, 즉 문학, 회화, 음악 등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그 범위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세대의 표현도구이다.

문학에서 패러디에 관련된 논의들은 꽤 오랫동안 진지하게 연구되었다. 서구의 이론들도 패러디에 관한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연구들이 많고, 우리의 소설이나 시 속에 구현된 패러디를 연구한 논문들도 제법 있다. 그에 비해 장르소설, 그 중에도 우리나라 추리소설에 구현된 패러디나 연구는 거의 미개척 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추리소설이 서구나 일본의 추리소설에 비해 양이나 질적으로 부족하기도 하지만 추리소설에 관한 관심과 연구 자체가 1990년대 들어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야 본 궤도에 들어선 탓이기도 하다. 더구나 우리나라 근대 추리소설의 첫발을 디딘 1930년대 김내성 이후 방인근, 김성동 등 각 시대별로 특기할 만한 작가들이 한둘 나오기는 했지만 계보를 그럴 정도의 작품이나 관심 자체가 적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들어 대중문학에 대한 관심과 미시사 연구, 외국에서 일어난 추리서사<sup>2)</sup> 관련 영화나 드라마, 픽

1) 이광석, 「디지털 세대와 소셜 미디어 문화정치」, 『동향과 전망』84, 2012.2, 103쪽.

2) 추리서사란 추리소설이 가지는 장르적 관습에서 이완되어 그 법칙에 얽매이지 않은 채 자유롭게 추리소설적 요소를 차용 혹은 변형하여 사용한 서사(오혜진, 『1930년대 한국 추리소설 연구』, 어문학사, 2009, 177쪽)

션(faction)의 붐은 국내에도 서서히 추리서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의 등장을 가져온다. 본격적인 스릴러나 추리소설, 범죄 영화는 아니더라도 추리소설이 가질 법한 다양한 서사 기법을 활용한 추리서사들은 사실상 적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추리서사를 본격적으로 앞세운 드라마나 영화, 소설들이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속속 등장했고 대중들에 의해 소구되었다. 이 중 문학은 역사추리소설의 형태로 추리서사를 적극 도입한다. 팩션이 지닌 지식의 요소를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역사적인 실존 인물을 끌어들이 감춰진 역사 속 진실이나 비밀을 파헤치는 식의 구성은 2000년대 대중들의 욕망과 잘 맞아떨어졌다. 김탁환의 백탑파 시리즈나 오세영의 『원행』, 이정명의 『뿌리깊은 나무』, 『바람의 화원』 등은 영화나 드라마로도 만들어져 그 인기를 더했다. 이들 역사추리소설은 정약용이나 세종, 정조와 같은 현재로 불러오고 싶은 인물들을 주인공이자 탐정으로 삼아 찬란했던 우리 문화와 역사, 시대에 대한 재현과 현재 이루지 못한 정치적 희구를 재현했다. 여기에 허구적 요소를 보다 풍부하게 살린 정은결의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 『규장각 각신들의 나날』, 『해를 품은 달』 등은 드라마와 결합되어 추리서사가 지닌 콘텐츠의 힘을 과시했다.

이러한 흐름들은 양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르소설 자체가 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추리소설만을 쓰는 작가들도 그리 많지 않을뿐더러 작품성 면에서도 서구나 일본의 추리소설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의외로 많은 작가들이 추리서사를 활용하여 소설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1930년대 염상섭, 김동인부터 이청준, 이문열에 이어 최근 김연수, 김영하, 김려령, 김중혁 외 많은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추리서사를 활용한 소설들은 그 수가 적지 않다. 이정명이나 김탁환과 같은 작가들 역시 역사적 사실을 가미한 팩션으로의 역사추리소설을 선보였지 본격적인 추리소설을 시도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추리서사를 지닌 소설에 대한 연구들이 진척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추리소설이라는 서구식 미스터리(Mystery) 추리물은 많지 않지만 추리서사를 활용한 소설들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그 양이나 질이 풍부하다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한다.

거기에 더해 최근에는 패러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추리소설이 선보여 우리 추리소설의 상상력이 점점 넓어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 연구에서 다룬 김재희의 『경성탐정이상』(시공사, 2012)과 윤해환의 『홈즈가 보낸 편지』(노블마인, 2012)는 그 상상력의 일환이다. 이 소설들의 배경이 1930년대라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는 우리나라 추리소설이 첫발을 디뎠던 시대이기도 하고, 두 소설에 패러디로 삼고 있는 대상이 이상이나 박태원, 또 김내성이기 때문이다. 패러디란 기법이나 내용의 성공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독자가 패러디하고 있는 원텍스트나 대상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패러디의 독자는 종전의 단순한 관찰자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일종의 공동작가로서 작품의 창작과정에 참여하게 된”<sup>3)</sup>다는 의견처럼 독자의 역할은 패러디 텍스트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곧 우리 추리소설이 패러디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정도로 문학적 기반이 다져졌다는 의미이고, 1930년대라는 시기에 대한 제반 연구들과 독서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는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최근 독자들의 패러디에 익숙한 문화적 환경 등도 이러한 텍스트의 출현과 무관하

에 해당된다는 의견에 동의, 일반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 사용된 것들을 주로 지칭한다.  
3) 정끝별, 『패러디 시학』, 문학세계사, 1997, 72쪽.

지 않으리라 여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러디를 적극 활용한 김재희와 윤해환의 작품을 통해 우리 추리소설의 영역 확대와 가능성 및 한계까지 짚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히 밝혀지겠지만, 패러디한 내용이나 형식이 여전히 르블랑(Le Blanc)과 코난 도일(Conan Doyle)의 작품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1930년대 우리나라 장편추리소설의 신기원을 보여주었던 김내성의 『마인』이나 그 외 작품들 역시 두 작가에게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 심지어 김내성이 만들어낸 탐정인 유불란(劉不亂)은 르블랑을 패러디한 이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김내성의 작품을 패러디한 윤해환의 작품이나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와 왓슨 박사의 관계 및 전형적인 미스터리 추리소설의 형식을 패러디한 김재희의 작품은 중층의 패러디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렇게 몇 겹의 패러디화를 보이고 있는 두 작품에 대한 분석은 1930년대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외국 추리소설에 대한 패러디의 긴 맥락을 짚는 것 뿐 아니라 여전히 그러한 작가와 작품이 패러디되는 이유까지를 파헤치는 작업이 되리라 여긴다. 이는 우리 추리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타진과 더불어 한계를 살펴보는 데도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더불어 최근 대중문화에 넓고 깊게 퍼져 있는 추리서사와 패러디가 과연 소설 속에 잘 녹아들었는가를 살펴보는 동시대와의 연관성도 연동해 논할 부분이다. 김재희와 윤해환의 작품을 분석하는 것은 이처럼 단지 추리소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구현된 여러 가지 문학과 문화의 맥락을 함께 추적한다는 점이 이 연구가 다른 연구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라 생각한다. 2장에는 우선 패러디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 및 방향성 설정과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3, 4장은 김재희와 윤해환의 작품을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려 한다.

## 2. 패러디 이론과 연구사 검토

패러디란 아주 큰 범주로 접근하자면 원텍스트가 있는 상태에서 그 내용에 대해 의도적인 풍자, 조롱, 왜곡 혹은 변형 등을 통해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려는 모든 행위 전반을 가리킨다. 패러디는 ‘대응노래(counter-song)’를 뜻하는 희랍어 명사인 ‘paradia’가 그 어원이다. 많은 이론가들이 접두사인 ‘para’의 의미 중 ‘대응하는(counter)/맞서는(against)’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 몇몇 눈에 띄는 이론가들은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바흐친의 경우 패러디를 ‘모든 반복과 답습’으로 보고 있다. 반복(repetition)이란 선례와 선행을 뒤따르는 행위이다. 따라서 반복이라는 행위는 모델을 가지기 마련이며 반복의 대상에는 당연히 선행하는 문체, 문학적 규범, 목소리, 기법, 제재, 관습(convention), 인물과 명명법 등이 포함된다.<sup>4)</sup> 그렇다면 바흐친에게 패러디는 특정한 문학 행위라기보다 대부분의 문학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영향관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다. 린다 허천은 패러디의 의미를 조롱하거나 우습게 만들려는 의도를 지닌 것 뿐 아니라 일치와 친밀성에도 눈을 돌려 조롱의 개념을 포함할 필요가 없는 “아이러니한 ‘초맥락성(trans-contextualization)’과 전도(顛倒, inversion)에 있어서 차이를 가진 반복”<sup>5)</sup>으로 확대한다. 패러디는 때로는 존

4) 한용환,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1999, 472쪽.

5) Linda Hutcheon, 김상구·윤여복 역, 『패러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8, 57쪽.

경험에 찬 태도로 재맥락화(recontextualize)하고, 통합하고, 관행을 재구성하려 한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따라서 같은 맥락이다. 린다 허천의 논의는 러시아 형식주의자의 아이러니(irony)와 낯설게 하기 등의 이론들과 바흐친의 다성성, 대화성과 연관된 패러디 이론<sup>6)</sup>,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등에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패러디가 문학 양식의 하나임을 인정했고, 그것이 부정적인 형식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하나의 문학 형식임을 여러 모로 입증하였다. 본 연구 역시 패러디가 가진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되 부정적인 부분 역시 놓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패러디가 가진 동일성과 차이의 관계 속에서 양자는 연속성과 단절성, 반복과 이탈, 답습과 위반, 추수와 전복, 모방과 창조, 부정과 긍정, 경멸과 경의 등의 다양한 의미를 함축<sup>7)</sup>하고 있다는 의견처럼 두 소설에 구현된 패러디 양식을 다성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물론 우리소설에 구사된 패러디의 특징 역시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이론을 적용하려 한다. 현재 인터넷을 중심으로 널리 확산된 패러디와의 연관성도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숙고할 내용이다.

우리 문학에서 보여준 패러디 양상은 의외로 넓다. 많은 작가들이 패러디를 시도했고, 이에 관한 연구들도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이다. 특히 1990년대 들어 포스트모더니즘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패러디 소설이 문단의 화두로 떠올랐고, 관심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패러디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의 첫출발은 주로 고소설과 현대소설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 많다. 김현실과 다른 연구자들이 참여한 『한국 패러디 소설 연구』는 고전의 이야기들이 현대문학에 어떻게 수용되고 변환되었으며 어떠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는가를 살핀다.<sup>8)</sup> 처용이나 흥부·놀부 이야기, 「허생전」, 「춘향전」과 같은 민담, 전설, 고소설 등이 채만식이나 최인훈 등에 의해 어떻게 거둬나고 있는가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장양수는 고소설을 패러디한 소설 외에도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을 패러디한 전진우의 「서울 1964년 겨울」과 같이 현대소설에 나타난 패러디 양상을 전반적으로 훑고 있어 의미가 깊다.<sup>9)</sup> 패러디 소설이 지닌 서사구조나 인물구성, 초점화와 서술 양상 등을 치밀하게 파고 든 이미란<sup>10)</sup>의 연구와 주제별로 패러디 양상을 살펴본 송경빈<sup>11)</sup>의 작업들은 패러디 연구가 점점 세부적이고 보다 전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연구들이라 하겠다. 패러디의 이론과 개념에 대한 이론적 천착을 중심으로 현대시사에 전반적으로 드러난 패러디 양상을 살피고 있는 정끝별<sup>12)</sup>의 논의는 비록 다른 장르이지만 패러디에 관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패러디 관련 연구들은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삼아 새롭게 나오고 있는

6) 바흐친은 패러디는 패러디되는 언어를 하나의 진정한 총체로 재창조해야 하며 하며, 그것이 자기 자신의 내적 논리를 가진 언어로서, 자신과 밀접하게 연관된 교유의 세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설에서 혼성과 대화, 다성성을 주장한 바흐친에게 패러디란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양식이었던 셈이다.(Mikhail.M.Bakhtin, 전승희, 서경희, 박유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87쪽.)

7) 이승준, 「한국 패러디 소설의 새로운 가능성 - 이순원의 「말을 찾아서」와 김영하의 『아랑은 왜』를 중심으로」, 『국제어문』40, 2007. 8, 77쪽.

8) 김현실 외, 『한국 패러디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6.

9) 장양수, 『한국 패러디소설 연구』, 이회문화사, 1997.

10) 이미란, 『한국 현대소설과 패러디』, 국학자료원, 1999.

11) 송경빈, 『패러디와 현대소설의 세계』, 국학자료원, 1999.

12) 정끝별, 『패러디시학』, 앞의 책.

근래 작들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다. 오태호와 이승준은 김영하의 『아랑은 왜』 외에 각기 다른 작품을 다루고 있다. 오태호는 김영하의 소설을 현재적 전용과 재해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고, 황석영의 『심청』을 21세기 담론을 향한 새로운 전용으로 해석하며 패러디 소설이 하나의 장르적 개념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현재적 문제의식이 보다 첨예하게 원작을 향해 놓여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sup>13)</sup> 김영하의 작품을 삼중 혹은 사중의 패러디로 보는 등 패러디의 문학적 효과를 다양한 층위에서 본다면 충분히 창조적인 양식이라 주장하는 이승준의 논의도 있다.<sup>14)</sup>

이렇게 간헐적으로 전개된 패러디 소설 연구들은 고소설과의 관계에 많은 부분 치중해 있고, 작가 역시 최인훈이나 황석영, 김영하 등에 치우쳐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논의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이제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추리소설 속에 나타난 패러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패러디 관련 선행 연구들이 ‘패러디’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기에 이 연구에는 선행연구로 추리소설 관련 내용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겨, 아래에 따로 정리해보았다. 장르적 속성을 이해하고 흐름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로 대중문학이나 추리소설에 대한 관심은 상당하다. 1930년대 추리소설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이제 그 양이 축적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5)</sup> 특히 정혜영, 최애순, 오혜진의 작업들은 근대 추리소설에 관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 추리소설에 관한 서구의 분석틀이 아닌 우리 문단이 지닌 한계점과 문화, 사회적인 정황 등을 고려해 1930년대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연구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여기에 1950년대 이후의 추리소설과 김내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sup>16)</sup> 1970년대는 김성종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그 수 역시 작품이나 작가 수가 적다보니 아직까지는 많은 논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실정이다.<sup>17)</sup> 최근의 역사추리소설에 관해서는 계속 생산되는 소설들이라 보니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거나 개별 작품에 집중하는 연구들이 대다수다.<sup>18)</sup> 그 외 장르소설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일부 문예

13) 오태호, 「한국 패러디 소설의 현재성 고찰 : 고전 담론의 현재적 전용 - 김영하의 <<아랑은 왜>>, 황석영의 <<심청>>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27, 2005.6.

14) 이승준, 「한국 패러디 소설의 새로운 가능성 - 이순원의 「말을 찾아서」와 김영하의 『아랑은 왜』를 중심으로」, 앞의 논문.

15) 김영성, 「한국 현대소설의 추리소설적 서사구조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 논문, 2003. 오혜진, 「1930년대 한국 추리소설 연구」, 2008. 중앙대 박사 논문. 정혜영, 「김내성과 탐정문학 - 일제시대 창작 작품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006. 12/ 「제국과 식민지, 그리고 탐정문학」, 『한국현대문학』제30집, 2010.4/ 「식민지 조선과 「탐정소설」이라는 환상」, 『한국현대문학연구』제33집, 2011.4. 최애순, 「이론과 창작의 조응, 탐정소설과 김내성의 갈등」, 『대중서사연구』, 2009.6/ 「식민지시기부터 1950년대까지 모리스 르블랑 번역의 역사」, 『국어국문학』제156집, 2010.12. 박유희, 「한국 추리서사에 나타난 「탐정」 표상」, 『한민족문화연구』제31집, 2009.11.

16) 이정옥, 「1950~60년대 추리소설의 구조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제15집, 2001. 강옥희, 「딱지본 대중소설의 형성과 전개」, 『대중서사연구』, 2006. 오혜진, 「1950~90년대까지 추리소설이 전개양상」, 『어문논집』, 2010.8/ 「김내성의 해방 후 작품에 관한 서지학적 정리 및 작가 생애 고찰」, 『어문논집』, 2011.7.

17) 송명희, 「김성종의 추리소설과 섹슈얼리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16집, 2002.9/ 「김성종의 초기소설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37집, 2007.12.

18) 박진, 「역사추리소설의 장르적 성격과 한국적인 특수성」, 『현대소설연구』, 2007.12. 정준희, 「고전 재창조 경향과 픽션 드라마 유형」, 『해외방송정보』제 712호, 2007. 오혜진, 「계몽과 낭만의 소통, 역사추리소설로 거듭나다」, 『어문논집』제40집, 2009/ 「역사 추리 콘텐츠, 활자를 거쳐 영상으로 꽃피우다」, 『한민족문화연구』, 2010.5. 강현구, 「픽션과 서간체 소설의 만남」, 『대중서사연구』제24호, 2010.12. 김영성, 「서간체 픽션과 열린 추리물의 세계 - 김다은의 『훈민정음의 비밀』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제35집, 2011/ 「역사적 공백을 서사화하는 소설의 방식- 세종 시대를 배경으로 한 픽션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제 88집, 2012.

지나 몇몇 평론가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패러디와 추리소설이라는 두 가지 층위에서 김재희와 윤해환의 소설을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다.

### 3. 경성의 흠즈 이상(李箱)으로 구현된 현대의 욕망 - 김재희의 『경성탐정이상』

김재희와 윤해환의 소설은 패러디를 적극 도입하는 한편으로 기존의 역사추리소설에 많은 부분 빚지고 있다. 3장에는 김재희의 『경성탐정이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소설은 제목부터 추리소설임을 표방한다. 경성의 탐정, 그런데 그 탐정은 1930년대의 천재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상이다. 이상의 작품과 삶은 그 전에도 여러 작품과 영화에 등장한다.<sup>19)</sup> 이는 그의 기이한 행적과 미심쩍은 죽음 및 난해한 작품이 주는 특별함에 기인한다. 이상은 김재희에 의해 탐정으로 호출되기에 이른다. 암호와 같은 그의 시와 총독부 건축부 기사였던 이력은 이 소설에 아주 주효하게 작용한다. 시인이자 건축가, 즉 문학과 과학의 결합체로 근대적 탐정의 맞춤형 섀미이다.

“교수님께서 기다리는 친구 분은 흑여 물건을 찾아달라는 용건이 있으신 분 아십니까?”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제 직업과 찾아온 이유를 어떻게 대변에 알아맞히셨습니까?”

“손가락 사이에 묻은 분필과 소매부리가 낡은 모양새를 보니 분명 교직에 계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친 흑판에 소매가 닳았겠지요. 그것도 소학교나 고보가 아닌 대학교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중략)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니 분명 사람이나 물건을 찾고 계신 듯합니다. 허나 무언가를 찾을 때의 절실함이나 괴로움이 엿보이지는 않으니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신 분은 아닌 듯 보입니다. 더구나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보니 무언가를 잃어버린 분은 그분이 실 확률이 높고요. 또한 그분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함부로 나설 수가 없는, 사회적 위치가 있으신 분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후진 다방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신 거고요.”(205~ 206쪽)

위의 인용문은 3화 ‘간송 전형필의 의뢰’의 첫부분이다. 사건을 의뢰하러 온 고유섭에게 이상은 탐정으로서의 능력을 과시한다. 이상은 전형적인 미스터리(Mystery) 추리소설의 조선식 흠즈로 패러디된다. 단짝 문우 박태원은 왓슨과 같이 이 소설의 서술자이자 보조자로 패러디된다. 이상의 맞수인 류자작 역시 흠즈의 적이었던 모라리티 백작을 연상시킨다. 소설은 ‘사건의 의뢰 혹은 발생(주로 살인사건)- 탐정의 수색, 추리, 증거 수집 등 탐색의 과정 - 진실의 공표’라는 미스터리 추리소설의 구성을 잘 따르고 있다. 이상의 사건 해결 역시 흠즈식 추리가 많은 부분 패러디된다. 앞선 인용문은 흠즈의 놀라운 가추법을 고스란히 재현한다.<sup>20)</sup> 인용한 삼화는 가추법에 이어 한글을 이용한 암호 해독과 조선

19) 김연수의 『꾸뻏이, 이상』(문학동네, 2001)이 소설로는 대표적이다. 영화로는 <금홍아, 금홍아>(김유진 감독, 1995)이나 <건축무한옥면각체의 비밀>(유상욱 감독, 1999) 등이 있다.

20) 퍼어스(Pierce, C.S)에 의해 주창된 가추법은 “하나의 주어진 현상을 규정짓는 조건들에 관해 추측해 보는 것이 조만간에 현상 그 자체를 드러내리라는 우리들의 희망에 근거”한다. 귀납법이나 연역법에 비해 가추법은 확실성은 떨어지지만 반대로 새로운 것을 스스로 발견해 낼 수 있는 장점은 증가한다. 가추법은 다음과 같다.

규칙 : 타자를 많이 치면 소매가 반들반들해진다. 결과 : 그 여자의 소매가 반들반들해졌다.

∴ 사례 : 그 여자는 타자를 많이 쳤다. (Umberto Eco & Thomas A. Sebeok, 김주환, 한은경 역, 『역자서

시대 화가 최복이 그린 것으로 설정된 문제의 그림 「미인도」에 대한 해박한 지식까지 끌어내며 인포테인먼트적인 요소까지 놓치지 않는다.

“이 분은 예전에 손을 사용하는 일에 종사한 적이 있었고, 코담배를 좋아하지. 그리고 프리메이슨 회원이야. 중국에 다녀 온 적도 있고,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글을 쓴 듯하네.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깜짝 놀란 월슨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검지로 신문을 누른 채 흠즈를 바라보았다.  
 “흠즈 씨!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손을 사용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저는 처음 배를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었습니다.”  
 “손을 보고 알았어요. 오른손이 왼손보다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왼손보다 오른손에 근육이 더 생긴 거죠.”  
 “그렇군요. 그럼 코담배는? 그리고 프리메이슨 회원인 건 또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면 당신에게 폐가 될 테니 생략하도록 하지요. 게다가 당신은 프리메이슨의 엄격한 규칙을 깨고 원호와 컴퍼스로 만든 부장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으니까요.”<sup>21)</sup>

코난 도일의 대표작 「빨강 머리 연맹」의 한 부분이다. 앞서 이상의 가추법은 흠즈의 전형적인 방식을 패러디했음이 쉽게 확인된다. 물론 이러한 가추법이 꼭 코난 도일만의 방식이라 보기는 어렵다. 추리소설의 창시자인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부터 적극적으로 활용된 가추법은 이후 많은 추리소설에 사용된다. 재미있게도 의뢰인이 탐정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가추법과 추리가 대부분 매우 큰 빛을 발한다. 독자나 범인보다 지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앞선다는 것을 선보임으로써 우리의 주인공인 탐정이 충분히 사건을 해결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예고한다. 코난 도일의 경우 흠즈를 통해 이를 더욱 정착화시켰고, 김재희 또한 그것을 적극 활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패러디라기보다는 추리소설의 전형적인 사건 의뢰의 한 장면에서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고유섭과 이상의 대화를 보며 대부분의 독자가 코난 도일의 작품을 떠올린다면 “낯선 것(혁신적인 것)과 익숙한 것(관습적인 것 또는 전통적인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sup>22)</sup>하는 패러디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런던 베이커 거리 221B의 하숙집에 흠즈가 기거하듯이 이상은 자신과 금홍이 경영하는 다방 ‘제비’에서 의뢰인들을 마주한다. 독자는 탐정과 의뢰인 사이가 주는 익숙함과 1930년대 조선, 그것도 이상이라는 천재 시인이 주는 묘한 낯섬 사이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새로운 텍스트의 의미를 찾아낸다.

그러나 해독자와 텍스트 간의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제한한다는 데 덧붙여, 패러디는 추정된 기호부여자(encoder)의 의도와 기호학적 능력을 가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나의 패러디에 관한 이론은 해독자와 텍스트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상호텍스트적이지만,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의 맥락은 보다 광범위하다.<sup>23)</sup>

린다 허천의 주장과 같이 해독자, 즉 독자는 패러디 텍스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상호텍스트성에 있어서도 보다 차별화된 개념을 획득하는데 기여한다. 상호텍스트성은 일반 작품들 간에도 이루어지지만 패러디의 경우 이 상호적인 영향 관계는 더욱 뚜렷해진다. 「경성탐정이상」은 7화 모두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식민지 시절이라는 시대

문], 『논리와 추리의 기호학』, 인간사랑, 1994, 11쪽)

21) Conan Doyle, 박현석 역, 『빨강 머리 연맹』, 『흠즈단편베스트걸작선』17, 동해출판, 2006, 53~54쪽.

22) Patricia Waugh, 김상구 역, 『메타픽션』, 열음사, 1989, 27쪽.

23) Linda Hutcheon, 『패러디 이론』, 앞의 책, 63쪽.

적 배경 아래 조선인과 일본인의 갈등과 적대감이 작품 전체에 깔려 있고, 그 중심에 류자작이 서 있다. 류자작은 2화 ‘류 다마치 자작과 심령사진’부터 등장하는데 이후 몇 번의 등장과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되고 마지막 화인 ‘이상의 데드마스크’에서는 이상과 최후의 대결을 벌이는 인물이다. 홈즈의 숙적 모리어티 교수는 유럽 최고의 두뇌 혹은 한 세기를 풍미한 비상한 두뇌의 소유자로 홈즈로부터 지적으로 동등한 적수로 인정받기까지 한 존재이다. 범죄계의 나폴레옹인 모리어티 교수를 처단하기 위해 홈즈는 폭포에서 결투를 벌이지만 둘 다 사라진다. (「마지막 사건」) 류자작은 작품 전체에 걸쳐 이상과 대적하지만 보다 음험하고 신비스러운 인물로 그려진다. “황실과 연관돼 있고 막대한 재산을 지녔다는(중략) 깊게 들어간 눈 밑으로 음영이 진 얼굴에서는 약간 솟아오른 광대뼈가 유일하게 생동감이 있어 보이는”(122~123쪽) 류자작은 자신의 혈통을 이용해 무시무시한 음모를 꾸민다. 이상은 류자작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동경에 가게 된다. 이상의 저 유명한 동경행은 이제 민족을 위한 거사로 돌변한다. 박태원은 이상의 죽음에 수상함을 느껴 동경으로 건너가 그 행적을 추적한다. 의문만을 가득 안고 조선으로 돌아가던 구보 앞에 죽었다고 믿었던 이상이 등장한다. 구보는 이상에게 모든 사건의 결말을 듣게 된다.

자작이 막대한 자금과 자신이 조선과 일본의 양대 황실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증명할 문서를 지닌다면 그는 천하무적이 되네. 일본의 황실 대가 끊긴다면 그가 일본의 천황이 되고, 또한 무서운 집념으로 정권을 손안에 넣을지도 모른다네. 구보 난 자네에게 류 다마치 자작을 내 손으로 잡고 싶다는 암시를 주었네.(527쪽)

류자작을 저지하기 위한 이상의 행동은 단순한 탐정에서 영웅으로, 나아가 애국자로 거듭난다. 그러나 급작스레 나타난 류자작과 이상은 몸싸움 끝에 현해탄 검은 바다로 사라져버린다. 선행텍스트를 재편집, 재구성하여 전도시키고 초맥락화함에 발생하는 ‘차이와 반복’의 규명이 이제 독자들에게 넘어간다. 홈즈 대 모리어티 교수와 이상 대 류자작과의 관계는 유사성을 넘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로 확대되어, 이상이라는 실존인물을 통한, 현재 우리의 욕망이 만나 빚어지는 새로운 의미의 차이에 독자는 주목할 수밖에 없다. 최근의 역사추리소설이 찬란했던 과거를 재현하거나 현재적 욕망을 소급하는데 많은 작가들이 노력했듯이 탐정 이상의 영웅적 행위에 김재희 역시 공을 들인다. 범죄자에 대한 정의로운 단죄를 넘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류자작을 끈질기게 추적, 처단함으로써 당시에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통쾌한 복수와 전복의 기쁨을 독자에게 선사하다.

여기에 『경성탐정 이상』은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에 막 도시화가 시작된 경성의 근대적 풍경이 빚어내는 1930년대를 세심하게 재현한다. 당대 유행했던 ‘에로 그로 년센스’라든지 모보.모걸(모던 보이, 모던 걸의 줄임말)들의 생활상을 적절히 섞어, 그 당시 있을 법한, 혹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 이상이라는 전형적인 탐정 캐릭터가 주는 즐거움과 함께 1930년대에 대한 재치있는 상상과 이해를 더해준다. 또한 이상과 구보 외에도 실존했던 인물들의 등장으로 역사적인 사실들을 상기시킨다. 3화의 경우, 당시 우리 미술품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간송 전형필이 등장, 문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5화는 심지어 명성황후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펼쳐진다. 그 외에도 나비연구가였던 석주명 박사와 자전거의 명수였던 엄복동 등이 등장해 식민지 시절 우리네 생활상과 사회상이 사건들과 함께 휘돌아간다.

이처럼 김재희의 『경성탐정이상』은 역사추리소설로의 면모를 뚜렷이 각인시킨다. 그러면서도 탐정의 대명사인 홈즈와 왓슨 박사를 패러디한 경성의 탐정 이상을 현재로 호출한다. 이는 두가지 양면적인 해석을 불러온다. 하나는 김내성 이후로 지속되어 온 미스터리 소설에 대한 우리나라 독자들의 애착이다. 또 하나는 여전히 외국의 전형을 패러디 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추리소설의 한계이다. 김재희의 작품 이전에도 사실 한동진의 『경성탐정록』(2009, 학산문화사)에 의해 홈즈는 패러디되었다.<sup>24)</sup> 너무나도 잘 알려진 코난 도일의 작품을 패러디한다는 것은 기존 작품이 주는 친숙함에 기대기에 기본적인 작품의 장르적 속성이나 매력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는다라는 장점이 존재한다. 동시에 그러기에 원텍스트와의 비교 역시 감당해야 할 몫이다. 『경성탐정이상』은 코난 도일의 작품 속 인물과 적수와 의 대결 및 가추법과 다양한 추리 방법 등과 같은 형식적 특징을 상당 부분 패러디했지만, 그것은 공간과 시대의 변화에 맞춰 ‘차이’와 ‘단절’을 추구하였고, 원텍스트에 대한 풍자나 조롱보다는 그것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데 무게중심을 실었다. 그럼에도 원작이 지닌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와 패러디가 주는 유희와 전복적인 의미 역시 그다지 살리지는 못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패러디는 많은 부분 절묘할 정도의 신선한 반전을 꾀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작품 역시 이상을 홈즈와 같은 탐정으로 설정하였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신선한 발상임에도 비틀기나 전복적인 측면에는 뚜렷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김재희 작품은 여전히 제대로 풀리지 않은 일본과의 관계 및 식민지 시절이 줄 수밖에 없는 치욕스러움을 상당 부분 어루만져주고 있고, 모방과 창조를 적절히 버무려 새로운 영역을 보여주고 있음은 분명하다. 기존 우리 추리소설이 외국 추리소설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급급했다면 김재희의 작품은 아예 패러디라는 문학적 양식을 과감하게 이용하였다는 점 역시 놓쳐서는 안될 의미라 여긴다. 이어지는 4장은 김내성과 코난 도일의 작품 모두를 패러디하고 있는 윤해환의 작품을 살펴봄에 최근의 패러디 양상을 더 깊게 분석해 보려 한다.

#### 4. 김내성의 삶과 작품을 패러디 - 윤해환의 『홈즈가 보낸 편지』

『경성탐정이상』이 홈즈를 자꾸 떠오르게 하는 상상력의 산물이라면 윤해환의 『홈즈가 보낸 편지』는 또 다른 패러디와 모방을 선보인다. 이 소설의 탐정은 바로 김내성이다. 1930년대 일천했던 우리 문단에 추리소설이라는 비밀병기를 들고 나타난 그야말로 그 시대 유일하게 자타가 인정하던 추리소설가이지 않던가. 그는 이 소설에서 완벽한 탐정이기 보다는 어렸을 적 진실을 찾기 위해 추리소설가가 되고, 마침내 사건을 밝혀내며 진정한 탐정이 된다.

『홈즈가 보낸 편지』는 김내성의 고향인 평양 대동강변을 배경으로 시작된다. 1919년 3월 1일 만세사건에서 자신을 구해준 청년을 찾던 어린 내성은 자신을 홈즈의 조수였던 카

24) 1930년대를 배경으로 삼아 탐정 설홍주와 의사 왕도손이 사건을 해결하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전형적인 미스터리 소설로 내용까지도 코난 도일의 작품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거의 오마주에 가까운 패러디를 보여주고 있다.

트라이더라고 소개하는 외국 소년을 만난다. 김내성의 삶에 대한 패러디와 허구, 실제로 마구 뒤섞은 양상을 보이는 소설 속 첫 장면은 3.1운동 당시의 정황을 회고한 김내성의 수필 「3.1運動과 나의 少年時節(平壤 南門通의 追憶)」(『민성』, 1950.3)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에 코난 도일의 「바스커빌의 개」에 등장하는 소년인 카트라이더가 등장한다. 실존했던 김내성과 소설 속 인물이 이 소설 안에서 만나 이제까지 없었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소설은 이후 김내성 삶의 궤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에서 ‘널다리골 살인 사건’을 둘러싼 사건과 카트라이더와의 만남, 헤어짐, 해결이 전개된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김내성의 소설 또한 패러디되었다는 점이다. 김내성의 등단작인 「타원형의 거울」뿐만 아니라 『마인』등, 그의 대표작에 많은 부분이 패러디되었고, 몇몇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은 김내성 소설에 사용되었던 트릭과 기법들로 산재해있다.

이 소설 역시 『경성탐정이상』과 같이 실제 인물을 등장시키지만, 앞의 소설이 실제 인물에 가상의 사건들로 직조되었다면, 이 소설은 실제 인물과 작품을 버무려 상상력을 발휘했고, 내성이 가진 탐정으로서의 실패와 좌절, 혼돈은 완벽한 추리력을 발휘하는 이상보다 더 현실성을 획득한다. 또한 처음에는 카트가 홈즈와 같은 탐정 캐릭터처럼 보였지만 이후 내성이 탐정이 되어 사건을 이끌어가는 변화된 모습도 이채롭다. 또한 16년 전의 사건을 풀어내기 위해 고심하는 내성과 카트의 노력이나 우정, 추리소설가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내성의 고민, 일본인이지만 우정을 간직하며 많은 도움을 주는 슈니치로 등도 흥미롭게 배치되어 있다. 널다리골 살인사건이라는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사건 이외에도 슈니치로의 형 이치로의 사진관에서 일하던 도무라 실종사건과 여학생 유리코와의 관계 등을 밝혀낸다는가 서대문형무소에 갇혀있던 김근섭을 무사히 탈출시킨 사건 등의 작은 에피소드들이 삽입되어 중간 중간 추리와 탐색의 맛을 던져준다. 패러디가 가장 빛을 발한 지점은 널다리골 살인사건을 김내성의 「타원형의 거울」에 나왔던 그대로, 현상공모를 통해 범인을 찾아낸다는 점이다.

살인 해답 현상공모

십칠 년 전에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여적 밤이면 잠 못 드는 제씨(諸氏)를 위하여 실제로 일어났던 살인사건의 해답을 모집합니다.

모집 규정

문제

- \* 범인은 누구일꼬?
- \* 어째서 범인은 양장에 방갓을 쓰고 나갔다가 한복으로 갈아입고 교회로 돌아왔는가?
- \* 어째서 범인은 이렇듯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살인사건을 저질렀을까? 왜 이칠성을 죽여 방갓 안에 넣었을까? (287쪽)

현상공모에는 이렇듯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정황과 교회 지도 및 세탁실 전개도까지 집어넣어 문제를 낸다. 그리고 현상공모에 당첨된 편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다. 그 안에는 무서운 비밀이 도사리고 있다. 1935년 일본 잡지 『프로필』에 현상모집으로 당선된 김내성의 추리소설 「타원형의 거울」을 고스란히 패러디한 널다리골 살인사건의 해결 과정은 김내성 소설에 대한 존경어린 재맥락화이다. 「타원형의 거울」의 해결 과정은 치밀한 트릭과 “여러 대안들을 가늠해 보는 것은 개연성(probability)의 견지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능성(possibility)의 견지에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sup>25)</sup>까지 앞뒤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맞물려 있다. 윤해환은 김내성 작품이 가지고 있는 월등함에 기대면서도 한발 더 나아가 홈즈의 편지를 등장시켜 기존 텍스트에 대한 패러디의 기대치에서 한 발 벗어난다. 김내성 소설의 독자라면 가지고 있을 기대치를 넘어 보다 확장된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윤해환의 작품은 제목에서 홈즈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김내성의 소설을 적극적으로 패러디하면서 우리나라 추리소설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패러디되는 대상인 김내성과 작품이 추리소설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더불어 설사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새롭게 인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음에 분명하다. 따라서 이 소설은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추리소설가와 작품을 적극적으로 패러디했고, 또 그것을 패러디할 만큼 우리 추리소설이 성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증거이기도 하다.

## 5. 한계 및 가능성

### 참고문헌

#### <기초자료>

- 김내성, 『타원형의 거울』, 『추리문학』, 황종현 역, 1988. 겨울.  
 \_\_\_\_\_, 『3.1 운동과 나의 少年時節(平壤 南門通의 追憶)』, 『민성』, 1950.3.  
 김재희, 『경성탐정이상』, 시공사, 2012.  
 윤해환, 『홈즈가 보낸 편지』, 노블마인, 2012.  
 Conan Doyle, 박현석 역, 『홈즈단편베스트걸작선』17, 동해출판, 2006.

#### <논문 및 저서>

- 강현구, 「팩션과 서간체 소설의 만남」, 『대중서사연구』제24호, 2010.12.  
 김영성, 「한국 현대소설의 추리소설적 서사구조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 논문, 2003.  
 \_\_\_\_\_, 「서간체 팩션과 열린 추리물의 세계 - 김다은의 『훈민정음의 비밀』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제35집, 2011.  
 \_\_\_\_\_, 「역사적 공백을 서사화하는 소설의 방식- 세종 시대를 배경으로 한 팩션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제 88집, 2012.  
 김현실 외, 『한국 패러디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6.  
 박유희, 「한국 추리서사에 나타난 ‘탐정’표상」, 『한민족문화연구』, 한민족학회, 2009.11.  
 박진, 「역사추리소설의 장르적 성격과 한국적인 특수성」, 『현대소설연구』, 2007.12.  
 송경빈, 『패러디와 현대소설의 세계』, 국학자료원, 1999.  
 송명희, 「김성종의 추리소설과 섹슈얼리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02. 9.  
 \_\_\_\_\_, 「김성종의 초기소설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37집, 2007.

25) Marcello Truzzi, 「응용 사회심리학자 설록 홈즈」, 『논리와 추리의 기호학』, 앞의 책, 187쪽.(오혜진, 『1930년대 한국 추리소설 연구』, 2009, 267쪽 재인용)

- 오태호, 「한국 패러디 소설의 현재성 고찰 : 고전 담론의 현재적 전용 - 김영하의 <<아랑은 왜>>, 황석영의 <<심청>>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27, 2005.6.
- 오혜진, 『1930년대 한국 추리소설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 2008.
- \_\_\_\_\_, 「계몽과 낭만의 소통, 역사추리소설로 거듭나다」, 『중앙어문』제40집, 2009.
- \_\_\_\_\_, 「역사 추리 콘텐츠, 활자를 거쳐 영상으로 꽃피우다」, 『한민족문화연구』, 2010.5
- \_\_\_\_\_, 「김내성의 해방 후 작품에 관한 서지학적 정리 및 작가 생애 고찰」, 『어문논집』, 2011.7.
- \_\_\_\_\_, 『대중, 비속한 취미 '추리'에 빠지다』, 소명, 2013.
- 이미란, 『한국 현대소설과 패러디』, 국학자료원, 1999.
- 이승준, 「한국 패러디 소설의 새로운 가능성 - 이순원의 「말을 찾아서」와 김영하의 『아랑은 왜』를 중심으로」, 『국제어문』40, 2007. 8, 77쪽.
- 장양수, 『한국 패러디소설 연구』, 이회문화사, 1997.
- 정끝별, 『패러디시학』, 문학세계사, 1997.
- 정준희, 「고전 재창조 경향과 팩션 드라마 유행」, 『해외방송정보』제 712호, 2007.
- 정혜영, 「김내성과 탐정문학 - 일제시대 창작 작품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 현대문학연구』, 2006.12.
- \_\_\_\_\_, 「식민지 조선과 '탐정소설'이라는 환상」, 『한국현대문학연구』제33집, 2011.4.
- 최애순, 「이론과 창작의 조응, 탐정소설과 김내성의 갈등」, 『대중서사연구』, 2009.6.
- \_\_\_\_\_, 「식민지시기부터 1950년대까지 모리스 르블랑 번역의 역사」, 『국어국문학』제156집, 2010.12.
- 한용환,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1999, 472쪽.
- Mikhail.M.Bakhtin, 전승희, 서경희, 박유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87쪽.
- Linda Hutcheon, 김상구, 윤여복 공역, 『패러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5, 55쪽.
- Patrica Waugh, 김상구 역, 『메타픽션』, 열음사, 1989, 27쪽.

# 손창섭의 신문연재 소설에 나타난 남녀관계와 결혼서사

- 〈세월이 가면〉과 〈결혼의 의미〉를 중심으로 -  
강유진(중앙대학교)

## 1. 전후세대 작가 손창섭과 신문소설

한국 근현대사에서 1960년대는 오랜 일제 강점기에서의 해방과 연이어 발생한 한국전쟁 이후의 혼란에서 벗어나 외형적인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이다. 문학계에서도 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인간성의 성찰을 중심으로 하는 전후 문학의 범주에서 벗어나 현실 감각을 회복하고 민주화와 근대화에 대한 열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60년대의 시작과 함께 발생한 4·19와 5·16이라는 서로 상반된 성격의 역사적 사건은 이 시기 한국 사회에 내포된 자유에 대한 내적 열망과 현실적 조건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내포한다.

특히 4·19는 1960년대 문학의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좌표인데, 소설 분야에서 이른바 4·19세대 작가로 지칭되는 것은 김승옥, 이청준을 비롯한 한글세대의 작가들이다. 그런데 4·19세대, 혹은 한글세대로 지칭되는 60년대의 작가들의 활동 무대는 『사상계』를 대표로 하는 월간 종합지와 『창작과 비평』을 필두로 하는 문예지 등의 잡지 매체였다. 그러나 이들 잡지와 더불어 주요 일간지와 지역 신문에도 많은 작가들의 글이 발표되고 향유된 점은 60년대 이후 우리 문단의 흐름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잡지에 비해 대중 파급력이 컸던 신문의 지면은 주로 중견작가들의 연재 장편소설이 차지하였다. 따라서 60년대 문학연구에서 『사상계』와 『창작과 비평』을 중심으로 한 4·19세대 문학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지점은 바로 전후세대 작가들의 변모 과정과 양상이다. 시간이 분절되어 흐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60년대 문학은 50년대 전후문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러므로 60년대 문학의 성과를 보다 명확하고 정치(精緻)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60년대 중견작가들의 문학적 성과에 대한 관심과 연동될 필요가 있다.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후세대 작가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변모를 요청받게 된다. 이들이 전후소설에서 획득한 리얼리티는 전쟁 상황이라는 특수한 현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것은 반복될 수 없는 그 시대만의 독특한 리얼리티였기에 전후세대 작가들은 60년대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현실 감각을 요청받게 된다. 그 결과 전후세대 작가들의 노력은 현실 밑바닥의 일상이나 세태로 나아가거나 역사라는 유사 현실을 도입하는 방

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장편화의 경향과 함께 전후세대 작가들의 변모과정에 공통된 인식론적 기반이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sup>1)</sup> 이 시기 전후세대 작가들은 소설에 “이야기성을 도입함으로써 서사적 완결성을 마련함과 동시에, 역사와 세태라는 현실적 계기를 작품 속에 끌어들이므로써 간접적으로나마 현실과의 대면의식을 추구했던 것”이다.<sup>2)</sup>

이들의 변모 양상이 장편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된 현실적인 이유는 저널리즘 영역의 부흥에서 찾을 수 있다. 60년대는 한국전쟁 이후의 사회적 혼란이 정리되어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진 시기이다. 이에 맞춰 이 시기에는 한동안 중단되다시피 하였던 저널리즘 영역의 부흥이 이루어졌다. 60년대 이후 신문은 급격한 독자의 팽창을 통한 매체적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sup>3)</sup>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신문은 급격한 양적 팽창을 이루었는데, 발행부수의 증가는 신문 독자의 증가를 의미하고 동시에 독자의 성격이 과거와는 달라졌음을 뜻한다. 해방 이전의 신문 독자가 지식인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양적 팽창의 결과 60년대의 신문 독자는 과거의 독자에 비해 대중화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신문소설은 과거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작품에 깊이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대중매체로서의 신문의 위상 변화에 따라 지식인 독자를 대상으로 향유되어 왔던 기존의 소설과는 달리 이 시기부터의 신문소설은 대중문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60년대 신문소설을 단순한 통속소설, 혹은 대중소설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신문 독자들은 여전히 지식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0년대의 신문소설은 문학잡지에 발표된 작품들과는 구별되는 대중성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이때의 대중성이 단순한 통속성으로 치부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닌다. 요컨대 60년대 신문소설은 60년대 문학의 정치, 사회적 대중성의 반영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대상인 동시에, 60년대 문학의 한 부분을 담당하였던 중견작가들의 장편소설이 갖는 작가론적, 문학사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대상이다.

손창섭 역시 다른 전후세대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50년대 후반 무렵부터 형식면에서는 장편소설을, 내용면으로는 역사소설과 세태소설을 내놓게 된다. 독특한 점이 있다면 세태소설의 대부분이 주요 소재를 남녀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부부 테마 소설이라는 점이다.<sup>4)</sup>

1) 손정수, 「전후세대 작가들의 소설에 나타난 장편화 경향에 대한 고찰」,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17집, 2005.6. 489-491면.

2) 위의 글, 507면.

3)

신문 \ 부수	6·25 이전	1951~52년	1955년	1960년
경향신문	80,000	20,000	100,000	300,000
서울신문	80,000	30,000	-	300,000
동아일보	40,000	10,000	176,000	300,000
조선일보	20,000	20,000	80,000	260,000
한국일보	-	-	65,000	260,000

\* 편집부, 「한국신문의 발행부수와 판매부수는/구한말에서 1960년대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과방송》 제47호, 1974년 3월, 46-48면.

4) 손창섭 소설에서 남녀 관계는 <생활적>, <사제한>, <가부녀>, <인간계루>, <유실몽> 등 초창기부터 이야기의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어 왔다. 그것이 장편화 경향과 더불어 본격적인 연애세태소설로 드러나게 된 것은

역사소설조차도 남녀관계의 애정문제와 부부로의 결합을 주요한 서사의 축으로 둔다는 점에서 손창섭 소설에서의 남녀관계 내지 부부관계는 단순한 장편소설의 서사성을 돕기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알레고리로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 소설들이 부부로의 결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혹은 합일을 이루지 못하고 어긋난 부부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 문제와 세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50년대 후반부터 발표된 손창섭의 장편소설들은 신문과 잡지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연재되는 형식적 조건을 바탕으로 비판적 현실인식과 대중성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얻어지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세월이 가면>과 <결혼의 의미>는 시기적으로 손창섭 소설의 후기소설에 해당하며 내용상 연애세태소설로 분류할 수 있다.<sup>5)</sup> 데뷔 이후 단편소설에 전력하던 손창섭은 중편 <낙서족>(1959.3, 사상계)을 통해 장편서사의 가능성을 시도, 확인한 이후 장편소설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그가 <낙서족> 이후 지속적으로 발표한 장편소설은 모두 신문과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연재소설의 형식으로 주요 내용은 모두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남녀문제를 중심 서사 축으로 하는 것들이다.<sup>6)</sup>

손창섭의 연재장편소설은 형식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편소설과 내용적인 면에서 긴밀한 연결 관계를 지속한다는 점에서 작가론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다. 특히 <세월이 가면>과 <결혼의 의미>는 그동안 손창섭 소설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이는 지역신문이라는 매체적 특수성으로 인한 결과이다. <세월이 가면>은 『대구일보』에서 1959년 11월 1일부터 1960년 3월 30일까지, <결혼의 의미>는 『영남일보』에서 1964년 2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연재된 소설이다. 두 소설은 모두 결혼이라는 사건을 둘러싼 남녀의 시각차와 인식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의 세태를 그린다. <세월이 가면>은 발표시기로 볼 때 손창섭 소설의 장편화 경향이 시작되는 작품으로, 이후 발표되는 소설들에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서사적 장치와 인물형이 망라되어 있는 문제작이다. <결혼의 의미>는 일련의 부부테마 소설 중 유일하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결말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발표 시기에 있어서 <결혼의 의미>는 손창섭이 같은 해 1월 10일에 『경향신문』에 <인간교실>의 연재를 마친 직후에 연달아 나온 소설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여지가 있다. 손창섭은 <세월이 가면> 이후 <저마다 가슴 속에>, <내 이름은 여자>, <부부>, <인간교실>, <결혼의 의미>를 차례로 발표하였으며 그 사이에 발표된 다른 소설은 없다. 이러한 연달은 애정소설의 발표는 이후 <이성연구>와 <삼부녀>로 이어지는데, 일련의 작품들은 1960

5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이다.

5) 연애소설과 세태소설이 결합된 형태의 소설은 이미 50년대 신문소설의 한 경향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50년대의 신문소설은 연대세태소설이 전면화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사적 영역이 새로운 사회적 관심 영역으로 부상하는 전후의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연애세태소설의 유행은 1959년 조봉암의 사형과 『경향신문』의 폐간 등의 현실 조건과 더불어 강력한 언론규제로 말미암아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된다. 손창섭의 경우 연애세태소설이 쇠퇴하는 시기에 본격적으로 연애세태소설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본인의 작품세계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최미진, 「매체 지형의 변화와 신문소설의 위상(2)」,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50권, 2012. 211-212면.)

6) 여기에 해당하는 소설은 <세월이 가면>(1959.11-1960.3, 『대구일보』), <저마다 가슴 속에>(1960.6-61.1, 『민국일보』(세계일보)), <내 이름은 여자>(1961.4-10, 『국제신문』), <부부>(1962.7-12, 『동아일보』), <인간교실>(1963.4-64.1, 『경향신문』), <결혼의 의미>(1964.2-9, 『영남일보』), <이성연구>(1965.12-1966.12, 『서울신문』), <삼부녀>(1969.12-1970.6, 『주간여성』)가 있다. <아들들>(1965.7-1966.3, 『국제신문』), <길>(1968.7.-1969.5, 『동아일보』)만이 남녀관계보다는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한 세태소설의 범주에 속한다.

년대 초중반까지의 손창섭의 작가적 역량이 결혼과 부부관계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959년부터 1966년까지 발표된 부부 테마 소설을 정리하면 <세월이 가면>, <내 이름은 여자>, <부부>, <인간교실>, <결혼의 의미>, <이성연구> 총 6편이며 여기에 1969년부터 1970년까지 주간여성에 연재된 <삼부녀>까지 포함하면 총 7편이다. 이를 가족문제 범위로 확장하면 1965년부터 1966년까지 국제신문에 연재된 <아들들>을 부분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은 애정문제 소설들이 1960년부터 1970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쏟아졌다는 점이다.

이처럼 <세월이 가면>과 <결혼의 의미>는 내용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시기적인 면에 있어서도 손창섭 후기소설의 경향성을 재구해 내는 데 매우 중요한 대상이다. 또한 손창섭의 소설 연보에서 이 두 소설이 포함되는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 발표된 일련의 애정문제 소설들은 단편 현대소설이 주를 이루는 초기소설과 도일(渡日) 이후의 역사문제 소설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손창섭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이 연구는 그 동안의 선행연구에서 배제되어 온 지역 신문연재소설인 <세월이 가면>과 <결혼의 의미>를 손창섭 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중심으로 손창섭 후기소설에 나타나는 남녀관계와 결혼서사가 의미하는 바를 밝혀내는 데 목적을 둔다.

## 2. 남녀관계 내러티브와 결혼 이데올로기

1950년대 신문소설은 정비석의 <자유부인>으로 대표되는 연애세대소설의 열풍으로 설명될 수 있다. 50년대는 대중매체가 다양하게 분업화되기 이전이므로, 이 시기의 신문은 오늘날에 비해 더욱 통합적인 대중매체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신문 발행 부수의 급격한 증가와도 관련된다. 50년대 신문소설은 신문의 지면을 차지하는 여러 콘텐츠 중에서도 가장 소모적인 대중 기호에 편승했다. 그 자리를 연애세대소설이 채운 사실은 당시 신문소설의 역할을 말해 준다. 이선미는 50년대 신문소설에 등장하는 연애를 “다양한 문화체험과 도시공간의 체험”으로 간주하면서 이것은 미국영화에 영향 받은 바가 크다고 정리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설의 내용은 “당대 문화풍속의 반영”이라기보다는 50년대 사회가 갖고 있는 일종의 문화적 열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문소설이 지니는 대중성의 요체를 짐작하게 한다. 요컨대 주인공들의 연애를 구성하는 드라이브, 온천 여행, 한강에서의 수영 또는 배타기 등의 활동이 일반적인 연애의 모습이 아니라 선망하는 연애의 허구적 실체에 가깝다는 것이다.<sup>7)</sup> 물론 독자가 소비하는 “모방된 연애의 이미지”는 신문사가 작가에게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손창섭 소설의 경우 이처럼 과장되게 이미지화된 연애 상황이 긍정적으로 연출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비현실적 연애의 풍경은 소설 안에서 부정적인 인물과 함께 비판적인 시선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호텔, 원룸, 드라이브 등의 소재는 사기꾼적인 방법으로 그럴싸한 사업체를 굴리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남성 인물들의 행태를 묘사할 때 주로 등장한다. <결혼의 의미>에서 백화점은 장인옥이 자신과 은밀히 교제 중인 유부

7) 이선미, 『‘햐븐스타일’, 욕망/교양의 사회, 미국영화와 신문소설』,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연구』 47권, 2012, 248-9면.

남 최동철과 부인이 다정하게 모피를 구입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장소로 등장한다. 표면적으로는 중산층 부부의 단란한 모습이 행복한 부부 생활의 판타지로 재현되지만, 이는 여성인물의 눈을 거쳐서 서술됨으로써 단순한 풍속 이상의 의미를 얻는다. 주인공 부부의 단란한 일요일이 아니라, 여성인물과 교제를 가지는 유부남 부부의 단란한 모습이라는 점에서 이 단란함은 과장된 것이고 꾸며진 외형에 불과하다. 이때의 백화점 풍경은 독자에게 허구적 공간으로 암시된다. 이후에 백화점은 장인옥이 성추행을 당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 결혼할 남자에게 코트를 선물하기 위한 쇼핑 공간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손창섭 소설이 새로운 소비문화와 개방된 성문화 등의 트렌드를 소개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인물을 거치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 전달된다.

대중의 감수성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망을 향해 있는 것과 비례하여 대중은 그것을 현실에 적용했을 때의 괴리감에 대해 염려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는 막연하게 접하던 이미지와 풍경들이 점차 실체를 갖고 생활 태도나 가치관으로 자리하게 되는 6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더욱 실감으로 다가오게 된다. 손창섭은 바로 그 지점에서 남녀 관계를 집요하게 다루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들 남녀 관계는 단순한 성 관념이나 연애 문제를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현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남녀관계 내러티브는 나라와 시대를 불문하고 대중적 선호를 바탕으로 하여 내러티브 문화 전반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관계 내러티브가 갖는 대중성 내지 오락성에 집중된 기존의 부정적 평가와 통념은 여전히 관련 텍스트의 독해를 신파성과 통속성에 제한하게 하는 요인이 되곤 하였다. 그러나 남녀관계 내러티브에 내포된 공적 영역의 의미 작용에 대한 인식은 그 안에 내포된 장르적 관습과 이데올로기적 효과,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중층적 독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로써 남녀관계 내러티브는 사회 관습의 질서와 규칙, 그리고 모순을 드러내는 시스템을 개인 연애 담론으로 치환하는 성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sup>8)</sup>

소설 영역에 있어서도 남녀관계 내러티브에 내포된 사회 관습의 요소와 이데올로기는 풍속의 영역을 넘어서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연애가 결혼 담론으로까지 확장되면 남녀관계 내러티브가 갖는 이데올로기적 의미와 효과는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결혼이란 '성정치 이데올로기의 집결체'이기 때문에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남녀관계 내러티브가 갖는 의미망은 보통의 연애 서사에 비해 더욱 넓어지게 된다.

결혼이란 필연적으로 가족이라는 사회 구성단위를 생성하는 실천행위이다. 그러므로 남녀관계 내러티브가 결혼으로 이어질 때, 그 서사는 단순한 애정소설의 범주를 벗어나는 지점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휘할 수 있다. 알튀세르적으로 말하자면 가족은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AIE)로 사적 영역에서 끊임없이 개인을 주체로 호명하며 구조화한다.<sup>9)</sup> 이데올로기로서의 가족은 정상적으로 작동함으로써 개인을 억압하는데, 손창섭의 연재장편소설에서 남녀관계와 결혼서사는 가족 이데올로기가 갖는 모순을 지적하고, 기존의 가족의 전형을 전복하려는 시도로 귀결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기존 상태(das Bestehende)를 부정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인간 유형과 관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도된다.

8) 유지나, 『멜로 드라마와 신파 - 그의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멜로드라마란 무엇인가? - '자유부인'에서 '접속'까지』, 민음사, 1999. 9-10면.

9) Louis Althusser, 『재생산에 대하여』, 김용권 옮김, 동문선, 349-410면.

### 3. <세월이 가면>: 연애와 결혼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욕망의 교차로

<세월이 가면><sup>10)</sup>은 단편 중심의 소설을 써 오던 손창섭이 남녀관계 내러티브와 가족 서사를 내용으로 하는 신문연재소설로의 변모를 보여준 첫 소설이다. 손창섭의 소설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었을 때 이 소설을 기점으로 후기소설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시작된 셈이다. 따라서 <세월이 가면>에는 손창섭의 후기소설에 나타나는 여러 전형적인 서사적 장치나 구성이 다양하게 시도되어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기존의 금기와 터부를 무시한 자유로운 애정관계의 설정이다. <세월이 가면>은 젊은 남녀의 엇갈린 애정관계를 그린 소설로서, 주요 등장인물은 ‘강남실비병원’의 월급의사인 차상철, 사업가 상호 형제와 병원집 딸 최남희, 남희의 올케이자 병원장의 미망인인 강진숙, 카페 여급 이현옥이다. 이 다섯 남녀는 친족, 인척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두 애정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서술자를 포함하여 등장인물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비윤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 남희는 올케 언니의 재가를 돕는 데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던 상철을 권하기까지 한다. 상철은 동생이 임신시키고 버린 현옥을 집에 들여 보살펴 주고, 끝내 이 둘은 함께 서울을 떠나 남들에게 부부라고 적당히 둘러대며 살게 된다.

이들에게 연애와 결혼은 이성과 합리성의 차원에서만 다루어질 뿐 인습과 금기의 터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와 같은 애정구도는 <세월이 가면> 이후에도 손창섭의 후기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부와 처형이<sup>11)</sup>, 형부와 처제<sup>12)</sup>가 서로를 결혼 상대로서 검토하기도 하며, 형이 겁탈한 사돈처녀<sup>13)</sup>와 결혼을 하는 등의 설정이 거의 모든 소설에서 되풀이 된다. 이러한 연애구도에서 친구의 남편<sup>14)</sup>, 딸의 친구<sup>15)</sup>, 유부남<sup>16)</sup>과 연애를 하는 것은 특별한 것도 없는 사건이다.

또한 <세월이 가면>의 애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남녀 인물의 도식적인 설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남성인물은 차상철과 상호 형제 단 둘인데, 이들은 “각기 장점만 반씩 쪼개서 합친다면 가장 이상적인 남성”<sup>17)</sup>일 정도로 서로 극단적으로 상반된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그렇지만 둘 중의 어느 한 사람과도 윈 정열을 쏟아 불꽃을 튀겨 보고 싶지는 않”은 “부분적인 신뢰와 믿음만을 주는 반쪽짜리 인간형이다. 우직하고 진실한 성격의 상철은 사랑하는 여자에게 고백하지도 못한 채 수 년을 바라만보면서도 막상 진숙에게 고백을 받자 ”진숙이 시집을 뛰쳐나오는 길로 대뜸 자기에게 매어 달릴까봐 은근히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리는 인간에 불과하다. 활달성과 추진력으로 뛰어난 사업 수완을 가진 상호는 천하의 난봉꾼이다. 그는 현옥을 임신시키고 곧 다른 여자와 일회성 만남을 지속할

10) 손창섭, <세월이 가면>, 『대구일보』, 1959.11.1.-1960.3.30. (석간으로 연재)

11) <내 이름은 여자>의 최미라와 구동천.

12) <부부>에서는 처제 정숙이 형부 차성일에게 적극적인 애정공세를 펼치고, 끝내는 자신의 언니의 애인이던 한원장과 결혼을 한다.

13) <아들들>에서 막내 종수는 둘째형 종갑이 처제인 인미를 겁탈해 감옥에 가자 사돈처녀인 인미와 결혼하기로 한다.

14) <이성연구>의 홍신미는 친구 계속의 전남편 차인성과 재혼하려고 결심하나, 결국 차인성에게 차이고 만다.

15) <삼부녀>의 이혼남 강인구는 두 딸과 살다가 대학생 안경희와 원조교제를 하고 동시에 딸의 친구인 김경미와 함께 산다.

16) <결혼의 의미>의 장인옥은 유부남 최동철을 사랑하다가 그가 소개해 준 한주림과 결혼한다.

17) 손창섭, 部分戀愛(1) <歲月이 가면>(48회), 『대구일보』, 1959.12.26.

뿐만 아니라, ‘강남실비병원’을 손에 넣기 위해 남희와의 (파기될 것을 염두에 둔) 약혼을 진행하는 한편 남희의 율케이자 형의 애인인 진숙에 대한 욕망도 절제하지 못해 진숙에게 거듭 겁탈을 시도하는 파렴치한이다. 이 두 형제는 극단적인 장점과 단점만으로 구성된 평면적 인물(flat character)이다. 결국 이들은 당대사회의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model)을 둘로 나누어 유형(type)화 한 도식적 설정인 셈이다. 따라서 여성인물들이 두 남성 중 누구와도 연애와 결혼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입속으로 증얼거리는 남희의 머리에는 성호의 호탕한 모습이 클로즈·업 되어 왔다. 그렇다. 성호가 얼마나 더 매력 있는 현대적 청년인지 모른다. 아뭏든 성호는 그 형과는 달리 놀랄 만치 사교적이며 활동적이지 않다. 아직 삼십 전인 나이에 대화사의 전무 취체역 자리를 타고 앉더니 돈을 물 쓰듯 하는 것으로 보아도 그의 남자다운 비범한 수완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게다가 여자를 즐겁게 해줄 줄 아는 세련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좀 허탕하고 방탕한 편이기는 하지만 옛날부터 영웅호걸은 주색을 즐긴다고 하지 않느냐. 도를 넘지 않는 난봉기란 도리어 사내에게 있어선 야심과 활동의 원동력일지도 모른다. 맘에 드는 여자에 대한 강렬한 정복욕이야 말로 남성의 남성다운 면모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고리타분하고 공한 성철이보다 성호가 연애의 상대로나 결혼의 상대로서도 훨씬 더 이상적인 타입 같았다.<sup>18)</sup>

『형은 상식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시대착오의 비극을 걸머지구 있습니다. 그런 낱아빠진 감상적인 인도주의나 동정주의 가지고는 현대사회에서는 결국 아무 일도 못해요. 사업 면은 말할 것도 없구 사생활에 있어서도 완전한 패배자로서 비참한 지경에까지 필연적으로 몰락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이와 같은 신랄하고 명석한 성호의 비판에 진숙은 물론 남희까지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sup>19)</sup>

한편 여성인물인 최남희, 강진숙, 이현옥은 현실에 존재할 법한 성격을 지닌 여성들이다. 이들 인물의 전형성은 그들의 신분과 직업을 통해서 획득된다. 최남희는 “모여자대학교 정치외교과 졸업반”의 여대생이다. “어느 모로 보나 대표적인 현대여성”인 남희는 병원장의 누이동생으로 집안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남희와 같은 여대생 인물은 손창섭의 후기소설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십대 초반의 젊은 여성 인물들은 주로 처제, 옆집 여대생들로 변주되어 고지식한 남성인물들을 골탕 먹이는데, 이들은 신문소설의 도시적 통속성을 배가하는데 사용된다. 이들은 대개 성에 개방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밝아 자신의 실속을 차리고 세상과 잘 타협하는 주변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세월이 가면>의 남희 역시 그러한 여대생 인물의 전형에 속한다. 남희는 차상철을 사모하다가 이내 사업가 상호의 호방한 매력과 재력에 매료되어 자신의 미국 유학의 자금줄로 상호를 선택하기에 이른다.<sup>20)</sup>

남희의 율케이자 병원장의 미망인인 진숙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여성이다. 그녀는 결혼 상대자를 선택할 때에도 상철과 남식 중 누구를 선택할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먼저 자기에게 손을 대는 사람에게 응하기로 마음먹

18) 손창섭, 部分戀愛(11) <歲月이 가면>(58회), 『대구일보』, 1960.1.6.

19) 손창섭, 設計(8) <歲月이 가면>(116회), 『대구일보』, 1960.3.4.

20) <세월이 가면>의 남희는 자신과 짝패를 이루는 성호와 결국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 뚜렷이 서술되지 않고 이야기의 축에서 사라진다. 이는 아프레 결의 표상으로 등장했던 남희가 서술을 위한 장치로만 기능했을 뿐 성격화되지 못했음으로 말해준다. 남희는 이후 손창섭의 소설에서 형부와의 연애 관계도 불사하는 처제'들로 재등장하게 되며 이들은 중심 서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도시 이미지로 재현될 뿐이다.

고” 남식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결혼에 이른 인물이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집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자립하지 못하는 의존성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진숙은 남편 소유의 병원에 대해서도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집의 외가 친척들에게 밀려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못한다. 그녀에게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상철과의 재혼뿐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현옥은 소설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일이 없이 간접적인 성격묘사로만 파악되는 주변인물이다. 부모도 일가친척도 하나 없이 고향 여주에서 올라와 착실히 다방 레지로 근무해 온 암전하고 참한 아가씨이다. 그녀는 사오년간 모아온 돈을 성호에게 모두 털리고 임신한 채로 버림받았지만 성호를 찾아가 한 마디 따지지도 못하는 나약한 여성이다. 오갈 데 없는 그녀는 성호 대신 자신을 돌봐 줄 성철을 찾아가 의지할 뿐이다.

이 세 여성은 모두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당대 사회에 어디에나 있을 법한 전형성을 지니고 있다. 세 여성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연애와 결혼 문제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들의 삶의 태도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매우 닮아 있다. 그것은 이들이 모두 결혼으로 귀결되는 연애에 자신의 삶과 미래를 의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희와 진숙, 현옥은 모두 경제적으로도 남성 인물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남희는 미국 유학을 보내줄 남자로서 성호를 남편감으로 선택하였으며, 진숙은 죽은 남편과 상철에게 자신과 친정의 생활을 의탁하고 있는 처지이다. 진숙의 남편 남식은 단 한 번도 실제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미망인 진숙의 처지와 생활을 통해 부재로서 존재를 증명한다. 상호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친척도 하나 없는 낯선 서울에서 오직 상철에게 기대고 있는 현옥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요컨대 이들의 미래는 모두 남성인물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그러한 미래에 대해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전망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이 이 소설의 중심 서사에 다름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여성인물들은 모두 연애와 결혼 문제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된다. 남희보다 더 약삭빠른 현실주의자인 상호에게 남희는 눈에 차는 결혼 상대가 아니기에 남희의 약혼은 파기되고 더불어 그녀의 미국 유학은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 소설의 결말에서 진숙은 상철에게 시집을 나올 결심을 밝히지만 상철은 진숙을 받아주지 않고 말없이 서울을 떠난다. 뿐만 아니라 진숙은 성호에게 겁탈 당할 뻔 한 위기에서 벗어난 경험을 가지고도 성호가 쥐어주는 차비 만 환에 “성호가 어찌면 남성다운 아량을 지닌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성호의 진숙에 대한 욕망이 충족될 것이며, 진숙은 성철, 성호 형제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농락당한 채 서울이라는 현실 공간에 버려질 것을 알 수 있다. 현옥은 이미 소설의 초반에서 성호에게 무참히 버려져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 성호의 형인 성철과 유사 부부 관계를 설정하고 삶을 의탁한다. 여기에는 상철의 선택과 고민만이 있을 뿐 현옥의 입장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기에 현옥과 상철의 결합을 결혼에 성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세월이 가면>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연애와 결혼에 성공하지 못한다. 상철은 결국 병원에서 해고된 후 직장을 잃고, 남희와 진숙 모두와 현실 안에서의 결합을 이루는 데 실패한다. 그는 시골 병원으로 떠나 동생의 아이를 뱀 현옥과 부부 행세를 하며 살기로 결심하지만 진숙이 찾아 갔을 때 그는 의료사고로 사람을 죽이고 그곳에서조차 도망쳐 행방을 알 수 없게 된다. 성호는 ‘강남실비병원’을 인수하여 남희

와 약혼할 것처럼 일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그는 남희보다 훨씬 더 유력한 집안의 규수와 결혼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둘의 결합도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성호에 대한 서술에서 전제되어 있듯이 “여자 문제로 일신과 집안을 망쳐 버린 부친”의 피를 물려받은 성호가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신문연재소설은 연재에 앞서 작가와 삽화가의 인사와 작품 소개를 게재한다. <세월이 가면> 역시 연재에 앞서서 ‘작가의 말’을 통해 연재를 시작할 당시에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 의도한 바를 짐작할 수 있다.

사람은 상처(傷處)받기 쉬운 존재인가 봅니다.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의 불일치(不一致) 때문에 또는 남녀(男女) 간(間)의 미묘한 애정문제로 그리고 무척 까다롭고 복잡(複雜)한 대인관계(對人關係)에서! 선량(善良)한 사람일수록 더 민감(敏感)하게 상처(傷處)를 입게 마련인가 봅니다. 여기에 각가지 마음의 상처(傷處)로 영혼(靈魂)을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보람 있게 살아보기 위(爲)해서 이를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화려(華麗)한 꿈을 채울 길 없어 고통(苦痛)하는 젊은 인간(人間)군상(群像)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不幸)하게도 필자(筆者)는 그들의 심령(心靈)의 상처를 치료(治療)할 방법을 모릅니다. 다만 세월(歲月)이 흐르면 자연(自然)의 힘으로 치료(治療)될 줄로 믿고 그들의 상처가 치명상(致命傷)이 아니기를 독자(讀者)와 함께 빌고 바랄 뿐입니다.<sup>21)</sup>

젊은 남녀들의 엇갈리는 애정 관계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의 문제를 다루겠다는 ‘작가의 말’은 이 소설을 통해 작가가 성취하려는 의도를 잘 나타낸다. 현실사회에서의 남녀 관계는 순수한 사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금전적 조건이 결합된 사회체제로서의 결혼을 전제로 형성된다. 연애와 결혼이 갖는 순수성을 지향하는 진숙과 사랑에 진실한 태도로 마주하지 못하는 비겁한 이상주의자 상철은 맺어지지 못한다. 각자의 목적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성호와 남희는 결혼을 전제로 한 계약 관계에 일시적으로나마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서로의 현실적 조건과 욕망을 저울질하여 알맞은 상대를 골라잡으려는 이들의 시도는 좁혀지지 않는 이상(理想)의 차이로 인해 결국 어긋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작가가 처음 의도한대로 이 소설은 젊은 인간군상의 미묘한 애정문제와 현실적 조건이 결합된 애정세대소설로서, 이상과 현실이 불일치로 인해 전망부재의 현실에서 좌절하거나 대안 없는 도피를 택하는 결말을 취하게 된다. <세월이 가면>은 뒤에 발표되는 손창섭의 후기소설의 구성과 전개에 나타나는 유사성이 총망라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전형적 인물 유형과 사회비판적 태도, 주동인물의 설정과 결말 처리의 방식 등의 측면에서 손창섭의 연애세대소설은 유사성을 지니고 변주된다.

#### 4. <결혼의 의미>: 결혼서사, 가족 이데올로기의 내면화 과정

손창섭은 <세월이 가면> 이후로 4년간 매년 1편씩 꾸준히 연애세대를 내용으로 하는 신문연재소설을 발표한다. <결혼의 의미><sup>22)</sup>는 그 여섯 번째 신문연재소설이다. <결혼의 의미>는 이제 스물여섯 살이 된 평범한 직장 여성인 장인옥이 노처녀의 딱지를 달고 결혼에 성공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이후의 결혼 생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간단한 소개에서

21) 손창섭, 「작가의 말」, 『대구일보』, 1959.10.27.

22) 손창섭, <결혼의 의미>, 『영남일보』, 1964.2.1-9.29.

알 수 있듯이 이 소설의 중심인물은 장인옥이라는 여성이다. <세월이 가면>의 서술방식이 차상철에서 시작하여 남희, 성호를 거쳐 점차 진숙으로 초점인물을 변경해 왔던 것과는 달리 <결혼의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장인옥이라는 여성인물을 중심축으로 전개된다. 손창섭은 연재에 앞선 ‘작가의 말’을 통해 “평범한 여성의 생활과정을 통해서 결혼의 보편적인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는 기획의도를 밝힌다.

도대체 좋은 결혼 행복한 결혼이란 진정 어떤것일까요. 우리주변의 모든 기혼자들은 과연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확답이나 자신이 없으면서도 인간은 왜들 결혼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그러기에 이 작품에서는 결혼전에서부터 결혼후에 걸친 한 평범한 여성의 내면과 외면의 생활과정을 더듬어나가며 독자여러분과 함께 결혼의 보편적인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보 고자 합니다.<sup>23)</sup>

작가가 말하는 ‘평범한 여성’과 ‘결혼의 보편적 의미’는 구체적으로, 자기 주관 없이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 장인옥이 결혼 문제로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한주림과의 결혼과 출산을 통해 가족제도를 내면화하는 것으로 재현된다.

소설은 스물여섯이라는 나이가 혼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얼마나 여성에게 그 전과는 다른 위축된 태도를 취하게 하는지를 장인옥이 자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러한 배경설명은 그동안 “결코 남에게 떨어지는 용모나 체격이나 인품이 아니라고 자부”하던 인옥에게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이 얼마나 가혹한 것일지를 짐작하게 해 준다.

어느새 내 나이 스물여섯. 아무리 만혼(晩婚)을 예사로 아는 지금 세상이라도, 처녀의 나이 스물여섯이라면 역시 누구에게나 과년하다고 느끼게 되는 모양이라, 우선 나 자신부터가 안 그러려 해도 내 나이에 은근히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그 단적인 예로서는 노처녀니 올드·미스니 하는 말이 듣기 싫어진 것부터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직장의 동료나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 잡담을 하는 중에 그런 말이 튀어 나올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차나 버스간 같은 데서 동승한 손님들의 담화 속에 그런 말이 섞여 들리어도 괜히 불쾌하고 우울해지는 자신의 심리를 감출 수가 없었다.<sup>24)</sup>

장인옥은 제약회사에 근무하며 알게 된 최동철이라는 유부남 약사를 사모하고 있는 한편으로 이봉근이라는 재력과 학식이 높은 인물과 맞선을 보고 혼담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봉근이 인옥에게 처녀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둘의 결혼은 성사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인옥이 고등학교 시절 농구선수로 활동하다가 부상을 입었던 일로 인해 병원으로부터 처녀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혼의 의미>에서 인옥의 처녀막 확인 사건은 이 소설의 전체 내용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에피소드이다.

처녀막에 관련한 신문기사들을 살펴보면 이미 1924년에 병원을 통해 처녀막 여부로 처녀성을 확인받는 증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25)</sup> 이후로도 처녀막 여부로 처녀증명서를 떼는 일이 빈번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 여성의 생활이 비극적 파탄을 맞는 경우가 빈번히 있어 왔다. 중요한 것은 처녀막이 처녀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없다는 과학적 사실이 이미 1930년대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왔다는 점이다.<sup>26)</sup> 이처럼 처녀

23) 손창섭, 「작가의 말」, <결혼의 의미>, 『영남일보』, 1964.1.28.

24) 손창섭, 혼담(婚談)(1) <결혼의 의미>(1회), 『영남일보』, 1964.2.1.

25) 「처녀를 모욕했다고 진단서를 어더」, 『동아일보』, 1924.08.01.

성 시비는 여성의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끊이지 않는 올가미로 작용하여 왔는데 <결혼의 의미>의 인옥 역시 결국 처녀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이봉근과의 혼담에서 퇴짜를 맞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혼담의 결렬이 아니라 집안의 망신이자 인옥의 개인적 존엄성에 큰 상처를 입힌 사건이 된다.<sup>27)</sup> 이 사건으로 인해 인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여성의 차별적 지위를 실감하게 된다.

나는 요즘에 와서 여자의 운명이라고 할까 위치 혹은 가치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 보는 버릇이 생겼다.  
 소위 꽃 같은 나이라고 하는 이십 전후의 한 때를 제외하고 벌써 스물다섯만 넘어서면 아무리 처녀라 할지라도 그 빛을 잃기 시작하는 여자의 단명(短命).  
 더구나 용모가 보잘 것 없든지 얼굴 어디에 무슨 흉터가 있다든지 혹은 나처럼 뜻하지 않았던 사고로 여성 특유의 생리적 조건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세상에서 특히 남자들에게서 아예 폐품 취급을 받아야하는 여자의 억울한 위치.  
 그러면서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 않고 혼자는 지낼 수도 없을 뿐더러 결혼을 한다고 반드시 행복할 수 있느냐 하면 그나마 보장할 수 없는 불안한 여자의 숙명.  
 일단 결혼만하고 나면 좋건 못건 간에 남편과 가정의 종속물인양 아무개의 소유물이 되어 버리고 마는 허무한 여자의 존재.  
 둘째올케처럼, 남편의 전제주의에 놀려, 아내라기보다는 식모인지 여종인지 혹은 애 낳는 기계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치 죽어지내거나, 아니면 언니모양 두 셋씩 씨앗을 보아도 이 쪽 뱀대로 시연시연히 처리해 버릴 수 없는 연약한 여자의 약점.<sup>28)</sup>

인옥은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나 지위가 불합리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깨닫지만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는 못한다. 인옥은 자신이 분명한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처녀성을 입증 받지 못하는 상황이 억울할 뿐이며, 이 문제는 자신의 순결을 인정해 주는 남성이 한주림이 등장하고 그와 결혼에 성공하며 해결된다. 이러한 인옥의 태도는 고교 동창 정란이 인옥의 막내오빠의 아이를 갖게 되자 “어엿한 총각”인 오빠에게 “남자관계가 수없이 많았던 정란일 떠맡기기도 안됐”다며 둘의 결합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데서 드러난다.<sup>29)</sup>

인옥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결백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인다. 유부남 최동철과의 교제는 “플라토닉 사랑”이었으며, 정란의 동거남 진 전 무와의 키스 사건은 원치 않는 겁탈에 불과했으며, 처녀막의 파손은 과격한 운동 때문이

26) 신문기사뿐만 아니라 1931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이광수의 <삼봉이네 집>에도 법정에서 여성의 처녀증명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오늘날의 지식으로는 어떤 여자가 순전한 터너이오 결코 비처녀가 아니란 것, 즉 절대로 남자와 성교가 없었다는 것은 증명할 경우가 있지마는, 그와 반대로 어떤 여자가 처녀가 아니란 것을 증명하기는 불가능한 때문입니다.” 이는 처녀증명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관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도 함께 말해준다. (春園, 「삼봉이네 집」(36회), 『동아일보』, 1931.02.17.)

27) 이 소설에서 처녀막 논쟁은 1920년대 소설에서 빈번히 발견되는 처녀성에 대한 숭배와는 구별된다.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 이광수의 「재생」, 나도향의 「환희」 등 1920년대 소설에서 자주 사용되던 처녀의 정조유린 모티프는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근대적 남녀관계인 연애의 정신적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반면에 1960년대에 들어올 무렵의 처녀막 논쟁은 세태반영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때의 처녀는 정신적 순결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육체적 순결성에 대한 판별에 의한 것으로서 당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져 오던 전근대적인 폭력의 대표적인 예시로 이해될 수 있다. (1920년대 소설의 처녀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혜영·류종열, 「근대의 성립과 '연애'의 발견-1920년대 문학에 나타난 '처녀성'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18집, 2005.12, 227-251면. 참조)

28) 손창섭, 연분(緣分)(1) <結婚의 意味>(81회), 1964.5.6.

29) <결혼의 의미>에서 정란은 자유연애를 추구하는 인물로 나타났다가 결국에는 주인공의 남동생의 아이를 임신하고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포섭되기를 희망하는 인물로 전면적인 성격 변화를 보인다. 이는 미국 문화로 대표되는 근대적 개방 문화에 대한 대중의 감수성이 현실로 재현될 때 찾아오게 되는 비극을 사실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육체적 훼손은 우연일 뿐 내 자신이 떳떳하면 그만이라며 정신적 순결을 강조하는 동시에, 최동철 선생에 대한 정신적인 사랑은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았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이처럼 인옥의 자기변호는 입맛에 맞게 상대와 상황에 따라 그 잣대와 기준이 변경된다. 정신의 측면에서 볼 때 인옥은 결코 순결하지 않으며 육체적인 순결을 지켰다고 볼 수도 없다. 남편인 한주림이 순결을 지키지 못한 사실을 듣고서 불쾌해 하면서도 자신의 모든 과거는 정당하게 이해될 성질의 것이라고 우기기까지 한다. 이처럼 손창섭은 비이성적이고 주관이 없는 주동인물 장인옥을 통해서 당대 사회의 평범한 여성들의 내면과 외면의 생활을 비판적으로 그려 낸다.<sup>30)</sup>

<결혼의 의미>에서 내러티브의 측면과 더불어서 남녀 인물의 공간 설정과 활용은 결혼 문제를 둘러싼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연애시절 한주림이 운영하는 ‘한림 가축병원’은 인옥과의 주요 데이트 장소로서 한주림의 정체성 그 자체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병원 안채에 살림집을 마련함으로써 한주림은 자신의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이는 귀농을 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주림은 자신의 신념과 계획에 따라 귀농을 결정하고 인옥에게 따를 것을 종용한다. 그리고 마침내 귀농을 하게 되었을 때 한주림은 자신의 살림집 추녀 끝 한쪽 기둥에 ‘○○면 축탁 수의 한림 가축병원’이란 간판을 달아 놓는다. 한주림에게 집과 직장, 다시 말해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은 구획을 나누지 않고 혼용되며 사적 공간이 공적 공간에 포섭된 형태로 존재한다. 이에 비해 인옥은 결혼을 생각함과 동시에 일터에 열심히 나가지 않고 곧 그만 둔다. 간혹 언급되는 직장 내 일화는 인옥이 언제 결혼해 직장을 그만두느냐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고작이다. 인옥의 직장은 본래의 기능보다는 한주림을 만나기 전 유부남인 최동철과의 밀회를 위해 전화통화를 나누는 곳으로 더 많이 등장한다. 이러한 공간 설정과 활용은 결혼에 따라 여성이 공적 지위나 역할을 포기해야만 하는 사회구조의 반영인 동시에 이에 대한 대안 제시의 성격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결혼의 의미>에서의 귀농은 비록 한주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결과적으로는 귀농으로 인해 부부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공유, 유지하는 형태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소설의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장인옥이라는 인물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손창섭의 연애세대소설은 크게 초점인물이 여성인 소설과 남성인 소설로 나뉜다. <내 이름은 여자>(1961), <이성연구>(1965)가 여성을 초점인물로 설정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세월이 가면>(1959)도 여성 초점인물을 설정하고 있다. 이 소설들의 공통점은 모두 여성인물이 원하는 남성과 결합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는 데서 찾을 수 있다.<sup>31)</sup> 이에 비해 <결혼의 의미>의 장인옥은 최동철이 소개해 준 수의사 한주림과 결혼에 성공하고 그를 따라 귀농하여 시골 생활에 적응해 나가며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표면적으로는 결혼 성공에 성공한 것으로 묘사된다. 이처럼 <결혼의 의미>는 현숙한 아내로서의 인옥의 모습과 더불어 남편의 귀농에 따르는

30) 인옥은 현실에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히 가부장적 질서에 포섭된 여성이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진 가정에서도 자란 인옥이 여전히 구시대적인 결혼관이나 남녀관의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을 통해 작가는 현대사회의 병폐를 조롱한다.

31) <내 이름은 여자>의 최미라는 호색한 남편과 이혼하고 제부 구동천과 호감을 나누지만 결국 황사장의 첩이 된다. <이성연구>의 홍신미 역시 호색한인 배현구와 이혼 후 친구의 전 남편 차인성과 재혼하려고 하나 차인성은 신미를 농락한 후 국회의원 딸과 약혼해 버린다. <세월이 가면>의 진숙이도 성철, 성호 형제와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지적 이상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그러나 글의 결말에서 이 부부의 결합이 영원한 행복으로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인옥은 손창섭의 다른 연애세대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의 상반된 성격 유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결혼에 대해 지극히 수동적인 태도로 구시대적인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유부남인 최동철을 유혹할 때에는 적극성을 띠는 성격으로 변모한다. 따라서 최동철과 한주림 중 누구와 인옥이 맺어지느냐의 문제는 소설의 방향과 주제의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결과적으로 인옥은 한주림을 선택함으로써 사회체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만 이러한 결과가 인옥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 결혼 순수성을 의심하게 한다.

결국 <결혼의 의미>는 부부가 대등적 지위를 이루고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통합하여 공통의 목적을 위해 미래를 도모하는 이상적 결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주림의 인생계획에 장인옥이 편입된 결과일 뿐이다. 소설에서 언급되듯 장인옥과 한주림은 서로 합치되지 않는 성격상의 차이로 인해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것은 최동철과 장인옥이 보여줬던 정신적인 합일과 비교해 볼 때 더욱 잘 드러난다. 최동철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인옥의 행복을 위해 한주림을 소개해주고 둘의 결혼에 주례를 서는 등 이 두 부부 관계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 또한 결혼 이후에도 인옥은 부부 관계에 일이 생길 때마다 최동철에게 연락을 취한다. 인옥이 결혼 후 최동철이 부인과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최동철이 이들 부부 관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암시가 된다. 따라서 이들 부부의 결혼 생활은 어디까지나 서울을 떠난 시골에서 이루어지는 잠정적인 안정에 불과하다.<sup>32)</sup>

## 5. 손창섭의 부부 테마 소설에서 두 소설이 갖는 의미망

손창섭에게 남녀문제와 결혼서사는 1960년대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추상적 리얼리티의 세계를 탈피하여 현실 감각을 되찾는 데 주요 방편이 되었으며 형식적인 차원에서는 단편에서 장편으로 전환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남성 주인공이 새로운 이상향을 찾아 떠나는 결말을 통해 부부와 가족은 현실에 대한 알레고리로서 현실세계와의 부적응성을 드러내는 소재로 활용되어 손창섭 소설의 사회관을 잘 드러내 준다. 손창섭이 신문과 잡지에 연재한 일련의 남녀관계 내러티브 소설들은 단순한 연애소설, 가정사소설, 대중소설이 아니라 사회적 관습과 성 정치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남녀 관계가 교양이나 문화담론 안에서의 연애와 성적 개방성의 영역이 아닌, 결혼이라는 제도적 측면에 한정되어 호명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문화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접근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32) 소설은 한주림과 장인옥의 부부생활에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다툼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소설의 결말에서 인옥은 아이를 출산하는데 남편은 아이의 출산을 원치 않았던 사실은 아이의 출산이 이들의 결혼 생활의 장밋빛 미래를 암시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더불어서 아이를 출산하는 장면에서 장마철의 빗소리가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들 부부의 미래에 대한 암시이다. 비오는 날씨는 손창섭 소설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장치로서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 <결혼의 의미>에서 아이를 낳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

손창섭의 후기소설의 특성은 가정 내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비판 의식을 이어오는 부부 테마 소설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여성 주동인물 유형의 소설은 현실의 가부장적 체제의 전복을 도모하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가부장의 질서로 편입되는 결말을 하는 반면에 남성 주동인물 유형에서는 기존의 가족 관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의 유사가족을 형성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밝은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두 유형 모두 사회의 축소된 형태로서 가족과 부부 관계를 제시하고 계약관계와 합리성을 강조하며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의 후기소설 분류에 따라 <결혼의 의미>는 여성 주동인물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세월의 가면>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초점인물이 바뀌며 다양한 주동인물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세월이 가면>이 아직 결혼하기 이전의 젊은 남녀들의 애정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전개해 나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월이 가면>은 과 <결혼의 의미>는 결말 처리 방식으로 볼 때 전자는 결혼에 실패, 후자는 성공한다. 그러나 두 소설 모두 가정을 이룬 두 남녀가 서울을 떠난다는 설정을 취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세월이 가면>의 상철은 현옥과 뱃속의 아이와 함께 유사 가족, 대체 가족을 이루고 서울을 떠나지만 이는 기존의 가족제도로 포섭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기존의 통념과 가치관으로 볼 때 이들의 결합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상철이 진숙과의 결합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설의 결말은 사적 영역으로서의 가족제도가 갖는 위선적 욕망을 여실히 보여주고 이를 거부하는 결말을 취함으로써 사회 현실과 관습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 것이며, 이는 손창섭이 견지해온 외부자적 시선과 태도의 연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 <결혼의 의미>에서의 인옥과 주림의 결혼은 일면 성공을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난 이후에 비로소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또한 인옥의 입장에서 귀농은 생활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낳고, 두 부부의 가치관이 쉽게 조화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를 통해 결혼이 영원히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1960년을 전후 한 시기부터 발표된 손창섭의 후기소설들은 매체 변화를 통해 대중문학의 효용성을 수용함으로써 독자층을 확대하고 자신의 소설 세계를 지속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이 시기 손창섭 소설의 검토는 그의 작가론의 구축에 중요한 지점이 된다. 사적 영역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인물은 결국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도 자리 잡지 못하고 외부로 밀려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전후의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잉여 인간과 귀농 모티프, 도일(渡日)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외부자적 삶의 태도와 부적응의 모습으로 통합된다.

연애소설을 표방하고 있을 때에도 손창섭의 소설은 한국사회의 가장 일상적인 면에서 드러나는 풍속과 가치관을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풍속에 있어서의 가장 형식적이고 보수적인 태도가 남여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소설에는 사회의 부패상과 관련한 비판도 언제나 등장하는데 이것은 주로 남성인물의 직업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정한 패턴과 공식을 가지고 전개되는 소설의 주된 내용은 비합리적인 사회상과 연되는데, 이는 한국사회의 일상성에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으로서의 손창섭의 정체성을 말해준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는 손창섭 소설에 나타나는 외부성과 사회비판 의식을 보다 자세히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서울, 가난과 상경의 서사

- 박완서와 조선작을 중심으로 -

용석원(건국대학교)

## 1. 믿음의 물질화와 자동화된 신념, 가난과 상경

『이데올로기란 숭고한 대상』에서 슬라보예 지젝은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냉소주의적 태도를 “그들은 그들의 행동 속에서 자신들이 환영을 따르고 있다는 걸 잘 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행동한다”로 요약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 속에 위치한다고 지젝은 주장한다.

행위 혹은 실천의 차원에서 이데올로기 속에 주체가 기입하는 방법을 지젝은 문제시한다. 이에 대해 지젝은 파스칼을 원용하며, 이데올로기에 대한 작동방식으로 전제조건으로서의 ‘믿음의 물질화’<sup>1)</sup>를 바탕으로 ‘자동화된 신념’<sup>2)</sup>의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믿음의 메커니즘에 대한 사례로 루이 알튀세가 말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즉 교육 시스템, 교회, 가족과 같은 제도들을 든다. ‘요청’ 혹은 ‘호명’의 모델로 설명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에 대해 지젝은 그것이 “특정한 체계에 대한 믿음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미처 깨닫기 전에 그 체계의 올바름에 대한 신념을 창조”하

1) 이에 대해 토니 마이어스는 티베트의 ‘회전식 기도통’이 작동하는 방식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이 기도통을 돌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 없이 회전하는 원통 속의 돌돌 말린 종잇조각에 기입된다. 기도 통의 회전은 내가 그것을 매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그 통이 기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략)… 기도통을 돌릴 때 내가 명상을 하는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나는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도의 진실성은 (통을 돌리는) 내 행위 속에 있지, 내가 생각하는 것 속에 있지 않다.” 토니 마이어스, 『누가 슬라보예 지젝을 미워하는가』, 앨피, 2005, 135~137면. 이러한 의례는 내적인 신념이나 이미 존재하는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위한 선차적인 전제조건이다. 즉 믿음의 물질화로써의 의례들이 내적 신념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2) 믿음의 물질화와 함께 지젝은 ‘믿음 이전의 믿음’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자동화된 신념’을 말한다. 그는 단순히 믿음의 형식이 행위 양식의 영향을 받는다는 차원을 넘어 의례를 행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게 된다고 주장한다. 각주 1)의 ‘회전식 기도통’에서 나타나듯 믿음은 의례 속에서 표명된다. 즉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기 전에 그것은 미리 상연된다. “내가 믿고 있음을 실제로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는 거라곤 단지 우리의 믿음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으며,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보다 미리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이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의례 속에 있었다. 이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의례에 복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믿게 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의례는 소급적으로 의례에 대한 믿음을 생산한다. 이런 ‘믿음 이전의 믿음’은 티베트의 회전식 기도통처럼 자동화된 신념이다.” 위의 책, 137면.

며, “이런 장치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선취하며, 그로써 우리를 거기에 적응시킨다”고 말한다.

지젝은 이러한 작동방식이 일종의 서사, 즉 이데올로기적 서사를 형성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데올로기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 이 세 국면은 교리의 형식과 그것이 믿음의 형태로 실현된 것, 그리고 유사 자발적 의례의 형태로 표현된 것으로 구체화하며 서사를 구성한다.<sup>3)</sup>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러한 지젝의 논의는 박정희 정권 시기의 가난과 상경이 지닌 맹점을 통찰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는 가난과 상경이 단순히 국가주도형 개발성장주의의 근거이자 폐단이라든가 산업화 과정에서 대두된 사회문제로서의 현상이라는 인식 일반의 평가 이상의 중요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는 가난과 상경이 조국 근대화와 국가재건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믿음과 의례, 즉 가장 핵심적인 ‘믿음기계’로 작용했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는 두 가지 연유를 지닌다. 하나는 한국의 역사성에 따른 가난의 특수한 성격과 근대성의 특징적 국면인 사회체의 이동과 순환으로서의 상경이 지닌 속성에 있다. 다른 하나는 가난과 상경의 서사가 이데올로기적 서사의 양식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 시기에서 가난은 단순히 ‘생활의 궁핍’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시기 이전부터 가난은 이미 항상 ‘생명의 결핍’으로 존재했다. 이러한 가난의 의미는 연속된 두 전쟁 체험에 기인한다. 태평양 전쟁과 6·25 전쟁이 그것이다. 두 전쟁의 경험은 비인간적 가난, 즉 ‘몸-삶의 소멸’이란 왜상으로 자리한다. 가난은 생명에 대한 위협과 공포인 셈이고, 가난의 탈출은 몸-삶의 보존과 등치된다. ‘가난=죽음’이란 공식은 전후 문학뿐만 아니라 1960~70년대 전쟁을 형상화한 소설에서도 전경화된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문학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 프로젝트에서도 중핵을 이룬다.

박정희 정권의 지상과제는 ‘조국 근대화’를 향한 ‘국가재건’이었다. 국가재건의 3대 핵심 과제 혹은 목표는 “국가발전”, “자주국방”, “민족정체성 확립”이다. 여기서 국가발전이란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토대로 하며, 자주국방은 반공주의를 전제로 것이다. 민족정체성 확립은 민족문화 창달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시기 통치담론 속에서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곧 반공주의(자주국방, 국가안보)를 기반으로 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자주국방에 도달하는 길은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반공주의는 국가발전의 전제조건이며,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반공주의의 필요조건이 된다. 이렇듯 자본주의적 산업화(국가발전)와 자주국방(반공주의)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다. 두 담론 영역은 동일한 지향점과 의미를 내포하며, 서로를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 경계선을 나눌 수 없는 비식별역을 만들어 낸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라는 표어인 동시에 「새마을 노래」<sup>4)</sup>의 가사이기도 했던 이 문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3) 지젝은 이데올로기적 서사 속의 세 국면을 구분한다. 이데올로기적 ‘교리’는 이데올로기의 사상, 이론, 믿음과 연관돼 있다. 이데올로기적 ‘믿음’이란 그 교리의 물리적, 외적 표출과 기제들을 가리킨다. 이데올로기적 ‘의례’는 교리가 내면화, 혹은 자발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경험되는 방식을 가리킨다.

4) 국가(주의)는 주체에게 정체감(성)을 부여하고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징계의 심급을 이루는 대타자이다. 그리고 국가장치 혹은 제도는 대타자의 지식(담론)을 생산한다. 이러한 주체화 맥락에서 「새마을 노래」의 작사자 및 작곡자가 박정희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인이 대타자 담론의 직접적 생산자라는 것은 그가 대타자의 상(象)으로 주체화된 개인에게 제시된다는 것이다. 라캉은 욕망을 “(대)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으로 정식화한다. 이런 관점에서 호명된 국민의 욕망의 단초는 그의 욕망과 프레임에 종속된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재건 담론 내에 ‘가난=죽음/부=생명’이란 공식이 핵심으로 자리한다.

다음으로 근대성의 특징적 국면인 사회체의 이동과 순환으로서의 상경이 지닌 속성에 대한 것이다. 서구 근대화의 핵심은 막스 베버가 “근대적 삶의 운명적인 힘”이라고 밝힌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의 등장이다. 자본주의를 정의하는 특징은 화폐경제, 다방면에 걸친 산업화, 고도로 집중되고 기계화된 제조 공업, 고용 노동, 조직화된 기업 투자, 자유경쟁 시장, 그리고 큰 규모의 국제무역이다. 자본주의가 초래한 웅장한 사회경제적 변화들은 그에 따른 일련의 사회현상들을 촉발시키거나, 적어도 그것들과 역동적 관계 속에 상호작용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sup>5)</sup>

-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
- 광범위한 이주와 이민
- 새로운 기술과 교통수단의 신속한 확산
- 민족국가, 민중 민족주의, 식민주의의 발생
-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률적 규약과 제도의 확립
- 대량 판매, 대중 소비주의와 더불어 마스크와 대중오락 형식의 폭발적 증가
- (여성들의 공공 영역 진출로 요약되는) 혼성사회적 공공성의 순환과 상호작용의 증대
- 회계, 문서기록, 공공 감시의 효율적 체계 확대
- 사람들이 직장을 따라 기계 밖으로 이동, 따라서 이주와 도시화, 피임기구 사용 증가로 인한 확대가족의 감소

비록 이런 양상들이 전개된 정확한 시기와 출현 방식은 다르다 하더라도 이 모두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그것은 모두 하나로 결합되어 근대화라는 현상을 형성했다. 이처럼 근대화는 전체 인구의 일상적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구체적인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기술적인 힘과 관련된 것, 즉 자본주의 출현이 생성한 전례 없는 사회적 이동과 순환을 형성한다.

서양의 근대는 국가에서 국가로, 지방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도시로,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주하는 지리적 이동을 의미하는 ‘수평적’ 이동과 직업, 신분, 계급, 연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체성의 구성과 사고방식의 변화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이동으로서의 ‘수직적’ 이동 모두의 엄청난 증가를 겪었다. 근대의 교통과 통신기술은 시간과 공간 사이의 전통적 관계를 파열시키면서 ‘세계의 축소’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시공간의 압축으로 근대는 상품만이 아니라 전체 인구, 실로 상상 가능한 모든 ‘사회체들’<sup>6)</sup>의 이동과 순환에 있어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 발화하는 행위 자체는 이데올로기적 의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하나의 ‘민음기계’라 할만하다.

박정희 작사·작곡인 「새마을 노래」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 서로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수득중대 힘써서 부자마을 만드세 /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조국을 만드세 / (후렴) 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5) 벤 싱어,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문학동네, 2009, 39면.

6) 피터림 소로킨에 의하면, 사회체란 “물질적이거나 영적인 것,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인간 행동에 의해 탄생되고 변화된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신문 뉴스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간석기나 자동차, 단발, 피임, 화폐, 개간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회체들이다”.

급격한 팽창을 겪게 되었다.

한국 역시 근대화의 과정에서 급격한 근대적 이동과 순환을 경험한다. 1970년에 ‘경부 고속도로’의 완공을 시발로 이른바 ‘1일 생활권’이 형성되고 한국의 시간-공간이 축소됨에 따라 수평적 이동의 운동이 가속화되었다.<sup>7)</sup> 이러한 지리적 이동성의 지속적인 확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근대적 수직적 이동은 제한적이었다. 사회경제적 이동의 전제조건인 시장으로서의 도시가 질과 양 모든 측면에서 협소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농촌공동체의 해체, 도시빈민층의 형성, 빈부격차의 심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아래 인용은 『경양신문』의 “도시문제 전담반”이 상경, 즉 도시에 편중된 인구 이동의 사회문제를 기획 기사로 다룬 글이다. 해당 인용문은 “원인과 분석”, “대책 및 문제점”이란 소제목 아래 다루어진 내용이다.

“옛날의 가출은 청운의 뜻을 품은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은 도시를 동경하다 돌아버린 처녀들에 의해 저질러진다.” 이것은 지난해 여성문제연구소가 마련했던 가출예방을 위한 좌담회에서 내려진 결론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찰의 서울역 상담소를 찾았던 무작위 상경자 1천7백96명 중 6백20명(35%)이 도시를 동경, 집을 뛰쳐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허영에 들뜬 도시동경파들과는 달리 가정빈곤 때문에 고향을 등진 가출자들은 직업을 찾아 도시로 나선다. 서울역상담소의 경우 가정빈곤 가출자들은 8백33명(47%)으로 나타났다.

사회학자 고영복 교수(서울문리대)는 “도시편중의 불건전한 가치관이 농촌개발의욕을 막고 있다”고 지적,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는 것만이 근본대책이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농촌의 젊은이들이 스스로의 고장을 위해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찾아 지역사회개발에 힘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가출 원인도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조건에서 찾아야 될 것 같다. 현재와 같은 영세농업 경영형태, 쌀 중심의 농업, 농산물 가공시설의 부족 등은 농촌의 상당한 노동력을 잠재실업상태에 방치하고 있고 따라서 뚜렷한 일감이 없는 젊은이들이 일을 찾아 도시로 몰리는 노동력이동현상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도시로 옮긴 농촌 노동력의 과반수인 52.6%가 식모, 차장, 접객업소 등 서비스업 등에 종사(한국생산성본부집계)하고 있다는 현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도시의 공업화가 농촌 노동력을 흡수할 능력이 없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성장에 따라 계속될 농촌 유희노동력의 도시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공장 같은 시설이 농촌에 세워지고 각종 공장이 지방분산, 농촌노동력의 숙련화를 위한 직업훈련 등으로 올바르게 직업을 보도해야 할 것이다. 이래야만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도시진출 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적 교류가 기대될

7) 지난 65년부터 70년 사이의 우리나라 이동인구 총수는 3백18만9천3백 명에 달했으며 5세 이상 전체인구에 대한 비율인 평균 인구이동률은 11.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보고한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특징」에 따르면 이 중 농촌→도시의 이동인구가 전체 이동인구의 5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도시→도시 이동으로 21%, 도시→농촌이동이 11.8%, 농촌→농촌이동이 9.3%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도시의 이동인구 중 절반정도가 서울과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도시로부터 다른 도시로 이동한 인구 중 82%가 서울과 부산으로 이동, 대도시집중현상이 가속화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인구이동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전입지의 고용기회, 임금수준, 이동비용(두 지역 간의 거리) 등 경제적 요인이외에도 교육기회 및 도시화 정도의 차이 등이라고 분석하고 서울로의 전입은 수도라는 특수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도시집중 가속화」, 『매일경제』, 1976. 6. 4, 1면.

수 있을 것이다.<sup>8)</sup>

도시에서의 이동 사유가 “가정빈곤”과 “도시동경파”라는 것은 당시 농촌의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소외가 상경을 추동한 원인으로 파악되지만, 근본적인 동인은 자본주의와 도시의 관계에 있다. 즉 물리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과 공간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화폐경제 내에서 개인은 자유롭게 자신이 소유한 노동을 시장에 내다팔고, 자신의 물리적 필요를 다시 시장에서 구입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근대적 개인은 가족이나 다른 공동체 구성원이 생계를 위한 일 모두를 수행해야 하는 전근대 시기의 만능형 자급자족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한 한쪽 재능만 특화한다 할지라도 생계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노동의 소유권, 자유시장 등을 통해 근대적 개인은 자유주의 사상을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경험함으로써 자생적인 것으로 내면화한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도 이러한 자유주의적 개인과 자본주의적 경제체계를 자생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sup>9)</sup> 하지만 군사주의 및 유교적 권위주의가 자본주의와 맞물려 들어감으로써 서구 근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젠더화된 특성을 보인다. 남성들은 군사제도와 대체복무제도 등을 통해 ‘군산복합체의 역군’으로, 여성의 경우 합리적 가정경영 캠페인, 미니스커트 단속 등을 통해 현모양처로서의 ‘국민(개인)’을 경험함으로써 조국 근대화 국가재건의 당위성은 자생적인 것으로 각인된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 살펴본 가난의 정서구조가 결합됨으로써 필연성을 지닌다. 결과적으로 이데올로기적 믿음은 운명 혹은 시대의 의무 등의 형식을 보인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국민교육헌장」의 첫 문장은 이를 잘 보여준다.<sup>10)</sup> “이 땅에”라는 속지주의에 근거해서 “태어남”이라는 자연적 탄생이 즉각적으로 “우리”라는 민족공동체 속으로 호출되며, 또한 곧바로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정치적 의무로 귀속된다. 출생이라는 단순한 자연적 소여가 “민족중흥”을 위한 다양한 정치적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자생성과 그 경험은 결국 ‘유사’ 자발적 형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정·교열을 요구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60~70년대 한국사회는 농촌 공동체의 붕괴와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물리적 필요의 충족과 ‘가난=죽음/부=생명’이란 가난의 정서구조에 의한 생존의 요구는 도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단일 선택지에 의한 선택이라는 반강제적인 형태인 것이다. 하지만 근대화 담론의 유포, 경제와 산업 체

8) 「봄의 골병, 무작정 상경」, 『경양신문』, 1970. 4. 24, 7면.

9) 특히 문학 장에서 4·19세대, 한글세대가 모든 삶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발견의 분출을 목격하고, 그 결과 그것들을 몸소 체험한 세대로서 ‘개인’을 주창하고, 이를 통해 문학적 헤게모니 투쟁을 실천했다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10) 「국민교육헌장」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량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제의 정비 등을 통해 자본주의의 자연성을 전유함으로써 그것을 자생적인 것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앞서 다룬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지방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역시 이러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가난의 정서와 상경의 행위가 조국근대화의 당위성과 국민 동원의 자발성을 추동했지만, 직접적인 도시체험에 의해 실현 불가능성이란 균열을 야기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미화에 대한 상징화의 실패이다. 박정희 정권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징화의 균열은 봉합되어야만 했다. 박정희 정권의 통치방식이 지속적으로 몸-신체를 규율하는 '생체정치'와 '훈육국가'의 형태를 강화한 것은 이에 대한 방증일 것이다.<sup>11)</sup>

정리하자면, 가난에 대한 특정한 정서구조가 야기한 부와 생명의 등치가 야기한 상경의 경험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의례로서 개발독재 이데올로기의 믿음을 생산하였고, 이를 통해 주체는 국민으로 동원될 수 있었다. 이후 지속적인 생체통치와 몸-삶의 훈육을 통해 국민의 의미화를 강화했다. 비유컨대 한국의 근대적 주체, 즉 국민의 생산은 주체가 가난과 상경이란 하나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여러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조작을 거친 결과이다.

문학은 하나의 반응체계로서 현실에 대한 시선과 이데올로기적 서사의 재연을 형상화한다. 본고에서는 가난과 상경의 서사가 추동한 주체화의 과정을 문학 텍스트의 징후적 읽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작품은 산업화의 토대가 정비되고 근대화의 양상이 가시화된 1970년대 시기의 세대와 풍속을 전면에 다룬 작품군 가운데 상경의 풍토를 전사한 조선작의 『미스양의 모험』,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 도시 정착에 성공한 이들의 사회적 이동의 열망을 다룬 박완서의 『휘청거리는 오후』을 선정했다. 이 두 작품은 가난과 상경의 서사와 주체화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전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 2. 근대화 "모험"의 상연

조선작의 『미스양의 모험』은 1975년 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271회에 걸쳐 연재된 소설이다. 연재 완료 후 예문관을 통해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1977년에는 영화로 제작되었다. 당시 영화계는 '문예물의 정책적 권장', '베스트셀러의 영화화', '아류 제작의 심화'라는 제작 경향으로 인해 '호스티스물의 봄'이었다. <미스양의 모험> 역시 그 연장선

11) "국민의 윤리와 정신적인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의하여 반포된 「국민교육헌장」은 1970년대 각 급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암기해야 했다는 측면은 박정희 정권이 생체정치를 통한 훈육국가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조희연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와 그 구성원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훈육하고 독려하는" 체제로 훈육국가를 정의하며 유신체제가 남한이 훈육국가의 모습을 취했다고 논한다. 그는 남한의 훈육국가 모습은 박정희 체제에서 생체적 훈육국가, 도덕적 훈육국가, 국가주의적 훈육국가 등 다양한 형태로 그 모습이 드러났으며, 가족계획 실시에서는 생체적 훈육국가의 모습을, 충효와 민족주체성의 강조에서는 국가주의적 훈육국가의 모습을, 그리고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는 데서는 도덕적 훈육국가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논한다. 특히 그는 혼분식 운동이나 가족계획운동 같은 것을 통해 생체적 훈육국가로서의 이미지가 많이 드러났다고 말한다.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 5·15에서 10·26까지』, 역사비평사, 2006, 173면.

상에 있었다. 김응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정희와 신성일이 주연으로 출연한 <미스양의 모험>은 1978년 6월 3일에 국도극장에서 개봉하여 15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호스티스물로 제작될 만큼 『미스양의 모험』은 ‘당대 여성의 성경험’, ‘섹슈얼리티’와 함께 도시 하위주체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으로, 주인공 양은자의 서울 상경기를 주요 서사로 한다. 양은자의 상경이 가출이라는 것과 서울을 방황하며 취직을 알아보다가 매매춘 여성으로 전락한다는 내용은 당시 서울의 풍경을 ‘그대로’ 담아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스양의 모험』은 상경을 통한 근대적 주체화의 전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주체화의 징후는 ‘펜팔 활동과 가출의 결행’, ‘서울역에서의 충격과 호스티스 생활’, ‘나기수와 의 재회와 결합’이라는 세 국면에서 전개된다.

우선 첫 단계인 상경의 결심과 실행은 펜팔 활동을 통한 근대화 담론의 체화인데, ‘환상’의 형식으로 구성된다.

『자네 펜팔 (그는 꼭 펜팔이라고 잘못 말했다)이라는 게 뭔지 아나.』

『그게 뭐데.』

『하 이 사람 어지간히도 무식하구먼. 펜팔이라는 것은 편지로다가 교제를 넓히는 운동이라구.』

『별 운동도 다 있군.』

『이 사람아. 사람이란 그저 교제가 넓어야 출세가 빠른 거라구. 우리 집 큰 애가 벌써부터 그 펜팔이라는 것을 시작했는데 교제를 하게 된 사람이 수백명이라네. 멀리는 미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는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더군. 그만큼 교제를 넓히면 대학 공부 한 것보다 낫지. 당장 좋은 자리에 취직을 시켜 준다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니까 말일세. 외국으로다가 여행을 시켜 주겠다는 사람까지도 나서고. 그 애는 이제 운이 활짝 터졌어...』

지나는 길에 어쩌다 은자는 그의 이런 주착없는 소리를 얻어듣게 되었지만 정말 가소로워서 상대하기조차 싫었다. 우선 펜팔을 편팔이라고 하는 그의 무지부터가 가소로왔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다거나 국회의원한테서 편지가 왔다는 식의, 또는 당장 좋은 자리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 사람이 나섰다가 외국으로다가 여행을 시켜 주겠다는 사람이 나섰다는 등의 허황스런 과장에 대해서는 딱 기가 질리었다.<sup>12)</sup>

펜팔과 같은 매체는 근대적 이동과 순환의 역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소이다. 이러한 매체는 의식, 광고, 그리고 다른 사회체들을 순환을 도모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외국, 국회의원, 교제, 대학, 취직, 여행 등 사회체들이 드러난다. 이것은 도로, 교통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의 축소시킨다. 즉 상이한 물리적 공간 내에 동시성을 구성한다. 펜팔과 같은 통신수단은 도시와 서울의 격차를 가시적 차이를 매개할 뿐만 아니라 담론을 유포함으로써 (대)타자의 존재와 그/그녀의 욕망을 주체에게 상연한다.

당시 펜팔은 국가적 운동의 형식으로 보급되어 국가 이데올로기의 유포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보증하는 의례로 기능했다. 즉 펜팔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근대적 문화의 수용자로 정체감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아직 펜팔 운동에 비참여자인 양은자의 냉소적 태도는 믿음의 물질화로서의 의례 행위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후 양은자는 열성적으로 펜팔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 호명에 응답한다.

한 명의 시골 소녀가 가출(家出)의 뜻을 갖는데 뭐 엄청난 이유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자

12) 조선작, 『미스양의 모험』 상, 예문관, 1975, 47면. 밑줄은 인용자 표기, 이하 인용문에 부기함.

신의 암담하고 침울한 현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유가 충분할 것이다. 더구나 양은자 양에게는 펜팔로 그녀의 꿈과 낭만을 띄운 상대자만도 수십 명이요, 도처에서 그들이 그녀를 향해 손짓하는 느낌이었다. 때문에 양은자 양은 가출의 의지는 펜팔의 연장(延長)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63면)

그러나 은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모두 동원해서 이리덱을 설복했다. 지금 세상은 옛날과 다르다. 이곳 저곳에서 공장들이 들어서고 회사가 수도 없이 늘어났다. 사람이 모자라서 야단이라더라. 조국 근대화가 뭘지 모르나. 이런 것이 바로 근대화라는 것이다. 이런 때에 훌륭한 노동력을 가지고 가만히 썩고 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최악이다. 서울에는 천지가 직업소개소라더라. 하다 못해 식모나 스웨터 공장의 공녀 자리를 알선해 주는 곳에서부터, 관광 안내원 경리사 타이피스트 등으로 가르쳐서 취직을 시켜주는 학원에 다. 기술만 좋으면 외국에까지 취직시켜 주는 곳도 있다더라. 저만 똑똑히 굴면 취직은 물론이거니와 한밑천 잡을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너도 나도 서울로 올라가려 하는 것은 공연한 일이 아니다. 사람은 그저 너른 바닥에 가야 기회도 잡을 수도 있고 출세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64면)

냉소적 태도를 보이던 양은자는 펜팔 활동을 통해 조국근대화 담론을 수용한다. ‘유희 노동력’을 “최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주목된다. 이것은 앞서 제시한 산업화와 자주국방이라는 생명 보전의 논리에 의한 것이다. 이는 지배 담론의 지식 자체 없이 주체화의 계기가 아니라 바로 실천에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리고 첫 번째 인용에 나타난 서술자의 설명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담론적 지식은 구체적 앎이 아니라 현실과 주체의 상상적 관계를 담지한 ‘환상’이란 형식으로 주체 내부에 자리한다. 다음 인용문에서 대타자로서의 지배담론이 구성한 환상의 프레임과 시나리오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교사를 하고 있다는 대학생과의 펜팔을 좀 더 정중한 것이었다. 그는 항상 편지의 말미에 ‘미스 양에게 신의 은총이 내리기를 빌면서’라고 썼는데 이것만으로도 그의 문자가 얼마나 고상한 것인가 아마 짐작이 갈 것이다. 더구나 그는 대학생 중에서도 신학대학생이었으며 때문에 양은자 양도 그에게 답장을 쓸려면 숯제 신앙성서를 펼쳐 놓고 베끼다 시피 했었다. 이런 자그마한 거짓은 양은자 양으로 하여금 이상한 흥분을 들뜨게 했다.

...(중략)...

처음에는 킁 하고 웃어 버렸지만 날이 갈수록 그의 이 말은 이상하게 부풀어 올라서 때로는 그와 함께 어떤 낯선 교회에 찾아들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목사님 앞에 나란히 서서 예식을 올리는 장면까지 상상하기도 했다. 하먼드 올겐의 유려한 음악이 귀에 쟁쟁하고 예배당을 메운 축하객들의 미소가 만발하며 그녀는 마치 구름 속에 첫발을 디딘 것처럼 황홀해지는 것이다. 이런 황홀한 상상력까지 유발해 낸 이 신학대학생과의 펜팔은 다른 것들에 비해 좀 특이한 성질의 것임에 틀림없다.

수첩에는 그밖에도 주소만 적혀 있는 펜팔 상대가 몇 명 있는데 그들의 신분은 시장조합 경리사원, 중장비 운전사, 태권도 사범 등이다. 적어도 편지에 의한 그들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면, 시장조합 경리사원은 이미 신혼의 보금 자리로 이십 몇 평 형의 아파트를 사 놓은 스물 여덟 살짜리 총각이고, 중장비 운전사는 월수가 십오만 원이고, 태권도 사범은 홍콩으로부터 전통적인 국기(國伎)인 태권도를 그런 흥행적인 목적으로 타락시킬 수 있는 나쁜 고민 때문에 떨칠 수도 있는 일 아니냐고 권고한 바 있었다.

아뭏튼 이를 모두가 양은자 양에게 사랑을 구걸해 왔던 펜팔 상대자였으며, 그래서 그녀가 수첩을 펼쳐 들었을 때는 마치 무적함대처럼 모든 것에 자신만만한 느낌이었다. (102~103면)

지직은 욕망을 설명함에 있어서 환상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그 이유는 환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욕망할지 가르쳐준다는 것이다. 환상은 일차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구성한다. 그것은 ‘무엇을 원하는가?’란 질문으로 표현된다. 보다 정확하게는 ‘(대)타자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상징적 질서 속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들이 지닌

자의적인 성격에서 생겨난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질문자와 대타자, 즉 상징적 거리를 창출한다. 더불어 환상은 (대)타자가 실제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 속에 드러난, 타자의 욕망에 대한 방어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질문은 상징적 질서의 실패를 암시하는 동시에 주체성의 순간을 가리키기도 한다.

위 인용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양은자의 환상은 현실에 대한 ‘나’의 상상적 관계를 상영한다. 그것은 지배 담론의 욕망이 던진 질문의 공백을 채우는 일종의 스크린으로서 양은자의 환상은 결혼, 신부, 사랑 등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근대화 프로젝트의 가능하게 하는 주체로서의 국민의 형태인 군산복합체의 역군과는 괴리된 것으로 여성의 정체성을 표기한다. 그것은 남성의 담론 영역인 기술, 기계 등에 대한 반응을 통해 재확인된다.

송수화기를 든다. 동전을 집어 넣는다. 다이얼을 돌린다. 은자는 이렇게 되풀이해서 중얼거리며 그들의 동작을 예리하게 관찰했고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차례가 와서 박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다. 송수화기를 들고 동전을 집어 넣은 다음 은자는 차근차근 다이얼을 돌렸다. 수첩을 보아가며 먼저 형부네 회사의 전화번호부터 다이얼을 돌렸지만 과연 성사가 될 것이냐는 펍 의문이였다. 아니나 다를까, 아무리 다이얼을 돌려도 기계는 뽁뽁거리는 소리만 낼 뿐 좀처럼 상대편이 나와 주지를 않았다. 송수화기를 내리고 다시 도전하였지만 기계는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초조해졌다. 가장 중요한 최초의 순간에 그만 벽에 부닥뜨렸다는 자각이 은자로 하여금 가슴이 답답하도록 만들었다. 다시 경혜의 전화번호에 도전하였지만 기계의 거부는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세차요원의 전화번호도 신학대학생의 전화번호 역시 문을 열어 주지는 않았다. 드디어 양은자 양은 온 몸이 후텁지근하게 달아 오르기 시작했고 귀가 왕왕거렸으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심지어는 열 개의 손가락까지 와락와락 떨려서 더는 다이얼에 초점을 맞출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때 그 공중전화 박스 안으로 뛰어든 사람이 있었다. (106~107면)

위 인용문에서 양은자는 전화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심리적 공황에 빠진다. 이를 통해 그녀가 품고 있던 서울과 근대에 대한 환상은 지배 담론의 욕망이 던진 질문의 공백을 채우는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이것은 주체화의 실패이다. 도시의 현실 앞에 양은자는 호명되지 못한 주체로 자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은자의 존재는 스피박의 하위주체인 것이다. 스피박은 한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지배적 담론체계로는 포섭할 수 없는 이들이다. 즉 호명되지 못한 비국민이며 주변화된 노동의 역량이다. 당시 도시의 경제활동에서 여성은 서비스업의 종사함으로써 경제적 기여도가 크에도 불구하고 부차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당대 상경 담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상경자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되었다. 이러한 여성의 존재방식의 문제는 이후 새마을운동의 현모양처상을 통해 국민으로 포섭된다. 이른바 새마을 영화로 제작된 <어머니>, <아내들의 행진>은 군산복합의 역군에 여성을 포섭하기 위한 기획으로 읽힌다. 이 두 영화는 계몽화된 여성 주체로서 가족계획운동에 동참하고 마을의 개량화에 열성적인 현모양처로서의 여성의 모습을 제시한다. 현모양처의 함의는 현모와 양처를 분할한 어머니와 아내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모성과는 다른 어머니의 모습이지만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다는 측면에서 현모양처의 전형성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생물학적인 아이를 대신하여 근대화된 마을 공동체를 재생산하는 주체로 제시된다.

양은자가 보여주는 비주체로서의 하위주체의 양상은 작부, 레지, 유흥업소 종업원, 매매춘여성으로 점철된다. 하지만 소설의 말미에 재등장하는 낙도의 교사였던 나기수와의

재회와 결합을 통해 현모양처로서의 주체화가 등장한다는 점은 이러한 여성의 국민 호명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셈이다.

### 3. "휘청거리는" 상징화와 몸-삶의 가능태

박완서의 『휘청거리는 오후』는 당대 결혼 세태를 문제적으로 다룬 소설이다. 세 딸의 결혼과 연애 서사는 이를 지켜보고 경험하는 가장 허성의 반응, 즉 그의 내면 서술, 논평과 설명을 통해 의미화된다.

허성 씨가 교직을 떠나 경험도 없는 공업에 손을 댄 것은 순전히 딸자식들 때문이었다. 데리고 있던 막냇동생과 큰딸이 같이 대학에 들어가고 둘째, 셋째가 고등학교에 가던 해 허성 씨는 생각한 바 있어 사표를 쓴 것이다. 생각한 바란 별것도 아니었다 장차 자기 월급 갖고 동생과 세 딸을 대학 공부까지 시키려면 식구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쪼들려야 될지, 지독하게 쪼들리더라도 그게 되거나 되는 건지 도무지 망막했고 가장이 이렇게 망막하기만 해선 안 된다는 거였다. (22면)

허성 씨와 민 여사는 30년 전에 시골 국민학교 교사까리였을 적, 서로 열렬한 사랑에 빠졌다. 시골 작은 동네에서의 일이라 소문이 망측하게 나, 결국 유지급 학부형들의 등쌀에 못 이겨 학교에서 둘이 같이 쫓겨나고 말았다. 두 사람의 사랑을 시골 사람들은 연놈이 배가 맞았다는 막말로 떠들어댔다.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받은 수모와 박해도 결덜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둘이서 도시로 나와 갖은 고생 끝에 허성 씨가 중등교사 자격시험을 거쳐 다시 교사직을 얻음으로써 도시에 정착할 수 있었다. (24~25면)

이 제자의 주선으로 생소한 공업에 뛰어들었고 아닌 게 아니라 사람 꼴은 좀 사나워졌지만 수입이 월등히 나았다. 그래서 동생과 딸들이 주린 것 모르고 대학 마쳤고 아내도 궁기를 벗고 제법 귀부인이가 났고 반달반들한 양육까지 장만했다. 그만했으면 아비 노릇 잘한 걸로 알았다. 그런데 오늘 이 꼴은 뭐람. 지금 스웨터 주머니 속에서 뽁뽁 오그리고 있는 왼손처럼 아비의 위신이 기를 못 펴고 자꾸 오그라드는 건 무슨 까닭이람. (23면)

상경한 허성은 가정을 위해 “생소한 공업”에 뛰어들어 왼손을 희생하는 대가로 도시 생활에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신체 훼손은 ‘순종적 신체’가 국민으로 포섭되는 방식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박정희 정권기에 시행되었던 규율적 측면을 강조하는 생체정치기술들의 핵심은 ‘벌거벗은 생명’에 국민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을 부여하는 것이다. 산업역군으로서 허성의 신체 절단은 상징계가 의미하지 못한 존재의 실재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증환으로서 허성의 주체성을 형성하는 밑바탕이 된다. 이것은 왼손에 대한 허성의 금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허성의 주체성은 물신주의 담론 앞에 훼손된다.

“중매쟁이한테서 연락이 왔더라. 신랑감이 총각이 아니라지 뭐니. 나이는 마흔이 넘고 전실 애가 둘이나 되고, 하, 기가 막혀서 전화를 그냥 끊고 말았다만-.”

“그럼 부자겠군요.”  
 “아니 너 그걸 어떻게 아니?”  
 “빠한 거 아녜요. 그런 최악의 조건을 무릅쓰고 뻔뻔하게 비싼 투쟁이까지 들어서 양갓집 처녀, 그것도 아마 예쁜 처녀겠쥬. 처녀만 물색하는 게 부자 아니면 미친 사람밖에 더 있겠어요?”  
 “하긴 그렇구나.”  
 …(중략)…  
 민 여사는 가까스로 대수롭지 않은 얼굴을 하고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불쑥한다.  
 “하긴 신랑 자리가 사장보다 더 높은 뭐 회장이라나. 아무튼 부자라더라. 더러운 부자라나 보더라.”  
 “더러운 부자?”  
 초희가 새소리처럼 밝고 들뜬 소리로 더러운 부자 소리를 되뇌인다. 그리고 역시 새소리처럼 티없이 명랑한 소리로 허리를 비틀고 웃는다.  
 “듣기 싫다. 남은 화가 나서 죽겠는데 뭐가 우썩서 그렇게 웃냐?”  
 “더러운 부자란 소리가 생각할수록 우습고 유쾌하고 맹랑해서 그래. 엄마 생각해봐. 더럽다는 형용사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더럽게 만들잖아? …(중략)… 그런데 엄마, 더러운 부자 많은 예외란 걸 난 지금 발견했어. 부자에 더러운이란 형용사를 붙이니까 부자가 한층 빛나고, 기름이 흐르고, 구미를 돋우는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것 같아. 부자를 가장 부자답게 돋보이게 하는 결정적인 형용사가 아마 ‘더러운’ 일 거야. 더러운 부자, 좀 좋아?”  
 (289~290면)

민 여사가 더러운 부자 소리를 어찌나 감각적으로 먹음직스럽게 발음했는지 허성 씨는 민 여사와 초희의 그 더러운 것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고, 자기에게 그 더러운 것 이상의 가치를 갖고 맞설 아무것도 없다는 일종의 무력감이 그를 엄습했던 것이다. (292면)

허성 씨는 말문이 막힌다. 더러운 부자에 의해 딸의 인생이 송두리째 험잡질당하고 있다는 그의 생각을 그는 어떻게든 설명할 수가 없다. 그에겐 그게 거의 확신이었는데도 남에게까지 그걸 확신시킬 자신이 없다.  
 그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나름의 생활태도랄까, 세상 보는 눈이랄까를 꾸준히 지키면서 살아온 셈이었고, 그의 그런 세상 보는 눈으로 볼 때 초희가 하려는 일이 해괴망측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막상 초희에게 돈보다는 사람이라든가, 돈보다는 사랑이라든가 이런 소리를 하려면, 그 허위스러움에 당장 자기 얼굴이 먼저 빨개질 것 같았다.  
 자신만만한 게는커녕 얼굴 빨개지지 않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 만한 배짱조차 허성 씨 에겐 없었다. 그건 그것 나름으로 험잡질일 것 같았다. (292~293면)

아내도 돈을 좋아하기로는 초희에게 지지 않는다. 그러나 아내는 많은 고생을 했다. 가난으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으며 살아왔다. 전쟁 중에 비인간적인 가난도 겪었고, 가난과의 싸움에서 남편의 손가락이 토막 나는 끔찍한 꼴도 봤다. 그러니깐 아내가 돈 좋아 하는 건 아내가 삶과 직접 부대끼며 얻은 그 나름으로 소중한 결론이요, 의미인 것이다.  
 그런데 초희는 아직 새파란 나이에 시시한 어른이 마련해놓은 결론으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한다. 출발도 아니다. 숯제 결론에 주저앉아 구더기처럼 편히 살피려 한다. (293~294면)

위 인용문에서 허성은 절대적 부 앞에 무력감을 느낀다. 이러한 부는 최초 생명의 소유라는 가난의 정서가 부 자체에 집중된 물질주의적 전도를 의미한다. 부 자체에 대한 갈망은 당대 근대화 담론에 의해 남성 주체에게 주어진 “국가와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라는 젠더적 정체성을 위협한다. 이러한 정체감의 위협은 초희의 결혼 실패를 계기로 절정을 이룬다.

둘은 나란히 누었다. 허성 씨가 하도 집잡으니까 여자가 먼저 허성 씨의 몸을 이리저리 더듬었다. 그러다가 그만 왼손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된 모양이다. 꿈틀 놀라더니 이불 속에서 꺼내 불빛에서 자세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왜 징그러워?” (124면)

“아아뇨.”

여자가 황급히 부인했다. 그러나 허성 씨는 여자의 부인을 믿지 않는다.

“안 징그럽다구? 그럼 거기다 뽀뽀를 해. 꿏어앉아서 부드럽게, 정성스럽게.”

허성 씨는 깡패처럼 눈을 부라리며 사납게 소리를 질렀다. 여자는 순순히 허성 씨가 시키는 대로 일어나 앉아서 무릎을 꿏고 그 미운 상처 자국에 입술을 댄다. 비바람 속으로 오로지 몸을 팔기 위해 달려온 이 여자는 혹시라도 자기의 목적을 완수하지 못할까 봐 겁을 내고 있다. 그럴수록 허성 씨는 더 때를 쓴다.

“틀렸어, 틀렸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따뜻하게 거길 사랑해 봐. 거긴 사랑받아야 한단 말야.”

허성 씨는 자신도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생떼를 이 늙은 여자는 눈살 하나 안 찌푸리고 고분고분 받아들인다. 허성 씨의 토막난 손을 자기의 갈퀴처럼 앙상하게 늘어빠진 손으로 정성껏 어루만지고 입술을 갖다대곤 하기를 되풀이한다. 밤새도록 그러고 있으래도 그러고 있을 것 같다.

그런 그녀의 몸짓에는 허성 씨에 대한 공포감도 없거니와 더군다나 사랑 따위를 위장하고 있지도 않다.

그녀는 다만 굴종하고 있을 뿐이고 그녀의 굴종의 자세는 눈물겹도록 익숙하고 완벽하여 그녀 자신이 굴종의 화신이 된 양 특이한 아름다움에까지 도달하고 있다. (126면)

...(중략)...

그런데 이 늙은 여자만은 좀처럼 잊혀질 것 같지가 않다.

오로지 굴욕으로만 매일매일의 나이를 먹어 이만큼 늙은 여자의 말없는 위무의 손길이 너무 슬퍼져 그는 손을 슬그머니 빼냈다. 그리고 그녀를 자리에 놓혔다.

이상하게도 시집가서 혼자 외롭게 사는 누이집에 와서 같이 누운 것같이 마음이 편안하고, 조금쯤 서럽고 할 뿐 아무런 욕망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자가 다시 그에게 가까이 왔으나 기분 나쁘지 않게 뿌리치고 잘 자라고 토닥거리주었다. 여자를 토닥거리며 그는 마치 자기가 크고 너그러운 손으로 토닥거림을 당하고 있는 듯한 위안을 받으며 여자보다 먼저 잠이 들고 말았다. (127면)

이것은 하위주체성에 대한 경험이다. 신체 절단의 경험과 함께 내면화한 가장으로서의 남성성에 대한 주체화 이전의 상태, 즉 아직 상징계의 진입하지 않은 ‘벌거벗은 신체’의 상태를 허성은 늙은 작부를 통해 위안을 경험한다. 이후 소설의 서사에서 점차 하위주체성으로 주체화하는 허성을 살펴볼 수 있다. 소설 말미에 가서 초희의 죽음을 계기로 허성은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은 소실되며, 주체로서의 허성은 상징적 죽음에 상태에 놓인다. 작품의 결말에서 허성의 실재적 죽음으로 통해 상징적 죽음을 봉합한다. 이것은 근대적 남성 주체의 의미화에 대한 실패를 보여준다.

#### 4. 결론 : 근대화의 '실패 놀이(fort-da)'

(미완)

# 최인호 소설의 경계적 인물 연구

김지혜(가천길대학교)

## 1. 들어가며

1967년 <견습환자>로 본격적인 문단 활동을 시작한 최인호는 압축적 경제개발로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된 당대의 시대상 및 대중의 감수성을 그 누구보다도 섬세하게 포착해 낸 작가이다. 그는 「타인의 방」, 「전람회의 그림」연작, 「개미의 탑」, 「무서운 복수」 등의 작품에서는 도시적 공간에서의 소외된 삶, 억압적 근대화와 개인의 문제 등을 그려내는 한편, 신문 연재소설인 『별들의 고향』, 『바보들의 행진』, 『도시의 사냥꾼』 등에서는 상업화된 쾌락적 성과 일탈욕망, 도시 청년 문화의 경쾌함 등을 다룸으로써 1970년대 대중소설의 대표 기수이자 청년문화의 아이콘, 대중소설의 영화화 붐을 이끈 베스트셀러 작가로 떠오르게 된다.<sup>1)</sup> 이처럼 중단편과 장편에서 다른 경향을 보였던 최인호의 문학은 ‘중단편이 본령이요 장편은 결가지’라는 양가적 평가를 받아왔다.<sup>2)</sup> 주로 전자가 도시적 삶에서 타자화되는 현대인의 욕망과 허무의식을 감각적으로 묘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면, 후자는 최인호에게 현실도피적인 통속 작가, 상업주의 작가라는 오명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sup>3)</sup>

- 1) 특히 『별들의 고향』(<조선일보>, 1972.9.5~1973.9.9)은 기존의 사랑담론과는 차별화된 소비적 사랑을 1972년 26세의 젊은 나이에 신문연재를 통해 최초로 선보였다는 점, 이 작품의 대중적 성공으로 전업작가라는 새로운 입지를 마련한 점, 베스트셀러의 대형화를 몰고 와 출판판도와 영화판도를 바꿔놓은 점, 한글감각의 문체로 소설적 재미를 부각시킨 점, ‘청바지 생맥주 통기타’ 등으로 대변되는 70년대 ‘탈권위와 탈상업적문화’를 주창하는 청년문학의 기수가 된 점, 문단의 냉대 속에 문단과 결별한 채 작품 활동을 계속 해온 점 등이 그것이다. 최인호는 이 작품으로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이유로 ‘상업주의 작가’ 더 나아가 ‘호스티스 소설’ 작가, 대마초와 퇴폐온상인 ‘청년문학의 괴수’라는 오명이 항상 뒤따라 다녔다. (오경복, 「한국 근현대 베스트셀러문학에 나타난 독서의 사회사-1970년대 소비적 사랑의 대리체험적 독서」, 『비교한국학』13, 국제비교한국학회, 2005, 4~5면.)
- 2) 한수영은 ‘중단편이 본령이요 장편은 결가지’라는 편견이 장편에 무게중심을 둘 때는 최인호 소설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 되지만, 거꾸로 중단편에 무게중심을 둘 때는 대단한 찬사로 해석될 수 있는 양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한수영, 「억압과 예로스- 1972년의 최인호」, 『황진이』, 문학동네, 2002, 296면.)
- 3) 김현의 「초월과 고문- 한 소설가의 세계 인식에 대하여」(『문학사상』, 1973. 4.), 성민엽의 「불화와 허위의 세계의 비극성」(『문학의 빈곤』, 문학과학사, 1988), 김우종의 「한국문학속의 상업주의와 그 반성」, (『순수문학비판』, 자유문학사, 1989) 등은 당시 평단의 부정적 평가를 잘 보여주는데, 이들은 최인호의 장편소설이 지닌 현실도피적 특징 및 대중과 영합하는 상업주의를 비판하였다. 물론 이러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반대의 견해 역시 존재한다. 김주연은 「상업문명 속의 소외와 복귀-최인호론」(『세대』, 1976. 6) 최인호의 소설을 현실도피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적극적 현실 비판의 알레고리로 파악해야 하며, 인물들의 일탈 행위는

최근에는 평론에 머물렀던 최인호의 작품이 전반적으로 연구되면서 중단편 소설에 대한 다양하고 섬세한 독해가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평가절하되었던 신문연재소설에 대한 연구, 소설의 영화화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오창은은 「도시 속 개인의 허무의식과 새로운 감수성-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sup>4)</sup>에서 도시문화에 내재된 현대인의 욕망과 허무의식을 밝히고 있으며, 김진기와 김성환은 각각 초기소설과 초기 장편소설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다.<sup>5)</sup> 문재원의 「최인호 소설의 ‘아동’ 연구」<sup>6)</sup>와 송은영의 「1970년대의 하위주체와 합법적 폭력의 문제: 최인호의 「미개인」과 「여행연습」을 중심으로」<sup>7)</sup>는 초기 최인호의 단편에 나타난 ‘아동’과 ‘하위주체’가 지배질서의 동일화를 거부하거나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폭로하고 있음을 밝히며 최인호 소설의 저항적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김인경은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저항의 서사」<sup>8)</sup>에서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모더니즘적 저항의 서사가 1970년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점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양가성 연구」<sup>9)</sup>에서는 최인호 소설의 양가적 특징을 통해 저항성과 화해 가능성 등을 고찰한다. 또한 이선미<sup>10)</sup>는 『별들의 고향』을 청년문화의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이 소설이 지배담론에 반발하는 개인의 실존 현상을 담고 있다고 재평가하였으며, 박찬효<sup>11)</sup>는 「순례자」, 「돌의 초상」, 「개미의 탑」 등에서 ‘감사’의 윤리학을 통해 도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정리하자면 최근 여러 논의들에서는 최인호 소설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본격화되었으며, 도시공간이나 대중소설적 특성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그의 소설이 지닌 저항성 및 연대 가능성 등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인호 소설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중단편과 장편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인호 문학의 현실비판이나 저항성 등을 밝힌 논문에서는 작품의 대중적인 특성인 퇴폐적인 낭만성이나 현실의 도피의식은 축소시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인호 소설이 소위 본격문학에서 대중문학으로 넘어가는 시기인 1970년대의 중단편 및 장편에 나타난 경계적 인물을 살펴봄으로써 최인호 소설의 긍정적 가능성과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명 최인호는 급격한 근대화가 이루어진 1970년대라는 시공간의 특징을 작품에 가장 잘 반영한 작가이며, 당대 대중들과 호흡을 함께한 작가임에 틀림없다. 그는 국가가 억압적으로 주도한 압축적 경제개발이 가져온 소외의식과 이기주의, 상업주의와 물질화 등의 부정적 이면을 포착해내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위악적 태도로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신동한(「최인호 문학의 수수께끼」, 『별들의 고향』해설, 예문관, 1977)은 『별들의 고향』, 『내 마음의 풍차』 등의 장편소설이 한국 문학적 병폐인 폐쇄적인 순수문학을 넘어 본격문학과 대중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한다.

4) 오창은, 「도시 속 개인의 허무의식과 새로운 감수성-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어문논집』32, 중앙어문학회, 2004.  
 5) 김진기, 「최인호 초기소설의 의미구조」, 『인문과학논총』35,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김성환, 「최인호 초기 장편소설의 구성 연구」, 한국현대문학회 여름 학술대회발표회, 2006.  
 6) 문재원, 「최인호 소설의 ‘아동’ 연구」, 『현대소설연구』28,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7) 송은영, 「1970년대의 하위주체와 합법적 폭력의 문제: 최인호의 「미개인」과 「여행연습」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41,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8) 김인경,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저항의 서사」, 『국제어문』39, 국제어문학회, 2007.  
 9) 김인경,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양가성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10) 이선미, 「‘청년’ 연애학 개론의 정치성과 최인호 소설」, 『대중서사연구』24, 대중서사학회, 2010.  
 11) 박찬효, 「최인호의 1960~1970년대 중단편 소설에 나타난 도시 재현 양상과 ‘사랑’의 윤리학」, 『현대소설연구』54,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비판하거나 일탈적 행위로 사회 질서에 대응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많은 작품 속 초점 화자는 지배 체제에 완전히 동일화되지도 못하고, 그 체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도 못한 채 경계를 서성이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계적 인물을 분석함으로써 최인호 작품 전반에 나타나 있는 양가적인 욕망을 살펴볼 것이며, 이를 통해 그의 초기 중단편과 신문연재소설 사이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경계에 놓인 '조숙'한 아이와 동일화 욕망

최인호의 초기 소설에는 부조리한 세계를 너무 일찍 알아버린 어린 화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여러 논자들이 밝힌 것과 같이 「술꾼」(1970), 「모범동화」(1970), 「처세술개론」(1971), 「예행연습」(1971)등의 어린 화자들은 세계의 질서에 편입되는 성장을 보여주기보다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세계의 진실을 일찍 꿰뚫어보고 위악적 태도로 세계에 맞선다.<sup>12)</sup> 「술집」에서 어머니의 위독함을 아버지에게 알리기 위해 술집을 배회하는 '작은 아이'는 어른들의 공간인 술집을 드나든다. 고아원에 살고 있는 아이는 부재한 아버지를 매개로 술집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술에 취한 어른들은 매일 반복되는 아이의 거짓말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용인하며 아이에게 술을 건넨다. 아버지를 찾는 순진한 아이를 연기하던 '작은 아이'는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취객의 주머니를 뒤지고, 훔친 돈으로 당당하게 술집에 들어서기도 한다. 그는 술에 취해 아이에게 술을 권하는 어른들, 돈만 있다면 아이에게도 술을 파는 작부의 세계를 훤히 꿰뚫고 있으며,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모범동화」에서 역시 세계의 부조리와 위선을 일찍 알아버린 아이가 등장한다. “얼굴엔 나이답지 않게 주름살이 가득”<sup>13)</sup>한 조로운 아이는 지각을 도맡아 하고 수업 시간에는 졸거나 원숭이 흉내를 내는 바보 같은 아이로 보이지만 교묘한 태도로 세계를 비판한다. 그는 아이들을 현혹시키는 서커스의 속임수나 빨갱이를 무찌른 용감한 어른이자 학교에 봉사하는 모범 어른으로 위장하고 있는 강씨의 처세술과 상술을 모두 간파하고 있으며, 그 수법을 깨는 방식으로 어른의 세계를 조롱한다. 특히 그는 수업을 교묘히 교란함으로써 어른이 보여주는 역사와 세계의 허위를 폭로한다.

졸지 않을 땀 뒷자리 구석에 앉아, 선생님이 한 마디 할 때마다 그 소리를 흉내내며 얇게 무어라고 외쳤다. 선생님 귀에는 들리지 않았으나 둘레 아이들은 모두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모범생처럼 상체를 세우고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입은 무표정하게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열중한 사내가 무의식적으로 뱉어내는 소리라는 듯한 결백의 표정을 얼굴에 나타내면서…….

『삼일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는데……』

『삼일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는데……공같이다.』

『소위 문화 정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12) 최인호 소설의 어린 화자에 대해서는 장세진(「최인호 단편소설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7), 박성원(「반(反)성장 소설연구: 김주영과 최인호 소설을 중심으로」,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석사논문, 1999), 문재원(앞의 글), 김인경(앞의 글), 오경아(「최인호 단편 소설 속에 나타난 아이 모티프」,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권은수(「최인호 단편소설 연구-아버지와 아이들의 세계를 중심으로」, 중앙대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2009), 김은미(「아이러니를 통한 최인호 소설의 '애늬은이' 인물 연구」, 경남대 교육대학교 석사논문, 2012) 등이 있다.

13) 최인호, 「모범동화」, 『타인의 방』, 예문관, 1973, 56~57면.

『소위 문화 정책을 쓰기 시작했는데…공갈이다.』  
『우리 선조들은 피땀으로 조국의 광복을 위해…』  
『우리 선조들은 피땀으로 조국의 광복을 위해…공갈이다.』<sup>14)</sup>

페쇠의 주제 이론에 따르면, 어른의 세계를 거부하는 그는 이데올로기의 호명을 거부하는 주제, 대주체의 결정을 거부함으로써 반동일화(Counter-identification)의 태도를 보이는 ‘나쁜 주제(Bad Subject)’이다.<sup>15)</sup> 그는 어른 세계의 이론이 ‘공갈’임을 폭로함으로써 어른 세계의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술꾼」의 아이와 마찬가지로 어른의 세계에 일찍 진입해버린 조숙한 아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강씨의 속임수를 노련한 어른의 방식을 깨뜨리고, 패배한 강씨가 자살해 버릴 것이라는 사실 역시 예감하고 있는 것이다.

「처세술개론」에서 돈 많은 큰할머니의 유산을 차지하려는 어른들의 욕망을 담지한 아이들의 모습이나 「여행연습」에서 어른의 욕체와 욕망을 갖고 있는 15세 소년들의 모습에서 역시 아이의 세계와 어른의 세계의 경계에 놓여있는 주체를 발견할 수 있다. 「처세술개론」의 ‘나’는 ‘소녀’의 영악한 연기를 눈치채고 있을 뿐 아니라 거울에 비친 자신의 ‘예쁜 모습’에서 뻔뻔함과 혐오를 느끼며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어린 아이이기를 요구하고 있다.”<sup>16)</sup>고 고백한다. ‘나’는 어른들의 욕망인 ‘순수하고 예쁜 어린 아이’를 연기하지만 그 어른들의 처세술을 꿰뚫어보고 있으며,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서 분열을 느낄 정도로 조숙하다. 「여행연습」의 성인의 체구를 지닌 ‘나’는 이른 나이에 철공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에게서 “사정 직전 교살된 개의 정액 냄새”, “긴 혼수 상태에 빠진 사나이의 깊은 수면처럼 짙은 냄새”<sup>17)</sup>를 느낄 만큼 자신과 또래의 정체성을 성인의 테두리에 귀속시킨다. 그러나 이들은 ‘10세 이상 15세 미만의 소년’을 고용한다는 공고에 박애 고아원의 ‘고아’로 호명된다. 이들 역시 성인과 아동의 경계에 놓여 분열을 경험하는 인물들이다.

최인호 소설의 어린 화자들은 속화된 세계의 허위의식과 어른들의 부정적 질서를 너무 일찍 깨달아버린 통찰적 인물들로서 경계에서 부정적 현실을 폭로하기도 하지만, 그 세계에 쉽게 동일화된다는 한계를 지닌다.<sup>18)</sup> 이들은 어른의 세계를 비판적으로 응시하고 세계에 규율화되기를 거부하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어른의 욕망과 속임수를 내재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소설에 나타난 ‘가정’ 혹은 ‘아버지’의 의미를 다시 고찰해 볼 수 있다. 「술꾼」의 아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아버지를 핑계로 술을 얻어 마신다. 아이는 자신의 주량을 채운 후 고아원에 돌아가면서 “(아, 아, 이 어두운 밤 아버지는 정말 어디에 있는 것일까.)”(50면)라는 생각을 하며, “내일은 틀림없이 아버지를 찾을

14) 최인호, 위의 글, 57면.

15) 이데올로기에 ‘호출’된 주체를 말한 알튀세의 이론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인의 동일화만을 언급하고 있다면, 페쇠는 ‘비동일화’ 개념으로 알튀세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 페쇠는 주체가 구성되는 세 가지 기제를 설명하는데, 동일화는 그들에게 주어진 이미지에 ‘자유롭게 동의하는’ ‘착한 주제’들의 양식이며, 반동일화는 동일화를 거부하는 ‘나쁜 주제’들의 양식이다. 그들은 분명한 것만을 말하는 착한 주제들에 의해서 ‘생생하게 된’ 의미들을 “‘너희들이 말하는 석유위기’, ‘너희들의 사회과학’, ‘너희들의 성모 마리아’”식으로 말하며 그들에게 돌려준다. (다이안 맥도넬, 『담론이란 무엇인가』, 임상훈 옮김, 한울, 2006, 61~62면.)

16) 최인호, 「처세술개론」, 앞의 책, 172면.

17) 최인호, 「여행연습」, 앞의 책, 116면.

18) 페쇠는 이 두 가지 양식은 즉각적인 ‘대칭’을 이루며 사실상 서로를 보완해준다고 지적한다. 반동일화는 이런 정체성을 거부하면서도 사실은 그와 공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이안 맥도넬, 위의 책, 62~63면.)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51면)하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아버지를 내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은 자신의 아버지는 부재한 아버지가 아니라 “구리 가디구두 금을 만들”(43면) 수 있는 절대적 능력의 아버지라고 믿는 업동이 의식<sup>19)</sup>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가상의 아버지를 내세워 어른 세계의 경계를 넘고 있으며, 진짜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환상으로 자신의 보호막을 만들고 있다. 「예행연습」의 ‘나’를 비롯한 아이들은 부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박애 고아원에 이틀 동안 고용되어 거짓 고아의 역할을 해낸다. 이들은 긴장된 면접시험에서 합격하여 ‘원아’가 되는데, 이는 “열망과 같은 기대, 오랜동안 참으로 오랜 기다림, 그러면서도 손아귀에 느껴지는 끈적끈적한 땀과 기대를 저버린 꾸겨진 결말에 익숙해져 있”(127면)는 아이들에게 믿기 힘든 행운으로 느껴진다. 일당 500원을 받고 이틀 동안 원아로 고용된 이들은 고아원의 원가를 연습하고, ‘박애 고아원’이라는 글씨가 인쇄된 유니폼을 지급받으며, 외국인 후원자들에게 보여줄 행진을 연습한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집단에의 소속감과 연대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되는데, “우리의 꿈이요, 고향인 우리들 새로운 집단의 노래, 박애 고아원의 원가”(134면)는 이들 “뇌리의 공허하고 빈 공간”(135면)을 충만하게 만들고 있으며, 반복되는 훈련은 “잔인하고도 우울한 쾌감”(145면)을 주는 것이다.

우리들의 그 행진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단돈 오백원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딱히 모른다. 그저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느끼는 결국엔 나 혼자라는 의식 세계 밖에서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145면)

그리고 계속된 훈련은 돈을 넘어서 연대감에 대한 열망을 심어준다. 즉 더 큰 범주의 가정이자 국가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박애고아원은 아이와 성인의 경계에 놓인 이들을 원아로서 호명하여 규율화시키고 있으며<sup>20)</sup>, 이 과정에서 아이들을 가상의 집단에서 소속감을 확인하고 그 세계의 질서에 동일화한다. ‘나’는 분대장이 되어 이 가상의 집단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외국인 후원자의 방문 취소로 책임자는 도망가 버리고 약속된 일당도 받지 못한 채 다른 아이들의 분풀이 대상이 되고 만다. 「처세술개론」에서 ‘나’는 어른들의 처세술을 연기하는 것에 실패한 후 눈물을 흘리지만, 아버지의 인정에 다시 충만함을 느낀다. 그는 조숙한 아이의 시선으로 어른들의 세계가 가진 허위와 위선을 비판하지만, 아버지의 인정을 통해 다시 아버지의 질서에 동일화하는 것이다. 「모범동화」의 조숙한 아이 역시 어른들의 질서를 조롱하고 그들의 속임을 폭로한다는 점에서 반동일화의

19) 마르트 로베르는 프로이트의 『신경증 환자의 가족소설』에서 말하는 ‘가족소설’을 바로 이 거짓말의 원형으로 보고 있다. 어린아이에게는 의식적이고 정상적인 어른에게는 무의식적이며 신경증 환자에게는 집요하게 나타나는 가족소설이란 두 가지 단계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가 업동이(enfant trouve)이고 다른 하나가 사생아(bâtard)이다. 업동이는, 자기의 부모가 절대적인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평민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진짜 부모로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자신의 진짜 부모는 왕족으로서 언젠가는 자기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이야기를 꾸민다. 사생아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성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지만 아버지는 현재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아버지를 부인하는 단계다. 따라서 소설을 쓰는 방법에는 이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한 마르트 로베르는, 사생아의 방법이 사실주의적 방법으로서 세계를 정면으로 공격하면서도 세계를 도와주는 것이고 나르시시적인 업동이의 방법이 지식도 없고 행동능력도 없어서 세계와의 싸움을 교묘하게 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르트 로베르,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 김치수·이윤옥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1, 39면.)

20) 우향우와 좌향좌를 모르던 아이들이 반복 훈련에 의해 통일성을 갖추는 모습은 푸코가 말한 권력 앞에 유순하고 유용하게 “길들여진 몸”을 보여준다. 국가는 감옥, 군대, 학교, 병원, 공장, 회사 등의 모든 장소에서 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일련의 모든 기법을 총동원하여, 몸이 갖는 효율성을 최대한 진작시키는데, 푸코를 이를 ‘규율’이라고 명명한다. (윤평중, 「푸코: 주체의 계보학과 윤리학」, 윤효녕 외, 『주체 개념의 비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172면 참조.)

모습을 보이지만, 그 방법은 어른들의 위선을 흉내낸 것이기에 동일화된 주체의 모습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반동일화는 동일화와 대칭을 이루면서 여전히 지배적 담론의 동일한 구조를 지속시키는 것이다.<sup>21)</sup> 결국 최인호의 어린 화자들은 어른보다 더 위악적인 면모를 통해 거짓과 부조리로 가득한 아버지의 질서를 거부하고 조롱하려는 욕망을 드러내면서도, 그 내면에는 아버지의 인정을 통해 어른의 세계에 완전히 편입되기를 원하는 동일화에 대한 양가적 욕망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 3. 비동일화와 불안정한 가능성

최인호 소설의 아이들이 성인과 아이의 경계에서 ‘아버지’라는 기성세대의 질서에 동일화와 반동일화의 양가적 욕망을 보이고 있다면, 최인호의 성인들 역시 순응과 저항의 경계에 놓여 양가적 욕망을 품고 있는 인물들이다. 어린 화자의 경우 제한된 시각으로 어른들의 위선과 거짓을 단편적인 상황 내에서 관찰한다면, 성인 화자들은 자본주의로의 급격한 경사와 유신이라는 정치적 억압이 주는 1970년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부작용 등을 폭넓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도시 공간과 개인의 소외 문제, 정치적 억압과 자유의 문제, 경제적 부흥과 배금주의 사상에 따른 물질주의와 가치 전도의 문제 등을 표면적이거나 암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 1) 청년 세대의 부정적 세계 인식과 회의(懷疑)

초기 그의 소설에는 아이들의 성장형이라 할 수 있는 청년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불안정한 세계에 중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경계적 성향을 보인다. 「침묵의 소리」(1971)와 『내 마음의 풍차』<sup>22)</sup>는 이십 대 초 화자들을 내세워 위선적이고 강압적인 기성세대에 대한 증오를 드러낸다.<sup>23)</sup> 「침묵의 소리」의 ‘나’는 스물 두 살인 자신에게 강요되는 국가 및 가정의 질서에 반감을 갖고 있다.

나는 차라리 이놈의 나이라는 게 일년이 하루같이 빨리 가서 마흔살쯤 처먹었으면 좋겠다 구 생각했었거든. 왜냐구. 우리 나이 댐 지지리도 강요되는 게 많아. 좀 우리를 가만히 내 버려 두면 누가 때린대. 이걸 잠시도 참지 못하고 닦아 세우는 거야. 머리가 기니 머리를 깎으래, 나이가 찼으니 군대에 가래, 까짓것 군대 가서 뺏다나 실컨 맞구 올라 해도, 가기 전에 하다못해 한달에 한번쯤 면회 올 수 있는 자가용 계집애라도 만들어 놓구 가야 할 게 아니야. 그뿐인 줄 알아. 집에서는 집대로 지랄 발광인 게야. 야, 야, 그만큼 없는 돈에 공부시키고 하루 세끼 처먹었으면 밥값 하라는 거지. 말이야 쉽지. 허지만 무얼 가지고 밥값을 해. 뭐가 있어야 밥값이구 떡값이구 할 게 아냐. 엄살 피우지 말라구? 엄살 사랑하 시네. 이봐, 요 거리에서 뽕뽕이 장사하려두 자본이 있어야 하는 거야. 공짜로 돈 버는 일은 거리에서 돈 쫓는 일이거나 남의 돈 훔쳐내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거야 어디 쉬운 일 인가.<sup>24)</sup>

21) 알튀세의 ‘복종’과 ‘거부’, 페쇠의 ‘동일화’와 ‘반동일화’는 모두 이데올로기에 의해 결정된, 이데올로기가 있음으로써 가능한 이데올로기의 효과라는 점에서 동일화 구조를 지속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2) 『내 마음의 풍차』는 1972년에 중앙일보에 연재한 장편소설로서 1975년 단행본으로 출판된다.

23) 형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최인호의 『내 마음의 풍차』, 「침묵의 소리」, 「정원사」 세 편은 영화 <어제 내린 비>(1975)로 각색되기도 하였다.

24) 최인호, 「침묵의 소리」, 앞의 책, 182~183면.

국가와 가정은 젊은이들이 용모단정하고 건강한 국민이자 가정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를 강요한다. 그러나 ‘나’와 동생은 어른들의 규제에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차라리 강요가 없어지는 마흔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이들은 자신들을 규율화하려는 기존 체계와 질서에 위악으로 맞선다. “위에 계장 있고, 과장 있고, 부장 있고, 상무 있고, 전무 있고, 사장 있는 회사”(184면)에 다니며 윗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구역질이 나는 것이며, 고생해서 이윤이 얼마 안 남는 장사를 해 저축으로 돈을 모으는 것도 싫다. 이들은 콘티넨탈 양복 하나 못해 입히는 가난한 부모를 욕하며, 파이프 장사를 하거나 부잣집 무남동녀를 겁탈하는 등의 ‘일확천금’을 버는 방법을 궁리할 뿐이다. 갓 성년에 진입한 이들은 ‘와우 아파트 붐피’ 등으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의 부정부패와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강한 혐오를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이미 그 자본주의에 침윤되어 성실하게 일하기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며, 물질적 소비생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콜라병 수집이나 우산 달린 파이프 장사를 계획하지만 그 과정이 귀찮아 포기하는데, 이는 기다리지 못하고 과정 없는 완제품만을 원하는 시대 풍토를 반영한다. 그리고 세속화된 욕망을 쫓던 형제는 여관에서 여자들의 돈을 훔쳐 도망가면서 억지 구토를 한 후 “텅빈 뱃속과 같은 공허와 비애”, “정말 더럽고 치사한 비애감”(202면)을 느낀다. 이러한 구토는 속화된 자신들에 대한 강한 혐오의 표현이자 세계에 대한 부정의식의 표출이다. 결국 동생은 자전거를 타고 한강까지 질주하다 차에 부딪혀 죽음을 맞이한다. 그의 죽음은 청년 세대의 성장에의 거부이자 세계의 질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다.

『내 마음의 풍차』는 위악으로 세계를 속이던 김영후가 아버지의 세계에 진입하여 균열을 일으키는 것을 다루고 있다. 화자인 첩의 아들인 영후는 공부 잘하는 “명랑하고 즐겁고 유쾌한 녀석”, “잘사는 막내아들”<sup>25)</sup>을 위장하고 있지만, 그 내부에는 “독버섯처럼 질긴 내 마음속의 독소를, 증오”와 “쥐의 앞니처럼 자라나는 독아(毒牙)”(71면)를 품고 있다. 그는 음습하고 독기어린 악마주의를 일탈적 도벽과 어머니에 대한 욕망 등으로 해소하면서, 비정상적 가정과 세계에 대한 적의와 경멸을 표출한다. 그는 최인호 소설의 다른 아이 화자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찾기’의 여정을 떠나는데, 그 탐색은 ‘아버지’를 찾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훑으러 떠나는”(49면) 여정, 즉 아버지의 질서를 훑치는 ‘도둑여행’이다. 그는 ‘쌍말과 술주정’을 서슴지 않는 천박한 친어머니와 달리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모범 어머니상 같은 훌륭한 여인”(57면)인 새어머니에게 착한 아들을 연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이 집의 구석구석을 떠도는 냉랭하고도 근엄한 분위기”(63면)를 훑치고자 한다. 즉 견고하고 근엄한 아버지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영후는 세 살 때의 사고 이후 유아적인 순수함의 세계에 머물고 있는 이복동생 영민에게 도벽과 성매매 등의 일탈을 가르치며 동생을 자신의 ‘분신’으로 타락시켜 간다.

이들은 부패한 세계를 위악으로 맞선다는 점에서 어린 화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아이들이 아버지의 세계에 대한 강한 동일화를 보이는 데 비해, 아버지의 세계에 대한 반감과 저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적 청년 화자는 청년 화자들은 점점 기성세대의 질서에 진입하면서 성인으로서의 자세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초기작인 「미개인」(1971)은 최인호의 작품 중 폭력적인 세계에 대한 저항의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작품이다. 이 소설은 1969년 4월 성동구 대왕국민학교 재학생

25) 최인호, 『내 마음의 풍차』, 여백미디어, 1999, 20면.

8백여 명과 학부모들이 내곡동 나환자촌인 에팅저(Ettinger)마을의 미감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없다고 등교거부를 했던 실제 사건을 형상화한 것이다.<sup>26)</sup> 이 사건은 국가 주도적 근대화와 경제개발의 논리에 따라 자본주의의 욕망을 내면화한 개인들의 집단적 욕망과 이기주의를 보여준다.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남서울 근처 어디쯤으로 최근에는 비로소 서울시에 편입된”<sup>27)</sup> S동으로, 고속도로 옆에 위치해 있어 “이곳 주민들은 모두 하룻밤 자고 일어날 때마다 뛰어오르는 땅값에 반쯤 혼이 나가서 모두들 앞니 빠진 유아 같은 얼빠진 표정을 하고” 있다. 즉 이곳은 1970년대 초반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도시 개발과 땅값 상승이 본격화된 지역으로, 도시개발과 개인들의 자본주의의 욕망이 결합된 부동산 투기 열풍을 반영한 곳이다. 소설의 갈등은 ‘셋강 건너에 사는 음성 나환자 마을’의 분교에 수용되어 있던 아이들 열두 명이 외국인 선교사의 탄원으로 본교에 편입되면서 벌어진다. 이들은 나병에 감염되지 않은 ‘미감아’들임에도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병균을 지니고 있는 공포의 대상으로 인지되며, ‘문둥이들은 면도칼로 심장을 파먹는다’, ‘눈썹이 없다’는 편견을 재생산한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미감아 추방을 위해 등교 거부라는 집단적 행동을 하고, 이를 반대하는 ‘최선생’과 미감아 아동들에 대한 폭력 행위 역시 서슴지 않는다. 소설의 화자인 최선생은 땅값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자본주의적 욕망과 실질적인 소수를 배제하는 집단이기주의, 다수의 폭력을 야기하는 거짓 민주주의 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수의 폭력에서 아이들이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인호 소설 중 드물게 행동하는 적극성을 띤 인물이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미감아 아이들의 담당 교사인 정선생의 태도이다.

요즘 배운 놈들은 소위 인텔리라는 놈들의 머릿속엔 허허허 최선생이나 나 같은 나약한 인텔리는 제쳐놓고 이야기합시다. 스카치 테이프만 들어 있는 셈이요. (중략) 우리는 저주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는 셈이요, 우리는 지금 오로지 까뭉개고 부수고, 가진 것을 박살 만들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소. 그런데 그런데 말이요. 우스운 것은 일단 부셔놓은 것은 추린단 말이요. 부술 때는 언제고, 그것을 파편 조각을 들고 올 때는 언제냐 말이요. 그리고는 스카치 테이프로 합리화를 시키거든. 일단 부셔진 것을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댔자, 이미 견인력이 상실된 것이 붙여지겠소. (중략) 이 거리를 떠나시오. 내가, 나이먹은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요. 그것은 웹니까. 나는 큰 소리로 반문했다. 최선생은 이 거리에 어울리지 않아. 이 거리에 존재하는 것들 뿐이란 맹목적인 파괴자나 나 같은 맹목적인 방관자에 불과하오. 난 최선생이 무서워. 무서워 죽겠소. (221면)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는 정선생은 폭력적인 다수의 집단뿐 아니라 그것에 저항하려는 최선생 역시 무서운 존재로 인지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것을 부수는 것은 어떠한 대안이 되지 못함을 깨닫고 있으며, 최선생의 저항이 불려올 또다른 폭력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선생의 이러한 태도는 최인호 소설의 대다수의 인물이 취하고 있는 경계적 태도이다. 이는 저항으로 세계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아버린 기성세대의 입장이며, 이미 세계의 질서를 꿰뚫고 있다고 생각하는 ‘조숙한’ 최인호의 인물들이 느끼는 회의이다. 결국 「미개인」에서의 적극적인 저항의지는 이후 다른 작품들에서 잘 드러나지 않으며, 세상을 일찍 깨달은 청년 화자들은 대부분 비판적으로 인지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방관자적 태도를 견지한다.

26) 송은영, 앞의 글, 118면.

27) 최인호, 「미개인」, 『타인의 방』, 예문관, 1973, 205~206면.

『무서운 복수』(1972)의 ‘최호준’은 현역 군인을 교련 수업에 투입한 정부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학생 데모에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데모대의 주동자인 오만석에게 ‘반대성명서 작성’을 부탁받지만, 결국 그 부탁을 거절하고 만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성명서를 쓰는 것으로 어찌면 내가 그러한 학생운동 따위에 본의 아니게 말려들어갈지 모른다는 것이요, 둘째는 그리하여 어떤 화가 미칠지도 모른다는 소극적인 공포감 때문”<sup>28)</sup>이다. 그는 군복무 당시 김하사의 ‘빨랫감’ 상자를 들어준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상자 안에는 빼돌린 군 위문품이 가득했고 이 사건의 공범으로 몰려 ‘똥통 사역’까지 하게 된 일이 있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결백을 밝히고 항의하지 못한 자신을 “똥처럼 비열한 자식”(226면)이라며 혐오하지만, 이 체험 이후에도 저항하기보다는 “남에게 말려 들어가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으로 행동을 망설인다. 이러한 회색인적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이용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이며, 교묘한 세상의 질서를 일찍 알아버린 ‘애늬은이’의 태도이다. 그는 교수와의 대화에서 ‘현역 교관 반대’라는 데모는 핑계에 불과하며, 곧 강경한 진압이 발생하면 구호를 ‘교련 철폐’로 바꾼 더 큰 규모의 데모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스물일곱의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이전 피기도 전에 늙어버린 기분이에요.”(251면)라고 말하는 최호준의 세계 인식은 폭력이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권력에 의해 이용되기도 한다는 불안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데모가 수그러든 이유로 학생들에게 은밀히 전해지는 얘기가 있었다. 즉 국가에서 어느 정도 데모를 봐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로는 데모가 자주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국민에게 어떤 불안의식 같은 것이 형성되어 오히려 선거 때 여당에게 유리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한편 젊은 층들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부동산인 젊은 층 표를 깎아먹게 되니까 가만있었지 일단 선거가 끝난 후엔 데모를 강경하게 막을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던 것이다. (257면)

실제로 과격했던 데모는 자연스럽게 수그러들고 그 이면에는 진위를 알 수 없는 ‘은밀한 소문’들만이 떠돈다. 결국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데모라는 적극적 행위 역시 권력에 의해 은밀하게 조정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또 폭력적 저항이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회의는 최호준을 방관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복수(複數)’의 연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조시대의 아름다운 낭만, 황진이의 행각을 그야말로 탐미적인 분위기로 그려보겠다는 크나큰 욕망”(258면)으로 소설의 집필에 매달린다. 즉 민중의 저항이나 연대를 통한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아름다움’과 ‘에로스’라는 인간 본연의 욕망에 천착하게 되는 것이다.<sup>29)</sup>

세계의 체계 및 지배적 담론의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응시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청년 인물들은 ‘비동일화’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폐쇄는 대칭을 이루며 서로를 보완하는 ‘동일화’와 ‘반동일화’ 개념 외에 ‘비동일화’라는 제 3의 양식을 가정하는데, 이 ‘비동일화’는 이데올로기 종속의 지배적 실천에 ‘편승하는 동시에 저항하는’ 작업의 결과로 기술한다. 비동일화는 지배적 이데올로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정체성과 동일화가 완전히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지만, 변형되고 치환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sup>30)</sup> 최인호의

28) 최인호, 『무서운 복수』, 『황진이』, 2002, 215면.

29) 한수영은 주인공 ‘나’ 동시에 소설가 최인호가 모색하는 진정한 욕망의 승화가 바로 ‘에로스’를 통한 인간의 비적대적 연대로부터 가능해지며, 『황진이』에 대한 소설은 ‘에로스’를 통한 세계와의, 그리고 무수한 ‘타자’들과의 진정한 화해의 기대라고 분석한다. (한수영, 앞의 글, 310면)

청년 주체들은 지배적 담론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주체 형성 과정을 거치지만 변형과 전치를 통해 비판적인 새로운 주체 형성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주체는 폐쇄가 주장한 ‘이데올로기적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동일화로 보기에는 불완전한 측면 역시 지니고 있다.

## 2) 새로운 아버지 되기와 도피의 욕망

타락한 세계의 질서에 저항하거나 비판적인 회의를 품고 있던 청년들은 성년 이후 본격적으로 세계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최인호의 아이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탐색의 여정을 보인다면, 청년 인물들은 스스로 ‘새로운 아버지 되기’를 시도함으로써 어른의 세계에 진입하려 한다. 물론 「침묵의 소리」의 동생처럼 기성세대로의 편입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도 하지만, 화자인 ‘나’는 동생을 죽음의 바탕으로 내적인 성장을 하고, 어른의 세계에 다가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나’는 동생이 죽음을 통해 그토록 알아내고 싶어한 “한줌의 밝은 진리”(203면)를 찾았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의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침묵의 소리」와는 달리 『내 마음의 풍차』에서는 영후가 자신만의 통과제의를 거치며 성공적으로 어른들의 세계에 진입하는 것을 보여준다. 일탈을 통해 아버지의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던 영후는 ‘어린 갈보’로 생각했던 명숙의 순결함을 확인 후 후 명숙을 영민에게 주어버리는 위약까지 저지름으로써 진실한 사랑 역시 외면하려 한다. 그러나 그는 폐쇄적인 유아기적 세계를 깨고 나오는 동생의 모습과 명숙의 사랑으로 세계에 대한 반항을 멈추게 된다.

불어가는 바람이 내 가슴속으로 쏟아져 들어와 내 마음속의 조그마한 풍차를 세차게 움직일 거야. 그리하여 풍요한 곡식을 찢고 있겠지.  
내가 만드는 허위, 거짓말, 뻔뻔스러움 모두를 풍차 속에 집어넣어 보석처럼 찬연한 곡식을 만들어내고 있을 거야. 그것이 있는 한 나는 외롭지 않다. (270면)

그는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동생의 순수한 꿈의 세계와 명숙의 사랑의 세계에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명숙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버지의 집을 떠나 다시 어머니의 세계로 돌아간다. 친모 집으로의 귀환은 상상계로의 회귀가 아니라 통과제의를 거친 어른으로서의 귀환이다. 그는 어머니의 집으로 명숙을 부름으로써 자신의 가장됨을 알리려 하는 것이다. 즉 영후의 성인식이 아버지의 질서에 대한 완전한 순응이 아니라 ‘새로운 아버지 되기’라는 자신만의 입사(入社)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지배적 담론에 동일화와 반동일화를 거쳐, 순응하지만 변형과 전치를 통해 자신만의 세계,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비동일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영후의 입사구조는 부정한 기성세대를 변화시킬 새로운 청년 세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청년 인물들은 스스로 ‘새로운 아버지 되기’를 시도한다. 최인호 소설에는 낭만적 사랑과 안락한 가정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주체의 아버지 되기라는 과제를 살펴볼 수 있다. 「전람회의 그림1-잠자는 신화」(1972)는 설화나 민담에 자주 등장하는 ‘구혼 모티프’, 즉 주인공이 비범한 인물과 결혼하

30) 다이안 맥도넬, 앞의 책, 62~63면.

기 위해 몇 개의 난관을 통과해야 한다는 화소(話素)를 차용하고 있다.<sup>31)</sup> 서른다섯의 ‘나’ (김영호)는 백사십 센티미터를 간신히 넘는 키와 사십 킬로그램이라는 왜소한 체격에 열등 의식을 느끼고 있어 “아내 자격 제1조는 나의 두 배쯤, 허락된다면 세 배쯤 되는 여인이 어야만 한다고”<sup>32)</sup> 생각한다. 그는 프로레슬링 경기장에서 키가 백구십이 센티미터를 상회 하는 이상형의 여인 오유미를 만나는데, 거대한 대지모신적 풍모를 보이는 유미는 자신이 낸 세 가지 관문을 넘어야만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말한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신체를 가진 배필을 찾고, 결혼하기 위해 여인이 내는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신라 지철로왕의 설화, 고대 스팅크스의 세 가지 수수께끼 풀기와 비슷하다. 이 세 가지 관문 중 첫째는 힘 자랑(사백 미터를 일 분 오초 이내에 뛰어 오는 것), 두 번째는 철든 후 한 번도 웃지 못한 의사 오빠를 웃기는 것이다. 그는 두 번째 관문을 넘은 보상으로 유미와의 정사를 치르는데, 그 후 자신의 남근이 사라져버린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다시 찾아오라는 세 번째 과제를 받게 된다. 성기를 찾아헤매던 ‘나’는 박물관에서 “오랜 세월이 지난 흔적처럼 푸른 청동색 녹까지 슬어”(149면) 박제되어 있는 자신의 성기를 발견하게 된다. 이 작품은 웃는 방법을 학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장면이나 ‘신화’가 된 남근을 박물관에서 발견하는 장면을 통해 잃어버린 인간의 원초적 욕망과 문명에 억눌린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을 당시 정치 상황과 연결시킨다면 ‘남근 상실’과 ‘웃음’이라는 프로이트적 모티프들을 통해 1972년 유신으로 표상되는 ‘정치적 억압’의 현실과 그 정치적 금기를 깨뜨리고자 하는 아슬아슬한 ‘위반의 욕망’을, 리비도의 차원으로 확장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sup>33)</sup> 그러나 이 작품을 ‘새로운 아버지 되기’의 입사구조에 대입해 본다면 김영호는 입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술집』의 아이가 부재한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오래 전 신화가 되어 버린 자신의 남근으로 인해 애초에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없는 결핍의 상태였던 것이다.

최인호 초기 소설의 남성인물들은 ‘남근 상실’로 구혼에 실패하거나 「타인의 방」, 「전람회의 그림2-아내 이야기」에서처럼 가정을 꾸린 후 아내의 부재 혹은 자신의 부재를 겪으며 입사구조 진입에서 장애를 겪는다. 그리고 『별들의 고향』의 문오나 「돌의 초상」의 ‘나’처럼 애초에 결혼을 미루는 형태로 ‘아버지 되기’를 거부하기도 한다. 『별들의 고향』은 미술대학 강사 김문오가 경아의 시체를 인수받는 것으로 시작하여 경아를 화장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회고식 구성을 띤다. 서른이 넘도록 첫사랑 혜정에게 고백을 하지도,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지도 못한 채 시골집에서 부치는 돈으로 무절제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상징계적 질서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한 ‘만숙(晩熟)’ 혹은 ‘미숙’의 상태이다. 어린 화자들이 지나친 조속으로 어른의 세계의 경계에 있었다면, 문오는 성인으로서 성인의 세계에 정상적 진입을 거부하는 실패하는 경계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는 자신과 비슷하게 ‘미숙’의 상태인 경아에게 실패한 자신을 투사하고 있으며, 자신의 ‘외로움, 슬픔, 고독, 권태, 초조함’등을 배설한 후 자신은 상징계적 질서에 진입할 힘을 얻고 있다.<sup>34)</sup> 그는 경아를 버린 후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화가로 성공하며 대학 강사로 자리를

31) 한수영, 「억압과 에로스」, 최인호 『황진이』, 문학동네, 2002, 300면.

32) 최인호, 「전람회의 그림1-잠자는 신화」, 위의 책, 54면.

33) 한수영, 앞의 글, 301면.

34) 나의 외로움, 나의 슬픔, 나의 고독, 나의 깊은 권태, 내 곁에 빛어지는 모든 욕욕과 끓어오르는 환락에 대해서 나는 끊임없이 초조해하고, 기웃거리고,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조그만 나의 경아에게 나의 모든 초조

잡게 된다. 『돌의 초상』의 사진작가 ‘나’ 역시 연인의 요구에도 결혼을 거부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는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인인 경희가 가진 아이를 낙태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아버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는 동정심에 치매 노인을 집에 데리고 오지만 이내 부담을 느끼고, 노인을 경희에게 떠넘겨 버린다. 경희는 노인을 자신의 아이처럼 극진하게 보살피는데, 이를 통해 ‘나’의 아파트는 새로운 ‘가정’이 된다. 그러나 그는 치매에 걸린 노인의 행동에 짜증을 느끼고, 채집했던 수석이 무거워 중도에 버리는 것처럼 노인을 명동 성당 앞에 버림으로써 다시 책임을 회피한다. ‘나’는 노인의 따뜻한 손에서 ‘용서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연민과 죄의식을 느낀다. 이러한 연민과 죄의식은 ‘나’를 책임감 있는 주체로 변모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별들의 고향』과 『돌의 초상』은 상징계적 질서에 진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성인 화자를 등장시킨다. 이들은 각각 미숙한 ‘경희’와 ‘노인’이라는 타자를 통해 자신의 미성숙을 반성하고 어른의 세계에 진입할 준비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끝내 ‘책임’에 대해서는 도피의 욕망을 드러낸다. 문오는 알코올중독으로 추하게 훼손된 경아를 다시 만나지만 편지와 돈을 남긴 채 쫓기듯 그 집을 빠져나오며 “돌아봐서는 안돼, 돌아봐서는 안돼. 나는 돌아보면 마치 선 자리에서 돌이 되어버리는 듯한 느낌”(하권, 585면)을 받는다. 『돌의 초상』의 ‘나’ 역시 노인을 버리며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sup>35)</sup>라고 중얼거리면 언덕길을 곤두박질쳐 내려간다. 즉 이러한 도피의 욕망은 방관자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는 청년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가능성만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기존 질서의 모순과 타락에 비판의 시각을 드러내지만 ‘새로운 아버지 되기’를 통해 그 부정한 세계를 바꾸기보다는 ‘연민’으로 자신의 책임에서 도피하며 속화된 주체로 변모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 4. 나가며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

함을 그녀의 섹스 속에 사정해 버리듯 털어놓고, 나는 본래의 나로 돌아가려고 천연덕스러운 친절과 적당한 웃음을 연기하고 있을지 모른다. (최인호, 『별들의 고향』하, 동화출판공사, 1985, 468면)  
 35) 최인호, 『돌의 초상』, 『돌의 초상』, 문학동네, 2002, 218면.

#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저학년을 위한 자기소개서 쓰기’ 수업 방안 고찰

한승우(중앙대학교)

## 1. 들어가며

대학 글쓰기 교과에서 실용적 글쓰기의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력서 쓰기’와 ‘자기소개서 쓰기’이다. 그러나 대학 글쓰기가 대개 1학년 공통 교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대학 생활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원 분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소개서 쓰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고학년들에게는 대학생활을 관통하면서 노력해 왔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자기소개서 글쓰기가 필요하지만, 저학년에는 ‘자기’에 대한 탐색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저학년 자기소개서 쓰기와 고학년 자기소개서 쓰기는 그 성격과 목적을 달리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학년의 자기소개서 쓰기 수업은 소재가 마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쓰기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선행 연구<sup>1)</sup>에서 저학년의 자기소개서와 고학년의 자기소개서가 분리되어 고찰

1) 자기소개서 관련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정리 할 수 있다.

### ① 자아 발견의 측면에서 본 연구

최규수, 「대학 작문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글쓰기의 현실적 위상과 전망 : 대학생에게 자기 성찰의 글쓰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문제」, 『문학교육학』, 제18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박현이, 「자아 정체성 구성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32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6.

김근호, 「서사 표현으로서 자기 소개서 쓰기의 본질」, 『작문연구』, 제10집, 한국작문학회, 2010.

### ② 대학 글쓰기 차원에서의 연구

나은미,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자서전과 자기소개서 쓰기 연계 교육 방안」, 『화법연구』, 제14호, 한국화법학회, 2009.

이승후, 「대학의 실용적 글쓰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새국어교육』, 제 83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오선영, 「자기소개서 쓰기와 대학생의 정체성-교육적 함의(含意)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 ③ 기타 : 대학 진학용 자기소개서 연구

서종훈,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한 연구」, 『새국어교육』, 제80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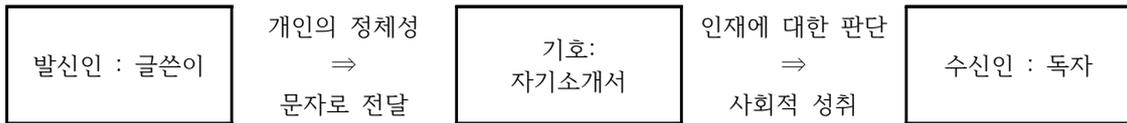
오택환, 「자기소개서 쓰기 활동에서 동료 상호 평가의 양상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43집, 국어교육학회,

되어야 한다는 지적<sup>2)</sup>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는 사이, 고학년에게 필요한 취업용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은 선택 교양 수업이나 각 학교에 마련된 취업 관련 부서의 특강 및 전문 컨설팅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되고 있다. 하지만,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소개서는 강사들의 개인 역량에 맡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목적으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소개서 쓰기의 수업 모형을 만들고, 이것을 실제 수업에 도입하여, 그 결과의 유의함을 밝혀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1학년 대학 공통 교양 수업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저학년 대상의 자기소개서 수업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연구에서 설정된 수업 모형과 자기소개서 쓰기 방법은 C대학교 글쓰기 수업을 듣는 1학년 학생들<sup>3)</sup>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수업의 결과와 학습자들의 반응을 통해, 그 실효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 한다.

## 2. '자기'에 대한 탐색과 '나'에 대한 글쓰기

자기소개서 쓰기에서 '자기'와 '소개'의 개념은 분리해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에 대한 측면은 학습자 '개인'의 정체성과 잇닿아 있는 부분이고, '소개'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독자(혹은 청자)'와 잇닿아 있는 부분이다.



이상과 같이 자기소개서는 문자라는 기호를 매개로 전달되고, 또 전달받는다. 학습자는 자기소개서의 글쓴이면서 동시에 글의 주인공이 된다. 이러한 자기소개서의 목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적합한 인재임을 납득시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우선 '자기'의 관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모색하고, 적절한 문자로 '소개'하는 것이 자기소

2008.  
한연희, 「분석질문을 활용한 자기소개서쓰기 지도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44집, 국어교육학회, 2012.  
김윤정, 「설득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쓰기 교수·학습 모형의 개발과 적용」, 『국어교육학연구』, 제 49집, 1호, 국어교육학회, 2014.

2) 나은미(2009)는 저학년 시기에 자기 성찰 목적의 자서전 쓰기를 통해, 개인의 삶을 성찰하고 성숙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조한다. 이런 자서전 쓰기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의 계획을 설정하여 취업 목적의 자기소개서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논지를 펼친다. 자서전 쓰기와 자기소개서 쓰기의 연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글쓰기 방법으로 활용될 소지가 많은 연구이다.  
또한, 이승후(2009)는 대학 글쓰기 교재에서 자기소개서 쓰기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분석하면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자기소개서의 역할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런 점에서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한 대학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학년과 고학년에 맞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을 강조하였다.

3) 이 연구의 수업지도안은 중앙대학교에서 글쓰기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2014학년 신입생들(85명)에 의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제시된 모든 수업 결과물들은 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완성했던 것이고, 설문 조사 역시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개서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소개서의 목표는 ‘자기’에 대해 깊이 있는 모색과 판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자기’를 알아가기 위해 MBTI 검사나, 직업흥미도 검사와 같은 다양한 척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이러한 심리학적 검사를 전문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친구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평소 자신에 대해 갖고 있었던 생각을 인터뷰 형식으로 들어보는 것도 좋겠고, ‘자기서사 글쓰기’ 혹은 ‘자서전 쓰기’ 등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자기’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질문들을 완성하는 것으로 ‘자기’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을 대신하였다. 이 질문지에 대한 답은 이후에 ‘커리어 로드맵 작성’하기에 사용될 질문이다.

<‘자기’ 성찰을 위한 커리어 로드맵 질문지>

<p style="text-align: center;"><b>‘나’는 누구인가?</b></p> <p><b>나는 이렇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름은? 전공은?</li> <li>• 가족에서 나의 위치는?</li> </ul> <p><b>나의 흥미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or 물건은?</li> <li>•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li> </ul> <p><b>나의 적성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의 나의 가장 큰 성취는 무엇인가?</li> <li>•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그렇다면, 내가 꿈꾸는 직업은?</b></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내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은?</p> <p style="text-align: center;">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 하는 것은?</p> <p style="text-align: center;">부모님이 바라는 나의 모습은?</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b>나의 SWOT 분석</b></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b>학년별 목표?</b></p> <p>1학년</p> <p>2학년</p> <p>3학년</p> <p>4학년</p>

‘자기’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소개’에 집중해야 한다. 자기소개서를 읽는 독자는 글 속의 주인공이 지원 분야와 회사에 적절한 인재인가를 글의 내용을 통해 타진한다. 이때 독자는 확실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글을 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합당한 인재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이것이 자기소개서가 결코 개인의 글쓰기 작업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설득의 글쓰기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다. 이제 자기소개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그것은 ‘자기’에서 ‘소개’로 나아가는 작업, 즉 ‘개인’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저학년들에게 자기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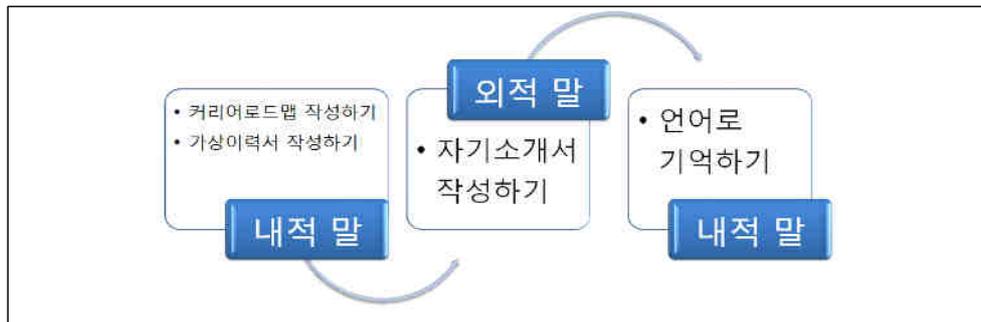
서는 개인의 정체성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탐색 되고,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을 고민하는 과정으로까지 나아가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자기소개서의 특성은 막연한 생각들을 언어로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비고츠키가 말한 생각과 말의 관계와 유사하다. 비고츠키는 “생각의 과정 자체가 사고에서 낱말로 이동하는 것에 기반한 발달”이라고 말한다. 자기소개서 쓰기 또한 자기에 대한 생각을 말로 풀어 재현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Vygotsky의 내적 말과 외적 말>4)

내적 말	→	외적 말
·언어에서 소리를 제한 것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는 말하기 ·자신을 위한 말하기	사고를 언어로 실현	·사회적 의사소통 ·사고가 단어로 전환된 것 ·타인을 위한 말하기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내적 말’은 자신을 향해 하는 말로, 소리를 내지 않는 말하기이다. 이것은 자기소개서 쓰기에서 ‘자기’를 탐색하는 개인적 작업에 해당한다. ‘외적 말’은 사고가 단어로 전환되어 타인에게 전달되는 말하기이다. ‘자기’를 글로 표현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업에 해당될 수 있다. ‘내적 말’에서 ‘외적 말’로 넘어가는 것은 개인의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자기 탐색을 통한 자기소개서 글쓰기는 다시 글을 쓴 독자 자신에게 내면화 되어, 미래의 이상과 결부된다. 이러한 자기소개서 쓰기의 과정은 비고츠키가 말한 “사고는 낱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낱말에 의해 성취된다”5)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글쓰기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기소개서 쓰기는 텍스트 완성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소개서 쓰기라는 행위를 통해 추상적이던 ‘나’를 구체화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자기’에 대한 분명한 모습이 완성되어야 한다. 요컨대 ‘자기’에 해당하는 추상적인 생각들을 언어로써 가시화 시키고, 다시 언어로 완성된 미래의 자기를 내면화 시키는 좋은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결국 저학년 자기소개서 쓰기는 취업을 하기 위한 수단 보다는 자기를 위한 탐색과

4) L.S. 비고츠키 씀·A. 코즐린 편집, 윤초희 옮김, 『사고와 언어』, 교육과학사, 2011년, 334~336쪽 참조.

5) L.S. 비고츠키, 배희철·김용호 옮김, 『생각과 말』, 살림터 2011, 584~585쪽.

미래를 위한 모색의 글로 보아야 한다. ‘자기’라는 막연한 개념은 글쓰기라는 수단을 통해 현실 감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자기소개서라는 글의 특성상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증명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저학년들은 사회적 자기 실현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자기소개서 쓰기 수업이 실행되었을 때, 진정한 ‘나’를 위한 글쓰기가 실현될 것이다.

### 3. 자기소개서 쓰기 교수·학습 모형과 적용 사례

대학 생활의 경험이 부족한 저학년들에게 처음부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소재가 없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라는 글쓰기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저학년 8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1.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부담감을 어느 정도 느꼈습니까?	① 매우 부담스러웠다.	6.8%
	② 부담스러웠다.	65.9%
	③ 그저 그랬다.	18.3%
	④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다.	6.8%
	⑤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2.2%
2.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부담감을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장래에 무엇이 되어야 할지 몰라서	13.6%
	② 지원 분야에서 요구하는 측면이 무엇인지 몰라서.	2.2%
	③ 나의 경험과 성취가 부족해서.	68.1%
	④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해서.	13.6%
	⑤ 소재를 어떻게 문장으로 표현할지 몰라서.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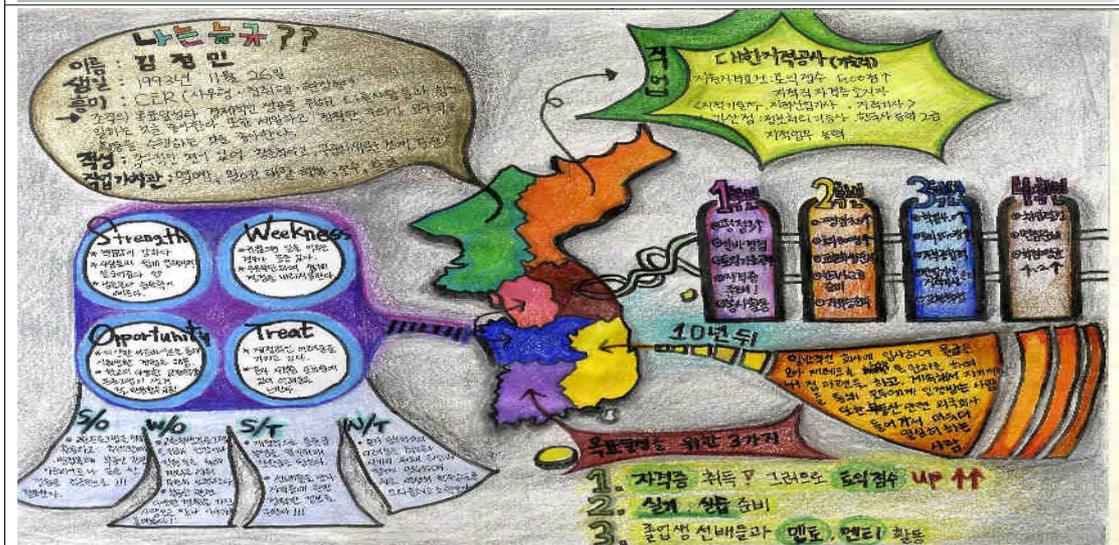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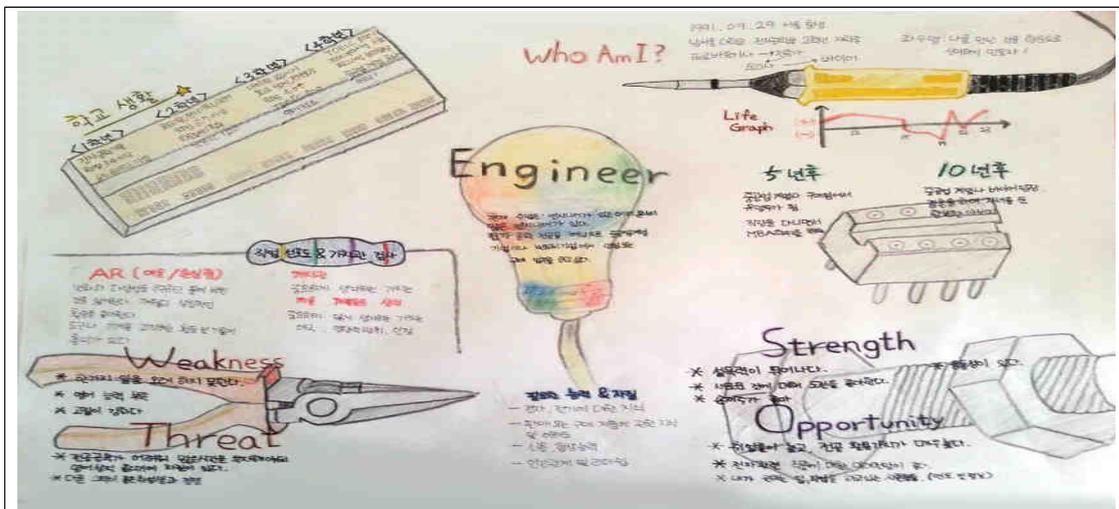
위의 설문조사와 같이, 학습자들은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상당부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의 원인은 ‘나의 경험과 성취가 부족해서’라는 소재의 측면과 ‘장래에 무엇이 되어야 할지 몰라서’라는 불명확한 진로에서 찾을 수 있었다.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해서’라는 답변은 이론 수업을 진행하기 전의 설문조사이므로, 이후에 이론 수업으로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재와 목적의 부재라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의 기술적인 측면을 논하는 것은 무리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저학년 자기소개서 쓰기의 수업 모형을 개발하면서, 커리어 로드맵과 가상 이력서 쓰기를 우선 배치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진로를 탐색한 후, 자기소개서 쓰기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 <저학년을 위한 자기소개서 글쓰기 교수·학습 지도안>

1주차 : 커리어 로드맵 만들기		
도입 (15분)	강 의	○출석 및 수업 분위기 조성 ○커리어 로드맵 질문지 작성 확인(지난 시간 과제) ○커리어 로드맵에 대한 형식 설명
전개① (40분)	실 습	○커리어 로드맵 만들기

		(키워드와 이미지 표현 모두 가능)
		휴 식 (10분)
전개② (25분)	조별 토론	○조별로 착석 후 자신의 커리어 로드맵 발표하기 ○자신이 속한 조에서 가장 잘 된 커리어 로드맵 선정
정리 (25분)	전체 발표	○조별로 선정한 커리어 로드맵을 스크린에 띄우기 ○작성자가 자신의 커리어 로드맵에 대해 간단히 발표
2주차 : 가상 이력서 만들기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도입 (5분)	출 석	○출석 및 수업 분위기 조성
전개① (45분)	강 의	○이력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강의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 성장배경과 성격의 장·단점 작성 방법 강의
휴식 (10분)		휴 식 (10분)
전개② (45분)	실 습	○가상 이력서 작성하기 ○자기소개서 일부 항목 작성: 성장배경과 성격의 장·단점 작성
정리 (5분)	정 리	○2주에 걸쳐 진행된 수업 내용 정리

<학생들이 작성한 커리어 로드맵 >





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력서를 처음 써 보는 학습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력서 작성에서 주의할 사항들을 간단히 강의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자기소개서는 기본 항목에 속하는 성장배경,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경력사항, 지원동기를 작성하도록 한다. 성장배경과 성격의 장·점은 500자 이하의 한 단락쓰기로 완성시킨다. 하지만, 학창시절, 경력사항, 지원동기는 현재 상태로는 작성하기 힘든 항목이므로, 간단한 포부 정도만 적도록 한다.

가상 이력서는 커리어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주어진 항목에 채우는 식이어서 학습자들은 매우 쉽게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성장배경과 성격의 장단점 역시 한 단락 쓰기로 부담감을 줄여준 덕분에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었다. 저학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분량이나 다양한 기교를 목표로 삼기 보다는 자신이 구상한 생각들을 글이라는 수단을 빌어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에 더 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 4. 나오며

본 연구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소개서 쓰기의 수업 모형을 만들고, 이것을 실제 수업에 도입하여, 그 결과의 유의함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이었다. 또한 대학 공통 교양 수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저학년의 자기소개서 쓰기는 고학년의 자기소개서 쓰기는 달라야 한다. ‘자기’에 대한 모색이 전제 되어야하고, 대학 생활을 설계해야 하는 숙제가 함께 해결 되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 로드맵과 가상 이력서 쓰기를 선행하게 하였다. 이런 작업이 밑바탕이 된 이후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었다. 이렇게 2주 동안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빠듯한 실습을 힘들게 진행하였지만, 자기소개서 쓰기를 통해, 진로 설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자기소개서를 쓰기가 자신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29.5%
	② 그렇다.	56.8%
	③ 보통이다.	9.0%
	④ 아니다.	4.5%
	⑤ 매우 아니다.	0.0%

이상과 같은 설문 결과로, 모든 학습자들에게서 좋은 결과만을 도출해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자기’를 알고 실현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수업의 의의를 두고 싶다.

마지막으로, 대학 교양 글쓰기 수업에서 자기소개서 쓰기와 같은 글쓰기 작업을 취업에 필요한 실용문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자기를 성찰하고 표현하는 글쓰기 작업으로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글을 쓰는 '자기'에 있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주체의 가치관이 선명할 때, 글을 읽고 쓰는 시선도 분명해질 것이다. '자기소개서 쓰기'를 '자서전 쓰기' 혹은 '자기 서사 글쓰기'와 같은 성찰적 글쓰기의 맥락에서 바라볼 때, 저학년의 자기소개서는 더 훌륭하게 완성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